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 연구

- <심청전> 이본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효 정

#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 연구

- <심청전> 이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종 철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김 효 정

김효정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 국 문 초 록

고전소설은 원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이본으로 존재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을, 수용과 창작을 연계된 활동으로 보는 문학교육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제안하였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이본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발생시킨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에 주목하여 이본 간의 변모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메타적 이해 활동이다. 이러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독자가 스스로 작품을 대화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전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청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화성’을 소설의 속성으로 본 바흐친의 논의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이에 근거하여 이본 파생이 작품이 제기한 화제에 대한 ‘말 걸기와 응답’의 구조, 즉 ‘대화’의 구조를 띠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대화적 이해의 원리로는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을 제시하고, 텍스트의 다성성에 대한 독자의 응답성이 고전소설의 이본을 파생시킨 동기임을 밝혔다. 특히 작자이기 이전에 독자인 개작자는 소설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에 대한 응답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양상은 <심청전>의 주요 인물인 심청과 심봉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심청 중심의 대화적 이해는 ‘이효상효(以孝傷孝)’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심봉사 중심의 대화적 이해는 ‘아버지다움’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심청전>은 심청이 효를 실행하면서 제기된 갈등, 즉 ‘이효상효’ 화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응답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본이 파생되었는데, 심청에 대한 응답성은 크게 인물에 대한 공감과 서사의 합리성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대화의 상상적 구성’, ‘인물의 소망 이해와 그의 충족’, ‘인물의 논리 강화와 인격의 세련’, ‘주변 인물 추가를 통한 세계의 변모’를 그 대화적 이해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심청전>은 효를 받는 대상인 부모의 자격을 둘러싼 ‘아버지다움’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독자들은 심봉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공감적 태도’라는 상반되면서도 공존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심봉사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모두 심청을 중심으로 한 대화적 이해의 화제, 즉 ‘이효상효’ 화제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청의 희생은 ‘색난’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독자들은 심봉사를 중심으로 이 ‘색난(色難)’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적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때 ‘부정적 태도’와 ‘공감적 태도’라는 심봉사에 대한 양가감정(兩價感情)은 심봉사의 개성을 창출하는 복합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던 긍정적으로 이해하던 ‘색난’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심청전>은 보상의 사전제시를 통해 갈등을 조정한다. 한편, 심봉사를 타매(唾罵)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일어나면서 심봉사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심청전>에 대한 대화적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설계하였다. 먼저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구도를 작품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향유층에 대한 이해로 제시하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이 ‘인물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고전소설의 속성에 비롯한 문학을 체험’하게 하며 ‘소설의 대화성과 소설 수용의 윤리성을 체험’하게 함을 논하였다. 이를 위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은 크게 주제와 인물을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내용은 공히 탐구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다성성과 응답성의 원리에 주목하여 대화적 이해의 내용을 구성해보고 이를 가치 평가하는 과정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고전소설이 제기하는 문제를 현재의 지평에서 이어받고, 그를 통해 자아 이해와 삶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 용어 : 대화, 대화적 이해, 윤리, 가치 평가, 응답성, 다성성, 고전소설교육, <심청전>, 이본

학 번 : 2008-30405

##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5
(1) 대화적 이해 관련 문학교육 연구사	5
(2) <심청전> 이본 연구사	13
(3) <심청전>의 주제와 구조 연구사	19
3. 연구 대상	26
4. 연구 방법	32
II.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35
1. 대화적 이해의 개념	35
(1) 대화의 관계적 속성	35
(2) 대화적 담화로서 소설의 이해	40
(3) 소설 속의 목소리와 대화적 이해	44
2.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	47
(1) 텍스트의 다성성	47
1) 대화화된 담화	47
2) 작가와 인물의 길항하는 목소리	54
(2) 독자의 응답성	62
1) 서술 변모와 응답성	63
2) 삽화 출입(出入)과 응답성	69
3. 독자의 응답성과 고전소설 이본 파생의 연관 관계	74
(1) 인물의 목소리 계발과 이본 파생	74
(2)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본 파생	81
III. <심청전> 이본 변모에 나타난 대화적 이해 양상	89

1. 심청 중심의 대화적 이해 양상 .....	89
(1) ‘이효상효(以孝傷孝)’ 화제에 대한 상이한 응답 양상 .....	91
1) 주제 변모를 통한 응답 .....	92
2) 주제 강화를 통한 응답 .....	97
(2) ‘효’를 강화하는 대화적 이해 양상 .....	106
1) 인물의 내적 대화의 상상적 구성 .....	106
2) 인물의 소망 이해와 그의 충족 .....	111
3) 인물의 논리 강화와 형상화의 세련 .....	117
4) 주변 인물 추가를 통한 세계의 변모 .....	124
2. 심봉사 중심의 대화적 이해 양상 .....	130
(1) ‘아버지다움’ 화제에 대한 상이한 응답 양상 .....	133
1) 부정적 태도에 기반한 응답 .....	133
2) 공감적 태도에 기반한 응답 .....	142
(2) ‘색난(色難)’ 화제에 대한 대화적 이해 양상 .....	146
1) 다성성을 통한 인물의 개성 창출 .....	146
2) 인물의 욕망 발견과 반감의 표출 .....	156
3) 보상의 사전제시를 통한 갈등의 조정 .....	161
4) 반성적 인식과 인물과 세계의 관계 변모 .....	166
IV.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설계 .....	177
1.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 .....	177
2.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의의 .....	181
(1) 인물과 주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획득 .....	181
(2) 고전소설의 속성에 기반한 문학문화에의 참여 .....	182
(3) 소설의 대화성과 소설 수용의 윤리성 경험 .....	184
3.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방법 .....	186
(1)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모형과 절차 .....	187
(2) 이본 비교 및 분석 활동의 위계화 원리 .....	189

4.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 .....	193
(1) 고전소설의 주제를 대화적으로 이해하기 .....	193
1) 화제 파악을 위한 텍스트의 담화 분석하기 .....	193
2) 응답성에 주목하여 주제 구성하기 .....	196
3) 전승사의 관점에서 구성한 주제 평가하기 .....	199
(2) 고전소설의 인물을 대화적으로 이해하기 .....	202
1)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인물 형상 파악하기 .....	203
2) 응답성에 기반하여 인물의 변모 파악하기 .....	204
3) 인물 형상화 변모의 윤리성 파악하기 .....	207
 V. 결론 .....	 209
 참고문헌 .....	 212
 Abstract .....	 219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고전소설교육에 있어서 이본의 가치에 주목하여, 한 작품군의 여러 이본을 함께 읽을 때의 교육적 효용을 논하고자 한다. 이본은 화자-청자-화자로 이어지는 대화와 같이, 이미 있는 이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이본에 대해서 대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본을 활용하여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경험을 대화적 이해로 지칭하고, 그 개념을 버리고 그 원리와 양상,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과 관련하여서는 작가와 관련한 자료보다는 독자의 전승과 향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으며, 고전소설의 독자는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읽은 소설을 이해한 결과를 반영하여 스스로 이본 개작을 하는 생산의 주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교육현장에서는 독자의 이해가 반영된 이본 간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교과서에 수록된 이본이 마치 유일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대 사회의 반영으로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작가가 밝혀져 있는 작품의 경우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따라 작품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학 해석은 일차적으로는 텍스트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이본을 읽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작품의 이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본 변모의 역동이 문학 해석의 한 양상으로 크게 주목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이본으로 존재하는 한 작품

1) 이본에 따른 작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고, 대표적 이본에 대한 해석을 작품군 전체로 일반화하여 교육할 때 각 이본 텍스트의 실상과는 다른 내용을 교육하게 된다. 예컨대 <흥부전> 연구는 인물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연구사의 대중을 이룰 정도로 흥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이러한 논쟁은 텍스트에 자체에 기원한 바가 컸는데, 경판 계열과 창본 계열에서 흥부의 면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흥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서인석, 「<흥부전> 인물 형상의 변모와 그 해석」, 문학과사회연구회 편, 『문학과 사회』,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를 참고할 것.

군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당대의 사회, 문화, 역사, 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단일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는 달리 집단적 저자성이라는, 즉 이본으로 이루어진 작품군으로 존재한다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고전소설의 일반적 존재 양상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고전소설교육에서 이본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학습자가 고전소설을 읽는 방법의 타성(惰性)과 관련이 있다. 고전소설의 경우는 독자들이 일종의 역사적 단절감을 가지고 작품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텍스트 외적인 맥락의 개입이 텍스트 내적 맥락의 구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당대인들이 소설을 통해 어떤 경험을 어떠한 소설적 방식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설’ 이해가 생략되고 당대 삶에 대한 피상적인 ‘역사’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다.<sup>3)</sup>

이 점에서 한 작품군의 여러 이본을 함께 읽는 것은 과거의 작품을 이해할 때 자동적으로 환기되는 우리의 현대적 가치 체계나 장르에 기반한 편견 없이 고전소설을 이해해보는 경험을 열어줄 수 있다. 이본들은 작품의 거시적 서사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소설의 주제나, 등장인물, 그리고 그것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보여준다. 또한 한 작품군의

---

2) 이지영은 이본 연구가 개별 작품의 연구 기반을 다지는 기초 연구로만 인식되는 경향과 연구 관점을 반성하면서 이본 연구의 필요성을 작품 해석상의 문제와 대부분 이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제를 들어 역설한 바 있다. 이는 고전소설 연구자뿐 아니라 고전소설교육 연구자에게도 도전이 되는 반성이다.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쪽.

3)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독자들의 고전소설 감상문을 보아도, 학습자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 관습에 대해 낯설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합리적인’ 현대적 상식과 관점을 총동원하여 소설, 혹은 소설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비판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소모한다. 물론 소설이 만화경(萬華鏡)과 같이 당대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소설을 통해 당대를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비교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고전소설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나 인물 형상화 방식, 그리고 서사 구조 등 당대의 세계 경험을 심미적으로 형식화한 소설로서의 장르를 존중하지 않은 채, 소설의 이해가 ‘안타까운 유교 사회의 비합리성’ 내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와의 공명’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전승사를 보면 다양한 이해 가운데 어떠한 견해가 전승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향유층의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본을 함께 읽어보는 고전소설의 읽기는, 우리가 당대인들이 공유했던 가치관 자체를 비판하기 전에 작품이 추구하는 주제나 가치를 그들의 세계관과 함께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이들 간에도 동의와 논쟁을 거쳐 선호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본을 함께 읽는 방법은 소설적 형상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소설교육은 차후의 의미 있는 소설 이해 경험을 추동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sup>4)</sup> 이 점에서 고전소설의 이본에 주목하여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는 대화적 이해 교육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대한 유기적 관점을 열어줄 수도 있다.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이상적인 문학 교육의 학습자로서 독작자(讀作者)가 주목되고 있다. 고전소설 이본의 개작자들은 자신이 읽은 이본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강화하는 수용 활동을 하거나 이본의 내용을 소거하고 대체하는, 일련의 비평적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을 알아가고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즉 독작자의 모델을 이본의 개작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이본을 함께 읽고 그 사이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구성하여 이해하는 대화적 이해 교육은 작품 전체를 창작하기 어려운 중등학습자에게 창작의 요소와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飛階)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자의 자리에 서보는 경험은 소설의 텍스트의 전략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마련한다. 꼭 이본의 창작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왜 이 개작자는 이본을 이렇게 생성했을까’를 따져본다면 텍스트 외적 맥락만을 동원한 피상적 소설 이해를 배제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다. 하나의 작품군의 이본을 비교해본다는 것은 인물, 서사

4) 경험이라는 용어는 교육학적 개념일 뿐 아니라 철학적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역을 가지고 있어 그 개념이 모호하다. 남가영은 ‘경험’이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으로서 다루어져 온 양상을 살피고 있는데 후자는 ‘무엇에 대한’ 경험인가보다는 ‘어떠한’ 경험인가를 묻는 듀이(Dewey) 식의 경험 개념이다.(남가영,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16쪽.) 본고에서의 ‘대화적 이해’로 구조화될 수 있는 ‘경험’도 ‘학습 경험’으로서의 경험에 가깝다.

구조, 주제 면에서 공통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술 전략, 즉 초점화 전략, 삽화의 출입, 새로운 인물의 등장, 시간 구성의 변화 등 소설의 제(諸) 요소와 구성방식을 비교, 고찰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소설의 여러 가지 형상화 방식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소설의 내용이 어떠한 형식을 통해 변주되는지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편 이본의 전승사를 고려한 대화적 이해는 작품의 수용이나 다시 쓰기에 있어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본을 함께 읽는 교육이 여러 의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의 현실화는 몇 가지 이유로 어려웠다. 첫째는 먼저 개별 작품의 이본 연구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만 이본을 함께 읽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본을 함께 읽는 것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문학 연구의 발달로 많은 개별 작품의 이본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동일 작품의 이본을 함께 읽는 것은 상이한 여러 작품을 읽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에 비교하여 인지적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상호텍스트적 문학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소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복수의 이본을 학습자의 발달의 위계에 맞춰 제공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여러 이본을 함께 읽는 고전소설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흥부전>과 같은 작품은 초등학교, <홍길동전>은 중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는 작품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자가 이미 배운 바 있는 <흥부전>이나 <홍길동전>의 다른 이본을 소개하여 작품의 이해 방법을 심화하는 교육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의와 가능성에 주목하여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대화적 이해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화적 이해의 원리, 독자의 대화적 이해와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 사이의 연관 관계를 밝힌다. 둘째, <심청전> 이본을 대상으로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위치하는 지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본이라는 본고의 연구 대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수용과 창작이 연계된 현상이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한 문학교육 연구사를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심청전>의 이본 연구를 활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 이해라는 관점과 방법으로 <심청전> 이본사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의 <심청전> 이본 연구사를 검토한다. 셋째, 대화적 이해는 동일한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의 주제를 변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심청전>의 주제와 서사구조를 다른 연구들을 검토한다.

### (1) 대화적 이해 관련 문학교육 연구사

문법교육에서 문법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문법을 탐구하는 경험이 교육내용의 핵심으로 그 연구의 흐름이 변모하고 그 문법교육의 실체가 발달해왔다.<sup>5)</sup> 문학교육에서도 문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문학 현상이 문학교육의 대상으로 주목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해와 감상’ 대신 ‘수용과 창작’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수용과 창작은 산술적,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과 창작이 내적으로 연관된 텍스트에 대한 주목이 시작되었다.

한편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근대 이전의 문학 향유 양상을 밝혀 오늘날 문학교육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

---

5) 김광해의 선구적 연구 이래로 문법교육은 탐구학습에 주목하였다. 이후 탐구학습은 문법교육의 방법뿐 아니라 문법교육의 내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법교육의 탐구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참조.

에 주목하여 그 교육적 의의를 여러 면모에서 조명한 시론을 펼친 것은 김종철이다.<sup>6)</sup> 이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소설 중 상당수가 이본 연구를 따로 해야 할 정도로 독자성을 지닌 이본들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설과 관련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내고 있다. 먼저 그는 이본 저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저자의 다수성, 집단성을 파악해낸다. 또한 원작과 이본 사이의 관계를 통해 독자가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다면적 관점과 상상력을 논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개작이나 창작이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러한 본성은 소설의 심미적 형식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소설이 사회적 효용성을 가질 때 이를 나누어 갖고자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발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소설의 대화적 속성과 윤리적 속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의 관점에 여러 시사를 주었다. 다만 이 연구는 시론인 만큼 독자가 다면적 관점과 상상력을 얻기 위해 어떠한 심미적 형식을 경유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 교육내용의 개발은 후속 연구들에 그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과업을 이어받으면서 이본 변모가 문학 수용의 실증 자료라는 점을 포착하고, 구체적 작품의 이본 변모를 통해 고전소설교육의 이론을 구하고자 한 연구로는 서유경<sup>7)</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유경은 해석학 이론과 수용이론을 근거로 ‘자기화’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고전소설의 이본이 모본과의 연계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감적’ 자기화라는 용어로 <심청전> 이본의 파생 현상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감적 자기화의 방식을 밝혀 이를 문학교육에 전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본의 파생 원인을 독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수용과 창작의 연계를 실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심청전>의 전통적 해석의 흐름을 텍스트 외부 세계, 즉 이념이나 향유층의 계층 변모에서 찾지 않고 독자 수용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밝힌 점에서 고전소설의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그 관점상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용어

6) 김종철,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7)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의 함의 상, ‘공감적 자기화’ 개념이 독자가 기존 이본의 텍스트 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해석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새로운 이본을 만들어가는 대화적이고 비평적 활동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작품군의 고전소설 이본들이 다수적 통일성을 지니는 이유에 주목하는 관점을 중요하게 이어가면서도, 독자의 개인적 심리인 공감에 기반한 동의뿐 아니라 해석적 비평으로 이어지는 반감이나 의문까지도 포괄하는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본 변모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고전소설의 이본이 아니라 개작 텍스트에 눈을 돌린 연구도 있다. 황혜진은 고전소설의 이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을 취하면서 <춘향전>의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용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살피고 있다.<sup>8)</sup> 이 연구는 방법론상으로도 텍스트 내적 분석을 위해서 바흐친의 소설 이론과 기호론을 도입하는 등 정지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개작 텍스트 및 매체 변용은 본고에서 다루는 대화적 이해에 기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패러디로서 기존의 담론이나 담화<sup>9)</sup>, 즉 고전소설에 대해 저항을 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작 텍스트는 보다 일반적인 대화적 이해를 다루는 데에는 제한적으로만 참고할 수 있다.

8) 황혜진,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9) Oxford Learner's Dictionary에 따르면 discourse는 첫 번째 풀이로 “(formal) a long and serious treatment or discussion of a subject in speech or writing”이라 설명되고 그 예문으로는 “a discourse on issues of gender and sexuality”, “He was hoping for some lively political discourse at the meeting.”이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의미로는 “the use of language in speech and writing in order to produce meaning; language that is studied, usually in order to see how the different parts of a text are connected”로 설명되고 “spoken/written discourse”, “discourse analysis”가 제시되어 있다.([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american\\_english/discourse\\_1](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american_english/discourse_1), 2021년 4월 24일 접근) 통상 주제에 가까운 첫 번째 용법은 ‘담론’으로, 두 번째 용법은 ‘담화’로 번역된다. 담화가 담론을 품고 있으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discourse를 문맥에 따라 “담화”와 “담론”으로 구분하며, 바흐친이 언어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특히 “담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역서를 직접 인용할 경우는 역자의 번역에 따랐음을 미리 알려둔다.

그러나 이 연구를 포함하여 고전소설의 현대적 패러디를 바라보는 황혜진의 연구 관점은 수용에서 창작으로 연계된 텍스트의 교육적 의의를, '전승사'의 관점에서 밝힌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논자는 어떤 개작 텍스트가 전승사에서 중시되어 왔던 문제를 비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동시대의 관점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는 전통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전승되는 의미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논자는 고전소설 교육의 관점에서 전승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바, 즉 주제에 대한 천착과 주제적 의미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준거로 삼아 교육적으로 유용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한편 현대소설교육 분야에서도 수용과 창작이 내적으로 연관된 텍스트에 눈을 돌린 시도가 있다.<sup>11)</sup> 김성진은 메타소설을 그 재현의 자의식이 드러나느냐 여부로 정의하고, 메타소설 내에 창작과 비평이 혼합된 경향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메타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 나타나는 화자의 서술방식을 소위 흉내 내는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소설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의'가 가진 대화성에 주목한다는 점, 패러디가 특정한 방향성을 지니는 변형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창조적 재구성'의 전면모를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상통한다. 또한 이 연구는 창작과 비평을 소멸시키는 메타소설의 특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메타소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의 이분 현상을 소설교육적으로 의의 있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열어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메타소설화 전략이 해당 소설의 소통 상황 속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설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일종의 대화 상

10) 황혜진,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채만식의 <沈봉사>」,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2007, 25쪽. 논자는, <허생전>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패러디한 이남희의 <허생의 처>를 전승사를 배제한 사례로 들고 있다. <허생의 처>는 <허생전>의 주제의식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11) 김성진,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내용 연구 - 메타소설화를 통한 수용과 창작의 통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2007.



황에 참여하는 주체인 작가와 독자 외의 또 하나의 대화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의 주제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그가 분석하고 있는 <외탄 방>의 메타소설적 기법은 작품의 주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구자가 이를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메타소설화 전략의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지닌 작품에서, ‘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즉 메타소설화 전략이 창작의 일반적 전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황혜진이 지적하고 있듯, 수용과 창작이 연계된 문학 현상을 바라볼 때에는 현상을 유발한 대화의 화제, 즉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주제를 고려해야만 창작이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작품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과 창작을 연계된 활동으로 보면서도, 전문가 수준의 창작이 아니라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창작을 시도해보는 교육 활동의 제재로는 현대소설보다는 고전소설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등학습자의 수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창작 교육의 단위로 고전소설의 삽화를 제시하고 이의 재구성을 통해 창작 교육을 설계한 연구가 존재한다.<sup>12)</sup> 그러나 이 연구는 고전소설의 이본이 왜 삽화를 중심으로 변모되었는지, 그 변모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인 ‘의도’에 대한 천착의 결여가 아쉽다. 이 때문에 이 연구로부터는 본고가 주목하는 창작의 동기, 즉 개작의식이나 비평의식 등 주제 이해에서 창작으로 나아가는 주체의 의도와 관련하여 의미론적 차원의 수용과 창작의 연결 고리에 대한 도움이 되는 논의는 얻기 어려웠다.

본고는 개작 이전에 독자로서 행했을 선행 이본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 이본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선행 이본의 ‘무엇’과 관련하여 ‘왜’ 재구성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시도한다. 즉 특정한 구조주의적 전략, 혹은 서술 전략에 따른

---

12) 서보영,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 교육 연구 - <춘향전> 이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재구성의 실천 이전에, 독자가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응답을 하고자 한 분명한 의미론적 동기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수용과 연계된 창작은 전승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황혜진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본 내에서도 선호된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독자들이 여러 이본을 평가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더 세련되고 깊이 있게 해결한 이본을 선호했다는 뜻이다. 이는 독자가 이본 파생을 시도할 때 하나 이상의 선행 이본 읽기를 기반으로 했으며 상호텍스트적인 관점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교육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문학교육에서 특히 상호텍스트성에 많이 주목하는 분야는 현대시교육이다.<sup>13)</sup> 아무래도 시의 해석은 난해함에 봉착할 때가 많고 해답을 찾는 수수께끼와 같은 경우가 많아 상호텍스트성이 시의 의미를 잡아 올리는 그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 개념과 이론의 발전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개념을 다소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미학의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작가가 생산한 문학텍스트들 사이의 관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와 기억, 역사, 문화 등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 및 수용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이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sup>14)</sup>

이 가운데 전자의 맥락에서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한 조고은은<sup>15)</sup> 후자의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과 조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전문독

13)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한 현대시교육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정우, 「상호텍스트적 시교육에 관한 연구: 정지용의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정우, 「시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 국어교육학회, 2007.

14)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2007, 31쪽.

15) 조고은, 「동일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자만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동일 작가의 텍스트 사이의 상호 텍스트성을 시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여러 시 작품을 함께 읽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시간적으로 인지적으로나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나 비평의 방법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시를 읽는 방법이 동일 작가가 쓴 시집을 읽는 것이므로 중등학습자에게 동일 작가의 작품군을 함께 읽도록 하는 방법은 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고 어려운 시 해석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단편소설집을 통해 동일 작가의 여러 작품을 함께 읽는 방법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이며 한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독자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 작가가 쓴 다양한 소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교육하는 방안<sup>16)</sup>도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라면 몰라도 소설은 개별 작품 사이에서 작가 개성의 통일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작가의 작품군을 비교하여 읽는 소설교육이 시교육만큼이나 장르 차원의 큰 의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sup>17)</sup>

엄격한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기억, 역사, 문화 등의 개념을 끌어들이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 및 수용까지 고려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폭넓게 파악하고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에 소설과 관련하여 상호텍스트성을 주목한 연구들은 문학사 교육과 관련한 경우들이 많다.<sup>18)</sup> 그러나 바로 이

16) 고은정,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7)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바흐친은 소설 장르의 문제론을 주장하는 글의 포문을 “예술가 개인의 기예에나 봉사하는 추상적인 언어학적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64~65쪽).

18) 김상욱, 「50년대 소설의 교육적 해석 방법론-손창섭의 <비오는 날>을 중심으로」,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강선옥, 「텍스트 상호성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태평천하>와 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전주원,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 의한 소설교육」, 『청람어문교육』 2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2;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등 참조.

점에서 문학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 독자가 상호텍스트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sup>19)</sup>가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꼭 통시적인 상호텍스트성을 살피는 것이 동일 작가의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피는 것보다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 작가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이 중등학습자에게 실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조회할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를 한정해주어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성의 지평을 보완해주었기 때문이다.

통시적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는 제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계(飛階)가 제공된다면 학습자들이 충분히 작품의 문화나 수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통시적 변모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 할지라도 고전소설의 이본과 같이 유사성이 높은 텍스트일 경우는 한 작가의 상이한 여러 작품을 비교해보는 것보다 오히려 학습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 이본 변모를 살피는 것은 상호 참조할 텍스트를 무한으로 열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부족한 문학 경험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문학 경험이 많을수록 작품 이해가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중등학습자가 문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본 간 비교와 대조를 하여 변별점을 찾아낼 수도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배경지식이나 삶의 경험, 문학 경험의 부족으로 이본 변모의 이유나 의의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문학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문학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주요 개념어로 채택하지 않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는 바흐친의 대화성 개념에서 시발되었지만,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가로지르면서 바흐친의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론적 풍요로움과 깊이를 상실하였다.<sup>20)</sup> 특히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의 책임과 윤리

19) 조고은은 통시적 상호텍스트성을 종적 상호텍스트성, 동일 작가의 상호텍스트성을 횡적 상호텍스트성이라 지칭하고 종적 상호텍스트성의 파악은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였다. 조고은, 앞의 논문, 9~11쪽.

20) 크리스테바에 의한 구조주의적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과 이에 대한 비판은

를 강조한 바흐친의 상호 주관적 관점이 상호텍스트성 이론에 이르면 ‘글이 주체를 쓴다’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는 어찌 보면 본고가 극복하고자 하는 관점이다.<sup>21)</sup> 본고에서는 이본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방법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독자의 의도, 견해, 책임에 대한 주목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작품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이론적 힘을 실어주는 것이 II장에서 살펴볼 바흐친의 대화성 그리고 독자의 응답성 개념이며, 대화에 대한 메타언어학 관점, 특히 소설적 담화에 대한 그의 이론이다.

## (2) <심청전> 이본 연구사

<심청전>의 본격적인 이본 연구라 할 만한 연구로는 최운식의 논의가 가장 앞선다. 그는 한남본의 화소를 기준으로 한남본 계열, 송동본 계열, 완판본 계열로 정리하여 이본을 선후를 분류하였다.<sup>22)</sup> 그러나 이후 다수의 <심청전> 이본이 발굴되면서 송동본 이전의 필사본들의 선후 관계를 정리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영대는 대상을 대폭 확장하여 판각본과 필사본, 활자본, 판소리 창본들을 포함하여, 이들을 문장체 소설과, 초기 <심청가> 계열, 창본계 필사본 계열로 정리하였다. 특히 그는 초기 <심청전>을 나누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장승상 부인 시비 따라가는 대목, 심봉사의 신분, 심청 동냥 박대 삽

박건용,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 수용 및 적용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32,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2005, 360~364쪽 참고.

21) 여러 이론가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검토한 고은정은 결국 교육적으로 유용한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텍스트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과제로 삼되, 다양한 의미 실현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나 완결된 통일성을 가진 단위로서 텍스트 개념을 부정하는 관점은 지양하겠다. 또한 글을 쓰거나 읽는 독립적 주체 개념을 파기하여 작가와 독자의 인격적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관점과도 거리를 두겠다.”(고은정, 앞의 논문, 18쪽) 비록 논자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자는 결국 주체와 텍스트에 대한 바흐친의 관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22)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18~124쪽.

화, 인당수 투신 시의 심청의 인간적 갈등, 이 네 가지 내용의 유무를 중심으로 초기 <심청전>을 추정하였다. 이어 유영대는 이러한 <심청전> 이본 변이를 판소리 향유층의 변동과 판소리의 성격 변이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현전하는 창본과 계통을 달리하는 일군의 필사본 <심청전>들을 초기 '창본'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후대의 창본과 비교하여, 이들 초기 창본이 하층민의 정서를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한 데 비해, 후대의 창본이 양반 좌상객의 취향을 반영하여 관념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sup>23)</sup>

이에 대해 박일용은 유영대가 초기의 판소리 창본이라고 한 이본들이 과연 판소리 '창본'인가를 그 장르적 특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해당 이본을 사례로 들어 이들이 4.4조 혹은 3.4조의 율문적인 문체를 보이기는 하나, 장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면의 연결이 '아니리-창-아니리'로 나누어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문체가 서술자가 서사세계에 대한 정서를 투영하는 가사와 같은 특징을 드러냄을 논증하였다.<sup>24)</sup> 이는 들고 남이 짚은 삽화 중심이 아니라 장르적 특성에 따라 <심청전> 이본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서 <심청전> 이본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확보한다.

한편 김영수는 방대하게 수집된 필사본을 중심으로 이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심청전>의 필사본을 크게 완판본 이전과 완판본 이후로 나누고 완판본 이전의 초기 <심청전>을 심봉사의 이름에 따라 심맹인 계열, 심팽규 계열, 심운 계열, 심학규 계열로 나누고 그 발생 순서도 같은 순으로 추정하였다.<sup>25)</sup>

이후 <심청전> 이본 연구는 한 동안 잠잠하다가 김종철에 의해서 다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김종철은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어떻게 얻었

23) 유영대, 『심청전 연구』, 문학아카데미, 1989.

24) 박일용, 「<심청전>의 가사적 향유 양상과 그 판소리사적 의미」,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와 이를 검증한 박일용, 「가사체 <심청전> 이본과 초기 판소리 창본계 <심청전>의 관련 양상」, 『판소리 연구』 7, 판소리학회, 1996.

25)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는지를 부친에게 고지하는 대목에 주목하여 이 부분이 초기 단계의 <심청전>에는 없다가 점차 심청이 장자나 장자 부인, 장승상 부인의 핑계를 대며 수양녀 제의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변화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실제로 장승상 부인이 <심청전>에 등장하여 심청에게 수양녀 제의를 하고 심청은 이를 거절하는 현재 <심청전>의 모습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았다.<sup>26)</sup> 이 연구는 가설을 실증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장승상 부인 삽화의 출현과 관련하여 ‘판소리 향유층의 변동과 판소리의 성격 변이의 문제’에 대한 유명대와는 다른 연구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철은 장승상부인 대목의 변모를 재론하면서 이 대목의 첨가를 서사의 확충과 서사 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이 대목의 첨가가 특정한 하나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청전> 이본의 변모가 일어날 때, 수양녀 거짓말 대목만 변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변모하는데 이때 서사 자체의 논리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향유 집단의 요구라는 작품 외적 요인이나 주제의 강화라는 창작 의식의 측면에서 이본 변모를 살피기에는 하나의 이본 안에서 이 논리에 상충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종철의 분류 틀을 받아들인 신호림도 <심청전>을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 장승상 부인으로 나누고 계열별 서사단락의 구성 및 특징을 자세히 살핀 바 있다.<sup>27)</sup> 그런데 이 연구는 방대한 <심청전> 이본을 단 세 개의 계열로 분류하는 데 힘을 쏟다보니, 장자 부인 계열이 <심청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혼재되어 있는 계열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단 하나의 계열로 묶어, 초기 <심청전>에 나타나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경합을 포착할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호림은 한남본이 기존의 장자 계열 서사를 토대로 <숙향전>의 화

26) 김종철,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 신호림,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소를 삽입해서 재구성한 이본이라고 규정하고 장자 계열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남본을 장자 계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김영수도 한남본이 심맹인 계열(신호림의 분류대로라면 장자 계열)의 이본을 모본으로 삼았지만 그 출현 시기는 심팽규 계열과 심운 계열이 등장한 이후로 보았다. 더욱이 필사본과 완전히 다른 계통을 따르는 한남본을 심맹인 계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sup>28)</sup> 이외 많은 논자들이 동의하듯 한남본은 나머지 이본들과 상당히 이질적인 작품이다.<sup>29)</sup> 따라서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 장승상 부인 계열의 분류 틀은 필사본 및 완판류의 분류 기준으로는 유용하나 이러한 분류 틀에 한남본을 포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김효정은 이상의 <심청전> 이본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초기 필사본을 대상으로 장자 부인 계열의 하위 이본군을 문장과 삽화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이본군으로 묶어 보다 상세하게 연구한 바 있다.<sup>30)</sup> 이를 통해 장자 부인 계열의 하위에는 [심팽규 군], [심운 군], [심학규 군]이 존재하며 이 하위 이본군은 [심팽규 군], [심운 군], [심학규 군]의 순서로 발생하였음을 문장과 삽화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효정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삽화와 서술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 선행 연구들이 나름의 분류 틀로 정리한 각 이본들이 진정 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문장과 삽화의 유사성 정도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김영수의 연구를 검증, 보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승상 대목’의 발달에 이른 서사의 확충을 서사 내적인 논리로 보아야 한다는 김종철의 주장을 수용자의 욕구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작업이 이루어졌다.

28) 김영수, 앞의 책, 466~467쪽.

29) 성현경이 일찍이 지적했듯(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99~126쪽) 한남본은 적당구조가 충실히 구현된 대표적 작품이며 영웅소설적 지향을 보인다.

30)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팽규 군의 내용과 특징」, 『판소리 연구』 50, 판소리학회, 2020a;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b.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대어, 문체적 특성으로 <심청전> 이본을 분류한 연구, 심봉사의 이름을 중심으로 <심청전>을 분류한 연구, 수양녀 거짓말 대목<sup>31)</sup>을 중심으로 <심청전>을 분류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청전>의 이본사를 보다 총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심봉사의 이름이나 심청이 수양녀로 가졌다는 대상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이본들의 이본사적 좌표를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한 <심청전> 이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문체상 구분	문장체	가사체			판소리체				
이본 및 이본군	한남본	심맹인 군	심팽규 군	심운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본	송등본	완판과 그 이후 창본	
발생 순서 상 구분	(미상)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			장승상 부인 계열			
						'시비 따라'가 나타나지 않음		'시비 따라'가 나타남	

<표 1> <심청전>의 이본 분류

표에서 보듯 가사체 및 판소리체 <심청전>의 발생 순서는 장자 계열 → 장자 부인 계열 → 장승상 부인 계열로 일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자 계열은 심봉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맹인 군]과 동일하다. 한편 장자 부인 계열은 다시 심봉사의 이름을 기준으로 [심팽규 군] → [심운 군] → [심학규 군]으로 나누어 그 하위 이본군의 발생 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장승상 부인 계열 역시 '시비 따라'가 나타나는 이본과 그렇지 않은 이본 가운데 후자가 더 나중에 발생한 이본이다.

문체상으로 장자 계열의 [심맹인 군]은 [심팽규 군]과 [심운 군]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박일용은 초기 <심청전> 가운데서 그 문체가 가사적인

31) 장승상 부인은 장승상 부인 계열의 <심청전>에만 등장하므로, <심청전> 전체 이본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장승상 부인 삽화 대목이 아닌 수양녀 거짓말 대목이 더 적합할 듯하다.

성격을 질게 드러내는 박순호 19장본과 최재남 본을 선택하여 이들 사이의 영향 관계를 비교한 바 있다.<sup>32)</sup> 그러면서 박순호 19장본과 같은 계통으로 정문연 620본(전집 상 정문연 31장본)을, 최재남 본과 같은 계통으로는 박순호 43장본을 들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 박순호 19장본과 정문연 31장본은 [심운 군]에 속하며, 최재남 22장본과 박순호 43장본은 [심팽규 군]에 속한다.<sup>33)</sup> 이에 앞서 박일용은 박순호 19장과 최재남 22장본과 더불어, 박순호 51장본(전집 상 박순호 낙장 50장본) 역시 사설의 구성과 문체적 특징이 후대의 창본과 차이가 나는 이본으로 지적하였다.<sup>34)</sup> 박순호 낙장 50장본은 [심맹인 군]에 속한다. 이렇게 박일용이 가사체 <심청전>으로 언급한 이본들은 위 표에서 [심맹인 군], [심팽규 군], [심운 군]에 분포하고 있는 이본들이라는 점에서 이 세 이본군 사이의 문체적 유사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즉 장자 부인 계열의 [심운 군]까지는 <심청전>은 가사체 소설로서의 장르적 특징을 보이다가 [심학규 군]에 이르러 <심청전>의 변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의 외설적 면모가 드러나고 목욕 삽화에서의 골계적 장면이 나타나면서 <심청전>은 미학적 변모를 가속화한다. 신재효 본이 장자 부인 계열 <심청전> 가운데 [심학규 군]과 가장 유사성을 띠는 점에서 [심학규 군]에서부터는 <심청전>은 판소리 레퍼토리로 완전히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남본의 발생 시기는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문장체로, 관련 필사본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남본은 가사체 <심청전>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문장과 삽화를 통해 상이한 문체와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각본은 필사본의 장자 부인 계열이 인기를 누린 이후 그 인기에 힘입어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점.<sup>35)</sup> 일련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32) 박일용, 앞의 논문, 1996.

33) [심맹인 군], [심운 군], [심학규 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본은 김효정, 앞의 논문, 2020a와 2020b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혔으며, 본고의 연구대상, <표 2>에서도 다시 밝힌다.

34) 박일용, 앞의 논문, 1999, 137쪽.

35) 유명대도 필사본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신작소설을 바로 방각본으로 간행하

한남본은 [심맹인 군]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만큼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sup>36)</sup> 또한 신재효 본과 송동본 가운데 어느 이본이 우선하는지는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 (3) <심청전> 주제와 구조 연구사

여기서는 근거하는 이본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심청전>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이고, 본 연구가 <심청전>의 이본 파생을 텍스트와 독자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살피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심청전>의 주제와 구조 연구사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조동일은 그 자신의 고유한 판소리 연구 방법론인 이원론적 구조주의 방법론을 완판 <심청전>에도 적용하여 그 구조를 고정체계면과 비고정체계면으로 나누고 <심청전>의 주제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누어 살폈다.<sup>37)</sup> 이때 고정체계면은 심청의 삶과 관련되며 그것은 ‘영웅의 일생’의 구조와 일치하는데, 심청이 현실적인 고난을 효라는 유교 윤리에 입각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심청전>의 표면적 주제라고 보았다. 한편 뽕덕어미나 심봉사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내용은 비고정체계면으로서 허망한 유교 윤리를 벗어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 자체의 논리에 따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심청전>의 이면적 주제라고 보았다.

는 위험을 무릅쓸 까닭이 없다고 보았다. 유영대, 앞의 책, 124쪽.

36) 한남본에서 심청이 수양녀를 간다는 대상이 장자로 나타났던 하나, 장자 부인 계열과의 연관성을 희미하게나마 나타나 그 발생 시기가 [심맹인 군] 이후임은 짐작해볼 수 있다. 구체적 삽화 비교는 김효정, 앞의 논문, 2020b와 2020a 참고.

한남본의 내용	가사체 및 판소리 체 <심청전>과의 관련성
심청의 신분 상승	[심학규 군]에 처음 나타난 이후 전승 유지
선녀의 심청 구원 장면	[심학규 군]과 유사
심청이 용궁에서 삼 년을 머물	[심팽규 군]에 처음 나타난 이후 전승 유지
심청 환세 시 꽃 속에서 감로수를 먹으며 연명	[심팽규 군], [심운 군]과 유사

37)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최래옥은 당시 발굴된 50종 이본 모두의 존재 의의를 중시하여 모든 이본에 공통되는 효행구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한국 희생효설화의 네 가지 요소로서 효자, 희생, 기적, 부모를 들고, 이 네 요소에 대한 관심과 비중의 차이가 효 설화의 변이를 일으킨다고 보아 이를 <심청전>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는 특히 완판 <심청전>을 대상으로, 효행담과는 다른 <심청전>의 확장된 효행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심청의 신분은 상승하고 악신은 선한 신으로 변모하며 황제는 평범한 황제에서 비범한 황제로 변모하고 구원의 대상이 아버지에서 모든 맹인으로 변모하였다는 해석을 내놓았다.<sup>38)</sup>

한편 성현경은 경판(한남본)이 완판에 선행함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경판과 완판과 비교하여 경판은 심청의 이야기, 완판은 심봉사의 이야기로 보면서 심청과 심봉사를 각각 신 중심, 인간 중심의 세계관 및 운명관을 표상하는 인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심청전>의 후대적 변모 양상이 심청의 이야기에서 심봉사의 이야기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심봉사의 빛의 상실 및 회복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 완판 계열의 <심청전>이 가지는 주제라고 하였다.<sup>39)</sup>

최운식은 대표 이본으로서 한남본, 송동본, 완판본 계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를 논하였다.<sup>40)</sup> 이를 통해 논자는 <심청전>에는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순환형’과 ‘현실계에서의 순환형’ 구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전자는 심청의 일생, 후자는 심봉사의 일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특히 <심청전> 이원적 세계관에 기반한 비현실계와 현실계의 순환이라는 구조와 현실계에서의 심봉사의 행과 불행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41)</sup>

38)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39) 성현경, 「심청전문(2)」,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40) 최운식,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41) 위의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천상계 → 지상계 → 수중계 → 지상계 → 천상계  
 (비현실계) → (현실계) → (비현실계) → (현실계) → (비현실계)  
 심봉사의 행, 불행, 행

이상의 연구들은 <심청전> 이해에 있어서 굵직한 획을 그은 연구들으로써 의의가 있다. 심청과 심봉사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 <심청전>이 효행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심청은 초월적 세계관을, 심봉사는 현실적 세계관을 대표한다는 점 등은 <심청전>의 서사구조상 중요한 특징들으로써 본고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구조주의적 연구방법론의 영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실상 <심청전>은 하나의 이본이 아니라 여러 이본으로 존재하고 이본마다 인물과 주제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왜 그러한 다양한 이본 파생이 이루어졌느냐보다는, <심청전>이라는 추상의 기의(記意)를 찾기 위해 인물을 이분(二分)하고 각각이 대표하고 있는 어떤 통일적 체계를 찾는 것이 목적인 연구들인 것이다.<sup>42)</sup>

특히 이본이 많이 발굴된 현재에는 같은 서사구조를 가지고도 <심청전> 이본이 꾸준히 변화해왔음에 주목하여, 이본을 파생시킨 동인과 방법이 무엇인지, 전승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화제나 주제는 무엇인지, 이 다름을 추동한 것은 텍스트인지, 독자인지 등 <심청전>의 인물과 주제의 변모를 보다 미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점에서 <심청전>의 인물과 주제에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최동현의 연구가 있다. 최동현은 <심청전> 이해에 있어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심청전>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물들 사이의 상관관계나 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43)</sup> 즉 사건 속에서 <심청전>의 두 인물을 통합하여 작품을 통일적으로

42) 이들은 모두 소쉬르 식의 랑그/파롤 식의 이분법에 기반한 랑그 찾기, 즉 <심청전>의 공통된 체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는 자족적인 체계로서 언어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시성의 차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일단 통시성의 차원을 언어학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했다(Tony Bennett, *Formalism and Marxism*, Taylor and Francis, 1979, 72쪽). 이상의 <심청전>의 주제나 구조 연구도 <심청전> 변모의 통시적 차원을 간과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43)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관하여」,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44)</sup>

이와 관련하여 김종철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심청전>의 구조를 ‘희생과 보상의 서사구조’로 파악하는데, 이는 단순히 보상이 희생을 따르는 시간상의 순차 구조가 아니라, 희생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보상은 희생 자체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까지 해소하는 구조를 뜻한다.<sup>45)</sup> 이러한 논의는 <심청전>의 이본 파생을, <심청전>의 서사구조와 독자의 독서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본고는 이본에 따라 <심청전>의 인물 형상이나 주제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심청전>이 효의 실현이라는 주제뿐 아니라 갈등의 해소라는 서사구조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많은 반응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심청전>의 이본 파생을, 작품의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심청과 심봉사를 효의 주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파악할 것이다.<sup>46)</sup>

한편 연구방법론의 다양화가 시도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심청전> 주제 연구에 해석학적 전환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심청은 심봉사의 욕망을 내면화하여 행동의 방향을 선택”했으며 “<심청전> 서사의 형성 동기가 심봉사의 욕망과 심청의 희생에 대한 정당화 기회를 제공하

---

44) 박희병도 조동일의 고면과 비고면 개념이 조작적 개념에 가까우며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주의 방법론은 전체로서의 작품의 통일성의 이해를 저해하는 시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박희병,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 인식」,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2.

45) 김종철, 「희생과 보상의 거리- <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2.

46) 브레몽은 모든 서사의 구조를 진로 혹은 활쏘기에 비교한다. 일단 활이 당겨져 그 화살이 목표에 명중하는 것이 기본 상황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목표가 화살을 유발시켰던 것인지 화살이 목표를 찾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사에서의 사건의 재구성은 계열체 내에서의 무한대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지닌 통합체로서의 사건의 연속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로버트 스콜즈, 위미숙 역, 『문학과 구조주의』, 새문사, 1987, 102~106쪽). 브레몽의 관점은 구조주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서사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 지향적이며 서술의 문제이고 또한 독자의 경험으로서의 서사는 목적론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는 데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든가,<sup>47)</sup> <심청전>은 “이념 공동체에 의한 살인 이야기”<sup>48)</sup>라는 등의 <심청전>의 ‘효를 둘러싼 이념과 사회적 맥락, 등장인물의 심리적 동인에 주목하여 <심청전>을 재성찰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청전>은 상상적 차원에서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계와 초과 영역에 대한 처리 방식을 서사화한 소설”<sup>49)</sup>이라는 확장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는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 받아들였던 해석적 지평이 전환되고, <심청전>이 가족 윤리뿐 아니라 사회 윤리까지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서 재평가되었으며 텍스트 표층에 언술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함축되어 있는 텍스트 외적인 맥락에 대한 주목<sup>50)</sup>이 이루어져 <심청전> 이해가 확장된다. 이러한 연구에는 이미 연구에 훨씬 앞서 배출된, 현대 작가들의 <심청전> 패러디물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히 <심청전>의 패러디물이 <심청전>이 놓인 외부의 맥락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sup>51)</sup> 그리고

47)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90쪽.

48)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36쪽.

49) 최기숙, 「<심청전>의 공감화 맥락: ‘공/사’의 경계 구분과 공생적 공공성」,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449쪽.

50) <심청전>의 ‘이효상효’의 딜레마를 텍스트의 형성과 수용을 둘러싼 역사·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하면서, 심청의 개인적 감정은 억압되었으며 텍스트에 드러나는 심청의 감정은 타자적 감정으로 선별되고 통제된 것이라는 관점의 연구는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51) 황석영의 소설 『심청, 연꽃의 길』(문학동네, 2007)의 초판 ‘작가의 말’에는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다. “판소리 <심청가>에서 청이는 맹인 홀아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중국 난징 상인들에게 팔려간다. 그리고는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인신공양물로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 나는 여기서 당시 사회제도를 떠받치고 있던 충효에 대한 미담을 걷어내기로 했다. 그것은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묘령의 소녀들을 이국 해변가에서 거액의 재물로 사간 장사치들이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예나 지금이나 이윤을 다투는 세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략) 나는 이들이 칠십 년대의 근대화 시기에 서울공장으로 취직하려 올라가서 집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도시 속으로 묻혀간 소녀들이나 같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시즘이나 페미니즘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청전>의 해석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청전> 주제 해석에 있어서 심청과 심봉사라는 인물을 배태한 당대 세계에 대한 주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비평적 이해가 더해져 현대인들에게 상투적으로 보이는 고전소설의 주제를 뒤집고 <심청전>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심청전>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는 흥미를 부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심청전>이 제기하고 당대 향유층이 답하고자 한 문제, 즉 <심청전>의 전승사적 과제를 이어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비평적 연구의 흐름이 전개되는 동시대에 <심청전> 이본의 정리와 소개 작업도 이루어졌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자들의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심청전> 전집이 속속 발간되는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현존하는 이본들의 실정에 맞는, <심청전>의 실제인 이본을 두루 아우르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2000년대 이후의 <심청전>의 해석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거의 동시대에 엄청난 양으로 소개된 <심청전> 이본들을 정리하는 이본 연구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에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은 대표성을 지니는 일부 이본만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통으로 연구 대상이 된 이본은 <심청전>을 대표하는 완판본이다. 개별 연구의 관점에 따라 완판본 이외에 경판본, 허흥식 창본, 송동본, 강상련과 구활자본 등이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 성현경의 연구에 의해 경판과 완판은 상당히 다른 세계관을 추구하는 작품임이 밝혀졌으며, 경판 필사본이 여럿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판이 얼마만큼의 전승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허흥식 창본은 장자 계열부터 장승상 부인 계열까지의 여러 이본을 짜집기한 이본이다.<sup>52)</sup> 또한 송동본과 강상련, 구활자본은 완판본과 마찬가지로 모

52) 허흥식 창본은 초기 창본일 수는 있어도 <심청전>의 초기 이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김석배도 「허흥식 소장본 <심청전>의 특징」,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215~216쪽에서 후반부가 <송동본>을 베낀 이본임



두 장승상 부인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이다. 요컨대 이들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본들은 초기본에서 완판에 이르기까지 연속적 발전을 이루는 이본들이 아니라 완판 전후의 이본들이며, 전승의 우세를 점하지 못한 경판본도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어내기 위한 마땅한 이본이 선택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본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고전소설의 이해 및 교육 연구는 위험성을 갖는다. 고전소설은 대부분 이본으로 존재하며, 동시대에도 여러 이본이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한 분투의 장 속에서 독자들은 여러 이본 사이의 메타적 이해를 진행하였다. 이 실체로서의 연구 대상을 간과하게 되면, 300년이 넘는 <심청전> 수용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일부 이본의 내용을 가지고 <심청전>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본을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는 특정 화제가 핵심 화제가 되어 그 부분의 변모가 활발하다가도 그 부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다음 시기의 이본군에는 그러한 다양한 담화의 흔적이 사라지고 내용이 고정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심청전>을 연구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완판은 이러한 대화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어 그 흔적이 담화 유형에 많이 남지 않게 된 이본이다. 20세기에 출현한 완판과 방각본, 창본을 통해서도 <심청전>은 변모하지만 이들 이본들은 이전 세기 필사본을 통한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가 상당히 진행되어 합의를 이루게 된 결과 속에서 변모를 이어갔다.

그러므로 완판에 이르는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의 이본의 통시적 변모 양상을 살피지 않고 완판과 그 주변의 이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외부의 역사적 맥락을 현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심청전>의 전승사적 이해를 고려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sup>53)</sup> 이러한 관점은 구

을 밝힌 바 있다.

53) 예컨대 심청을 효녀보다는 희생자로 파악하는 비평적 관점은 <심청전>이 기반하고 있는 세계관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있다. “무속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비인간성, 처절성, 비극성이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시로서는 오히려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병현, 「이날치판 <심청가>의 성격과 판소리사적 위치」,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202쪽.

조주의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완판 이전의 최소 백 년이 넘는 두터운 시간층의 다양한 <심청전>의 모습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텍스트 간의 대화가 ‘연술’되어 있는 이본,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이본 파생이라는 독자의 응답 대신 현대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구성한, <심청전>을 둘러싼 조선 후기의 맥락에 더 주목하는 것은 자칫 이본 연구로 넓혀질 수 있는 <심청전>의 전승사적 이해의 기반을 침식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본 사이의 대화에 주목한 <심청전>의 이해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심청전>에 대한 전승사적 이해 속에서 <심청전>의 인물과 주제를 파악하는 관점을 취한다. 특히 ‘희생과 보상의 서사구조’라는 <심청전>의 텍스트가 당대 독자의 응답을 활발히 요구했고, 심청의 희생이 일으킨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을 여러 이본이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통시적 변모를 일종의 대화로서 포착하며, 그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승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다양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 연구 대상

본고는 소설의 대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리고 고전소설 이본에 나타난 독자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와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또한 대화적 이해 교육의 제재로서 판소리계 소설에 주목한다. 고전소설의 일반적 존재 양상이 이본이라는 점에서 고전소설의 이본과 이본 사이에 일종의 ‘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판소리 혹은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과 이본 사이뿐 아니라 하나의 이본 자체에도 대화성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김병국은 일반적 고전소설과는 다른 판소리의 서술 방식을 밝혀내었다.<sup>54)</sup> 판소리에는 ‘다성적 목소리’, ‘자유 간접화법적 진술’ 등 고유의 문학

54) 김병국, 「판소리의 문학적 진술방식」,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1996;  
김병국, 「판소리 서사체와 문어체 소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1996.

적 진술 방식이 있다고 밝혔으며, 판소리 서사체에는 서술자의 존재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와 시점, 인물의 목소리와 시점이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상호 침투 및 공존함을 밝혀내었다.

이렇게 판소리에는 하나의 이본 안에도 다성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이본과 이본 사이의 대화가 나타날 때에도 그 대화가 메타적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 고전소설과 구분된다. 이러한 메타 층위의 담화는 신재효 본 판소리에 많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는데, 판소리에는 창자가 특정 장면에서 여러 이본 혹은 사설 사이의 차이를 늘어놓고 자신의 판단을 근거를 들어 제시한 뒤 독자에게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독특한 담화가 나타난다. 김현주는 ‘서술자 개입’, ‘개인사설’, ‘작자의 말’ 등 다소 모호하게 지칭되어 오던 이 담화를, ‘메타 차원의 자기 반영적 담화’라고 개념화하여 판소리의 담화 층위의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sup>55)</sup>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판소리가 가지는 장르적, 담화적 속성이 상당히 역동적이며 개방적이며 대화적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sup>56)</sup> 이러한 판소리의 속성은 기존 사설에 대한 창자의 질문

55) 김현주, 「판소리 담화의 다성성」, 『고전서사체 담화 분석』, 보고서, 2006.

56) 판소리의 담화적 특질에 대한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판소리의 장르적 속성은 판소리의 담화의 다층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서사종, 이를테면 여타의 국문소설과의 장르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특성으로 주목되어 왔다. 판소리의 장르 귀속 문제에 대한 초기 논란은 판소리가 서사 장르류이나, 여타의 서사 장르종과는 다른 서사 장르종이라는 논의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는데(조동일, 「판소리의 장르 규정」, 조동일·김흥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이때 김흥규와 김대행은 판소리는 창과 아니리의 교체에 의해 진행되는 서사구조를 가지며 이 교적이 긴장과 이완, 몰입과 해방이라는 반복적 정서 체험을 유도하는 인자임을 밝혔다(김흥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조동일·김흥규 편, 앞의 책; 김대행, 「판소리 사설의 구조적 특성」,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이어 서종문은 창과 사설이 일정한 통합 단위를 이루어 완결된 서사물을 분해하여 균열을 만들어 그 균열 사이로 판소리의 여러 구성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규명하며 판소리 장르의 개방성에 주목하였다(서종문, 「판소리의 개방성」,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김석배는 텍스트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기반으로 신재효 판소리가 개작자적 입장에서 판소리 사설을 자신의 기대지평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석배,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적 변모」, 김병국 외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최광석은 이를 발전시켜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지평전환의 요소를 선행지평 제시, 선행지평 판단, 지평전환 방향 제시, 전환된 지평 서술의 넷으로 추출하기도 하였다(최광석,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과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판소리의 사설은 그 질문과 도전에 대해 응답하는 대화적 구도 속에서 창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sup>57)</sup>

또한 판소리는 가사, 무가, 한문 고사, 소설 등 역사적 갈래나 발화 장르를 그 안에 받아들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병국도 “가사는 언어 진술 방식의 가능한 모든 유형들, 곧 서정적, 서사적, 극적 그리고 교시적이라는 모든 장르적 개념을 내재하고 있고, 또 잡가나 민요류(의 가사)를 포함하여 이것들은 모두 판소리의 이른바 삽입가요에 수렴되어 있거나 바탕글의 창사(唱詞)에 용해되어 있다”<sup>58)</sup>, “판소리가 우리말로 연행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진술 방식의 가능한 유형을 종합한 서사체라고 믿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한 바 있다.<sup>59)</sup> 또한 판소리는 장면의 극대화를 통한 사설의 원심력을 최대한으로 밀어붙이며 유파에 따라 다른 더늠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판소리 서사를 받아들인 판소리계 소설도 역시 다양한 자원을 흡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은 상하층을 가리지 않는 여러 발화의 형식들을 끌어안아 그 형상화에 있어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sup>60)</sup>

바흐친은 소설 안의 이질 언어성과 대화성, 또한 소설이 여러 장르적 담화를 자신 안에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소설적 담화에 주목하여 자신의 소설의 대화성 이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했다.<sup>61)</sup> 이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고전소설

---

서술자 개입 양상과 지평전환»,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57) 이는 현재 판소리의 특징은 아니다. 현재의 판소리는 제자가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따라 부르는 ‘사진 소리’로 박제화 되었다.

58) 김병국, 앞의 책, 170쪽.

59) 김병국, 앞의 책, 180쪽.

60) 이는 바흐친이 주목한 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이질적인 문체적 단위체들은 소설 속에서 결합하여 구조화된 하나의 (단일한) 예술적 체계를 형성하며, 그 결과 전체로서의 작품이 지니는, 위의 어떤 문체적 단위체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보다 차원 높은 문체적 통일성에 종속하게 된다.”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68쪽.

61) 시적 담화와 소설적 담화의 비교를 통해 소설 속의 언어적 다양성과 대화성을 밝히는 논의는 미하일 바흐친, 위의 책, 82~111쪽 참고.

의 대화적 이해의 사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본고는 판소리계 소설 가운데서도 <심청전> 이본에 주목한다. <심청전>은 판소리 서사 가운데 독특한 작품으로 꼽힌다. 중세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거나 중세 이데올로기의 붕괴 조짐을 다루고 있는 여타의 판소리 서사에 비교해 보았을 때 중세적 이념인 효를 강조하는 듯한 <심청전>은 아무래도 이질적이다. 이는 인물의 성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춘향전>의 춘향, <흥부전>의 놀부, <토끼전>은 토끼는 모두 강렬한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중세적 가치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청전>의 심청은, 심봉사나 뽕덕어미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대조해보면, 효라는 중세적 가치와 이념을 충실히 실행하는 인물이다.<sup>62)</sup> 그러나 <심청전>에는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효라는 당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가치의 '실행'과 관련된 갈등 상황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딜레마와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독자의 노력이 더욱 치열하게 나타난다. <심청전>은 효라는 당연한 가치 자체에 질문하기보다는 이러한 효의 실행을 위해 당연하지 않는 상황을 도입하여 독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강한 흡입력을 지닌 작품이다.

이러한 사실은 <심청전>의 이본 수로도 증명된다. 230여 종의 이본이 밝혀진 <심청전>은<sup>63)</sup> 고전소설 가운데 <춘향전> 다음으로 최다수의 이본 수를 자랑한다. 또한 인쇄 텍스트에 비해 텍스트를 변모시키기 쉬운 필사본 이본은 고전소설 가운데 단연 최다수를 기록하고 있다. 활자본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필사본이 많다는 사실은 <심청전>이 단순히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

62) 정병욱은 <춘향전>, <흥부전>, <토끼전>은 팽팽한 갈등, 대립을 통해 중세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려는 근대적 지향을 선명하게 담아낸 반면에 <심청전>에서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정병욱, 「국문학에 나타난 효」, 『한국 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329쪽). 또한 조동일은 심청이 현실적인 고난을 효라는 유교 윤리에 입각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심청전>의 표면적 주제이고, 뽕덕어미나 심봉사가 서술의 초점이 되어 허망한 유교 윤리를 벗어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 자체의 논리에 따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심청전>의 이면적 주제라고 보았다(조동일, 앞의 논문, 1999).

63) 230여 종이란 수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이본을 소개한 김영수에 의한 것이다. 김영수, 앞의 책, 28쪽 참조.

어, 독자가 <심청전>을 읽고 나서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심청전>이 독자가 윤리의 실천으로서의 개작을 실행하도록 하는 동기를 작품 자체에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설과 판소리를 통한 수용뿐 아니라 그 서사의 변용까지 포함하면 <심청전> 서사의 수용은 대략 4세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그 이본의 변모는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심청 이미지의 소환과 <심청전>의 패러디, 양식과 매체를 바꾼 서사 변용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sup>65)</sup> 그런데 그 담론의 편폭이 상당하여, 현재까지도 심청의 행위가 효인가 아닌가, 심청은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심봉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등 <심청전>의 이해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논쟁과 상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심청전>은 많은 논쟁거리, 즉 대화의 화제를 잠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작품이라면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게다가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초기 <심청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심청전> 이본이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심청전>에는 사설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경쟁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설은 퇴출되고 어떤 사설은 고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66)</sup> 대화가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해 말하는 것’<sup>67)</sup>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필사본이 많다는 점과 이본의

64)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집(秋齋集)』의 기이(紀異) 편에 기록된 요전법(邀錢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숙향전>과 <심청전>이 전기수의 레퍼토리로 등장하고 있다. 조수삼의 생몰 연대를 고려하면 그의 기록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65) <심청전>은 여규형의 잡극 <심청왕후전>, 만극 <모던 심청전>, 서항석의 악극 <심청>, 이형표의 영화 <대심청전>, 창극 <심청>,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 창작 발레 <심청>,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등 매체를 달리하여 재해석되어왔다. <심청전>의 서사를 패러디하여 다시 쓴 사례로는 채만식의 소설 및 희곡 <심봉사>, 최인훈의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오태석의 희곡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황석영의 소설 <심청, 연꽃의 길>, 방민호의 소설 <연인 심청> 등이 있다.

66) 레퍼토리가 경쟁하는 양상은 김효정, 앞의 논문, 2020a와 2020b를 참고.

선후 관계를 파악 가능하다는 사실은 독자가 자신이 읽은 이본에 대해 응답 하도록 한, 즉 필사를 동기화한 대화의 내용과 양상 파악의 용이성을 담보해 줄 것이다. 게다가 <심청전>은 <춘향전>과는 달리 한문본이 없어 평민이나 여성을 중심으로 수용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청전> 이본을 생성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교육적 개입이나 전문적 지식 없이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소설을 통한 소통과 대화적 이해가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이자 윤리적 실천의 하나임을 <심청전> 이본들이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심청전>은 명창 송만갑이 상처(喪妻)한 뒤에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실로 연민, 동정을 자아낸다. <심청전>의 이본의 변모가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이 이미 밝혀진 바인데, 이와 동시에 후대본으로 갈수록 이러한 비극성을 덜어줄 만한 미학적 휴지(休止)가 더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심청전>의 비극성의 강화와 골계미의 생성은 플롯의 변화가 아니라 담화의 확장과 변모를 통해서 담보되었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앞으로 Ⅲ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밝힐 테지만, <심청전>의 이본 파생은 당대 독자들이 등장인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텍스트 자체에 실제로 반영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심청전>의 서사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공감에 기반하여 담화가 확장되고 미학이 변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대 독자와 <심청전>과의 대화 관계 중심적이며, 이본 파생이 주체의 윤리적 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본 수를 자랑하는 <심청전>은 크게 세 개의 이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심청이 공양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부친에게 거짓으로 고하는 대목에서 수양녀로 가는 대상이 ‘장자 → 장자 부인 → 장승상 부인’으로 변모했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전체 서사 변모의 논리에 초점을 두고 삽화와 서사 진행에 있어서 유사성을 지니는 하위 이본군을

67) 대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화는 언제나 이미 있었던 특정한 상황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본 수용에서 일어난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sup>68)</sup> 이에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심청전 전집』<sup>69)</sup> 소재 <심청전> 이본은 다음과 같다.

장자 계열	심맹인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국대 나손문고 낙장 32장본(10)<sup>70)</sup>,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9), 박순호 낙장 50장본(6), 정문연 28장본(8), 정명기 낙장 60장본(5), 단국대 29장 B본(9), 박순호 낙장 36장본(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판 24장본(한남본)(3)</li> </ul>	
장자 부인 계열	심팽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광순 낙장 19장본(4), 박순호 43장본(7), 정문연 19장본(8), 조춘호 31장본(9), 최재남 낙장 22장본(9)</li> </ul>
	심운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순호 19장본(7), 정문연 31장본(8), 조춘호 낙장 16장본(9), 사재동 30장 A본(11), 사재동 30장 B본(11), 사재동 34장본(11), 사재동 30장 C본(11)</li> </ul>
	심학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광순 낙장 29장본(4), 김광순 30장본(4), 김광순 41장본(4), 정명기 65장본(5), 박순호 39장본(6), 사재동 낙장 33장본(11)</li> </ul>
장승상 부인 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효 본(1), 김동욱 90장본(4)</li> <li>• 경판 20장본(송동본)(3), 강전섭 41장본(9)</li> <li>• 완판 71장본(완판본)(3)</li> <li>• 심정순 창본(2), 김연수 창본(1)</li> </ul>	

<표 2> 연구 대상 <심청전> 이본 목록

#### 4. 연구 방법

68) 본고에서 이본군의 특성을 언급할 때에는 해당 이본군의 모든 이본에 공통적이고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전제한다. 이본군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현상일 경우는 이를 따로 명시한다.

69)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 1~12권, 박이정, 1997~2000.

70) 이본명 뒤의 괄호 속의 숫자는 해당 이본이 수록된 『심청전 전집』의 권수이다.



본 연구는 이본의 파생 현상을 이해에 기반한 창작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창조성 있는 이해가 문학교육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화’에 천착한 바흐친의 이론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바흐친의 ‘대화’ 개념이 ‘의미의 인격적 이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형식주의나 소쉬르의 언어 체계와 같이 삶과 예술, 삶과 언어를 분리하여 주체와는 관계없이 자족적인 체계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이론주의를 거부했다.

그는 주체의 책임, 그리고 의미 이해에 있어서 타자를 요청하는 상호주관성의 맥락에서 대화에 주목하게 되었고, 말 걸기와 응답하기라는 대화의 구도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의 윤리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된다. 또한 그의 대화에 대한 관심은 가장 대화적 담화 형식인 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월되고 그를 통해 다성성 개념이나 여러 가지 담화 유형의 분석 이론들이 도출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거쳐 라블레 연구에 이르면, 소설의 위상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면서 그의 관심은 ‘카니발’이나 ‘웃음’과 같이 현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범의 파괴로 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에 바흐친은 초기의 관점으로 회귀한다. 그의 이러한 그의 철학적 노정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바흐친 스스로가 조정<sup>71)</sup>을 가한 소설 지상주의, 소설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인 중반기의 이론은 제외하고 그의 초기의 저작과 후기 저작을 중심으로 대화적 이해의 개념에 다가가고자 한다.<sup>72)</sup>

바흐친의 해당 저작들이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을 이해하는 유효한 관점을 제공하는 이유는, 동일성과 창조성,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71) 후기에 이르면 카니발은 도덕률 폐기론적인 파괴의 순수한 힘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그마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카니발은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웃음은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깨끗이 치우는 것으로 파악된다.

72) 바흐친의 이력의 형성과 변모는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의 1부 2장과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의 해제인 「미하일 바흐친의 『말의 미학』의 토대와 발전」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의 관점의 특수성에 있다. 통일성은 이본이 모두 다르면서도 하나의 작품군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유, 창조성은 모든 이본이 각기 다 다른 이유, 그리고 윤리성은 이러한 이본을 파생시킨 독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바흐친의 이론에 기반하여 대화적 이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화적 이해의 원리, 독자의 응답성과 이본 파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I장에서 소개한 선후 관계가 드러난 <심청전>의 이본군을 대상으로, <심청전>의 변모를 텍스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독자가 응답하는 대화적 이해로 재해석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독자가 응답하는 대상은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작가’이다. 따라서 크게 심청과 심봉사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피되, 인물에 대한 공감의 태도나 인물 형상화에 대한 작가적 의식이 대화적 이해에 작용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Ⅳ장은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 논의에 할애된다. 먼저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와 의의를 밝히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바흐친의 이론에 기대어 대화적 이해의 개념을 밝히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으로 나누어 살피고, ‘텍스트의 다성성’에 대한 ‘독자의 응답성’이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소설 <심청전>의 이본 변모를 대화적 이해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대화적 이해의 개념

#### (1) 대화의 관계적 속성

바흐친이 이론의 완숙기에 쓴 「인문학의 방법론을 위하여」에서 그는 ‘이해’의 과정을 1) 물리적 기호의 지각, 2) 기호의 인지와 의미(znachenie) 이해, 3) 컨텍스트 내에서의 기호 이해, 4) 논쟁-찬성과 같은 능동적이고 대화적인 이해, 즉 대화적 컨텍스트 속에서의 이해로 분할하였다.<sup>1)</sup> 이 최종 단계의 의미(smysl)<sup>2)</sup> 이해가 ‘대화적이고 컨텍스트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주체에 의한 ‘의미의 인격화’를 뜻한다.

그런데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서 바흐친이 처음 서구에 소개될 때 그녀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며 변형이다. 상호주관성의 자리에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이 들어선다.”<sup>3)</sup>고 주장한다. ‘대화’는 ‘인용’으로, ‘주체’의 능동적 이해는 ‘상호텍스

1)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511쪽.

2) 우리말로 모두 ‘의미’로 번역되는 ‘znachenie’은 ‘뜻’, ‘smysl’는 ‘취지’, ‘목적’, ‘요점’에 가깝다.

3) Julia Kristeva, *Wort, der Dialog und der Roman bei Bachtin*, in: Jens Ihwe (Hg.):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Bd. III, 1972, 348쪽, 박건용,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 수용 및 적용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32,

트성'의 자족적 체계로 바뀌어버린다. 이러한 구조주의적인 관점은 바흐친이 평생 시도한 철학과는 사실 정반대에 자리하는 것이다.<sup>4)</sup> 이에 여기서는 바흐친이 경계하고 극복하고자 한 바에 거리를 두면서, 바흐친의 사유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 대화적 이해 개념의 기반이 되는 '대화'의 속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흐친은 그의 첫 번째 공식적 문건인 「예술과 철학」에서 그는 예술과 삶 사이의 괴리와 소외를 거부한다.

“시인은 삶의 비속한 산문성이 자신의 시 탓임을 기억해야 하며, 생활인은 예술의 불모성이 엄격한 요구를 제시할 줄 모르는 자신의 어설피품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진지하지 못함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격은 전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sup>5)</sup>

형식주의 논의가 풍성했던 시기에 형식주의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흐친은 예술과 삶은 오로지 개인의 인격 속에서 책임을 통해서 통일된다고 보았다. 형식주의자나 구조주의가 지양하는 의미의 '인격화'는 바흐친에게 있어서는, 초기작에서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철학의 목표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방법론인데, 「예술과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에 주목했던 그는 「미적 활동에서의 작가와 주인공」에서 자아의 형성에 끼치는 타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게 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작가가. 인물이 보고 아는 것을 모두 알 뿐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보고 안다는 점에 주목한다.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 작가가 가지는 이러한 시선의 '잉여성', 그리고 인물의 모든 요소에 대해 공간

---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5, 363쪽에서 재인용.

4) 박건용은 크리스테바가 바흐친의 이론의 본질이며 그의 이론을 상호텍스트적이게 만드는 근거인, 일회적이고 유일무이한 나와 타자라는 주체중심주의와 상호주관성을 마치 상호텍스트성과 서로 배타적인 개념인 것처럼 대립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텍스트성을 이유로 상호주관성을 제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건용, 위의 논문, 362쪽.

5)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26쪽.

적·시간적·가치 평가적·의미적으로 가지는 ‘외재성’은 자아 이해에 있어서 타자가 불가결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잉여성과 외재성을 가진 채 바라보기는 가치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등장인물은 대상에 반응을 하고, 작가는 주인공의 ‘반응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항상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에서의 타자에 대한 반응은 파편적인데 반해, 작가의 주인공에 대한 반응은 총체적이다.

“예술작품에서 주인공의 부분적인 발현에 대한 작가의 반응에는 주인공의 총체에 대한 통일된 반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으며, 주인공의 모든 부분적인 발현은 이 총체적인 성격 묘사에서 그 계기적 의미를 지닌다. 총체적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미적인 이유는 이 반응이 모든 인식적이고 윤리적인 규정과 가치평가를 한데 모아 그것들을 하나의 단일하고도 유일한 전체, 그러나 또한 의미론적인 전체로 완성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은 성격을 창조하는 원칙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특성을 지닌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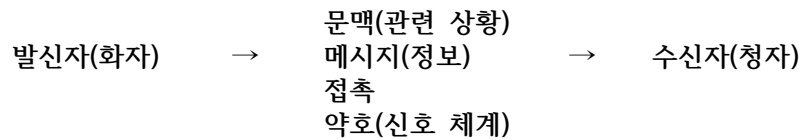
작가가 한 장면을 가지고도 주인공의 총체를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작가가 잉여성과 외재성을 가지고 인물에 대한 가치 평가적 지향을 꾸준히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가의 가치 평가는 인물을 총체를 드러내는 데에 소용될 뿐 아니라 작가의 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sup>7)</sup> 작가와 인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를 조명하는 상호주관적 속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심미화 행위 자체가 윤리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개인에게 단독적으로 맡겨졌던 ‘책임’은 이제 타자의 존재를 요청하게 되고, 이는 말 걸기, 대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sup>8)</sup>

6)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29쪽.

7) “모든 가치 평가는 존재 속에 개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이다.” 위의 책, 182쪽.

8)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문제』(Проблемы Творчества Достоевского, 1929)에 따르면 바흐친은 ‘말’, ‘목소리’, ‘다성성’, ‘대화’ 등 바흐친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전통적 언어학과는 다른 메타언어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바흐친이 전통적 언어학 영역의 바깥에 놓여있다고 한 ‘대화’ 개념을 야콥슨의 ‘전송’ 모델과 비교해보자.



<로만 야콥슨의 전송 모델><sup>9)</sup>

바흐친에게 있어서 언표는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그저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 언표에서 화자는 능동적 이해의 과정을 예측하며, 화자의 언표는 앞선 언표들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청자는 언표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sup>10)</sup> 의사소통으로서의 언표는 화자와 청자 둘 모두에게 속한다. 다시 말해 화자의 청자에 대한 능동적 이해 과정의 산물로서 언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야콥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언어학의 모델은 타자들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능동적 청자로서의 화자(저자)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바흐친에게 모든 언표는 정의상 대화적이며, 말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 의해 공동 창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전통적 언어학이 말하는 언어는 대화의 재료는 될 수 있지만, 대화는 재료 자체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본다.

“모든 텍스트 뒤에는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 텍스트 속에서 언어 체계에 상응하는 것은 모든 반복된 것, 재현된 것,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것,

9) 번역에 따라 용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92, 54~55쪽에 있는 용어는 괄호 속에 있는 용어이다.

10) 여기에 바흐친 이론과 수용 이론의 차이가 있다. 수용이론은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독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바흐친의 대화적 모델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언표를 형성하는 존재로 독자를 표상한다.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240쪽.

텍스트 외부에 주어져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주어진 소여)이다. 그러나 동시에 (발화로서의) 모든 텍스트는 무엇인가 개성적이고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바로 여기에 텍스트의 모든 의미(텍스트가 만들어진 의도)가 있다. 이것은 진리, 정의, 선, 미, 역사에 관계하는 것 속에 존재한다. 이 계기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며 재현되는 모든 것은 질료이자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정도 언어학과 어문학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 두 번째 계기(극)는 텍스트 자체에 고유하지만, 상황 속에서만, 텍스트의 사슬(주어진 영역에서의 발화적 소통) 속에서만 밝혀진다. 이 극은 언어(기호) 체계의 (반복 가능한) 요소들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들과 독특한 대화적(작가와 분리될 때는 변증법적) 관계를 맺는다.”<sup>11)</sup>

텍스트에는 언제나 만들어진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진리, 정의, 선과 미, 역사와 관련된다. 또한 텍스트는 발화의 소통적 맥락에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반복 불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흐친은 ‘인생은 멋지다’와 ‘인생은 멋지지 않다’라는 두 가지 판단을 제시한다. 이들 사이에는 부정의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두 판단 사이에는 대화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서 대화적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발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명이 ‘인생은 멋지다’라고 하자, 두 번째 사람이 동일하게 ‘인생은 멋지다’라고 응수한 상황을 보자. 언어학자의 관점에서는 문장의 반복, 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특수한 논리적 관계, 즉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메타언어학의 관점으로 보면 ‘동의’라는 대화적 관계를 본다.<sup>12)</sup> 이 점에서 바흐친은 대화는 언어학이 포착할 수 없는 ‘메타언어학’을 통해서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예술이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바흐친은 개인의 책임에서 타자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타자를 통한 자아의 이해는 다시 타자에 대한 말 걸기, 즉 대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바흐친은 대화를 전통

11)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404쪽.

12) 미하일 바흐친, 박근식 역,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266쪽 참고.

적인 언어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관계’로 파악하면서 메타언어학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본고는 바흐친의 이러한 이론적 흐름이 ‘의미의 인격화’라는 과녁을 조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에 바흐친의 대화 개념은 문학을 통한 인간성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소설교육에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대화화된 언어적 다양성을 가장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소설적 담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화적 이해 개념을 버리고자 한다.

## (2) 대화적 담화로서 소설의 이해

‘대화’에서 방법론을 찾은 바흐친은 소설이 가장 대화적인 담화라는 점에 착목하게 된다.<sup>13)</sup> 그는 「소설 속의 담론」에서 기존의 담화 분석 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소설적 담화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적 언어학, 즉 소쉬르의 랑그/파를 체계와 대결하는 언어 이론을 제시한다. 소쉬르와 유사하게 바흐친 역시 공통의 단일 언어, 언어적 규범들의 체계를 인정한다. 그런데 바흐친은 이 규범을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며, 언어적 다양성의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힘”<sup>14)</sup>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소쉬르와 차별화된다. 그는 공통언어를 구체적 대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이해를 보장해주는 기본적 형식의 체계가 아니라 ‘최대’한의 상호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념, 세계관, 견해들이 구현된 장(場)으로 본다.<sup>15)</sup>

13)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 창작의 문제』(1929)라는 저서에서 기존의 ‘저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관심’과 ‘대화’에 대한 관심이 뒤섞인 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연구한다. 이 저서에서는 작가와 인물 사이의 긴장과 대화적 관계로서 다성성 개념이 나타나고 이를 분석할 방안으로 담화 유형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소설 속의 담론」(1934~1935)에 이르면 비로소 그의 언어 이론이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14)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77쪽.

15) 이러한 단일 언어 개념은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의 문법과 어휘를 알고 있다고 해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는 없다.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장르를 경험해본 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험이



“‘단일언어’ 속에 구현되어 있는 언어의 구심적 힘들은 어디까지나 언어적 다양성의 한가운데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진화의 매순간에 언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형식적인 언어학적 표지들, 특히 음성학적인 표지들에 따른) 언어학적 방언들뿐 아니라, 사회·이념적 언어들, 즉 여러 사회집단의 언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적’, ‘장르적’ 언어들, 여러 세대들의 언어들 따위로 분화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문예언어 자체도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 중 하나의 따름이며, 이것 역시 여러 하위 언어들(장르적, 시기적 언어들)로 분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화와 다양성은 일단 구체적 모습을 갖추게 되면 언어의 삶 속에서 불변하는 상수(常數)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동성을 보장하는 힘으로 된다. 언어가 살아있는 한, 분화와 다양성은 폭과 깊이를 더해나간다. 구심적 힘들과 나란히 원심적 힘들이 작업을 수행한다. 언어·이념적 중심화 및 통일과 더불어 탈중심화와 분열의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된다.”<sup>16)</sup>

바흐친은 단일 언어를 변치 않는 체계나 상수로 보지 않았다. 단일 언어의 체계도 단일 언어를 구성하는 구심적 힘과 원심적 힘의 역동으로 인해 ‘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담화 주체의 모든 발화에는 구심적 힘과 원심적 힘이 동시에 작용을 가한다. 마찬가지로 문예언어도 중심화와 탈중심화, 통일과 분열의 과정을 거듭한다. 그런데 그는 시적 장르가 보다 구심적인 힘들의 영향 하에 발전하는 데에 비해, 소설과 소설지향적인 예술적 산문은 탈중심화를 도모하는 원심적 힘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소설의 담화는 특히 더 대화적인 언어적 다양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대화적 과정에서 독특한 문체적 형태와 어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말은 다른 말들과 다양한 평가적 강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 속에서

---

많이 쌓여야 상대방의 나이, 성별이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과 함께 그 사회에서 일정한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관습적 담화를 매 순간 창조해낼 수 있다.

16)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78~79쪽.

그 중 어느 요소들과는 조화를 이루고 다른 요소들과는 대립하면서 그 공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자신의 독자적 의미와 표현을 획득함으로써 이 같은 대화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자신의 문체적 형태와 어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술적 산문 속의 형상, 특히 소설적 산문 속의 형상이 이와 같다. 소설 공간 속에서는 말의 직접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의도란 용납될 수 없으리만큼 순진한 어떤 것,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것이다.”<sup>17)</sup>

자아 이해에 있어서 ‘타자’의 역할을 주목했던 바흐친은 이제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언어’의 역할에 주목한다. 인간은 살면서 사회적 대화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방관자로서 접근할 수 없다.<sup>18)</sup> 이렇게 이미 말해진 것, 이미 알려진 것을 상대해야 하는 담화의 대화적 지향성은 모든 담화의 일반적 특성이지만, 자족적인 시의 언어에 대조해보면, 특히 소설의 작가는 의미 규정과 가치 판단 없이 대상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

“내적 대화화는 다소의 정도 차는 있을지라도 언어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비예술적 산문(일상적·수사적·학문적 산문 등)에서의 대화화가 보통 특별한 유형의 독자적 행위의 자격으로 일상적 대화 속에 자리잡거나 아니면 타인의 담론과 뒤섞이고 논쟁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적 형식 속에 표현되는 반면, 예술적 산문, 특히 소설 속의 대화화는 언어가 그 대상과 표현수단을 개념화하는 바로 그 과정 내부로부터 담론의 의미와 구문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침투해 들어간다.”<sup>19)</sup>

바흐친은 외적 대화와는 달리, 타인의 말을 의식하는 내적 대화는 인용 부호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경계와 같은 문법상의 표현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내적’ 대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가 보기에 소설에서는 이 내적

---

17) 위의 책, 85쪽.

18) 위의 책, 84쪽.

19) 위의 책, 93쪽.

대화화가 그 예술적 도구로서 채택되며 소설 문체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바흐친은 내적 대화화가 언어 그 자체와 그것이 지니는 세계관과 대화화할 때야말로 형식을 창조하는 결정적 힘을 가짐을 중요하게 짚어 내면서<sup>20)</sup> 내적 대화화가 단순한 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가치, 관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바흐친은 대상 내부에서의 대화화뿐 아니라, 독자의 신념체계와 관련해서도 대화는 일어남에 주목한다.

“이해의 행위란 자기 특유의 대상 및 정서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개념체계 속에 그 이해대상인 말을 통합시키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동의 혹은 반대로서의 반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략) 반응이야말로 이해의 토대를 창조하고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이해의 토대를 준비하는 존재이다. 이해는 반응 속에서가 아니라면 완성될 수 없다.”<sup>21)</sup>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해란 담론의 형성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더욱이 그것은 때로는 저항으로 때로는 지지로 나타나서 담론을 살찌우는 능동적 힘이다.”<sup>22)</sup>

‘언어의 내적 대화성’은 타인의 담화를 대상 그 자체의 내부에서 다른 말과 마주치는 언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소설을 비롯한 모든 발화가 주체의 주관적인 신념체계와 마주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반응함으로써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동의나 저항과 같은 견해를 통해서 대상의 이해와 대상 자체의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타인들의 의도로 채워져 있는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과정을 요한다.<sup>23)</sup> 특히 내적인 대화화를 문체상의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소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적 대화화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은 분

20) 위의 책, 93쪽.

21) 위의 책, 90쪽.

22) 위의 책, 89쪽.

23) 위의 책, 104쪽.

명 소설 이해에서 핵심이라고 하겠다.

이상 대화적 담화로서의 소설의 속성을 살폈다. 또한 좋은 형식의 소설은 그 안의 내적 대화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과 심층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함도 살폈다. 한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체계와 대화화가 요구되도록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소설의 이해는 소설 속의 대화화를 이해하고 이것과 대화하는 이중의 이해, 메타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 (3) 소설 속의 목소리와 대화적 이해

앞서 대화는 일련의 발화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화의 이해에 있어서 주체의 '의도'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바흐친은 소설에 있어서 화자의 어조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바흐친이 말하는 화자(話者)란 서술자(narrator)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작중화자, 작중화자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 그리고 작품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등장인물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작중 세계 내에서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목소리를 드러내는 모든 인격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화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의 발화를 차용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애초의 의도는 강화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며, 완전히 왜곡되기도 하는 등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항상 굴절되게 마련이다. 특히 인물 영역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침범시키는 활동의 장이다.

“소설 속의 인물은 자신의 특수 영역, 즉 자신에게 할당된 직접담론의 범위를 (때로는 아주 멀리) 넘어서 그를 둘러싼 작가의 문맥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 주요 인물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직접 말하는 '실제' 발언의 영역을 넘어서게 마련이다. 소설 속의 주요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영역은 문체상으로 대단히 특이한

영역이다. 수많은 다양한 혼성구문들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영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항상 대화화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내부에서 작가와 그가 창조한 인물들 사이의 대화-진술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누어지는 극적 대화가 아닌, 겉보기에는 독백으로 보이는 구문의 한계 내에서 실현되는 저 특이한 유형의 소설적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대화에의 잠재력이야말로 소설적 산문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특권이며, 극이나 순수하게 시적인 장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특권이다.”<sup>24)</sup>

소설이 내적 대화화를 문체상의 중요한 형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설의 이해는 소설이라는 내적 대화에 참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특히 인물의 목소리는 그것이 비록 독백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항상’ 대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적 담화로서 소설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을 이룬다. 다음 절에서는 혼성(混聲) 구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를 들어 소설 안의 대화화가 드러나는 사례를 보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특별한 문법적 표지를 가진 특정한 담화 유형을 띠지 않더라도 언제나 대화적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sup>26)</sup>

“소설 속에 통합된 언어적 다양성은(그 통합의 형식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굴절에 의해서만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타인의 언어에 의한 타인의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이중음성적 담론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담론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동시에 두 사람의 화자에 봉사하고 서로 다른 두 의도, 즉 이야기하는 인물의 직접적 의도와 작가의 굴절된 의도를 함께 표현해주는 담론이다. 그 속에는 두 개의 음성, 두 개의 의미, 두 개의 표현이 있다. 게다가 이 두 음

---

24) 위의 책, 135쪽.

25) 바흐친은 소설이 언어적 다양성을 도입하고 조직하는 기본적 형식들을 고찰하는데 패러디적인 굴절, 작중화자의 인물의 발화, 다양한 장르들의 통합,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위의 책, 111~140쪽.

26) 따라서 대화적 이해 양상을 분석하는 III장에서는 혼성구문임이 구체적 표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물의 목소리는 작가의 의도가 투사된 의사(疑似) 객관적인 성격을 띠을 전제하고 분석할 것이다.

성은 시종일관 대화적인 상호관련을 갖는다. 즉 이 두 음성은 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상호인식 속에서 자신의 발언을 구성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안다. 이 점은 그들이 상대방과의 실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와도 다를 바가 없다. 이중음성적 담론은 항상 내적으로 대화화되어 있다.”<sup>27)</sup>

소설 속의 인간은 언제나 말하는 인간이며, 소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소설 속에 들어오는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바흐친은 소설 속의 화자는 언제나 어떤 정도로든 이념인(理念人, ideologue)이며, 그의 말은 언제나 이념소(理念素, ideologeme)들이라고 하였다.<sup>28)</sup> 이렇듯 화자와, 화자의 담화는 장르로서의 소설의 고유성을 보장해주는 요소이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은 서사시의 주인공과 달리 행동뿐 아니라 말을 한다. 서사시에는 작가의 담론과 합쳐지는 하나의 신념체계만 있지만 소설에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며 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의 담화 내부에서는 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소설의 이해는 소설 속의 목소리, 즉 작가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향하며 이들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서로 다른 이본, 특히 선후 관계가 드러나는 이본을 비교하여 읽어보면 이 내재화된 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숨겨진 대화의 의도가 모습을 더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며, 각 개작자의 의도뿐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란 고전소설의 이본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각 이본 내부 혹은 이본과 이본 사이의 대화와 그 의도들을 파악하는 메타적인 이해이면서, 이 과정을 통해 독자가 작품의 신념체계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 속에 편입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확장시킴으로써 대상과 주체에 대한 이해를 살찌우는 소설 이해라고 하겠다.

---

27)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40쪽.

28) 위의 책, 150쪽.

## 2.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대상인 텍스트 자체의 내적 대화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른 이본을 비교하여 내적 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와 의도를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가 여러 이본이라는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 하나의 작품군의 의미를, 이본 개작자들이 행한 방식을 따라 대화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층위의 이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학습자가 대화적 이해에 이를 수 있는 교육적 원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다성성의 원리는 텍스트 자체의 내적 대화를 이해하는 원리이다. 응답성의 원리는 서로 다른 이본을 비교하여 내적 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와 의도를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원리이다. 이 두 가지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통해서 학습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대화적 이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 (1) 텍스트의 다성성

앞서 대화적 이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바흐친의 비교적 후기 논문인 「소설 속의 담론」의 논리를 따라가 보았다. 그가 대화화된 담화 장르로서 소설에 대한 정연한 논리를 펼치게 된 데에는 도스토예프스키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문제』라는 저서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성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한편, 소설에 나타나는 대화화된 담화의 유형 분석을 시도했다. 여기서는 ‘대화화된 담화’와 ‘작가와 인물의 길항하는 목소리’를 텍스트의 다성성 원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화화된 담화

모슨과 에머슨은 바흐친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문제』에서 산만하게 나열하고 있는 담화 유형을 크게 인용 부호 ‘없는’ 흘목소리와 인용 부호가 ‘있는’ 겹목소리로 나눈다.<sup>29)</sup> 먼저 흘목소리의 말은 다시 첫 번째 유형의 말과 두 번째 유형의 말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의 말은 직접적이고 지시적 담화이다.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 담화는 소설에는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의 말은 ‘주인공의 직접 화법’이다. 바흐친이 「소설 속의 담론」에서 인물의 담화는 독백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 대화화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을 생각해보면, 주인공의 직접 화법이라 할지라도 이는 의사(疑似) 객관적인 담화이다. 즉 두 번째 유형의 말의 경우는 작자의 발화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작자의 발화에 종속되어 있다.<sup>30)</sup>

<대화화된 담화 유형들><sup>31)</sup>

1. 흘목소리의 말

A. 첫 번째 유형의 말(화자의 최종적 의미상의 판단의 표현으로서 직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상을 향한 말)

B. 두 번째 유형의 말(객체화된 말, 묘사된 인물의 말)

2. 겹목소리의 말 : 세 번째 유형의 말(타인의 말을 지향하는 말, 이중적 목소리의 말)

29)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앞의 책, 269쪽.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문제』(1929)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소설 속의 담론」(1934~1935)에 이르면 이 구분이 확실해진다. 이에 두 논자는 그의 이론을 종합하여 바흐친의 유형 구분을 재정리한다.

30)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271쪽. 두 번째 유형의 말의 경우 결정적인 사실은 인물의 발화에서 그/그녀의 발화가 제2의 발화 중심을 알아채지 못한 채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담화 유형에서는 거기에서 창조된 인물은 자신의 윤리적 삶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반면에 저자는 ‘외부에서’ 그러한 삶에 심미적 최종점을 부과한다.

31) 바흐친의 담화 유형을 보다 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본고는 바흐친의 논의를 재정리한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의 용어(앞의 책, 270~290쪽)를 활용한다. 원래의 담화 유형의 요약 표는 미하일 바흐친, 위의 책, 287쪽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의 담화 유형 정리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바흐친의 원래 표현이다.



- A. 수동적 겹목소리의 말
  - a. 단일 방향적인 수동적 겹목소리의 말(단일 방향의 이중적 목소리를 가진 말)
  - b. 다중 방향적인 수동적 겹목소리의 말(여러 방향을 가진 이중적 목소리의 말)
- B. 능동적 겹목소리의 말(능동적 유형, 반영된 타인의 말)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의 말로, 겹목소리의 말이다. 이때부터 언표가 내부에서부터 대화성을 띠게 된다. 겹목소리의 말에서는 다른 사람의 담화,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것이 저자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이 제2의 목소리 발성이 의도적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겹목소리의 말은 다시 수동적 겹목소리의 말과 능동적 겹목소리의 말로 나눌 수 있다. 수동적인 경우는 저자나 화자가 통제력을 발휘하여 타자의 담론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능동적인 경우는 이 타자의 말이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각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수동적 겹목소리의 경우는 다시 단일 방향적인 경우와 다중 방향적인 경우로 나뉘는데 단일 방향적인 수동적인 겹목소리의 예를 들자면, 같은 스타일을 반복하는 ‘양식화(stylization)’를 들 수 있다. 반복을 왜 대화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바흐친은 동의도 대화적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특정 화자가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홀목소리, 모방)과 두 명의 화자가 각각 자신의 관점에서 의기투합한 것(겹목소리, 양식화)을 구분하고 있다. 모방은 목소리들을 완전히 하나로 융합한다. 그러나 양식화는 독자가 어떤 말이 작가가 아닌 타인의 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타자와의 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는다.<sup>32)</sup> 반면 다중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의 말은 타자의 담화를 비판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패러디가 그 대표적 사례로 작가는 양식화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말로 말하지만 양식화와는 달리 그 말에 타인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의 방향성을 도입하여<sup>33)</sup> 못마땅한 측면을 분명하게 만든다.

32)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275쪽.

바흐친은 담화 유형 가운데 가장 마지막 범주, 능동적 겹목소리의 말에 가장 관심을 둔다. 이는 일종의 숨겨진 논쟁으로 볼 수 있다. 능동적인 겹목소리의 말은 엄청나게 내적으로 대화화되어 있어 이를 엄밀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유형의 담화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은닉된 내부 논쟁, 논쟁적으로 채색된 자백과 고백, 타인의 말을 계산에 넣은 모든 말, 대화의 응답 속에 감춘 대화이다.<sup>34)</sup> 양식화나 패러디에서의 타인의 말은 그것을 이용하는 작자의 손에서 수동적이지만, 은닉된 논쟁이나 대화에서는 타인의 사상에 대한 작자의 압도적인 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의 말은 평정과 확신을 상실하고 동요된 상태가 되며 내적으로 불확실한 이면성을 지니게 된다.<sup>35)</sup>

이상의 담화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대화화된 담화를 고전소설 <심청전>을 사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본 사이에서 소설의 내적 대화화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삽화의 출입이나 문장을 비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말에 대해 가치 평가를 드러내는 ‘어조’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먼저 <심청전>의 이별 대목에 나타나는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담화의 어조<sup>36)</sup>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심맹인 군]<sup>37)</sup> “애고 애고 설운지고 이 내 일을 잊이할고 동중의 어룬덜은

33) 위의 책, 275쪽.

34) 위의 책, 282~287쪽.

35) 위의 책, 285~286쪽.

36) <심청전>에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저자의 목소리를 일치시키지 않으므로써 특별한 서술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서술자와 저자의 의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겠다.

37) 본고에서 작품 인용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여러 이본 및 이본군을 비교할 때는, 그 인용문이 특정 이본군을 대표하는 경우, 인용문 앞에 [○○군]으로 표시하여 해당 이본이 속하는 이본군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본, 즉 한 남본, 신재효 본, 송동본, 완판본, 창본 등의 경우는 인용문 뒤에 <이본명, 쪽수> 형식으로만 출처를 표기한다. 각 이본이 『심청전 전집』의 몇 권에 수록되어 있는지는 앞서 연구 대상의 <표 2>(32쪽)에서 밝혔고, 인용마다 따로 밝히지는 않는다. 쪽수는 해당 이본이 수록되어 있는 권수의 쪽수이다.

한 말삼 무거불측한 심청이 모지더라 하시난 중 내 엇지 모르리요마은 부친이 맹인된 것 철천지 원이 내 가슴이 맥여 천사만탁 생각다가 오직하여 이리 할가 과의 책망 모르시고 우리 부친 불상 생각하옵소서 하고 슬피 통하니 일월도 무광하고 시내물이 목이 매인 듯 비급쥬슈라도 다 보고 슬허한다 상하촌 남녀소 다 와보고 슬허한다” <박순호 낙장 50장본, 408쪽>

[심운 군] “불상타 심창니여 범인과 갓트면 저의 부친 경상 보고 엇지 츠마 갈리요마난 본디 심창은 출천지효라 부모 위로할 분 안니라 일언니 증천금니라 엇지 그런 효여가 죽기를 악기리요” <사재동 30장본 (C), 381쪽>

[심학규 군] “손목을 부여잡고 낙누로 이별하니 치봉악과 흥연악니 츤미질을 부여잡고 이 이 심천아 부친 위히 죽난 거도 효힝니라 헝건만은 이변 일을 심각하니 불효헝기 칭양업다 압 몸보난 부친 두고 너 가면 저 죽단 말가스고무친 저 늘근니 외손봉스 바리드니 너 몸 하나 저러하니 휴스가 가연하다 마리아 올타마은 스시가 무가니라” <김광순 41장본, 169쪽>

“촌중 여러 부로덜짜 여러 앓씨 전의 심청이 비난 마리 심청 팔씩 무송하야 병신 이비 니바리고 슈증고혼 되려 가니 괘씸이 아지 말고 저 전곡을 식이하야 가공흔 병신 이비 의지식지헝게 헝면 결초보은 헝오리다” <신재효본, 20쪽>

“승상 부인이 문밖기 니다려 소제의 손을 잡고 울며 왈 네 이 무상흔 사름아 나는 너를 즈식으로 알아찌니 너는 날을 어미갓치 안이 아난또다 빅미 삼빅 석의 몸이 팔여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만은 내가 살어 세상의 잇셔 하난 것만 갓할손야 날다려 은논테면 진직 주션헝엇지야 비미 삼빅 석을 이제로 니여 즐거스니 선인덜 도로 쥬고 망영은말 다시 말나” <완판 71장본, 236쪽>

<심청전>의 서사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이자,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은 심청의 죽음을 통한 효의 실천이다. 모든 <심청전>은 심청이 죽지 않고 환세(還世)하여 부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영웅 서

사시적 결말을 맺음으로써 자기희생적 효에 대한 논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의 행위는 ‘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라는 공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효상효(以孝傷孝)’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청전>의 모든 이본은 ‘이효상효’ 화제에 대한 논란을 담고 있다.

특히 이별 대목에서는 심청 스스로나 심청의 동무, 동중(洞中)의 인물 등을 통해 심청의 행위가 바른 효인가, 아닌가라는 공통된 문제 제기가 나타난다. 심청의 행위가 동네 사람들을 넘어 작품의 독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이 이별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목숨을 바치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과연 효인가 하는 질문은 <심청전>의 초기 수용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청전> 이해에 있어 꾸준히 제기되는 화제다.

그런데 이별 장면에서 따온 네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화제가 제시되는 담화의 유형 자체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은 서술자나 인물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이, [심운 군]에서는 서술자가, [심학규 군]에서는 심청의 친구인 채봉아기와 흥연아기가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의견을 인용하는 겹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겹목소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용하되 이를 통제하여 반대로 자신의 담론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즉 반론을 미리 예상하여 그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바흐친의 담화 유형 범주로 구분하자면 이는 다중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이다.

그런데 신재효 본이나 완판에서 심청이 자신을 께뻘히 알지 말아 달라고 하거나 장승상 부인이 망령스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 화자는 누군가의 의견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는 있으나 인용 부호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능동적 겹목소리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결눈질하는 화자의 내적 대화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두 이본에서는 심청의 매신 행위에 대한 논쟁과 평가를 숨겨서 드러내는 것이다. 능동적 겹목소리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심청전>의 수용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초기본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던 대화의 화제와 논쟁이 후기본으로 갈수록 함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화의 장에서 화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해석 공동체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 화제에 대한 대화는 잠잠해진다. 따라서 후기본만을 가지고 <심청전>을 읽으면 <심청전>의 풍부한 대화의 역사가 그 안에 단단한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효가 교조화되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본군을 통해 대화가 내재화되는 과정에 민감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청전> 전승사에서 여러모로 분기점의 위상을 지니는 신재효 본에서부터 내적 대화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심청이 자신을 “괘씸이 아지 말고” 부디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말은, 심청 자신도, 공동체도, 독자도 심청의 행위에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가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말이지만, ‘불효’라는 직접적 언명 없이 그에 대한 반론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즉 신재효 본의 심청은 자신의 행위가 ‘무거불측’, ‘불효’라는 평가에 저항하는데, 이 부정적 평가어를 텍스트에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저항의 반응만을 전달한다. 이 저항의 능동적 겹목소리를 단순히 직접 화법으로 파악하고 만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다성적으로 전달하는 소설로서의 <심청전>과, 대화를 차단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효 이념을 고취하는 효행담과의 차이를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완판에 이르면 <심청전>의 도덕적 딜레마는 삼백 석을 내어주며 심청을 만류하는 인물이 서사 세계에 등장할 정도로 심청의 효는 수용자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지는 인물이 심청의 효행에 다른 방법적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에 내재한 갈등을 더욱 첨예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완판의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효성이 지극”하지만 옆에서 모시는 것만 같겠냐고 하면서 삼백 석을 내어줄 테니 망령스런 말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다. 심청의 매신을 표면적으로는 효성이라 칭하면서도 동시에 망령스럽다고 표현하는 점은 죽음을 통해 효의 실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내재화된 능동적 겹목소리이다. 심청이 효녀임이 여러 면에서 강화되고 인정되는 완판에서는 초기본의 ‘심청이 효녀가 아니라’는 평가는 억

압되면서도 심청의 ‘이효상효’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여전히 숨겨진 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소설에서는 대화화된 담화가 다성성을 창출하고, 독자가 작품의 주제를 소설의 내적 담화에 주목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텍스트 내적 원리가 된다. 따라서 독자가 내적으로 대화화된 담화를 감지할 수 있느냐 여부는 독자의 주제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는 작품의 주제가 독자에게 일방적인 독백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화된 담화로 매개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대화화된 텍스트의 특성을 감지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이 대화를 재생하여 작품에 대한 주제를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대화적으로 조화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여부는 독자가 작품과 자신의 삶을 연계시키고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2) 작가와 인물의 길항하는 목소리

초기부터 예술과 삶의 괴리를 거부한 바흐친은 이를 통합할 개인의 책임에 주목한다. 이어 책임지는 자아의 형성에 있어서 타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대화 이론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이후 모든 담화가 기본적으로 대화적이지만 가장 대화적인 담화로서 소설에 주목했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대화적이라고 평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통해서 특유의 다성성 이론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제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다성적이라고 정의하고, 바로 앞서 살폈듯, 소설에서의 담화의 다성적 사용 방식을 메타언어학적으로 밝힌다. 한편 그는 같은 저서에서 등장인물과 작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성적인 소설 이론을 전개한다. 이에 여기서는 소설의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적 이해의 텍스트적 원리로서 다성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중시하는 것은 주인공의 의식과 자의식, 그리고 그에 대한 주인공의 담화이다. 독자가 그의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

이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자신을 의식하는가'이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현실을 밝혀주지 않으며, 오히려 등장인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능한 모든 시점에서 비춰본다. 이로써 등장인물을 둘러싼 현실과 세계는 그의 자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등장인물은 객관적 상(像)이 아니라 순수한 목소리이다.<sup>38)</sup>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등장인물의 특성은 다른 소설의 등장인물과 비교를 통해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 되어간다. 즉 주인공을 작가의 구상 속에서 이미 확정된 인물로 만들었던, 이를테면 주인공의 운명은 어떠한 해가 된다고 미리 판결을 내렸던 모든 것, 그리고 주인공을 현실의 완성된 이미지로서 영원히 못 박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공을 최종화시키는 형식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그의 자의식의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백적 구상 속에서 주인공은 폐쇄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의미적인 경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인공은 실재(實在)로서 정의된 그의 이미지의 한계 속에서, 말하자면 그가 있는 그대로의 영역 속에서 행동하고 체험하고 사고하고 의식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성격, 전형, 기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작가의 독백적 구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미지는 주인공의 의식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작가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세계의 축조는—그 나름대로의 시점과 확정된 정의를 가지고—작가의 고정관념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주인공의 자의식은 그 스스로가 접근할 수 없는, 그를 묘사하고 정의하는 작가의 의식의 견고한 테두리 속에 갇혀 있다.”<sup>39)</sup>

이러한 바흐친의 설명을 들으면, 인물의 자의식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이 소설의 일반적 형식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전소설은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

38)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70~86쪽.

39) 위의 책, 76쪽.

이 자세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다. 등장인물의 말은 그에 관한 작가의 말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도 등장인물이 작가의 구상을 벗어나 나름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심청전>에서도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인물과 서술자, 다른 등장인물 사이에 견해가 충돌하고 경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심청보다는 심봉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경우가 보다 뚜렷이 나타나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sup>40)</sup>

<심청전>에서 동중 및 동중의 인물은 대체로 심청과 심봉사에 대해서 동정을 보이고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심봉사에 대해서만 큼은 <심청전>의 초기 이본부터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게 감지된다.

[심맹인 군] “적선하난 부인들리 불상이 성막하야 입던 이상 버셔 규며 날 치운디 이거시나 입고 방풍이나 하여라 심청의 어딘 마음 저 입을 듯 아니 두고 어더 온 현 이복을 칼칼리 서답하여 쪽쪽 이셔내여 저의 부친 현 이복을 이리 답고 저리 디워 치웁시 안토록 봉친한다 저 입은 의복 불작시면 안 난 나문 접저구리 말만 나문 마포 초미을 이리저리 둘러 닐고 불피풍우 핑길 하니 불상코 갈련한 청상 차마 볼 수 업난지라 심봉사 남갓치 보거드면 아모 썩록 오슬 어더 어엿썩 심청니을 입피련마난 봉스라 할 슈 업드 허더라”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 251~252쪽>

인용문은 가장 이른 시기의 <심청전> 이본인 [심맹인 군]의 심청의 동냥 대목이다. 심청이 추위에 얼벗고 다니자 그 가엾은 정경에 동네 부인들이 헌옷을 내어주는데, 심청은 그마저도 부친의 헌옷을 깎는 데 쓰고 자신은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동중의 심청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심청의 아버지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동냥 대목을 통해서 심청의 효녀로서의 인물 형상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에 등장하지 않는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도 동시에 이뤄진

40) 앞서 살펴본 이별 대목에서도 심청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인물 일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물의 선택과 행위를 둘러싼 평가에 가깝다.



다는 사실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서술자는 적선하는 부인들의 말을 인용하여<sup>41)</sup> 심봉사가 남들처럼 앞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든 옷을 얻어 가련한 심청을 입힐 텐데, ‘봉사’라 할 수 없다고 질책하는 듯한 어조를 보인다. 여기서 독자는 심청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초래한 원인을 심봉사에게 돌리는 서술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심봉사를 무능한 인물 상(像)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세계 내에 등장하는 부인들의 말을 빌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한다. 이는 서술 세계 밖의 서술자의 견해가 아니라 심봉사를 보다 더 잘 알고 경험한 동중 여인네들의 평가이니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중 여인도 작가가 창조한 인물임을 감안하면 이는 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말의 권위를 더한 작가의 겹목소리으로써, 심봉사를 무능한 인물로 최종화(finalization)하려는 교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종결화하려는 목소리에 대한 저항도 [심맹인 군] 텍스트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심맹인 군] “아부님 비곱푼디 이 밥 먹소 심맹인 일은 말리 아셔라 밥도

- 41) 밑줄 친 부분은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작중인물의 목소리인지 처음에는 분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밑줄 친 부분이 작중 세계에 존재하는 적선하는 부인들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부인들의 말은 인용하여 단일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작자 및 작중 인물의 언어가 상호 작용 내지 상호 침투하여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서사적 진술인 것이다.
- 42) 최종화 혹은 종결화란 바흐친의 용어로서 인물을 부여된 이미지, 통일된 구상 속에서 독백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범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바흐친은 「미적 활동에서의 작가와 주인공」(1921)과 같은 초기 저작에서는 최종화 혹은 종결화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다. 특히 타자 없이 자아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으며 특히 예술 작품은 저자가 인물의 외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물의 통합적 이미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종결화없이는 예술도, 자아도, 책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에서는 종결화보다는 종결 불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 특히 모든 것을 획일한 체계로 종결화시키는 거대한 주의들(-isms), 특히 심리학주의(또는 프로이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했으며 라블레 연구에 이르면 그는 종결 불가능성을 유일한 최상의 가치로 제시한다. 그러나 바흐친은 마지막 시기에는 초기의 관점으로 회귀한다. 이상의 종결 불가능성에 대한 바흐친의 이력의 변모는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앞의 책, 174~185쪽 참고.

니스 슬타 심청이 설어 올며 이거시 원 말인가 자식이 어디 가서 올이 잇고  
아이 와서 노정인가 근촌 밧빌기 염치 업서 오날은 멀이 가서 밧빌자 하니  
자연니 더디 완니 노정 풀고 니 밧 먹소 심망닌 날은 말니 니 아모리 병신인  
들 너가튼 자식으게 추효나 노정 둘라” <박순호 낙장 36장본, 287쪽>

[심맹인 군]에서 심봉사가 공양미 시주 약속을 해놓고 걱정으로 밥상을  
밀어내자 심청은 자신이 늦어 아버지가 화가 났나 싶어 상심한다. 이때 심봉  
사는 “니 아모리 병신인들 너가튼 자식으게 추효나 노정 둘라”하며 심청을  
안심시키려 한다. 이 발언을 통해 보면 심봉사는 이미 서사 세계 내에 존재  
하는 자신에 대한 편견과 작가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인식하고 있다. 이 편  
견은 신체적 장애와 인격적 장애를 동일시하는 편견<sup>43)</sup>으로, 심봉사는 이러한  
편견을 자신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딸의 희생  
적 효까지도 이해하지는 못할 정도의 저급한 인간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  
다. 이러한 심봉사의 능동적 겹목소리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등장인물  
의 자의식적 목소리를 닮아 있다.

“지하실의 주인공은 그에 관해 남들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다른 사람  
들의 의식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고, 그 속에서 굴절될 수 있는 자신의  
상을 발견한다. 따라서 그는 타인의 의식이나 자신의 의식에도 똑같이 중립적  
인 자신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알게 되고 ‘제3자’의 시점을 염두에 두게 된  
다. 그러나 그는 편견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이 모든 정의가 자기의

43) 여러 민속 연희에는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아주 흔하게 등장한다. 봉산탈춤, 밀  
양백중놀이, 굿의 뒷전 등에 등장하는 장애 형상들은 <심청전>의 심봉사, <변강  
쇠가>와 <적벽가>의 그로테스크한 장애 형상들, 놀부의 박에서 나오는 병신 상제  
나 샷군 껌보 등 판소리의 등장인물들과 유사한 면이 많다.(김효정, 「놀부의 샷  
군, 껌보형 인물의 기능과 그 변이」, 『고전문학과 교육』 29, 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159쪽)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박희  
병은 전근대적 텍스트에서 장애에 대한 시선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데, 박  
희병은 병신과 관련된 속담들, 예컨대 “병신 고운 데 없다”와 같은 속담은 병신  
(病身)이 인격에도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마음은 뒤틀려져 있거나 불량하고 도덕  
적으로도 저열하다고 하는 무의식 내지 의식을 사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보았  
다.(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 『고전문학연구』 24, 한  
국고전문학회, 2003, 316쪽)

수중에 있다는 것과 그 자신이 이 모든 정의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가 이러한 정의에 의해 최종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제 정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들을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는 그에 대한 최후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말 속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그가 되지 않으려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말, 그의 자의식에 관한 말을 보류시키려고 안간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자의식은 자신의 불완결성, 비(非)폐쇄성, 불확정성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지하 생활자의 수기』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바흐친은 등장인물이 자신에 대한 최종화를 거부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를 의식하고 저항하는 목소리는 앞서 이별 대목에서 심청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다.<sup>45)</sup> 그러나 심청의 타인에 대한 의식은 결국은 작가의 기획 안에 포괄된다는 점에서 심봉사의 자의식적 발화만큼 다성적인 것은 아니다. 비록 <심청전>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과 같이 타인의 말과 대화하는 인물의 자의식으로 딱 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봉사의 목소리는 작가의 독백적 구상에 저항하는 소설적 인물로서의 다성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가와 등장인물의 목소리 사이의 갈등은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에 이르러 재점화되는데<sup>46)</sup> 여기서도 능동적 접목소리가 출현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44)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78쪽.

45) “애고 애고 설운지고 이 내 일을 잊이할고 동중의 어른덜은 한 말삼 무거불츨한 심청이 모지더라 하시난 중 내 잊지 모르리요마은 부친이 맹인된 것 철천지원이 내 가슴이 맥여 천사만탁 생각다가 오직하여 이리 할가 과의 책망 모르시고 우리 부친 불상 생각하옵소서” <박순호 낙장 50장본, 408쪽>, “촌중 여러 부로 덜싸 여러 앓씨 전의 심청이 비난 마리 심청 팔썸 무송허야 병신 이비 니바리고 슈증고흔 되려 가니 괘썸이 아지 말고 저 전곡을 식이허야 가금흔 병신 이비 의 지식지하게 흐면 결효보은 흐오리다” <신재효 본, 20쪽>

46)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에 대한 심봉사의 저항은 [심팽규 군]에서는 사라진다. 심봉사의 직접적인 저항의 목소리 대신 그러한 저항을 목표로 한 삽화가 발달하기 때문이다. 즉 [심팽규 군]의 초두가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심봉사는 자상하고 아버지로 그려진다. 그 구체적 양상은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팽규 군의 내용과 특징」, 『판소리 연구』 50, 판소리학회, 2020a 참고.

[심학규 군] “열씨구나 죠흘시고 아무리 어려운들 빙미 삼백석이 어려올가 그 시의 눈얼 찌셔 우리 심청 먼저 보고 천지일월 보고지고 열씨구나 조흘시고 동니친구 나얼 보면 조롱턴니 이겨 밥비 눈을 찌셔 보원설치혀보시 열씨구나 조흘씨고 쯤야쯤 조흘씨고 모으로 췌고 바로 췌고 누엇짜가 안쯤짜가 좌불안석 가관일다” <박순호 39장본, 368쪽>

인용한 부분은 심청이 아버지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얻었다고 고백하자 심봉사가 보이는 반응이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심봉사에 대해서 ‘가관’이라고 평가하며 심봉사를 심청과는 대조되는 저열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자의 종결화하려는 목소리가 심봉사의 목소리와 경쟁을 하고 있음을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봉사는 동종의 인물들이 자신을 조롱해왔는데 눈을 뜨면 이에 대해 양값음을 하겠다고 베프고 있다. 즉, 이를 통해 심봉사와 동종 사이의 갈등이 존재해왔음이 드러나고, 동종의 심봉사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심봉사가 의식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심맹인 군]과 [심학규 군]의 이본들에 나타나는, 심청 죽음의 책임을 심봉사에게 돌리려는 작가의 시도와 그에 저항하는 심봉사의 목소리는 신재효 본에서도 여전히 경합한다.

“심봉스 혀는 마리 네 마리 끌어허니 부득이 허락허나 남이 오직 시비허라 심청이 이 날보름 혼쯤 빌너 나갈 적의 불쌍허여 못 볼네라” <신재효 본, 13쪽>

신재효 본은 [심학규 군]의 체통 없이 가벼운 심봉사의 형상과 [심운 군]의 따듯하고 착실한 심봉사의 형상을 동시에 이어받고 있는데,<sup>47)</sup> 인용문은 칠세 된 심청이 이제부터 홀로 동냥을 나가겠다고 하자 심봉사가 마지못해 허락하는 부분이다. 이때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봉사가 동종의 부정적 편

47) [심운 군]에서의 심봉사의 형상화에 대해서는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b 참고.

견과 시선을 의식하는 능동적 겹목소리가 나타난다. 심봉사의 부정적 형상을 강화하는 신재효 본에 이르면 ‘딸 팔아먹은 아버지’에 대한 공격이 어조뿐 아니라 외설적 삽화를 통해서도 극단적으로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효 본에는 심봉사가 자신을 종결화하려는 목소리를 의식하고 그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타나 다성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심청전>에 심봉사의 목소리가 작품의 다성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작가의 종결화 시도에 거부하는 인물의 목소리는 <심청전>에 왜 나타나는 것일까. 앞서 타자의 말을 의식하는 담화, 즉 내적으로 대화화된 담화는 소설의 주요 화제와 관련된 대화적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작가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심봉사의 목소리도 내적으로 대화화되어 있어 <심청전>의 주제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청전>은 아주 초기의 이본에서부터 ‘심봉사가 심청의 효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심청 죽음의 책임이 그 부친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봉사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심봉사가 심청을 죽게 한 것이다’, ‘심청의 효는 무모한 희생이었다’라는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청전> 안에서 다성적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봉사의 저항의 목소리는 소설 내에서 인물에 대한 논쟁적 평가가 대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인물에 대한 논쟁은 주제의 이해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물에 대한 평가적 논쟁이 효를 실천하는 인물인 심청이 아닌, 효행의 객체인 심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청전>은 효라는 권위적 담론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의 실행으로 야기된 갈등을 대화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청전>의 이본들은 이러한 갈등을 다양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48)</sup>

---

48)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상 <심청전>의 사례를 통해 대화화된 담화와 작가와 인물의 길항하는 목소리를 통해 텍스트가 다성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의 다성성이 가장 강화되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담화, 특히 자기 스스로를 타인의 의식에 비추어 의식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이 자아의 이해를 위해 타자의 자신에 대한 의식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단순히 담화 장르 상, 문체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응답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물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대화적 이해를 추동하는 강력한 유인(誘因)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2) 독자의 응답성

대화적 이해의 원리로서 다성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다성성이 <심청전>의 주요 인물과 관련한 가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시적 이본 변모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선행 이본 A의 독자가 다음 이본 A'의 작가가 되어 어느 한 쪽의 평가적 목소리를 더 우세하게 선택할 때에, 서술자는 대화화된 담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변명이나 근거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A'의 작가는 A를 알고 있는 독자의 '응답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A 안에 있는 서로 경쟁하는 목소리는 A'에서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런데 A 이본은 A'뿐 아니라 A"도 만들어낸다. 그런데 A"가 A'와는 반대되는, A 속의 상반된 목소리를 반복하고 강조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 안의 경쟁하는 목소리는 내재화되어 남아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본 안에 있던 텍스트의 다성성은 독자의 응답성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파생된 다수의 이본들에서 여전히 내적으로 대화화된 담화를 통해 다성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대화화된 담화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바흐친이 지적하고 있듯, 독자의 응답성은 다성성을 반드시 내포한다.

“본질적이고 심오한 모든 대화의 응답은 은닉된 논쟁과 비슷하다. 이러한 응답의 말은 어느 것이든지 대상을 향해 있지만, 동시에 긴장 속에서 타인의 말에 반응하고, 대답하거나 그 말을 예상한다. 이 대답과 예상의 요소는 긴장된 대화적 말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다. 이와 같은 말은 상대의 응답을 마치 흡입해 빨아올리듯 긴장 속에서 변조시킨다. (중략) 반론의 고려는 대화적 말의 구조 속에서 특수한 변화를 야기시키며 그 말을 내부적 사건으로 만들며 말의 대상 자체를 새로이 밝혀 주고 거기에서 독백적인 말로는 전달시켜 줄 수 없는 새로운 측면을 열어준다.”<sup>49)</sup>

같은 장면의 서술 변모가 아니라 삽화 출입을 통해 독자가 선행 이본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이 독자의 내적 대화를 통해 나타나긴 했지만, 독자의 내적 대화가 텍스트 상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는 독자의 응답성이 더욱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후 관계를 이루는 이본을 비교하면 그 응답성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다성성과 응답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면서, 이본의 서술과 삽화의 동시적 변모 양상을 통해 독자의 응답성이 대화적 이해의 원리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같은 장면 안에서 인물이나 서술자의 발화에서 분석되는 응답성과, 이본들 사이의 화소나 삽화의 차이를 통해 응답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서술 변모와 응답성

바흐친은 언표가 청자와 관련하여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뿐 아니라 화제에 관련하여 ‘이미 말해진 것’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화제에 대한 앞선 언표들도 청자에 대한 예상만큼이나 하려는 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49)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284쪽.

이다. 특히 선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본 사이에서 후대본의 경우는 이러한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한 개작자의 의식이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사례로, 개성적인 이본으로 유명한 신재효 본의 투신 장면을 살펴보자.

“㉠ 심청이 거동 보쇼 비머리에 나셔 보니 시팔흔 물겨리며 울울을 바람 쇼리 풍낭이 디죽하야 빗전을 탕탕 치니 심청이 싹씩 놀니 뒤로 펍 쥬즌지며 이고 아버지 다시난 못 보겐니 이 물헤 싸져씨면 고기밥이 되겐구나 뮤슈이 통곡싸? 다시금 일어나셔 바람마진 병신갓치 이리 빗틀 저리 빗틀 치마폭을 물음씨고 압이를 아드득 물고 아고 나 죽니 쇼리 호고 물의 가 풍 싸졌다 ㉡ 호되 그리호여셔야 호녀 죽엄 될 슈 있나 ㉢ 두 손을 합장호고 호나님전 비난 마리 도화동 심청이가 밍인 이비 히원키로 심목숨이 죽쑈오니 명천니 하 감호스 캉캉흔 이비 히원키로 심목숨이 죽쑈오니 명천니 하 감호스 캉캉흔 이비 눈을 불일니의 발기 썩셔 세송 보게 호웁쇼셔 빌기를 다호 후의 선인덜 도라 보며 평안이 비질호여 억십만금 퇴를 니여 고향으로 가올 적의 도화동 초져 들어 우리 부친 눈 썩난가 보디 초져보고 가오 빗머리의 썩 나셔셔 만 경창파를 제 안방으로 알고 풍 싸지니 경각간의 바람이 속어지고 물결이 고 호니” <신재효 본, 23쪽>

인용문에서는 인용 부호가 ‘있는’ 겹목소리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 부분은 인용 부호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며<sup>50)</sup> ㉡에는 개작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타나면서 개작자가 ㉠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 대신 ㉡을 심청의 투신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내세운다. 즉 ㉠은 개작자가 타자로 인식하는 담화이며, ㉡은 개작자가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는 담화이다. 이렇게 보면 인용문은 전체적으로 다중 방향의 수동적 겹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별 장면의 수동적 겹목소리와 신재효 본 인당수 투신 장면의 수동적 겹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서술 세계에 속한 인물이나 서술자의 말이 아니라 담화 층위가 아예 다른 개작자의

50) 물론 인용한 것이라 해도 이는 직접 인용이 아니며 개작자의 평가와 의도에 따라 변형되어 재진술된 것이다.



말이기 때문이다. 서술 세계 바깥의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목소리, 자신의 심청 형상화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청중에게 직접 요구하는 창자(唱者)의 메타적인 목소리인 것이다. 이러한 담화는 서술 세계를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변형하는 개작자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면서, <심청전>가 어떻게 쓰여야 하겠느냐 하고 개작자가 직접 독자에게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문은 심청이 효녀이냐 아니냐를 화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 효녀답게 서술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고 서술 자체를 화제로 삼아 작품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담화 층위가 다른 다중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와 일반적 수동적 겹목소리의 또 다른 차이는 개작자가 인용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숨기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신재효 본에 앞서 존재했던 이본군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심팽규 군] “심천 이 말 듯고 제 안쫓던 지상 우이 전화슈 언저 노코 두 소을 합중하야 하날님씨 비는 말슴 명천임 감동하사 심천이 쯤는 거손 쉼호도 설자오니 부친 눈 생전이 듯기 하소 이 몸이 죽은 후이 여훤이느 업기 하소 빌기을 다한 후이 치마을 무릅시고 무리 썩여든이” <김광순 낙장 19장본, 66쪽>

[심운 군] “종종거음 조조 거러 비전을 부여잡고 비 아리를 구버보니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물결은 출녕 비전을 탁탁 치며 심청이 기가 막켜 뒤로 펴석 물러안지며 정신읍시 허허 우시며 일신 스지 별별 썩난 거동 스람은 츄마보지 못홀너라 심청이 다시 일어나며 너의 정성이 부족하면 아부 눈을 못쓰리라 영치 조흔 눈을 감고 이을 아드득 물고 치미을 물릅시고 바람 마진 병신체로 빗썰 걸럼 조조 걸어 펼석 썩여 물의 들며 이고 아반님 하난 소리 천지 째씩하고 짜이 썩지난 듯 빅일이 무광하고 창천도 무심홀가” <박순호 19장본, 360쪽>

창자 부인 계열에서 심청의 인당수 투신 장면을 보면, [심팽규 군]에서는 심청이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을 보인다. [심운 군]에 이르면 처음으로 인당수에 광풍대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변모하면서 심청이 공포를 느낄 만한

배경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호응하여 [심운 군]에서는 심청의 공포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난다.<sup>51)</sup> [심학규 군]은 [심운 군]을 대체로 이어받는다. 그런데 신재효 본은 장자 부인 계열 이본군 가운데 [심학규 군]과 발생 시기가 가장 가깝고 유사성이 높음에도 심청 투신 장면에서만은 [심팽규 군]을 따르고 있다. 신재효 본의 인당수 투신 장면에서 개작자가 인용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은 [심운 군]과 [심학규 군]의 심청의 형상이고, ㉡은 [심팽규 군]의 심청의 형상이다.

신재효는 선행본, 즉 ‘이미 말해진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이본에서는 이 두 가지 심청의 인격 가운데 왜 [심팽규 군]의 투신 장면이 더 나은지를, ㉡에서 보듯 ‘효녀다움’을 근거로 들고 있다. 효녀가 죽음에 임하는 자세로는 [심운 군]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심팽규 군]의 엄숙하고 담대한 모습이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뿐 아니라 ㉡도 인용한 것임에도 신재효는 ㉡의 경우는 인용했음을 은근슬쩍 감춘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효가 ‘이면’에 맞는 사설, 즉 서사 세계의 합리성을 더하기 위해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관점<sup>52)</sup>은 다소 일면적이다. 신재효가 이면에 맞는 사설을 추구했다는 점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겠지만, 담화 층위가 다른 목소리를 사용하는 기법이 과연 사설의 합리성만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효는 자신이 부정하고자 하는 내용, 즉 인용 부호로 묶을 수 있는 ㉠을 생략하여 ㉡만으로도 이면에 맞는 사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신재효는 독자의 서사 세계로의 몰입을 끊지 않고도, 예컨대 투신 장면의 비장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위험<sup>53)</sup>을 무릅쓰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51) 심청의 공포가 처음 나타나는 등 심청 내면을 확대하는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효정, 앞의 논문, 2020b 참고.

52) 서종문,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60~68쪽.

53) 하나의 서술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은 서구의 서술 이론에 비춰보면 상당히 탈선적인 것으로, 제라르 쥬네트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으로 침범하는 경우, 이야기는 농담조로 제시되어 코믹하거나 환상적이 되어 낯설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고 보았다(S. 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87~94쪽). 판소리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담화 층위의 이동이 해학적 효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한 메타 층위의 서술 기법이 신재효 본 이외의 다른 이본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다른 개작자들도 이러한 기법이 어떤 특정한 효과와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두루 인식했음을 알게 한다.

앞서 이별 장면을 통해 수동적 겹목소리는 타자의 담화를 ‘인용’하되 이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어 새로운 담론을 강화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재효 본의 투신 장면의 경우는 서로 다른 두 타자의 담화를 모두 인용하기 때문에 능동적 겹목소리와 같이 타자의 말이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극복하고자 하는 담화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의 담화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과 ㉡이 거의 대등하게 대결하고 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작자는 그 대결 자체에 독자가 대화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을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왜 신재효가 ㉡ 역시 ㉠과 마찬가지로 ‘이미 말해진 것’, 즉 선행 이본군에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인용한 사실을 드러냄 없이 제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담화를 홀목소리로 제시할 만큼 경쟁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제어하고 싶지는 않아서, 담론 간의 대결을 그대로 제시하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효는 ㉡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으로 쓸릴 견해를 약간 정도 제어하기 위해 ㉡을 인용 부호 없는 홀목소리로, 보다 권위적 담화로 제시한 것이다. 신재효 본의 ㉠ 부분은 개작의 방향과는 다르지만 개작의 의도를 더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개작자는 이를 남겨두어 자신이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여 청

---

는 가져올 수는 있으나, 환상적인 낯설게 하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판소리는 수용자의 눈앞에 이야기를 서술하는 창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소리의 창자는 자신의 서술 행위를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수용자 역시 창자의 서사 세계에의 개입이 낯설지 않은 것이다. 판소리에서 서술 차원의 이동은 해학적 효과와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른 <심청전> 이본들에서 ㉠과 같이 서술 차원이 이동할 때, 창자는 자신이 부정하고자 하는 담화에 대해서 “그 말은 광디의 지담이제”, “이것은 모다 광디의 롱뎀이든 것이었다”와 같은 식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신재효 본의 투신 장면도 비장한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온 창자의 목소리 때문에 비장한 분위기에 균열을 일으킨다.

중에게 권위를 획득하고, 자신 있게 자신이 지지하는 담론을 청중의 시험에 부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부쳐지는 담론은 ㉠과 ㉡ 양자 모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험을 거치면서 한 쪽의 담론이 우세해지면 마침내 대화의 양은 줄어든다.

이상 개작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는 신재효 본의 투신 장면을 사례로, 서술의 변모가 독자의 응답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재효가 선행 이본들 가운데서 선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심청의 ‘효녀다움’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응답성은 주제에 대한 독자의 관점과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제와 등장인물에 대한 개작자의 평가와 관점에 기반한, 선행 이본에 대한 내적 대화가 서술 변모의 동기가 되고 대화적 이해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여러 이본을 비교하고 더 나은 이본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일종의 메타적 이해로서, 독자의 응답성은 메타적 인지를 수반한다. 또한 단순히 선호하는 내용을 모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쟁하는 내용과 시험에 부치는 태도는, 독자의 응답성이 응답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말 걸기로 연쇄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다성성과 응답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담화 층위가 다른 수동적 겹목소리를 통해 이를 보였다. 그러나 신재효 본과 같이 독자의 응답이 반드시 특정한 문법상의 표지를 띠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독자의 내적 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에 의해 새로 파생되는 이본은 언제나 다성성에 대한 응답성을 띠게 된다. 즉 같은 장면에서 선행 이본에 대한 의식이 직접적인 서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삽화의 추가나 기존의 삽화 소거를 통해서 선행 이본에 대한 응답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재화된 응답성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다.<sup>54)</sup> 이에 다음에서는 삽화의 변모를 통한 독자의 응답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54) 여러 이본을 모두 알고 있는 독자의 경우에는 내적 대화화가 상당한 정도로 숨겨지더라도 이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독자가 텍스트의 다성성을 파악하고 이에 응답하는 능력은 다양한 이본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조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삽화 출입(出入)과 응답성

이본 변모에 나타나는 삽화의 출입은 독자의 응답성과 관련이 있다. 선행 이본의 독자였던 개작자는 작품의 주제나 인물 형상화 등의 선행 이본의 견해를 검토하고 자기 나름으로 재구성한다. 이때 자신의 관점과 의도에 맞는 삽화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소거하게 된다. 여기서는 인물 형상화와 관련된 독자의 응답성을 심청 부녀와 동중의 관계를 드러내는 삽화의 출입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청 부녀를 향한 동중(洞中)의 동정과 조력은 초기본에서 후대본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장자 계열에서도 동중의 심청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심학규 군]에서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심청을 기리기 위한 타루비(墮淚碑)나 충효비를 세운다. 무명의 군상이나 배경에 가까운 기능을 하던 동중이, 장승상 부인 계열에 이르면 마침내 귀덕어미와 장승상 부인과 같은 구체적인 인물 형상으로 서사 세계에 등장한다. 이렇게 다양한 변모를 통해 후대본으로 갈수록 심청 부녀에 대한 동중의 도움은 점차 강화 및 구체화된다.

이렇게 동중의 동정과 조력이 <심청전>의 모든 이본에 나타나며 후대본으로 갈수록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심청전>에서 심청 가족과 마을 공동체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그를 드러내는 미세한 대화를 읽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심청전> 서사 내의 동중의 동정과 조력은 <심청전> 수용자의 심청에 대한 태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청 혹은 심봉사의 인물 형상은 독자로 하여금 응답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때 동중의 인물은 텍스트 세계 내 인물 가운데서 가장 쉽게 독자의 목소리를 투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텍스트 세계 외부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동중의 인물들은 심청 부녀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장인물은 독자 대신 서사 세계 내부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청전>의 이본 변모에서 마을 공동체의 변모 양상은 심청의 인당수 투신 행위의 자율성 여부와 정당성 파악과 관련하여 서사 세계의 조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환언하

면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 극단적 상황에 놓인 개인을 도외시하는 공동체에 의해 방조된 것이라면 그 가치가 절하되므로 이와 관련된 대화가 활성화됨으로써 공동체 형상화가 변모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동냥 박대 삽화의 출입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운 군] “이 집 저 집 바라보며 지웃지웃 엿보면서 이 집 저 집 드러갈 제 쥬져혀 한 엽페 빗겨서서 아미를 슈기고서 이연이 간청하며 혼 술 밥을 이걸하니 스정읍고 몹실 집에 효녀 심청 물나보고 팔세가 조심하다 귀찮타 오지 만나 보기 실타 누가그라 혼 술 밥을 아니 쥬고 모진 말노 쫓차니니 염치 닌는 심청 마음 북그럽기 청양 읍고 슬프기 그지 엽다 목이 며여 도라스며 낙누하고 도라올 제 임지갓치 모진 지난 심청을 물야 하고 우둥그려 달여 드니 심청이 도라서며 엽다 이 기야 너의 주인이 팔시훈덜 너조차 물냐 하나 문박게 썩 나서며 한심 짓고 낙누하니 일월이 무광홀 제 창천닐들 무심홀야”  
<박순호 19장본, 350~351쪽>

심청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박대를 받는 모습은 심청의 고난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확장시킨다. 심청이 동중 아낙네들에게 받는 박대는 심청의 고통이, 모친을 잃고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제적인 고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증폭됨을 보여준다. 물론 심청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행을 실천하는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는 더욱 강하게 형상화된다. 이렇게 동냥 박대 삽화는 심청의 고난을 가중시켜 효녀로서의 심청 형상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겠지만, <심청전>의 주제와 관련된 대화적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독자는 이에 대한 다른 반응을 내놓는다.

즉 마을 공동체가 심청에게 각박하게 구는 것으로 나타나면, 공동체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집의 처녀를 결국에는 희생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방조한 것이 된다. 심청에 대한 박대가 지속된다면 심청은 부친을 위해 더 큰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청전>은 궁극적으로는 심청의 희생을 자율적인 것이 아닌 타율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또한 독자의 심청을 박대하는 동중에 대한 거부감도 이 삽화의 소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심학규 군] “동지 셋달 추운 날이 남누의상 박착하고 현 바가지 손이 들고 삽작 박기 썩 나선이 횡할 고지 전혀 업다 염치을 불고하고 상하촌 두로 단 이면서 지성으로 밥을 빈이 심낭자 극진효성 뉘라셔 박디할가” <정명기 65장 본, 64쪽>

인용문은 장자 부인 계열 [심학규 군]에 나타난다. [심학규 군]에 바로 앞선 [심운 군]의 모든 이본에는 앞서 인용한 동냥 박대 삽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심학규 군]에서는 동냥 박대 삽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며,<sup>55)</sup> 장승상 부인 계열에 이르면 동냥 박대 삽화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동냥 박대가 나타나지 않는 [심학규 군]에는 동냥 박대에 대한 개작자의 의식이 나타난다. 밑줄 친 부분은 동중의 ‘박대’가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메타 언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술자가 숨겨진 논쟁을 드러내고 있는 능동적 겹목소리로, “뉘라셔 박디할가”는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심청을 박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박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는 서술자가 동냥 박대 삽화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동냥 박대 삽화가 사라진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이 삽화에 대한 독자의 반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 동냥 박대 삽화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심청과 같은 인물이 매끼 동냥을 나온다면 마을 공동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도 생각하게 된 듯하다.

55) <사재동 소장 심청전(낙장 25장본)>을 제외하고는 박대 삽화는 찾아볼 수 없다.

56) [심학규 군]을 많은 부분 이어받은 신재효 본에도 유사한 겹목소리가 나타난다. “갓난 주식 품의 품소 훈 손의 막디 잡고 가가문전 단이면서 이근이 비난 마리 엇그제 나온 주식 어미 죽소 져시 업셔 죽기가 가려하니 져 쵸금 먹여쥬오 주식 잇는 여인들이 엇지 괘시호것나냐 저슬 먹여 니여 쥬며 눈 업난 노인 신세 져 업는 아히 정경 불인건 가공하니 어렵짜 말의시고 각금각금 츠츠 오오” <신재효 본, 11쪽>

[심맹인 군] “아부님 비곗푼디 이 밥 먹소 심망인 일은 말리 아셔라 밥도 너스 슬타 심청이 설어 울며 이거시 원 말인가 자식이 어디 가서 올이 잇고 아이 와서 노정인가 근촌 밧빌기 염치 업셔 오날은 멀이 가서 밥빌자 하니 자연니 더디 완니 노정 풀고 니 밥 먹소 심망닌 닐은 말니 니 아모리 병신인 들 너가튼 자식으게 추효나 노정 둘라” <박순호 낙장 36장본, 287쪽>

[심맹인 군]에서부터 이미 심청은 매번 ‘근촌에 밥을 빌러 다니기 민망하여 원촌에 밥을 빌러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심청의 어조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능동적 겹목소리를 통해서 심청 부녀와 공동체의 긴장이 <심청전>의 가장 초기 이본군에서부터 숨겨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이 [심팽규 군]에 이르면 동냥 박대 삽화로 구체화되면서 동종과 심청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다. [심학규 군]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능동적 겹목소리를 구사하여 박대가 있을 수 없다는 미세한 대화를 시도한다. 한편 장승상 부인 계열의 송동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긴장 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송동본] “엄동설한 모진 날의 치우물 싱각지 안코 이집져집 문압마다 이근 이 비는 말이 모친 세상 바린 후의 우리 부친 눈 어두운 줄 뉘 모로리가 십시일반으로 밥 훈술 붓터여 쥬시면 압 못보논 우리 부친 시장을 면헿소 보고 듯는 슝의 마음이 온전하라 훈 그릇 밥을 앗기지 안코 쥬며 혹은 먹고 가라 하니 심청이 훈 말이 치운 방의 늘근 부친 응당 기다릴 듯하니 엇지 먹고 가오리가 어셔 밧비 도라가셔 부친과 함씩 먹게습는이다 이가치 어든 밥이 두세 집이 족흔지라 (중략) 이럿터시 봉양하여 쑤츄동 스시 음식 동니 걸인 되엇더니 훈 히 두 히 습스 년의 지질이 민첩하고 침션이 등이 업셔 동니집 바누질을 공밥 먹지 아니하고 삭으로 돈을 바다 부친 의복 찬슈를 시종 이 여일하고 일 업는 날 밥을 비러 근근 연명터니” <경판 20장본, 160쪽>

인용문에서 보듯 송동본에 이르면 심청은 심봉사에게만 효녀일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재형상화



된다. 이를 위해 개작자는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능동적 겹목소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타인의 말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담화들은 사실 상은 선행 이본을 의식하고 있다. ‘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심청을 박대할 정도로 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의식하는 것이며, ‘이같이 얻은 밥이 두세 집이 족한지라’는 심청이 공동체에게 도움을 얻는다 해도 공동체가 나눠질 부담은 별로 크지 않고 항변하는 것이며, ‘공밥 먹지 아니하고’는 심청이 자라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밥을 빌지 않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음을 통해 심청이 공동체에게 부담을 준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음을 변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을 통해 송동본은 동네 사람들의 심청에 대한 칭찬과 사랑이 이상화된 것이 아닌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고자 한다. 또한 심청과 마을 공동체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사라지면서, 자율적으로 희생을 결단하는 효녀로서의 심청의 모습도, 심청에게 조력을 아끼지 않는 윤리적 공동체의 모습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송동본의 밑줄 친 부분들은 선행 이본과의 비교 없이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내적으로 상당히 대화화되고 숨겨진 논쟁이다. 선행 이본의 독자인 개작자가 이미 내적 대화를 통해서 삽화 소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삽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러한 내적 논쟁이 서술에 드러날 여지가 적어지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본 간 비교 없이는 그 포착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삽화출입과 관련된 당대 독자의 응답성은 상이한 이본을 비교해보고 그 의도를 능동적으로 구성해보는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메타적 이해 없이는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상 선행하는 이본을 의식하는 독자의 응답성을 서술과 삽화 차원에서 살펴해보았다. 서술과 삽화는 결국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독자의 ‘인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선행 이본의 인물에 대한 ‘선행 이본 개작자의 반응’이 독자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주요 대상이다. 이때 독자의 응답성은 텍스트의 다성성과 같이 내적 대화가 서술 차원에서 텍스트에 표출되어 있

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이본을 비교하여 변모가 일어난 계기와 의도를 메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삽화 차원의 변모는 더욱 그러하다.

개작자이기 이전에 독자였던 개작자는 ‘인물’과 ‘선행 이본의 인물의 형상화’에 반응하여 개작이라는 응답을 제시한다. 독자의 응답은 크게 그 인물의 형상화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텐데, 어느 쪽이라도 반드시 변형을 내포한다. 따라서 응답이 결국 동의라 할지라도 후행하는 이본의 개작자가 어떤 내적 대화화를 거쳐 동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이것이 삽화출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적 대화화가 더욱 내재화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응답성이라는 대화적 이해의 양상은 현대 독자가 메타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sup>57)</sup>

### 3. 독자의 응답성과 고전소설 이본 파생의 연관 관계

앞 절에서는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크게 작품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독자가 무엇에 반응하고 응답하느냐도 살폈는데, 응답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등장인물, 이차적으로는 등장인물을 특정 방향으로 형상화한 선행 이본 작가의 의도나 지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본의 파생이 가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독자의 응답성과 고전소설과 이본 파생의 연관 관계를 독자의 ‘인물의 목소리 계발과 이본 파생’, ‘선행 이본의 지향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본 파생’으로 나누어 대화적 이해와 이본 파생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 (1) 인물의 목소리 계발과 이본 파생

앞 절에서 대화화가 나타나는 담화 유형이 등장인물, <심청전>의 경우에는

---

57) III장의 분석은 연구자의 메타적 이해를 통해 <심청전> 독자의 대화적 이해 양상을 구성한 사례이다.

심청과 심봉사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심청전>은 이본 전반에 걸쳐 심청과 심봉사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려는 다성적 목소리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심청전>의 통시적 변모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인 심청과 심봉사뿐 아니라 배경에 가까운 추상적 인물 군상인 동중까지도 평가의 대상으로 포괄되어간다. 이렇게 <심청전>에 대한 대화의 주요 화제는 등장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의 등장인물이야말로 독자가 응답성을 보이는 일차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은 작가와 독자가 대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두 주체가 정향(定向)하는 공통의 대상이면서 작가와 독자 모두가 시선의 잉여성과 외재성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앞서 작가가 잉여성, 외재성을 가지고 등장인물을 관찰하고 이에 반응하는 행위는 작가의 가치 평가가 드러나는 것으로써, 등장인물을 종결화할 뿐 아니라 작가 스스로의 윤리성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시선의 잉여성과 외재성을 가지고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존재는 작가만이 아니다. 바흐친의 대화 개념에 따르면 청자는 화자만큼이나 대화의 주체로서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모든 화자는 어느 정도는 대답하는 자이다. 이렇게 청자(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잉여성과 외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독자의 능동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청자는 말의 (언어적)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 말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적 위치를 점한다. 청자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 말을 보충하고, 응용하고, 실행하려고 준비한다. 청자의 응답적 위치는 처음부터, 때로는 글자 그대로 화자의 첫마디부터, 듣고 이해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 형성된다.

생생한 말, 생생한 발화에 대한 모든 이해는 능동적인 응답적 성격을 가진다(물론 이 능동성의 정도는 대단히 다양하다). 모든 이해는 응답을 내포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대답을 낳는다. 즉 청자는 화자가 되는 것이다.”<sup>58)</sup>

58)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360~361쪽.

이렇게 소설의 수용을 ‘말 걸기와 응답’의 대화 구조로 파악하면, 독자의 소설 읽기는 윤리적인 행위로 확장된다. 왜냐하면 타자에게 응답하기(response)는 곧 책임(responsibility)이기 때문이다. 응답하기는 윤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창조적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응답이 사람마다 창의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응답이 절령 내용상 동의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복잡한 사고와 가치 판단을 거쳐 ‘실천’된 하나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sup>59)</sup> 여기서는 <심청전>의 매신(賣身) 장면의 통시적 변모를 통해 같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심청에 대한 서술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의 응답성이 왜 윤리적 성격을 지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심맹인 군] “심청이 이 말 듯고 왈각 뛰여 니다르며 선닌 보고 못난 말이 날 갖튼 아히르도 사다가 찢디 잇소 선닌더리 길거 듯고 조셔이 살펴보니 의복은 남누 하나 은근흔 티도와 슈연흔 풍치는 사람의 정신을 놀리난지라 오동속의 노든 봉황 산중의 못챜난 듯 월티화용 고은 얼굴 진니 속의 안저신들 만고의 절식이라 아름다운 형용이야 엇지 다 성연허리요” <단국대 나손문고 29장 B본, 468쪽>

[심팽규 군] “심천이 이말 드고 문밧겨 썩 니다라 장스 불너 이른 말이 날 갖튼 몸이라도 hing여 사셔 찢디 잇는가 선인드리 잠간 보고 옥티 화용식이라 초성의 반달인덜 여겨셔 더할소라 선인드리 반겨여겨 낭즈 몸을 팔여 하면 갑실 열미나 달나 하고 심천이 이른 말리 더 쥬어도 찢디 업고 덜 쥬어도 못 씨겄소 고양이 삼빅석을 몽운스로 울여 쥬고 화쥬싱썩 표을 바다 니 집으로 보니오면 이 몸 팔여 가련이와 어디다가 씨라 하고 처즈 소로 단이난요 선인들이 이른 말리 수십만 지물 드려 금은치단 만이 실고 인당으로 지날 적의 제물을 허라 하고 나련이와 낭즈은 무삼 닐로 몸을 팔여 허난잇가 심낭즈 디답허되 나도 그 안이라 심봉사 여식으로 고양이여 디신허야 아부 눈을 썩라 허미 몸 팔여 허는이다 시로 원정 전후스 난난치 설화허이 선인들리 칭찬허p

59) 바흐친은 ‘대화’ 하면 ‘이견’을 먼저 연상하는 것은 대화에 대한 천박한 이해 때문이라고 주의를 주는데, 동의는 무수한 다양성, 무한한 명암과 농담,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상호 작용을 지니고 있다.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앞의 책, 245쪽.

고” <최재남 낙장 22장본, 74쪽>

[심운 군] “날갯튼 쉼비흔 터도을 사다가 어디 썰야호오 선인들리 디답호되  
우리는 남경장수 선인으로 수말양 미천 뵈여 각칙 비단을 비의 실고 인당수  
을 나갈 적의 낭즈가튼 처즈몐을 제수로 씨라호오 심청니 이 말 듯고 정신니  
아득호야 부모의 원을 풀야거던 죽을 곳을 심각할가 솜빅석의 수기호니” <사  
재동 30장본 (B), 346~347쪽>

심청은 아버지가 시주하기로 약속한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축수(祝手)를 하다 선인들이 처녀를 사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다. 이 매신 장면의 서술 상의 변모를 살펴보면 먼저 [심맹인 군]에서는 선  
인들의 눈에 비친 심청이 묘사된다. 서술자는 심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선인들의 시선을 차용하여 심청을 외면을 관찰하고 있다. [심팽규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인들의 시점과 목소리가 서술자의 목소리에 침투되어 있다. 서  
술의 초점이 심청이 아닌 선인들인 것이다.

그러나 [심팽규 군]에는 [심맹인 군]과는 달리, 심청이 ‘처녀를 사다 어디다  
쓰려 하는지’ 묻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심청의 호기심이 드러나기에 [심  
팽규 군]은 [심맹인 군]보다는 심청의 입장에서 장면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  
다. 이 질문에 선인들이 제물로 쓰려 한다고 대답하나, 그에 대한 심청의 내  
면의 격동은 [심맹인 군]에서는 전혀 서술되지 않는다. 서술의 초점이 선인  
들에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심청의 내면을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인들  
이 심청에게 왜 스스로를 파려하는지 물어보아 심청을 칭찬하는 내용이 덧붙  
여져 있지만, 이 역시 심청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심운 군]은 [심팽규 군]에서 심청이 선인들에게 자신을 사다가 어디에 쓰  
려 하는지 묻는 내용을 받아들인 하지만, 선인들의 답에 심청이 느끼는 충  
격과 공포가 새롭게 나타난다. 동시에 그 이전 이본군들에 공통으로 있던,  
선인들의 시선에서 심청의 외모를 묘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은 사라진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심운 군]에서는 서술의 초점화 주체가, 심청을 외부  
에서 관찰하는 선인들에서 심청으로 변모해 있다는 사실이다.

[심맹인 군]과 [심팽규 군]의 심청은 목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서사는 심청을 관찰하는 타인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심청은 대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심운 군]에 이르면 심청이 서사를 전개시키는 주인공으로서 내면을 갖게 된다.<sup>60)</sup> [심맹인 군]의 서술은 심청의 개성이나 인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녀의 행위,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에만 관심을 두어 서사시적인 장르 특성, 인물전(人物傳)의 장르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심팽규 군]을 거쳐<sup>61)</sup> [심운 군]에 이르면 행위와 사건을 경험하는 심청의 내면에 서술의 초점이 놓이기 시작하고 심청의 목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매신 장면의 변모는 등장인물의 내면과 의식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등장인물의 인격과 목소리 계발로 이어진 사례이다. 이는 특히 인물에 공감하고 내면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욕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심청의 행위가 ‘이효상효’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심청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행위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효를 실천하려고 할 때 그를 관찰하는 독자는 그녀의 내면을 상상하고 그에 공감하게 되며 그녀의 심리에 동화되는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선행 이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본을 파생시키는 행위는 자신의 대화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응답성은 독자의 윤리적 실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독자의 응답성이 인물 형상화를 변모시키는 사례는 심봉사와 관련한 인물 형상화의 변모에서도 발견된다. 심청과 달리 심봉사는 독자로부터 공감적 시선과 곱지 않은 시선을 동시에 받은 인

---

60) 이외에도 [심운 군]은 행선 날까지 아버지의 의복을 준비하는 심청의 슬픔, 행선 날 선인들의 당도에 두려움을 느끼는 심청의 내면,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인당수에서 공포를 드러내는 심청 등 심청의 내면을 확장하는 서술을 작품 곳곳에 새로이 삽입한다.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분석과 더불어 [심운 군]이 심청을 끊임 없는 내적 갈등에도 효행을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소설적 인물로의 변모시켰다는 점은 김효정, 앞의 논문, 2020b 참고.

61) [심팽규 군]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딸’ 자식으로서의 효용에 방점을 두고 규정하는 심청의 의식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은 김효정, 앞의 논문, 2020a 참고.

물이다. 그러나 심봉사를 가장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본군과 이본의 경우에도 심봉사에 대한 공감의 그 내면을 조명하면서 심봉사에 대한 평가를 다성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먼저 신재효 본은 심봉사를 일동일정을 경솔히 하지 않는 인물로 소개하면서 심청이 혼자 동냥을 나가고자 부친을 설득하는 대목에서도 유교적 범절을 들어 이를 승낙하지 않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나아가 신재효 본에서는 심봉사가 아닌 심청이 권선문(勸善文)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려져 심청의 효성을 강조하고 심봉사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재효 본의 심봉사는 후반부에 이르면 어떤 이본보다도 더 성적으로 탈선적인 모습을 보여 초반부의 형상과는 모순을 이룬다. 그러다가도 맹인 잔치에서는 딸을 제속으로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을 드러낸다. 즉 신재효 본은 이 어떤 이본보다도 심봉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도 심봉사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면모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심봉사를 단순히 최종화할 수 없도록 형상화하는 양상은 [심학규 군]에도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한 대목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의 인물의 내면을 계발하여 이본을 파생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또 다시 못자오되 자여간의 몇치나 인난잇가 숨봉사 부복하여 정순업시 옛자오되 사십이 진하도록 남려간 혈육업서 듀야로 설혀하옵다가 천형으로 터기 잇서 닛코본이 여숙이라 불상한 우리 부인 숨정이라 일흠 짓고 칠일 안의 독사오미 동양젓 으더 며계 건건이 살여던니 화듀승의 말을 덧고 눈 찌기를 위정하여 낭게 상고천이의게 삼비석 쌀을 밧고 제슈로 자미하여 보연사 화듀의게 공양미를 올여던이 눈찌기는 고사하고 신세 점점 망측하여 죽지 안코 사자한들 갈사록 산이오니 자식 프라 시듀하고 눈찌기를 바리오니 신의 죄가 지뎡하와 천지간의 난용이라 군신분의 지뎡하와 부자와 갓사온이 만분이 닛 독사온덜 일호 기망하오릿가” <김광순 30장본, 149쪽>

이 부분은 심봉사가 황후가 된 심청 앞에서 심청을 몰라본 채 두려움에 떨며 과거를 고백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앞서 [심학규 군]의 심봉사는 여

러 장면을 통해 저열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 와서는 심봉사가 비극적인 과거를 고백<sup>62)</sup>하는 전환을 통해서 탈선적인 행위로도 숨기지 못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아남은 부모의 슬픔, 죄책감, 회한이 나타난다. 이처럼 장자 부인 계열에서 심봉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는 [심학규 군]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심봉사의 자의식이 드러나는 다성적 목소리가 나타난다. [심학규 군]의 개작자는 심봉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내면을 상상해보는 대화적 이해를 통해 심봉사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를 내외부를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 듯하다.<sup>63)</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독자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의 욕구가 이본 파생을 일으켰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의 안과 밖, 모두를 조명하려는 독자의 능동적 태도는 조건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응답하고자 하는 대상은 심청의 ‘이효상효’의 문제와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의 문제와 같이, 텍스트가 다성적으로 제기하는 <심청전>의 주요 화제와 접점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독자는 아무 인물에게나 내면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인물과 관련하여서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의 응답은 대상에게 직접 주어질 수가 없다. 등장인물은 서사 세계 속에 있고, 독자는 텍스트 외부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개작자의 반응을 드러내는 서술이나 삽화의 변모, 즉 이본의 파생을 통해서만 독자의 응답은 대상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 즉 이본 파생 현상은 독자가 소설이라는 담화 장르의 대화성을 머릿속에서 내적 대화로 체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본이라는 동일한 담화 장르의 형식의 창조를 통해 인물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현한 현상이다. 요컨대 응답이자 말 걸기라는 대화적 현상인 이본 파생은 일차적으로는 텍스트의 다성성과 관련된 등장인물을 하나의 인격

62) 인물의 고백은 시선의 잉여성을 활용하여 인물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적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63) 이를 통해서 [심학규 군]의 독자는 심봉사가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으로 그의 탈선적 행위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된다.



으로서 바라보려는 태도에서 기인하였으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독자는 작자가 되어 등장인물에게 목소리와 자의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을 조회하여 인물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응답성이 적극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 (2)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본 파생

작가는 인물에 인격과 개성을 부여하고 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조한다.<sup>65)</sup> 이 점에서 작가는 창조자인 동시에 관찰자이다. 독자 역시 관찰자의 소임을 맡는다. 그런데 작가는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거나 관찰하지는 않는 데에 반해<sup>66)</sup> 독자는 인물 뿐 아니라 작가에 대해서도 시선의 잉여성과 외재성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sup>67)</sup> 따라서 독자의 응답은 인물에 응답하는 것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작가의 반응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된다.

바흐친은 자아 이해에 필요한 외재성과 시선의 잉여성을 작가와 등장인물

64) 심청의 매신 장면에서 보듯 인물의 목소리 계발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본 파생이 거듭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심팽규 군]에서 비록 서술의 초점화 주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심청이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묻는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이후의 서술의 초점화 주체의 변모를 자극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독자의 응답성이 기실 공동 창조적인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청전>의 전승사에서 윤리적으로 우월한 대화적 이해가 나타나는 이본이 우세본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65) “작품은 대상에 대한 작가의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는 대상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포함한다.”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28쪽.

66) 작가가 창조 행위를 끝내고 자신의 창조 행위 바깥에서 그를 메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는 작가는 창조를 체험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창조 행위를 관찰하지 않는다. “총체로서의 대상을 생산해내는 전체적인 반응은 능동적으로 실현되지만 고정적인 것으로 경험되지는 않는다.” 위의 논문, 30쪽.

67) 이는 인간으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작가, 실제 작가의 제2의 자아로서 내포 작가 개념에 가깝다. 작품 전체의 가치관이나 주제를 통제함에 있어서 실제 작가보다 더 윤리적인 내포 작가 개념은 웨인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00~112쪽 참고.

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독자와 작가의 관계에도 확대해보았다. 독자가 응답하는 대상, 바꾸어 말하면 독자에게 말을 거는 주체는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인물에 최초의 반응을 보인 작가이다. 만약 이본과 같이 하나의 등장인물을 향해 다수의 개작자가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경우는 독자는 이 다양한 화자들의 인물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대화적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독자는 여러 개작자들의 응답에 대해, 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기반으로 한 외재성을 가지고 이를 가치 평가할 수 있는 시선의 잉여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본의 파생을 이루어내는 사례를 통해, 독자의 선행 이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며, 여러 평가 기준 가운데 위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앞서 신재효 본의 투신 장면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 층위를 달리한 다중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가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본 변모 시 개입되는 평가의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담화 층위가 다른 다중 방향적 수동적 겹목소리는 개작자의 개작 의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 인당슈 제속으로 갓썸 심청이 왓스오니 부녀간의 어셔 보게 눈을 쓰게  
흐옵소서 빌기을 다 흐온니 출천지회여든 엇지 천신니 감동치 아니흐리요 아  
부지 어셔 눈을 찌셔 심청을 어셔 보게 흐옵소서 목을 안고 디성통곡하니 심  
봉스 어디 보자 흐고 눈을 벗듯 썸논니 휘황헌 궁궐이메 천지가 히미하여 안  
니 뵈니거늘 정신을 진정치 못흐올 차의 윈 봉스가 다 눈을 찢다 ㉡흐되 그  
리호건논야 그 말은 광디의 지담이제 심봉스는 출천지회 심청을 하눌서 년  
스름으로써 저의 부친 눈을 찢제 다른 봉스야 엇지 눈을 쓰것논야” <김동욱  
소장 90장본, 297쪽>

심봉사의 개안과 관련하여 <심청전>의 이본 변모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심맹인 군]에서는 심봉사만 눈을 뜨는 것으로 그려진다. [심팽규 군]에서는 심봉사와 더불어 그와 결연한 여봉사가 함께 눈을 뜨고, [심운 군]의 다수의

이본에서는 모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그려진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와 안씨, 그리고 여러 맹인이 개안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후 신재효 본에 이르면 모든 맹인이 개안하고 완판 역시 그러하다. 김연수 창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안맹이 있는 짐승까지도 눈을 뜨는 것으로 그려질 뿐 아니라 <심청가>를 듣는 청중까지도 눈이 치유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여러 이본군은 심청 행위의 수혜자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후대본으로 갈수록 그 수혜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장승상 부인 계열에 속하면서 신재효 본 및 송동본과 친연성을 보이는 김동욱 90장본은 이 흐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김동욱 90장본의 개작자는 심봉사의 개안은 심청의 효행과 직접적인 관계 맺고 있지만, 다른 맹인은 개안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없기에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김동욱 90장본은 선행 이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사의 합리성을 들고 있는 것이다.

김동욱 90장본의 개안의 수혜 대상에 대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심청전>은 모든 맹인이 개안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이를 통해 서사의 합리성보다 우위에 있는 평가 기준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같은 담화 유형이 나타나는 심정순 창본의 한 대목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 그날부터 곱씨부인 품풀아 모은 지물 원갓 정성 다 드린다

명산대천 령신당 고묘총수 석왕수에 석불보살 미륵입전 노귀맛이 집짓기와  
철성불공 라한불공 빅일산제 제석불공 가스시쥬 인등시쥬 창호시쥬 신중마지  
다리적선 길닥기와 집에 드러 잇는 날도 성쥬 쇼왕 터쥬 업의양군웅 지신제  
를 갖가지로 다 지니니 공든 답이 문허지며 힘든 나모 부러질까

㉡ 현철현 곱씨부인이 이런 부정당한 일을 헛슬 리가 잇느냐 이것은 모다  
광디의 룡뎀이든 것이었다” <심정순 창본, 5쪽>

기자치성 장면은 곱씨 부인의 인물됨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자치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본군은 [심팽규 군]인데, 이 이본군에

서는 꺾씨 부인이 지나친 기자치성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심팽규 군]에서 꺾씨 부인은 가장인 심봉사를 극진히 봉양하고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해산 후 무리하여 득병하는 모습도 그려진다. 다른 대부분의 이본에서 심청 모친이 산후별증으로 우연히 득병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후 기자치성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삽화나 꺾씨 부인이 무리하여 득병하는 내용은 [심운 군] 이후의 <심청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68)</sup> 이 두 내용은 정숙한 아내의 이상적 모습을 그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판단된 듯하다. 이러한 변모에서 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의 기준은 텍스트에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독자의 내적 대화를 거친 결과만이 텍스트에 나타나, 그 이후의 <심청전>에는 기자치성은 나타나나 그로 인한 가산 탕진은 나타나지 않고 전승된다.

그러다 심정순 창본에서는 이르면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한 개작자의 의식이 ㉠과 같이 텍스트에 직접 표면화된다. 창자는 꺾씨 부인이 기자치성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부인의 현철(賢哲)함에서 찾고 있다. 심정순 본의 개작자는 기자치성으로 가산을 탕진하지 않더라도 기자치성 자체가 양반의 후예로서 부정(不淨)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이는 꺾씨 부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심청전>은 후대본으로 갈수록 꺾씨의 신분과 교양이 높은 것으로 그리기 때문에 심정순 본은 꺾씨 부인 형상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원되는 평가의 기준은 서사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인물의 이상적 형상화 여부이다. 즉, 신재효 본의 인당수 투신 장면에서의 창자가 심청의 효녀다움을 개작의 근거로 들 듯, 심정순

68) “꺾씨부인 어진 마음 암 못보난 저 가장을 지성공경 흐즈 흐고 찬 바람이 발나 흐고 무을 그려 밥을 흐이 별홍갓치 비인 속기 찬바람이 절노드려 바날갓치 가는 몸이 집동갓치 도야신이 쉼힐 길 바히 업다” <김광순 낙장 19장본, 59~60쪽> 이러한 서술은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운 군]에서 삭제된 것일 수도 있다. [심팽규 군]은 심봉사가 동냥으로 해산 준비를 하는 등 심봉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이본군인데, 그러한 심봉사의 노고를 보기 민망하여 꺾씨가 무리를 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심팽규 군]에서 꺾씨 부인이 무리하여 득병하였다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심봉사가 여러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갖게 한다.

본의 창자는 인물의 윤리적 우월성의 일관된 형상화가 서사를 합리적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창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은 앞서도 살펴본 바 있다. 즉 신재효 본의 심청 투신 대목과 마찬가지로 김동욱 90장본과 심정순 창본은 개작자가 부정하고자 하는 담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았다. 앞서 이를 서로 다른 담론을 시험해보는 담화로 설명하였는데, 세 이본이 모두 공히 ㉠, 즉 자신이 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남겨놓은 것은 그를 통해 어떤 특정한 효과를 바랐기 때문이다. 즉, 개작자는 서사적 합리성이나 인물의 윤리성에 기반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서사의 바람직한 내용을 제시하지만, 서사의 흥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둘을 비교해보는 것이 독자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 물론 대화를 요구하는 담화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이 역시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선행 이본의 지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서사의 합리성, 서사의 윤리성, 그리고 서사가 유발하는 흥미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본의 파생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신재효 본의 인당수 투신 장면, 김동욱 90장본의 개안 장면, 심정순 창본의 기자 치성 장면을 통해서 선행 이본의 평가하는 기준을 몇 가지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이본들은 공히 담화 층위가 다른 다중 방향의 수동적 겹목소리를 통해 이미 있는 서술을 바꾸어 새로운 장면을 제시하고자 했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심청전>의 전승사를 보면 이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완판본에서 꺾씨 부인은 기자치성으로 아이를 얻고, 심청은 인당수에서 투신할 때 공포로 인해 벌벌 떨고 뒤로 자빠졌다 다시 일어나며, 결말에서는 모든 맹인이 개안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것이 우세한 <심청전>의 전승 양상이다.<sup>69)</sup> 이를 통해 보아도 선행하는

69) 먼저 기자치성은 모든 이본에 나타난다. (“기자치성과 태교 장면은 완판본 <심청전> 이후 모든 이본에서 그 구성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다만 사설의 확장도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박일용, 「김연수 본 <심청가>의 인물 형상과 미학」, 『판소리 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304쪽.) 둘째, 심청 투신 장면의 경우는 심청이 뒤로 넘어질 정도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심청이 울거나(김연수 본) 두려움을 나타내다가 마음을 다잡는 모습(한애순 본)이 나타나 심청의 공포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이 지배적이다. 셋째, 결말에서 심봉사 외에 다른 맹인들이 모두

이본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지배적인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동옥 90장본을 살펴보자. 이 이본의 개작자가 주장하는 심봉사만 개안하는 내용은 후대 전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찍이 최래옥이 분석했듯, 심봉사 외의 인물이 개안하는 것의 의미는 <심청전>의 이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 차원으로 확장되고 한 개인의 효가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의 독자를 효를 개인 차원이 윤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윤리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sup>70)</sup>

“지어비금주수(至於飛禽走獸)라도 눈먼 짐생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심청전 이 대문 소리만 들어도 명씨 배겨 백태 끼고 다래기 석 서는데 핏대 서고 눈썹 끼고 원시근시 구진 눈도 모도 다 시원하게 낫는다고 허드라” <김연수 본, 189쪽>

특히 김연수 창본에서는 창자가, 모든 맹인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눈을 뜰 뿐 아니라 <심청전>을 듣는 독자들까지도 모든 안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김연수 창본은 심청의 희생적 효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윤리를 넘어 세계에 치유를 가져다 오는 초월적 능력으로 자리매김한다. 나아가 심청의 치유적 능력이 서사의 치유 능력으로 확장되어 서사 내부의 세계뿐 아니라 서사를 듣는 외부의 현실 세계의 독자에게도 실제적 능력을 발휘한다고까지 주장한다.<sup>71)</sup> 심청 행위로 인한 개안의 수혜 대상이 확장된다는

눈을 뜨는 것도 공통적이며, 심지어 뽕덕어미와 함께 달아난 황봉사까지 한 쪽 눈을 뜨는 이본도 있다.(한애순 본)

70)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56~58쪽.

71) 이러한 주술적 사고방식은 <심청전>이 심청굿 무가로 변모되는 데에 공헌을 했을 것이다. 심청굿 무가가 특정 지역의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무당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 그 내용이 광동서국에서 간행한 <교정 심청전>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 등 <심청전>이 심청굿 무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홍태한,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과정 추론」,

것은 심청의 희생이 텍스트 세계를 넘어 소설을 읽는 독자의 삶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김동욱 90장본은 심청 희생의 효과가 확장되는 것을, 단지 서사적 합리성에만 기반하여 비판하고 수혜의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보면, 텍스트 내부의 논리가 옳고 그른가 여부보다는, 텍스트가 독자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가 더 나은 이본을 평가하는 가장 상위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부분 서사의 합리성과 흥미보다는 전체 서사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 독자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해당 작품이 더 이바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승 상 우세본이 선택되는 과정에서는, 작품이 공동체와 그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그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상 II장에서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우선 예술과 삶의 만남을 인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바흐친의 이론에 기대어 대화적 이해의 개념을 버리고자 하였다. 특히 대화는 상호 주관적 의미 이해에 있어서 방법론이 된다. 소설은 가장 대화적인 담화 장르로서 소설 속의 목소리, 내적 대화화를 포착하는 것은 소설 이해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이본의 경우에는 각 이본이 대화적인 담화일 뿐 아니라, 다른 이본들과 대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고전소설의 이본을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각 이본의 내부 혹은 이본과 이본 사이의 대화와 그 의도를 관계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적인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여러 이본을 통해 고전소설이 제기한 화제에 대하여 독자가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 속에 편입시키거나 그것을 확장시키는 이해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의 원리로서는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

『한국무속학』 2, 한국무속학회, 2000.

응답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텍스트의 다성성은 ‘대화화된 담화’와 ‘작가와 인물의 길항하는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다. 특히 텍스트의 다성성은 작품이 말하고 있는 화제, 즉 주제와 깊이 관련된다. 한편 독자는 응답성은 텍스트,에 반응하여 독자 스스로의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독자인 개작자가 선행 이본을 대상으로 응답할 때 이미 다성성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를 응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응답성은 항상 텍스트의 다성성과 관련하여 내적 대화를 내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내적 대화가 특정한 담화 유형으로 서술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삽화의 출입과 같은 변모는 독자의 응답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독자의 응답성을 서술과 삽화 상의 변모로 나누어 논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의 응답성이 이본 파생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자의 응답의 욕구는 이본을 파생시켰는데 특히 인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인물의 목소리를 계발하면서 이본을 파생시켰다. 또한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는 욕구 역시 이본을 파생시킨 동기라고 하겠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심청전>을 사례로 이본 변모에 나타난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인물은 텍스트의 다성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서사의 요소이면서 독자의 응답성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화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은 인물의 평가와 형상화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이에 <심청전>의 주요 인물인 심청과 심봉사를 중심으로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 Ⅲ. <심청전> 이본 변모에 나타난 대화적 이해 양상

본 장에서는 <심청전>에서 대화의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 즉 심청과 심봉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핀다. 특히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다성성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후의 이본들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응답해나갔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심청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승되었고 그와 관련된 향유층의 대화적 이해는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심청 중심의 대화적 이해 양상

본 절에서는 <심청전>의 주인공인 심청을 중심으로 핵심 화제, 즉 ‘이효상 효’를 둘러싼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희생은 유교 문화적 전통 속에서 ‘효행’으로 의미화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청전>의 서사구조는 심청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에 대한 보상이 구조적 연쇄(sequence)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이본에서 심청이 자신이 내린 결단의 윤리적 준칙으로서 효를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

[심운 군] “불승하고 가련호 우리 붓친 압 못보고 망인된 젓 오죽히나 원통호여 눈 쓰리라 말 고지 듯고 날 디 엄난 고양이 삼빅석을 불전의 기록호고 그 마암 오죽호리요 남의 주 되어서 아부임 원을 못 풀이면 인촌이 참의호기 ㄱ 어렵소다 옛날 밍동이난 물 가운데 죽순 썩겨고 왕승은 엇지호여 어름 속의 잉어 낚겨 죽기 된 부모 목숨 살여시니 아 아니 자락호난가 나무 집 출천 지효을 쫓밧기 어려오나 삼빅석 고양이난 적으나 호면 못 구호리라 저신 망미할제라도 이난 쌀을 준비호여 원가갓치 푼 연후의 쓸디 엄난 이니 몸도 뉘다려 일너 불지 이 몸 갓치 천호 인상이나 선인 증감 주어 날 사가 리 잇스올가 이통으로 일이한다 지성이면 감청이라 호나임기 비러볼가” <정명기 낙장 60장본, 318쪽>

인용문은 [심운 군]에서 심청이,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약속하고 이를 걱정하는 심봉사를 위로한 뒤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심청이 효행을 인간의 도리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는 맹종과 왕상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팽규 군]에서는 24효 고사는 등장하지 않으나 반포지효(反哺之孝)를 들어 부친을 위로한다. 이후 [심운 군]에서는 이본마다 다르지만 맹종(孟宗), 왕상(王祥), 노래자(老萊子), 곽거(郭巨), 동영(董永) 등 24효에 해당하는 인물의 고사를 들어 부친을 위로한다. [심학규 군]에서도 심청은 왕상과 맹종을 들어 부친에게 홀로 동냥을 나가겠다고 하며, 송동본에서는 효자를 들어 홀로 동냥 가겠다고 부친을 설득하고 심봉사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효녀인 제영(緹縈)으로 설득하는 등, 여러 이본군에서 공통으로 심청은 자신이 본으로 삼은 인물로 효자, 효녀를 거론하거나 생각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효’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난다. 또한 다수의 필사 후기를 통해서도 독자들 역시 <심청전>의 교훈적 주제로 ‘효’를 가장 중요하게 의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 보고 세상사람들아 기과천선하여 부모공을 잊지 마라” <정명기 43장본, 50쪽>

“디져 심항후의 효성은 뉘가 본바들 스람이 잇실리요마는 후세 스람이 본을 밧썩고 마음을 머거 부디 부모의게 불효말고 지성효칙하라” <강전섭 41장본, 154쪽>

“심청의 본을 비와 부모전의 진심회성 홀올진디 명만천홀할 거시라” <김동욱 44장본, 301쪽>

“어와 시상 사람들아 이 책 보고 썸을 짜라 부모의괴 호도하고 봉향하면 지성감천 디나니다” <정명기 65장본, 103쪽>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일노 두고 이름이라 세상 사람더라 효성이 지극하면 영귀홀기 쉬우리라” <단국대 나손문고 29장 B본, 483~484쪽>

심청의 본을 받아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 혹은 효성을 지극히 하면 현세적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심청전>의 수용이다. 이를 통해 보듯, 효를 실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sup>1)</sup>에도 불구하고 <심청전>의 독자 반응이나 이본군을 거둬온 전승사는 심청이 효녀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형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모든 <심청전>이 심청이 효녀라는 사실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이본은 각자 대화적 이해에 기반하여 동의에 이르고 있다. 이에 (1)절에서는 먼저 한남본과 가사체 <심청전>의 비교를 통해 ‘이효상효’라는 화제에 대한 상이한 응답 양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한남본은 주제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사체 <심청전>은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다성성에 응답하려 했음을 보일 것이다. (2)절에서는 전승의 우위를 점한 가사체 <심청전>과 판소리체 <심청전>을 대상으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서 효의 주제를 강화하는 응답성을 실현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 (1) ‘이효상효’ 화제에 대한 상이한 응답 양상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는 사건은 서사 전개상 가장 핵심적 사건으로서, 유교적 전통 내 가족 간의 윤리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효행’으로 의미화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청전>의 서사구조를 따르는 모든 이본은 ‘이효상효’의 논쟁을 피할 수 없다. II장에서 이별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 초기 이본군에서부터 심청의 이러한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고민된 흔적이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다성적으로 나타난다.

1) 심청은 자신을 파는 행위 외에도, 아버지에게 마을의 어떤 가정에 수양녀로 가기로 하고 공양미로 쓸 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수양녀 거짓말이 나타나지 않는 허흥식 창본, 단국대 나손문고 낙장 19장본, 단국대 나손문고 29장 A본 등의 이본은 효녀가 부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양녀 거짓말을 소거한 듯하다.

이러한 논쟁에 독자들은 응답을 내놓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문장체 <심청전>인 한남본과 가사체 <심청전>의 서로 다른 응답에 주목한다.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된 <심청전> 이본군은 장자 계열인 [심맹인 군]이다. 이후 장자 부인 계열인 [심팽규 군], [심운 군]이 내용적으로나 문체상 [심맹인 군]을 전승하고 있다. 한편 문장체인 한남본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보에 속하여 그 발생 시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남본은 [심맹인 군]과 같이 서두가 요약적이며 심청이 수양녀로 간다고 하는 대상이 ‘장자’로 나타나는 등 초기 <심청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여러 논자들에 의해 [심맹인 군]과의 관련성이 논의되었다.<sup>2)</sup> 그런데 방각본인 한남본이, 가장 이른 시기의 <심청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심맹인 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sup>3)</sup> 이에 본고에서는 한남본이 [심맹인 군], 혹은 [심맹인 군] 이전에 존재했던 모본(母本)에 대한 독자의 응답을 보여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가사체 <심청전>의 응답과 비교하여 살피고자 한다.

#### 1) 주제 변모를 통한 응답

<심청전>은 효행담을 넘어 영웅의 일생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sup>4)</sup> 그런데 <심청전> 이외에도 <바리데기>, <사씨남정기>, <속향전>, <홍계월전>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많은 고전 서사가 여성 영웅의 구조를 띠므로, <심청전>만의 특수성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

2) 신호림은 한남본을 아예 장자 계열로 분류하였고(신호림,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영수는 한남본이 심맹인 계열을 모본으로 하였으나 그 발생은 심팽규 계열과 심운 계열이 발생한 시기 이후로 보았다(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466~467쪽). 본고에서는 앞서 연구사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남본이 [심맹인 군]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

3) 만약 한남본이 [심맹인 군]에 앞선다 하더라도 [심맹인 군] 이전의 공통의 모본의 인기에 힘입어 방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조동일은 <심청전>의 고정체계면은 심청의 삶과 관련되며 그것은 ‘영웅의 일생’의 구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청전>은 남성 영웅의 구조가 아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의 구조를 띤다. 여성 주인공은 남성 영웅과는 다른 사회적 처신을 요구받는다.<sup>5)</sup> 이 때문에 <심청전>은 여성이 인내와 친절, 희생과 같은 윤리적으로 우월한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고난을 감내하는 시험의 구조로도 파악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여성 고전 서사 가운데 <홍계월전>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심청전>의 수용자 역시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만 의미화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하는 수난의 구조로 파악했음은 필사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화 세인들아 고금이 달을손야 부귀영향한다 하고 부디 슝 경이 마소  
흥진비리 고진감늬는 사름마득 잇난이라 심황후의 어진 일흠 천추의 유전이  
라” <박순호 69장, 279쪽>

위의 필사자는 효행보다는 심청의 고난과, 그것의 극복과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심청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고난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파악하지 않고 결국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행복한 결말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시간성 이해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5) 심청의 고난은, ‘여성’이 겪는 고난과 그에 대한 여성의 관습적 처신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여성 인물의 욕망 실현 방법은 신분 상승이나 위력의 확대를 꾀하는 남성 인물의 욕망과는 대조된다. 이를 <홍길동전>과 대조하여 보면, 홍길동은 부친에게 순응하고 효를 다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이 지닌 야심을 확대하고 아버지와의 부권을 상징되는 조선의 왕에게 저항하며 스스로의 왕국을 세운다. 그런 후에 적자인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도국으로 부친의 묘를 이전하여 적법한 가계의 계승자로 서게 된다. 그러나 여성 인물은 저항하기보다는 순응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존의 욕망을 보인다.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인데, 사씨는 교씨와 대립하고 남편에게 저항하기보다는 인내와 희생,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옳았음을 보이고 가정 내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쪽을 선택한다. 이 점에서 때때로 여성은 이념형의 인물상을 구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역설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사씨가 처한 역설과 그의 서사적 해결은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참고). 그러나 사씨와 같은 이념형의 여성 인물이 가부장제 사회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주체로 자각하도록 하는 전범이 되기도 했다는 견해도 있다(김종철, 「소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소설교육 - <사씨남정기>의 경우 -」, 『국어교육』 101, 한국어교육학회, 2000).

시작-중간-끝이 총체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삶 속에서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인간에게, 신적 고난에 가까운 시험을 받고 결국에는 스스로와 타인을 구원하는 <심청전>의 시험의 구조는 고통으로 점철된 무의미한 현재를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식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특히 한남본은 이러한 ‘흥진비래 고진감래’의 인식을 적당구조를 통해 가장 강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청이 나아가 공경 지비하니 룡왕이 흠신 알 규성아 인간 즈미 엇더 하더  
 뇨 청이 다시 공경비복 알 소첩은 인간 천인이라 디왕의 하교하시믈 씨닷지  
 못허리로소이다 농왕이 미소 왈 너는 전심 초간왕의 귀녀로서 요지 왕모연의  
 술를 가음알게 하엿더니 네 노군성과 소정이 이셔 술를 만히 먹이고 잔치의  
 술이 부족하미 도솔턴이 옥데기 청죄하디 옥데 진노하스 굴아스디 이는 턴존  
 의 죄 아니라 술 가음은 시녀의 죄니 쯔셔히 소실하여 등죄를 듀라 하시미  
 노군성을 인간의 니쳐 수십년을 무뎡히 지니다가 널노 더부러 부네 되어 네  
 성효를 닛투니라 하시미 노군성은 심현이 되어 인간의 적강한 지 수십년만의  
 널노쳐 그 쫘이 되어 턴상의셔 술도적하여 먹은 죄로 식선을 점지치 아니하  
 여 십삼 년을 비러먹게 하고 쫘 눈을 멀게 하며 규성의 비러 먹이는 거슬 부  
 다 턴상과보를 받게 정하여 계시니 전심 보응과 금칭 고락이 다 턴정헌 쉼  
 닻” <경판 24장본, 69~70쪽>

인용문은 심청이 용궁에 들어가 용왕에게서 전생을 전해 듣는 부분이다. 이때 전생에 심청은 규성, 심봉사는 노군성으로서 둘이 죄를 지어 천상에서 적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심청과 심봉사의 고난은 ‘천상과보’를 갚기 위해 하늘이 정한 운명으로 그려진다. ‘전생 보응’과 ‘금생 고락’이 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무죄한 자가 받는 고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은 변신론(辯神論) 혹은 신정론(神正論)을 야기하게 마련이다.<sup>6)</sup> 이러한 신정

6) 신정론(theodicy)은 인간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고통과 무고한 죽음들을 대할 때, 인간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이 ‘선한 신의 의(義)’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되고 아노미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

론은 고전소설의 초월계에 대한 이해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적강화소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적강(謫降)’이란 말은 완벽한 천상질서를 지닌 초월계에서 죄를 지어 현세로 쫓겨나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겪는 현실에서의 고난은 전생에서의 죄의 업보로서 해석되고 마땅히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sup>7)</sup> 즉, 한남본의 적강화소는 고난을 ‘숙명’으로 의미화하는 기능을 한다.<sup>8)</sup>

그러나 가사체 <심청전>과 이를 이어받은 판소리체 <심청전>을 한남본과 비교해보면 적강화소가 구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심맹인 군]에는 태몽이 없거나 적강화소와 관련이 없는 태몽이 나타나며,<sup>9)</sup> 적강을 언급하는 태몽이 나타나는 나머지 이본군에서도 심청이 용궁에서 전생을 전해 듣는 내용은 전혀 없다.<sup>10)</sup> 또한 <심청전>은 크게 보면 여성 수난의 구조이지만 인물이 서사 표면에서 행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심청은 행위를 결단하는 인물이다. 심청은 고난을 스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택한다. 그

---

교의 사회적 역할은 피터 버거,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3가 자세히 논하고 있으며, 인간 삶에 있어서 고통의 의미화의 중요성은 빅터 프랭클, 이시형 역,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2012를 참고하였다.

- 7) 예컨대 <숙향전>에서 숙향이 겪는 거듭된 고통은 그녀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숙향은 자살까지도 시도하지만 모든 저항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모든 것은 천상계의 질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에 숙향은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이선과 결연하는 결말에 이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숙향은 행위하는 인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적강화소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서사의 결말은 인물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숙향전>이 고난에 대한 보상의 서사임은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85~87쪽 참고.
- 8) 성현경이 일찍이 지적했듯 한남본은 적강구조가 충실히 구현된 대표적 작품이며 영웅소설적 지향을 보인다.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99~126쪽.
- 9) [심맹인 군]의 태몽은 두 개의 이본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정명기 낙장 60장 본에는 심청이 용의 새끼로 나타나고 단국대 나손문고 29장 B본에서는 심봉사가 학 한 쌍의 꿈을 꾸다.
- 10) 장자 부인 계열의 [심팽규 군] 이후로 <심청전>에는 계속해서 태몽에 적강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심청전>은 적강을 구조적으로 실현시키지는 않는다.

녀는 칠팔 세가 되면 혼자 동냥을 다니겠다고 마음먹고, 아버지의 공양미 시주 약속 사실을 듣고는 스스로 매신(賣身) 기원을 하고, 환세(還世)해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황제에게 맹인 잔치도 제안한다. 또한 신재효 본에서는 스스로가 시주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완판에서는 장승상 부인의 수양녀 제안도 물리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당수 투신이라는 서사의 핵심 행위를 자율적으로 한다. 심청의 희생을 운명으로 의미화하면 심청의 자율적 성격이 손상되어 효행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록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심청이 황후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죄과로 인해 이미 천정(天定)되어 있던 숙명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옥황상제가 심청의 정성된 '행위'에 감동하여 내려진 보상의 일부로, 현실적 제약을 거스르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획득한 결과이다. 이는 한남본이 심청의 투신마저도 운명으로 그리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밤시도록 도축원코 방등으로 도라와 능히 잠을 일우지 못하고 탄식 조튼  
 허다가 홀연 쇼으더니 한 노승이 나으와 날오디 니일 그디를 스자흐는 스름  
 이 이슬 거시니 팔니여 죽을 곳을 가도 피치 말노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호  
 스 죽을 곳의 조연 귀한 일이 이스리라 하고 문득 간 디 업거늘 씨다르니 남  
 가일몽이라” <경판 24장본, 60쪽>

한남본에서는 심청이 아버지가 공양미 시주 약속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밤새 축원을 한 뒤 꿈을 꾸다. 한남본을 제외한 어떤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희생 이전에 꿈이나 다른 인물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예언을 듣는 경우는 전혀 없다.<sup>11)</sup> 반면 한남본의 경우에는 숙명에 따라 고난을 감내하는 속향과 유사하게<sup>12)</sup> 죽을 곳에서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죽을 곳을 가도 피

11) 가사체와 판소리체 <심청전>에서 심청이 초월계로부터 예언을 듣는 것은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이미 인당수 투신이라는 시험을 끝낸 후에 용궁에서 보상에 대한 예언을 듣는 것이 유일하다.

12) 최기숙은 <최척전>, <속향전>, <사씨남정기>를 사례로 들어 여성 인물이 유랑과 축출, 귀환하는 서사에서 여성 인물이 듣는 예언에 주목한 바 있다. 이들 17



하지 말라'는 예언을 듣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심청이 공포를 딛고 죽음으로 도약하는 행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한남본의 예언은 심청이 용궁에서 '모든 것이 전생의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내용과 더불어, 여타의 <심청전> 이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즉 심청의 자율성을 해치는 운명과 숙명에 따른 적강구조는 <심청전> 전승에서 거부된 것이다.

## 2) 주제 강화를 통한 응답

적강구조를 띤 <속향전>과 같은 고전소설에서는 비합리적인 힘이 인간 삶에 개입하여 삶의 행로를 변경시키는 '우연한' 시간의 맹위가 압도적이다. 한남본뿐 아니라 여타의 <심청전>도 이 점에서는 여성수난구조의 소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심청전>은 심청의 희생을 숙명으로 그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가사체 <심청전>과 판소리체 <심청전>은 서사 전개에 필요한 우연을 필연적으로 보이도록 개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기도 하지만<sup>13)</sup> 심청을 비범한 인물로 그림으로써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도 감동시키는 심청의 효행을 합리화하고자 한다는 데에 한남본과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청을 비범하고 성스러운 인물로 그리려는 서술이 모든 이본에 나타난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비참한 현실에도 비천하지 않은 존재로 심청을 그리는 현상은 [심맹인 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세기 고전소설에서는 여주인공들이 모두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단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초월적 존재의 예언을 듣고 운명을 이해하며 희망을 품는다.(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가사체와 판소리체 <심청전>의 심청은 이들 소설의 여성 인물들처럼 집을 떠나긴 하지만 축출되어 유량하지도, 집으로 귀환하지도 않으며 절망의 순간에 초월계로부터 예언을 듣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13) 축수한 지 삼 일 만에 남경 상인이 나타난다는 점, 용궁에서의 삼 일을 삼 년으로 연장하여 남경 상인이 장삿길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어 꽃이 발견되도록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심맹인 군] “예적 유리국 시절의 일위 땀이 낫시되 압뭇보난 고로 심가 땀닌이라 하니 심땀인이 조송부모하고 이턱할 고지 바이 업셔 동셔기걸 다니 면서 근근부지 연명터니 천우신조하여 집을 어더 양씨녀자 비필하니 그 녀즈 부덕 잇셔 근근조심 보명터니 그령저령 잉터잇셔 십식만의 히복하니 짚조식을 나엇더라 강보의 싸여씨되 절묘히 싱겨시며 단정키 그지업다 미간의 어진 정키 심송흔 골격 안니로다 다시곰 살펴보니 천송선녀 인간의 흐강흔 듯 흐더라 일흠을 지어 이지증지 길흐더니” <정문연 28장본, 11쪽>

[심맹인 군] “심청이 이 말 듯고 왈각 뛰여 내달으면 선인 보고 물은 말이 날가탄 아해라도 사가리요 선인들도 반겨 듯고 자세이 살펴보니 처의 이상이 남루하나 얼굴이며 태도 만고의 절색이라 향긋론 난초꽃이 자풀 속의 묻혀난 듯 오동 속의 노던 봉황 지극 중의 지틀인 듯 폐월슈화지태도난 사람의 정신을 놀내난지라 아름다운 형용 엇지 다 기록하리” <박순호 낙장 50장본, 403쪽>

[심팽규 군] “세월리 여류하여 십오세의 다다련이 얼굴 싱긴 모양은 세송의 읍는지라 히즈 읍는 청천명월 오운의 싸이난 듯 진이 읍난 횡손 빅옥 진회 중의 못친난 듯 이목구비 싱긴 거동 세송의는 짝이 읍다 한나라 와쇼군과 당나라 양귀비가 아모리 잘나서도 심청의셔 더할손야” <박순호 43장본, 324쪽>

[심맹인 군]에는 심청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심청의 아름다움이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 어머니나 선인들의 시점을 취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다. [심맹인 군]에는 태몽이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적강화소를 띤 태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심청이 탄생부터 비범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심청이 비록 동서로 구걸을 다니며 근근이 연명하는 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미 출생에서부터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어떤 성스런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심청이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매신을 하는 장면인데, 인물로서는 상당한 결단과 고뇌를 겪고 있을 장면에서 심청의 외모가 선인

들의 시점에서 장황하게 찬양되고 있다. 장면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심청의 외모 찬사는 외모 지상주의의 표출이 아니라, 비범성을 표현하는 장르적 묘사 기법이다.<sup>14)</sup> 이는 [심맹인 군]이 심청이 자기희생적 효행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심청의 비범성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한편 [심팽규 군]에서는 심청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태몽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모의 특별함은 심청이 십오 세가 될 때에 묘사된다. 외적인 아름다움 이외에도 심청이 범인과 다르다는 인식은 심청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심맹인 군] “또 심청이 젖터 누어 심청동정 살펴보이 잠을 자면 두고 잠을 켜면 이려 안고 저러 안저 누누이 달내난 말이 어서 자자 우지 마라 어려하게 길니니 그 공역 오작할리요 심형이 비록 일울지라도 근본 천생총명이라 저의 부친 절을 정상 엿지 짐작 못할소야 일연 삼백육십일 저 보치년 비 전이 업고 선학상단 자라나며”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 250쪽>

[심운 군] “불상타 심창니여 범인과 갓트면 저의 부친 경상 보고 엿지 츄마 갈리요마난 본디 심창은 출천지효라 부모 위로할 분 아니라 일언니 증천금니라 엿지 그런 효여가 죽기을 악기리요” <사재동 30장 C본, 381쪽>

[심맹인 군]에서 서술자는 심청은 천생총명이라 아버지의 신고(辛苦)를 짐작하고 순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말한다. [심운 군]의 이별 장면에서는 심청의 행위에 대한 ‘이효상효’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서술자가 능동적 겹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청은 초월적인 세상과 관련이 있는 비범한 존재로서, 세속의 윤리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여, 예상되는 ‘이효상효’ 논란을 미리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효상효’ 논쟁을 의식하는 이본의 서술자들이, 서사 세계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시선의 잉여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서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심청의 비범성을 서술하는

14) 앞서 II장의 매신 장면 변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심청의 내면의 목소리가 부여되고 계발되면서 외모에 대한 찬사는 기능을 잃고 사라진다는 점에서도 외모가 인물의 비범성을 보이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사례는 장승상 부인 계열에도 이어진다.

“심청은 중년 귀히 될 스람이라 천지귀신도 도와주고 제불보살 올려보니  
준병 읍시 즈라나서 육칠세가 되엿구나 인스가 민첩하고 효칭니 겸전하여 쇼  
견이 탁월하고 얼골리 일식이라 부친의 죠석공양 모친의 그제스을 어른을 압  
두하니 뉘 아니 증춘하리” <강전섭 41장본, 128쪽>

여기에서도 서술자가 심청에게 벌어질 미래의 일을 사전 제시<sup>15)</sup>하면서 심청이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자라났다고 서술한다. 이렇게 적강구조를 속명으로 의미화하지 않는 대부분의 <심청전>에서는 서술자가 심청의 비범성을 출생과 유년 시절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사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심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심청의 효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효상효’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자 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앞날에 대한 사전 제시는 서술자의 전지적인 평가적 서술뿐 아니라, 다양한 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심청 서술은 애초 [심맹인 군]에서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심청의 성스런 속성은 [심팽규 군]에서부터는 태몽 삽화를 통해 보다 구조적으로 확고해진다.

[심팽규 군] “지성이 감천이라 오화승제 아라시고 삼신당이 아라하디 뉴리  
국 심마인 정성니 지극하여 남녀간 자식 주어 후스을 닛찌하라 심마인 붓쳐  
삼경이 잠이 든이 천상으로 오식체운 초막집이 돌너사고 향니 진동하며 삼신  
이 나리와서 초막방이 좌정하여 광시부인 심시갓치 엿자오디 엿더흔 부인이

15) 서사를 스토리 층위와 텍스트 층위로 나누어 살핀 쥬네트는 스토리-순서와 텍스트-순서가 불일치하는 시간 모순을 소급 제시와 사전 제시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소급 제시는 텍스트 속에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야기되고 난 후에 어떤 스토리-사건이 서술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사전 제시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 언급되기 전에 어떤 스토리-사건이 서술되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급전과 발견 이래로 서구의 시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사의 독자 효과는 서스펜스에 있기 때문에, 서구 소설에는 사전 제시는 상당히 드물다. 텍스트에서의 ‘시간’의 고찰은 S. 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86~94쪽 참고.

누로츠티호온 니 방안니 힝초을 호시난요 그 부인 디답호디 나는 삼신니옴던  
니 그디 부처임씨 일성지성으로 호읍기로 상지임 아라시고 즈식쥬려 완노이  
단 품으로 이기를 나여주며 이란 말슴 천상이 턱을성관 말지 짜임 심천니옴  
던이 상지씨 득죄호고 닌간이 니치신이 드려오 날흠은 심천이라 호읍소서”  
<김광순 낙장 19장본, 58쪽>

태몽이 처음 등장하는 [심팽규 군]에서는 심맹인 부처의 지성에 감동된 옥  
황상제가 삼신에게 자식을 주라고 명령한다. 삼신은 부부에게, 심청은 천상  
의 태을선관의 막내딸로 상제에게 죄를 짓고 인간에 내려온 인물이라고 말  
해준다. 적강 화소가 드러나는 태몽이지만 심청이 죄를 지었다는 데에 방점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천상의 존재였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 왜냐하  
면 태몽 삽화 바로 앞에 기자치성 삽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자치성 삽화  
는 태몽과 마찬가지로 [심팽규 군]에 처음 나타나는데, 태몽이 심봉사 부부  
의 기자치성 직후에 나타난다는 점과 태몽에서 삼신이 한 말을 고려했을 때  
태몽의 의의는 기자치성에 대한 보상, 즉 천상의 존재를 자식으로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sup>16)</sup> [심팽규 군]이 모본으로 삼고 있는 [심맹인 군]  
에서는 태몽이 없기 때문에 적강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심  
팽규 군]의 태몽은 심청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봉사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한 정성이 지극했고 그 결과 그들이 얻는 심청은 비범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sup>17)</sup> 심청의 비범성을 드  
러내는 기능으로서의 태몽의 적강 고지는 용궁에서 적강 고지가 이루어지는  
한남본과 대조해보면 그 역할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

16) 적강화소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심맹인 군]이나 적강이 태몽에서 나타나지 않  
고 용궁에서 추후에 고지되는 한남본에는 기자치성 삽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심팽규 군]에서 처음 나타나는 적강화소를 띤 태몽은, 마찬가지로 [심팽규 군]에  
서 처음 나타나는 기자치성과 의미상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과로 묶  
여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심정순 창본의 기자치성에 대한 비  
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7) 장자부인 계열에서는 득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청이 이 말을 드르미 전후 지닌 일이 다 정한 선 둘 알고 더욱 슬허하여 복디 듀왈 성로를 듯스오니 신첩의 전심 죄악이 관영하미 올스은지라 슈원슈 귀리오마는 지난 벵 고흥과 목금 병신 아비 듀리는 일과 슬허하여 독을 일틀 싱각하온즉 간장이 뛰여지는 듯하여이다 농왕 왈 이제는 너의 고흥이 다 진 하고 추후 무궁한 복록을 누리리니 슬허말는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나와 먹이라 하니 (중략) 청이 복다 먹으며 정신이 씩씩하여 전세 일이 넉넉한 지라 부왕의 농안을 시로히 반기며 좌우 시녀 다 전세 조국의 압히셔 수후하던 무리니 또한 반기물 마지 아니하고 본디 천일듀를 가음아던 복로 노군을 불상히 녀겨 술를 도적하여 먹이던 일이 어제 갖트니 시로히 슬프물 이그지 못하여 부인을 우러러 낙누 왈 쇼네 인간의셔 고초를 격던 일틀 싱각하오미 무음이 놀스은지라 이제 이의 이의 드러왔스오니 도로 나가지 말고 이의 머물기를 원하노이다” <경판 24장본, 71~72쪽>

한남본의 심청은 용궁에서 적강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자 용왕이 심청에게 다과를 먹고 쉬게끔 하는데, 초월계의 음식을 먹은 심청은 전생을 기억하게 된다. 고난이 전생의 업보로 의미화되자, 심청은 이생(-生)에서의 고초가 새삼 두렵고 크게 느껴져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즉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전생죄과를 갚는 수단으로 전략하면서, 현실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아버지를 도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봉사의 금생 고락도 역시 숙명이기 때문에 금생의 고행을 마친 심청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강 고지가 심청 투신 후 용궁에서 이루어지는 한남본에서는, 이것이 심청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의미론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청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기능을 함으로써 심청의 행위를 효행보다는 전생 죄에 대한 속죄로 의미화한다.

그러나 한남본과는 달리 태몽에서 적강 고지가 제시되는 다른 모든 이본에서는, 태몽은 사전 제시의 기능을 한다. 적강화소의 태몽은 이미 일어난 전생의 일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소급 제시인 듯하지만, 그 초점은 사실상 앞으로 비범한 심청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높이고 이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 뒤따를 것을 사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전 제시를 통해서 심청의 납득하기 힘든 행위, 즉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이효상효’의 문제를 ‘출천지효의 인물의 비범성’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심청은 범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므로 ‘이효상효’의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적강 고지가 소급 제시의 기능을 하는 한남본의 경우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 수난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의미론적 기능을 한다. 그 어느 쪽이건 심청은 범인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한남본과 같은 소급 제시는 운명, 숙명, 천정(天定)에 의해 효행을 했다고 보게 되므로 심청의 자율적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심청전>에는 태몽 외에도 여러 꿈과 예언 등, 미래에 대한 예시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예시는 모두 심청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청의 어머니, 심봉사, 안씨 맹인 등이 그 몽사(夢事)의 주체로 나타나 독자로 하여금 심청의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 특히 심봉사는 모든 이본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예지몽을 꾸는 인물로 그려진다.<sup>19)</sup> 심봉사의 꿈은 이본에 따라

18) 심청을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실존으로 보는 관점은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는 인간 실존의 세 영역을 미학적 영역, 윤리적 영역, 종교적 영역으로 나누고 후자로 갈수록 실존의 위계 상 높다고 보았다(이에 대한 설명은 Michael Watts, “The three spheres of human existence(aesthetic/ethical/religious)”, *Kierkegaard, One World*, 2003 참고). 이러한 그의 철학의 시발점은 바로 ‘서사’이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자신을 위한 번제(燔祭)로 삼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바로 다음날 아침, 하나님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비범한 믿음에 기인했음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은 실존의 수준이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는 인간으로 파악하였다. 키에르케고르, 임춘갑 역, 『공포와 전율』, 다산글방, 2015.

19) 당대에는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맹인들이 점을 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춘향전>에 등장하는 맹인 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심청전>에서 맹인 잔치에 모여드는 판수 맹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심봉사는 이러한 능력은 없으나 꿈을 꾸는 인물로 나타난다. 심봉사가 생활 능력이 있다면 심청의 효행이 발휘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서는 태몽,<sup>20)</sup> 심청과 이별하기 전 선관 꿈 혹은 수레 꿈, 안씨와 결연한 후 심청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꿈 등 주요 사건의 고비마다 등장한다. 이 외에도 심봉사는 광씨의 장사를 치를 때 신승으로부터 밋자리를 점지 받으며 황후가 나는 자리라는 예언을 듣기도 하며, 안씨 맹인으로부터 그녀의 꿈의 내용, 즉 귀인인 심봉사를 만나면 안씨 맹인의 운명이 바뀌리라는 예언을 전해 듣는 인물이기도 하다.

심봉사의 꿈과 그가 듣는 예언은 모두 심청과 관련된 미래를 보여준다. 이는 일종의 사전 제시의 반복인데, 서구 이론에서는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위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심청전>의 경우, 사전 제시는 조금 다른 기능을 갖는다. 첫째, 사전 제시는 독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서스펜스를 희생시키지만 독자들은 사전 제시를 통해 앞으로 심청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심청의 고난이 보상을 받고, 그러한 과정이 모두 초월계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의 예상이 작품 전개와 맞아 떨어질 때 독자는 스토리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유비를 구성하여, 천도(天道)가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안도를 느끼게 된다. 둘째, 이미 <심청전>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사전 제시는 이미 알고 있는 화제를 해당 이본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어느 쪽이건 <심청전>에서의 사전 제시는 심청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단해나가는 자율적 인물로서의 심청 성격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된 듯하다. 가사체와 판소리체 <심청전> 이본에서 심청은 단 한 번 초현실계의 인물들을 만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이는 이미 심청이 희생을 한 이후 용궁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적당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심청의 지극한 정성에 초월계가 감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심청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꿈

---

20) 이본에 따라 심청의 어머니가 꿈을 꾸기도 하고, 심청의 어머니가 심봉사와 같은 꿈을 꾸거나 심봉사가 혼자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다.

21) S. 리몬-케년, 앞의 책, 102쪽.



을 꾸거나 현실계의 다른 인물로부터 직접 예언을 듣는 경우는 더욱 없다.<sup>22)</sup> 심청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심청의 결단이 주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른 인물들이 심청과 관련한 꿈을 꾸거나 예언을 듣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복은 심청의 예정된 행복한 결말을 반복적으로 전조하면서도 결말을 지연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남본은 인간 세계의 윤리인 ‘효’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운명을 가지고 ‘이효상효’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가사체 <심청전>은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한남본은 ‘이효상효’ 화제에 대해서 주제를 아예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였고, 가사체 <심청전>은 효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였다.

한남본은 적강구조를 통해서 심청의 희생을 운명과 숙명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를 통해 심청은 전생의 과보(果報)를 갚기 위해 스스로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수난의 정점을 찍고 흥진비래를 맞는 것이 된다. 한편 [심맹인 군] 및 이를 전승한 여타의 이본군은 심청의 비범성을 사전 제시의 방식으로 드러내어 ‘이효상효’의 논쟁을 간접적으로 우회하고자 하였다. 즉 심청을 세인과는 다른 특별한 실존으로 부각시켜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 ‘이효상효’가 아니라 범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출천지효임을 꾸준히 강화해나간다.

한남본과 [심맹인 군] 및 그를 전승한 <심청전> 사이에는 직접적 대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문장체 <심청전>과 가사체 <심청전> 각각은 나름대로 독자가 제기할 ‘이효상효’의 논쟁을 우회할 전략을 찾아 심청의 인당수 투신 행위를 긍정적으로 의미화할 방안을 찾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한남본을 전승한 이본은 별로 없고 가사체 <심청전>의 의미화가 <심청전> 전승의 우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운명에 대한 순응보다 자율적으로 타인에 대한 희생을 시도하는 서사가 인간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서사로서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22) 앞서 밝혔듯 심청이 꿈을 꾸는 이본이 한남본이 유일하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심청을 출천지효로 형상화하여 ‘이효상효’ 논쟁을 해결하고자 한 가사체 <심청전>과 판소리체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효’를 강화하는 대화적 이해 양상

### 1) 인물의 내적 대화의 상상적 구성

<심청전>에서 ‘이효상효’의 딜레마와 윤리적 성찰의 정도가 가장 날카롭게 나타나는 장면은 이별 장면이다. 이별 장면에는 심봉사뿐 아니라 선인과 동종의 여러 인물이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의 논쟁이 특정한 담화 유형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이미 II장에서 살핀 바 있다. 여기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심맹인 군]의 이별 장면에서 제기된 ‘이효상효’의 딜레마가 [심맹인 군]을 전승한 이본군에서 어떻게 의식되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응답을 내놓았는지를 [심운 군]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심맹인 군] “차마 보기 원통하여 방성통곡 우난 말이 불측하다 이 내 팔자가 궁하다 이 내 신새 전생의 무삼 죄로 세상에 갈게 난능고 설운지고 설은 만고천지간의 설운 사람 날 가타 니 뉘 잇쓰리 피눈물이 너 반죽이 되지 아황 여영의 셔름이요 우상의 지난 행낭 재성공의 셔름이요 수족 다 끈의니 척부인의 셔름이요 바아 바회툼의 저 어미 이별하던 숙낭자의 설름이요 눈물노하직한직 호지의 시집던 왕소군의 설름이요 다 씨러 합하온들 네 설름이 지넬소냐 애고 애고 설운지고 이 내 일을 엇이할고 동종의 어른덜은 한 말삼 무거불측한 심청이 모지더라 하시난 중 내 엇지 모르리요마은 부친이 맹인된 것 철천지 원이 내 가슴이 맥여 천사만탁 생각다가 오직하여 이리 할가 과의 책망 모르시고 우리 부친 불상 생각하옵소서” <박순호 낙장 50장본, 408쪽>

인용문에서 보듯 [심맹인 군]의 심청은 이별 장면에서 자신의 설움을 길게 늘어놓는다. 심청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람들 앞에서 팔자를 닦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사체 <심청전> 가운데 [심맹인 군]이 유일하다. 어찌 보면 가

장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심맹인 군]의 심청은, 자신의 행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고 따라서 비판의 당위성도 충분히 이해하는 합리적 면모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팔자를 앞세운 심청의 논리는 자신을 죽여서까지 효를 행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심청은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동중에게 논리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심맹인 군]에서 제기된 도덕적 딜레마는 이후의 <심청전>에서 계속 대화의 화제가 된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이본군은 [심운 군]이다. [심운 군]에 앞서 있는 [심팽규 군]은 [심맹인 군]을 전승하면서도 심봉사에 대한 서술이나 삽화를 중점적으로 발달시킨 데에 반해, [심운 군]은 [심팽규 군]을 기본으로 이본을 변모시키면서도 [심팽규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심맹인 군]의 내용을 받아들였다. 특히 [심운 군]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심청에 대한 서술과 삽화를 중점적으로 발달시켰다.<sup>23)</sup>

그런데 [심운 군]은 심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모를 추구했다. 대신 장면을 통해 [심운 군]이 서술의 초점화 주체를 바꾸어 심청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심운 군]이 새롭게 추가한 삽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심맹인 군] “선인들이 도라가니 심청이 어진 마음 부친이 알으시면 대대 병이 날 줄 알고 이십석 짝을 받아 작천하여 부친의 의복 먼저 집고 제 의복 준비하되 소의소복으로 현명이 꾸며 두고 선인 오기 지다르대” <박순호 낙장 50장본, 403쪽>

[심팽규 군] “그러구로 흥선날리 다다련이 심천이 할 수 읍서 부친전의 옛 조오되 삼철이복 갖추 지여 혼 농 안의 너흔신이 철철리 니여입고 현 보션볼 바다셔 못당 식기 여허신이 날리 측거든 니여신고 먹든 양식 나마신이 이웃

23) [심운 군]과 [심맹인 군], [심팽규 군]과의 연관 관계와 [심운 군]의 심청 관련 내용 추가 사항, 그리고 그 의미에 관해서는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b 참고.

집의 쌀을 부치 찌찌로 잡수시고 불칙헌 여식 혼나 읊다고 세지 말고 평안이  
겨시옵쇼셔” <박순호 43장본, 329쪽>

[심운 군] “잇찌의 심청니는 으탁읍는 망인부친 속절 읍시 이별하고 죽을  
일을 식각하니 쥬야로 낙누하며 제의 부친 입던 의복 서답 짚니 정니하여 스  
절의복 쓰지 흘 제 혼 솜을 골나노아 동복 세 별 지여노와 혼 말리 나 혼  
나 죽은 후의 앞 못보는 늘근 부친 그 뉘라셔 위홀고 접옷 혼 별 적삼 두 별  
씩 지여녹코 혼 파립 쓰지하야 쥬식갓근 다라노코 혼 망근 압을 갈라 관즈당  
줄 맞치 다라 손 단는 디 걸어두고 혼 보션 곱게 지여 지임 잠어 미여노코  
저의 부친 잠든 후의 빅발머리 이 죽이며 이통혼 말리 불송혼은 우리 부친  
외쌀 심청 나 죽은 후의 뉘을 의지하옵시며 기혼니 즈심흔들 쥬식봉양 뉘가  
하며 스절의복 짚니 뉘 손 빌어 혼잔 말가 (중략) 잠든 부친 손목 잡고 어골  
을 혼티 디니고 눈물을 흘니면서 철솔혼 우리 부친 목을 막죽 오날 만져 보  
세 언제 다시 만져볼가 부친 말슴 언으 찌에 다시 들러 볼가 이니 몸 죽은  
후의 뉘을 스랑하옵시며 뉘을 밋고 손단 말가 원통하고 답답하다 니일리아  
천지간의 일언 일리 또 잇슬가” <사재동 30장본 (B), 351 ~ 352쪽>

[심운 군]에서는 [심맹인 군]과 [심팽규 군]에는 없던 이별 준비 장면이 새  
로이 발달한다. [심맹인 군]에는 부친의 의복을 짓는 심청의 행동만이 서술  
되고, [심팽규 군]에서는 심청이 심봉사에게 자신이 지은 옷을 챙겨 입으라  
는 말이 제시된다. 그러나 [심운 군]에 이르면 이 의복 준비하는 내용을 장  
면으로 확대시켜 독자로 하여금 심청이 매신 후 선인들이 당도할 때까지 느  
끼는 번민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서술자는, 행선 날을 앞두고 심  
청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하는 의복을 하나하나 열거한다. 스토리 시간은 변  
하지 않지만 서술 시간이 확장되고 플롯은 지연된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  
도의 감속은, 이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붙잡고 싶은 심청의 내면이 반영된  
것이다.<sup>24)</sup>

24) 비극적인 이별 준비 장면은 이후의 이본군에서 계속해서 발달해나간다. [심학규  
군]에서는 부친의 화상을 그리는 내용이 추가되고, 송동본과 완판에 이르면 “오  
날밤 오경시를 함지이다 머무르고 니일 아침 돛난 히를 부상지이다 미량이면 에  
여썬사 우리 부친 좀더 모셔 보련마는 일거월니를 뉘라셔 막을소냐”하며 심청이

그런데 서술자는 심청이 이별을 준비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심청의 행위마다 이를 행하는 심청의 내면을 묘사한다. 심청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논평하는 서술자 대신, 심청의 내면이 서술의 대상으로 부상한다. [심운 군] 전에는 심청은 세계의 일부로서 묘사되고 관찰되는 ‘대상’ 이었다. 그러나 [심운 군]에 이르면 심청이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는 ‘주체’가 되어 있다. [심운 군]에는 이별 장면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힌 심청이 동종의 눈치를 보는 내용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비밀과 갈등으로 번민하는 심청의 내면이 이별 준비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심청이 내면을 지닌 존재, 목소리를 지닌 존재로 보이도록 하는 서술이 확장된 것이다. 대화적 담화 유형은 사라지지만, 심청의 ‘이효상효’에 대한 다성적 논쟁은 삽화를 통해 더욱 내재화되어 나타난다.

[심운 군]은 소설의 인물이 마땅한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을, 능동적 겹목소리를 넘어 인물에게 목소리를 직접 부여하는, 보다 소설적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를 읽는 독자는 교훈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적 대화를 따라가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을 느껴볼 수가 있다.<sup>25)</sup> [심운 군]은 ‘이효상효’의 논쟁을 심청의 비범성으로 해결하여 주제를 강화하려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녀의 범인과 다름없는 인간성을 심청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도 동시에 취한다. 즉 심청이 출천지효인 것은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라는 서사시적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일련의 지속되는 그녀의 결단 때문이며, 이 결단의 과정은 심청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전해진다.

[심운 군] “심청이 도라서며 엷다 이 기야 너의 주인이 괄시헌덜 너조차 물  
 냐 하나 문박게 싹 나서며 한심 짓고 낙누하니 일월이 무광홀 제 창천닌들  
 시간을 붙들고 싶다고 직접 토로하기도 한다.

25) <심청전>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별 준비 장면이나 곱씨 부인 유언 장면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느낄 법한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공감을 획득한다. 정충권도 <심청가>의 이별 준비 장면을 들어 판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일상에 토대를 둔 섬세한 감각과 정서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93쪽.

무심홀야 병신 부친 싱각호야 이 스럼을 시알리짜 <박순호 19장본, 351쪽>

[심운 군] “낭조가튼 쳐조목을 제수로 씨라호오 심청니 이 말 듯고 정신니 아득호야 부모의 원을 풀야거던 죽을 곳을 싱각할가 숨빅석의 수기호니” <사재동 30장 B본, 346~347쪽>

[심운 군] “영이별코 도라간니 평안니 지니시다가 후세나 다시 만나 보소이다 호직호고 도라시니 정신이 아득호며 기가 막켜 못가것네 건곤천지 우주간의 요련 변니 또 잇는가 심봉소는 정신 녹코 짤 가는 줄 모울 적에 선인들 거동보소 심낭조를 지혹호니 심청이 호일 읍셔 문외의 썩 나서며 눈니 캄캄호고 정신니 아득호야 호날리 빙빙 쌓이 썩 써지는 듯 싱신가 썸인가 씨즈찌 썩 썸을 씨즈 병신부친 이별호고 이제 가면 언제 올가 이고 답답 이고 답답 통곡호며 일보 이보 질리 점점 머러지니 호 모령리 도라시고 두 고기를 넘고 보니 습오야 발근 달리 흑운중의 못첫는 듯 업더지며 좁바지며 통곡으로 질을 초조가 강싸을 다다르니 수소의 등등 쓴 비은 창냥중에 덩그러케 썩고 만경청파 물결은 울녕출녕 비전에 부드치니 천지가 뒤집는 듯 정신니 암암호여 나갈 길리 창히로다” <사재동 소장 30장 B본, 354쪽>

[심운 군] “종종거음 조조 거러 비전을 부여잡고 비 아리를 구버보니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물결은 출녕 비전을 탁탁 치며 심청이 기가 막켜 뒤로 펴석 물러안지며 정신읍시 허허 우시며 일신 수지 별별 썩난 거동 스람은 초마보지 못홀너라 심청이 다시 일어나며 너의 정성이 부족호면 아부 눈을 못쓰리라 영치 조흔 눈을 감고 이을 아드득 물고 치미를 물롭시고 바람 마진 병신체로 빗썰 걸럼 조조 걸어 펄석 썩여 물의 들며” <박순호 19장본, 360쪽>

[심운 군]은 매신 장면과 투신 장면에서는 서술을 변모시키고 동냥 박대 삽화와 이별 준비 장면, 배가 있는 강가까지 통곡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추가한다. 이들 모두는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심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청의 내면에는 두 가지 목 소리가 존재하고 이 둘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청은 동중의 박대에 낙담하면서도 천도의 존재를 믿으며 서러움을 참아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부친의 원(願)을 생각하여 매신을 결단하며, 의지가 없던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놓으며, 폭풍으로 파도가 무섭게 뱃전을 치는 상황에서 본능적 공포에 뒤로 펄쩍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 자신의 정성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선택과 결단을 지속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수치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한 쪽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의지가 주인공의 내면에서 대화화되면서 독자는 주인공을 살아있는 인물로서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서 [심운 군]은 심청이 범상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출천지효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적 본능을 딛고 효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비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 [심운 군]은 현재 불리는 창본까지 계속 확장되어 온 <심청전>의 비장미를 인물의 내적 대화를 통해 소설적으로 처음 발달시킨 이본군이자, 심청에 행위의 도덕적 딜레마를, 논리보다는 등장인물과의 인격적 관계 맺음으로 해결하고자 한 이본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심운 군]의 개작자이면서 [심운 군] 이전에 존재한 이본군, 즉 [심맹인 군]과 [심평규 군]의 독자는 심청의 내면을 상상하여 공감하고 자신이 심청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내용을 다른 독자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로 인해 새로운 이본을 파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심운 군]은 앞선 이본군들의 동의에 기반하였지만 그에서 나아가 인물의 내면과 목소리를 적극 상상하였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대화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 2) 인물의 소망 이해와 그의 충족

독자의 응답성은 인물의 내면 대화를 상상하고 이에 공감하는 대화적 이해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기존 이본의 서사를 꼼꼼히 읽어 인물의 소망을 이해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이 둘은 독자가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

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공감과 이해를 해본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면 후자는 독자가 내면을 이해하게 된 인물에게 자신의 긍정적 반응을 돌려주려는 데에 있다. 즉, 인물의 내면보다 서사 세계의 변모에 관심이 높은 대화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심청전>에서의 용궁의 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청전> 전반부의 희생의 서사는 용궁을 중심으로 하여 후반부의 보상의 서사로 전환된다. 그 구체적 양상을 [심맹인 군]에서부터 살펴보자.

[심맹인 군] “슈중의 드러가니 슈중경쳐 더욱 쥬타 슈중의 고기더른 분쥬히 왕니하고 귀국 나졸더런 츠려로 드러오니 비인간지오복이오 별유천지 너른 경은 보던 비 처엄이라 음식의 가진 품은 광치가 찰난하다 먹던 비 처엄이라 심청이 심각하되 물의 빠진 이니 몸이 도로혀 평안하니 이 안이 평안한가 꿈인가 이심하더라 용왕의 기구로셔 오식솟흘 민들 쟈의 출난하기 황홀하다 이 솟속의 너허두고 옥병의 술을 가져 낭쥬 쥬며 하난 말니 세상의 나갈진디 황후가 될거시니 이 슈를 듀엇다가 낭쥬 부친 만나거던 이 술 훈 쥬 부어쥬면 쥬연이 눈을 쥬 거시니 그리 알고 시헝하라 이 말을 이른 후의 솟송이 드러더가 인당슈 물결 우의 어화 등실 쥬워두고” <정문연 28장본, 22쪽>

[심맹인 군]은 다른 이본군과는 다르게 심청이 용궁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개안주를 받아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점에서 심청의 인당수 투신은 죽음이 아니라 초월계로의 여행이 되며, 용궁은 심청이 구원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심청 여행의 목적지, 그토록 원했던 부친의 개안을 현실화할 방안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이처럼 [심맹인 군]은, 아버지를 살릴 불사약을 구하러 초월계를 모험해야 했던 <바리데기> 서사와 유사한 플롯을 띤다. 또한 [심맹인 군]에는 태몽을 통해 적강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도 심청의 용궁으로의 이동과 환세는, 숙명이 아니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모험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그 과업이 인간으로서는 극히 이루기 어려운 것이어야만 심청의 효행이 더욱 의미가 있기에 죽음을 무릅쓴, 용궁이라는 초월적 공간으로의 이동이 형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심팽규 군]에서부터는 이러한 개안주가 사라진다. 개안주가 없어지면서 <심청전>의 결말은 더욱 극적으로 연출된다. 심청이 주는 약을 마시고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심청을 만나면서 그 기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안주가 사라지면서 용궁은 개안주를 얻기 위한 모험의 목적지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오히려 이때부터 용궁은 심청의 수난이 끝나는 곳, 즉 심청이 지존한 존재로 변모하는 전환의 공간이자 보상의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 [심운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분, 송동본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시작되는 공간으로서 용궁 장면은 특별한 변모없이 대동소이하게 전승된다. 그러다 완판에 이르면 변모가 눈에 띈는데, 광희 부인이 죽어서 광한전의 옥진 부인이 되어 있다가 심청을 만나러 잠깐 용궁으로 찾아오는 내용이 덧붙여진다.

“부인이 울며 왈 나는 죽어 귀이 되야 인간 심각이 망연하다 네의 부친 너를 키여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정상이 오직하랴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일은 셔름의다가 비길손야 못노라 너의 부친 궁곤의 쓰이여서 그 형용이 엇더하며 응당이 만이 늘거쓰리라 그간 수십 연의 면환이나 하여쓰며 뒷마을 귀덕어미 네게 안이 극진턴야 얼굴도 디여보며 수족도 만져보며 귀와 목이 희여쓰니 너의 부친 갖도 갖다 손과 발리 고은 것은 엇지 안이 니 쌀이랴 니 씨던 옥지환도 네 지금 가져쓰며 수복강영 티평안락 양편의 시긴 돈 흥전 괴불 줌치 청홍당사 별미답도 이고 네가 찾구나 아부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쌍전키 어려울손 인근고 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네의 부친을 다시 만날 주를 네가 엇지 알것난야 광한전 맞든 일리 직분이 허다 하여 오리 비기 어렵기로 도로 여 이별하니 이둘코 이연하나 임의로 못하나니 훈튼흔들 어이홀손야 일후의 다시 만나 질길 날리 잇스리라 하고 썰치고 이러서니 쇼제 만류치 못하고 쌀 올 기리 업난지라” <완판 71장본, 248~249쪽>

완판의 옥진부인 화소는 심청의 환세 전에 이미 용궁에서부터 심청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면을 보여준다. 개안주가 사라지면서 용궁은 보상을 보증하

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심청에게 주어질 보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을 마련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완판에서는 아버지 소망의 대리 충족이 아니라 심청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용궁에서 충족시켜준다. 그런데 이러한 옥진부인 화소는 완판 이전의 이본들에 대한 대화적 이해의 결과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령저령 지닌 거시 흥선니 명일리라 달밭소 곱푼 밤의 밥 훈 그릇 정이 지여 현주를 병의 너코 나무시 훈 접시로 모친 손쇼 츠져가셔 계호의 진설하고 이통하며 허는 쇼리 금슈라도 울것꾸나 이고 어머니 이고 어머니 (중략) 괴이리 도라오면 축시리 제스하고 분상의 돛난 풀을 니 손으로 별쇼호야 호 천망극 그 은혜를 만일이나 갑지찌니 이제난 하릴업셔 슈증고훈 될 터이니 불쌍훈 우리 모친 스명일은 고스하고 제스날리 도라운들 보리밥 훈 그릇슬 뉘가 츠려 노와 쥬며 쇼증 우양도의 이 무덤을 뉘 말이리 빅양 부득노의 막 막야전 될 거시오 죽어서 혼이라도 모친 얼굴 보즈훈덜 모친 얼굴 니 모르고 니 얼굴 모친 몰나 서로 의심힐 터인디 슈룩리 달나씨니 혼인들 만나것쇼 니 손의 치린 제물 망종 흠향호옵쇼셔” <신재효 본, 17~18쪽>

완판에 앞서, ‘시비 따라’가 나타나지 않는 장승상 부인 계열에는 심청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구체적이고 비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심청은 자신이 죽으면 혹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보는 역설적 상황을 맞는다. 그런데 심청은 이 소망마저도 감히 끝까지 꿈꾸지 못한다. 자신은 바다에서 죽게 될 테니 모친과 죽은 곳이 달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기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서로 얼굴은 알아볼 수는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다.<sup>26)</sup> 이 내용은 독자로부터 심청에 대한 강한 동정과 연민을 이끌어냈던 듯하고 이는 심

26) 이 내용은 신재효 본만의 유일한 내용은 아니고 송동본에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신재효 본을 대표적으로 살핀다. 그 이유는 신재효 본에는 송동본과 달리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송동본에서는 완판과 마찬가지로 심청이 이별 전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인용문의 밑줄 친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모친이 부친 소식을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할까 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려는 독자의 응답성을 불러일으켜 완판에 옥진부인 화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심청의 소망 실현일 뿐 아니라 곱씨 부인의 소망에 대한 독자의 응답이기도 하다. 완판 이전의 이본군에서는 심봉사를 극진히 돌보던 곱씨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화적 이해가 옥진 부인 화소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는 특히 완판에 앞서 있는 이본군의 곱씨 부인의 유연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심학규 군] “장농문 열고 의보 헌옷 한 불 드러신이 설이 아참 참발암의 부디부디 입부시고 김승지 관디 한 불 동장가지 다라시리 흥비의 학두렴이 원나라 못기려 횡담 안의 여어신이 공전 한 양 바다다가 한찌나 연명호요 부디부디 조이 잇서 황청타일의 다시 상봉할 제 저바리지 마옵소서 우난 아히 당기눅코 만지며 하난 말리 어여 불상 니 쌀 약가 니 젓 막족 먹고 자리나서 죽지 말고 어서 커서 병신 부친 조석 진지 정성으로 밧드려라 (중략) 죽은 후 의라도 아기 일흠 심천이라 불너 주소” <김광순 낙장 29장, 79쪽>

“저 동니 리동지덕 돈 열 양 막겨씨니 그 돈을 츠즈다? 초종의 보티 씨고 독 안의 잇난 양식 히순쌀노 두어씨니 못 다 먹고 죽어 가니 출승이나 훈 연 후의 두고 양식호옵시고 진어스떡 관디 훈 벌 흥비의 학을 노타 못 다 노코 보에 쓰셔 농 안의 너어씨니 남의 집 증헌 옷슬 죽기 전의 보니옵고 뒗 동니 귀덕엄이 정친하게 단여씨니 어린 아히 안소 가서 젓 좀 메겨 달나 훈면 괄시 안니 호오리다 천형으로 이 즈식이 죽지 안코 즈라나서 제 발노 덩기거든 압세우고 길을 무러 니 무덤의 츠자와서 아가 아가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무덤이다 즈상이 가리쳐서 모녀 송봉하게 호오(중략)

여보시요 봉스님 이 아히 일흠일낭 심청이라 지어 줘오 청썩난 눈망을 청썩 우리 부부 평싱헌니 눈 업난 게 훈이오니 이 즈식이 즈라나서 아비 압풀 인도하면 고즈승이 될 거시니 눈망우리 그 아니요 저 줘랴고 지은 굴네 오식 비단 금즈박이 진옥판의 흥사 슈실 진쥬 느낌 부전 다라 신흥함의 두어씨니 날 본 다시 씨여 줘고 슈복강영 식인 큰 돈 고은 흥전 괴불쥬치 쓴을 다라 두어씨니 그것도 치여 줘오” <신재효 본, 8~9쪽>

[심학규 군]에서부터는 곱씨 부인의 유언이 항목별로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신재효 본은 이를 계승하면서도 대대적인 확장을 이루어낸다. [심학규 군]의 유언은 삶에 예고 없이 끼어드는 죽음의 비극성과 곱씨 부인의 됃 됃이를 드러낸다. 먼저 죽음의 돌발성은 마저 수놓지 못한 흥배를 통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곱씨 부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남편에게는 추운 날씨를 대비한 핫옷 한 벌로,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써 형상화된다.

그런데 신재효 본은 각각의 항목을 더욱 비극적으로 확대하였다. 먼저 못 다 마친 흥배는 한 냙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과의 약속으로 보는 곱씨 부인의 됃 됃이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귀덕어미를 언급하여 곱씨 부인이 그간 맺어왔던 인간관계에 대한 건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죽어서도 아이와 연결되고 싶은 그녀의 삶에 대한 애착을 아이와 함께 자신의 무덤에 찾아와달라는 유언으로 보여준 후, 아이에 대한 못 다한 사랑을 아이를 위해 손수 준비한 물건을 열거하는 것으로 드러낸다.<sup>27)</sup>

신재효 본의 곱씨 부인 유언은 완판으로 계승 발전될 뿐 아니라, 앞서 인용한 완판의 옥진부인 화소의 밑줄 친 부분과도 대응하여 나타난다. 즉, “뒷마을 귀덕어미 네게 안이 극진턴야”, “니 씨던 옥지환도 네 지금 가져쓰며 수복강영 티평안락 양편의 시긴 돈 흥전 괴불 줌치 청흥당사 별미답도 이고 네가 찾구나”에서 보듯, 곱씨 부인은 자신의 유언이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심청과 곱씨 부인에 대한 동정은 독자의 보다 적극적인 간여를 유도하였고<sup>28)</sup> 독자는 완판을 통해 옥진부인 화소라는 응답을 마련하

27) 신재효 본에서 곱씨 부인이 심청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한 물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심운 군] 이후 발달한 ‘이별 준비 장면’에서 심청이 손수 아버지의 의복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장면과 같은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술의 내용뿐 아니라 서술의 방식도 독자의 대화적 이해의 대상이 됃을 알 수 있다.

28) 필사본 <심청전>을 대상으로 곱씨 부인 유언 대목의 변이를 살핀 연구에서, 이 대목이 점차 비극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모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비극성이 수용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유경, 「<심청전> 중 ‘곱씨 부인 죽음 대목’의 변이 양상과 의미」, 『고전소설교육 탐구』, 박이정, 2002, 298

게 된 것이다. 이 응답은 기존 이본군이 제시한 서사의 빈틈을 꼼꼼히 채워 인물의 소망을 실현하는 대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완판의 대화적 이해는 단순히 인물에 대한 공감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앞서 <심청전>의 주요 전승은 심청의 희생을 운명으로 의미화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것으로 의미화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제시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현실계에서의 천도의 실현을 예상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여 심청의 희생을 부조리한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살핀 바 있다. 사전 제시와 마찬가지로 인물에게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심청의 희생을 부조리한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효행의 과정상 일부 윤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초월계가 이에 대해 묵인하고 보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적 이해는 인물에 대한 이해와 주제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써 독자는 모든 인물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인물을 지향하여 응답을 하게 된다.

### 3) 인물의 논리 강화와 형상화의 세련

II장에서 동냥 박대 삽화의 출입을 사례로, 서술 세계 내부의 동중이 공히 심청을 효녀로서 인정하는 통시적 흐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매신 장면의 변모를 통해서 서술자의 초점화 주체가 심청을 관찰하는 인물에서 심청 자신으로 변모함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듯, 심청은 초기 이본에서는 관찰되고 평가되던 대상이었다가 독자의 공감을 받는 인물로서 그 위상이 높아져 간다.

서사 세계 내부에서 소설의 주인공이 공인을 받아가는 과정은 초기본부터 후대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심청의 점진적 신분 상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의 신분 상승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는 달리, 담화에서 특별한 대화화의 흔적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 대

---

쪽.

화화된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본의 변모는 독자의 응답성을 드러낸다. 또한 <심청전> 서사 내에서 동종의 인물에 대한 태도는 독자의 인물에 대한 태도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안에서 심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에 있어서 눈여겨 볼 점이다.

[심맹인 군] “심청이 워난 소리 급피 듯고 나어 가서 낙동중스 선인들이야 디왈 니가 팔이고즈 하나이다 선인들이 반기 듯고 즈서니 살펴보니 비록 으복은 남누하나 얼굴은 만고의 절식이라 수런 낭성헌난 소리와 인물을 불작시면 만고의 웃듬이라 선인들이 깃거와 가라디 네 몸의 송이나 엄나야 외피난 저만히 다시 물란미착은 업소오나 속을 어이 아랴 심청이 피적 디왈 비록 싱긴 거산 천지의 험송이나 몸의 송은 업소오니 조금도 염여마라소서” <정명기 낙장 60장본, 319~320쪽>

[심운 군] “심청니 하는 말이 고양이 삼빅석의 몸을 팔나 헝거니와 날갯탄 몸을 어디다가 씨오잇가 우리도 남경 물가 선인으로 슈만양 미천 드려 각식 비단 비의 싯고 인당슈 지니올 씨 날갯탄 천녀 몸을 지물을 마니 쥬고 소오면 만경창파 먼먼 길의 무스이 왕니헝고 스망이 닛습기로 제슈로 가난이다” <정문연 31장본, 169~170쪽>

“일일은 남경 장스 선인더리 지느면서 십오 세 되거느 십육 세 되거느 양 세 쳐즈 잇거던 몸 팔니리 뉘 잇소 심청이 그 말 듯고 귀덕어미 밧비 불너 슝 슝 흐논 니력 즈서이 무러보라 남경 선인으로 인당슈 지날 제 제숙으로 슝스랴 흐오 심청이 이말 듯고 선인더리 말히되 느논 본촌 슝으로 우리 부친 안뎡흐스 고양이 슝빅석을 지성불공 헝게되면 일월을 다시 보리라 헝되 가세가 구츠헝여 판출할 길 업서 몸을 팔야 헝오니 이 몸을 스가미 엇더히니가” <경판 20장본, 163~164쪽>

가장 초기의 이본인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이 선인들에게 존칭을 하는 데에 비해 선인들은 심청에게 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운 군]에 이르면 심청과 선인이 상호 존칭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송동본에 이르면 심청이 직접 낯선 남정네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덕어미를 매개로 하여 선인들

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심청은 귀덕어미에게 하대를 하고 있어 심청의 신분이 상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심청의 신분 상승은 <심청전>의 초두의 심봉사 내력 소개를 통해서 보다 명료히 파악할 수 있다.

[심맹인 군] “헛날 유리국이 스난 심망이니 잇시되 죠상부모하고 의탁할 길 비이 업서 동서남북으로 유리걸직 드니더니 천형으로 양쳐 어더 안히 심으로 슈간두옥 준비하야 천한 인심의 펴니 술드 우연 잇난 터기 심식을 치운 후의 나흔 비 짜리로드” <단국대 나손문고 낙장 32장, 369쪽>

[심운 군] “옛 송나라 시절의 유리국 오류촌의 심문이라 ᄇ난 사람이 잇스되 불니 천상망인으로 조실부모하고 가세 비난하야 강극히 지니더니 복흐씨 지은 가췌 천심연분으로 양씨계 취쳐하니 심봉스 깃분 마음 웃지 다 성언하리 양씨 분인 어진 마음 병든 가장 위로할 제 부자집의 용정하기 출상입장 상복 직희 건너집의 베미기와 오피 밝고 버선 직희 두푼 밝고 혼옷 직희 푼 전 주어 섬곡을 어더 병든 낭군 위로하니” <사재동 34장본, 397쪽>

“송나라 원풍 말연의 황주자 도화동의 ᄇ 소경이 잇시되 성은 심씨요 이름은 학구라 누디 즘영지족으로 무명이 즘즈터니 가운니 영체하야 죠년의 안밍하니 낙슈청운의 발스최 쓴어지고 금중조슈의 공명이 부여씨니 향곡의 곤ᄇ신세 강근ᄇ 친척 업고 겸하야 안밍하니 뉘라 디점하랴만은 양반의 후예로서 ᄇ실리 청검하고 지췌가 경기하야 일동일정을 경쇼리 아니하니 스람이 다 일칼더라” <신재효 본, 3쪽>

[심맹인 군]에는 심봉사가 조실부모하고 동서남북으로 유리걸객하는 천한 인생이라고 되어 있다. [심운 군]에서 심봉사는 천생맹인으로 가세가 어려운 인물로 되어 있지만 유리걸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아 [심맹인 군]에 비해서는 처지가 조금 나아져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매신 대목에서

---

29) 송동본에서 밑줄 친 부분을 간접 인용으로 보아 귀덕어미에 대한 존칭이 생략된 것으로 보더라도 십오 세 된 여성이 외간 남성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은 심청의 신분을 하층민으로 볼 수 없는 근거이다.

도, [심맹인 군]에 비하면 [심운 군]의 심청은 보다 신분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운 군]의 심청 모친의 품팔이 내용을 보면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바느질품만 파는 완판의 심청 모친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분이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심학규 군]에 이르면 심봉사는 공후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신재효 본에 이르면 심봉사는 누대(累代) 잠영지족(簪纓之族)이나 일찍 안명한 까닭에 벼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대신 장면에서 보이는 심청의 신분 상승은, 서두에 보이는 부친의 신분 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심봉사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심학규 군]과 이를 이어가는 신재효 본의 심봉사는 그 이전의 심봉사의 형상에서는 크게 두드러진 바 없는 비속하고 골계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sup>30)</sup> 초두의 신분상승과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심봉사의 신분 상승은 오히려 심청의 신분 상승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청의 신분이 상승하는 이유는 독자와 이를 텍스트 내에서 표상하는 동종의 심청에 대한 감정이 변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의 행위가 옳은가의 의문이 텍스트 내에 직접 표출되는 반면, [심운 군] 이후로는 심청의 내면의 감정이 더 많이 서술되며, 이에 따라 독자의 공감도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장승상 부인 계열의 초기 이본, 즉 '시비 따라'가 나타나지 않는 신재효 본과 송동본으로도 계속 유지, 발달된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이자 작자인 개작자가 심청에게 공감하고 그 공감을 이본으로 표현하는 순환 속에서 강화된 것이며, 이 지속적 순환 속에서 심청의 신분 상승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향유층의 심청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라는 대화적 이해가 심청의 높아진 신분으로 텍스트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물론 심청의 신분상승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

30) 이에 대해서는 심봉사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31) <춘향전>의 경우도 후대본으로 갈수록 춘향의 신분이 높아져 나타난다.



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심청이 황후에까지 오르게 되는 후반부를 보다 개연성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sup>32)</sup>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심청의 신분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심청의 교양과 지식도 발달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대하려는 면모도 발달한다는 점이다.

“심청이 부친전의 옛조오되 아바님 늘그시고 안총이 부족하니 집의 안저 계웁씨면 나 혼조 밥을 빌어 봉양을 호오리다 심봉스 싹씩 놀네 이것시 웬말 인나 니 아무리 가난하나 양반의 후에로서 예절쪼츠 몰을쇼냐 네 나이 칠세 되니 너는 들어 안치고셔 나 혼조 비조난디 나는 들어안소 너 혼조 밥 빌어야 일언 말을 다시 말라 심청이 옛조오되 건넌 마을 장승송덕 날을 사랑호시기로 그 덕 쇼제 익난 글을 디강 들어 아옴나니 부자유친은 오류의 옷씀이요 칠세의 부동석은 스쇼흔 예절리라 칠세 여조 니외호조 집안의 들어안소 병신 부친 니여 노와 밥을 빌어 먹쑈오면 스람이라 호오릿?” <신재효 본, 12쪽>

인용문은 심청이 혼자 동냥을 나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이다. 이 때 심봉사는 남녀유별의 예(禮)를 들어, 심청이 칠 세가 되면 들어앉히려 했는데 오히려 홀로 동냥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심청은 효에 비하면 남녀유별의 예절은 사소한 예절이니 효를 먼저 행하겠다고 대답한다. 신재효 본 이전의 이본군에서도 이 장면과 관련하여 심청이 맹종이나 왕상 등의 효자의 고사를 언급하거나 상기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심청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교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심청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심청이 교육을 받는다는 서사적 추론은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에 맞는 서술을 지향한 신재효 본에서, 심청은 장승상 댁 소저의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 배워 유교적인 소양도 갖춘 것으로 형상화되며 유교적 가치 사이의 위계를 따질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심청 인격(personality)의 세련은 삽화의 추가를 통해서 이루어지

32) 최래옥, 「<심청전>의 총제적 분석」,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50~51쪽.

기도 한다. 완판에 이르면 장승상 부인 삽화가 나타나면서 심청은 수양녀 제안과 인당수행 만류를 물리치고 가치 사이의 위계를 따져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빅미 삼백 석의 몸이 팔여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만은 네가 살어 세상의 잇서 하난 것만 갓할손야 날다려 은논테면 진직 주션호엿지야 빅미 삼백 석을 이제로 니여 줄거스니 셤인덜 도로 쥬고 망영은말 다시 말나 호시니 심소제 옛자오디 당초의 말삼 못흔 거슬 이제야 후회흔들 엿지 호오릿가 쏘흔 위친호여 공을 빌 양이면 엿지 만의 무명식흔 지물을 빌려오며 빅미 삼백석을 도로 니여주면 셤인들 임시 낭피오니 그도 쏘흔 어렵삽고 사름 의계 몸을 허락호여 약속을 정흔 후의 다시금 비약호오면 소인의 간장이라 그난 쏘지 못호려니와 호물며 곱슬 밧고 수식이 지닌 후의 차마 엿지 낫칠드러 무삼 말을 호오릿가 부인의 호날갓튼 은혀와 착호신 말삼은 지부로 도라가와 결초보은 호오리다 호고 눈물리 옷짓슬 적시거날 부인이 다시 본직 엄속흔지라 하릴업시 다시 말이지 못호고 노치지도 못호시거날 심소제 울며 옛자오디 부인은 전칭의 니의 부모라 언의날의 다시 모시릿가 글 훈 수를 지여 정을 피호오니 보시면 증험호오리다 부인이 반기여 지필묵을 니여주시니 붓슬 들고 글을 쓸 제 눈물리 비가 되여 점점이 썩러지니 숨이숨이 쏘치 되야 그림 족자로다 중당의 걸고보니 그 글의 호여쁘되 ㉠싱기사귀 일몽간의 ㉡견정하필누잠잠이라마는 ㉢세간의 최유단장쳐호니 ㉣초록강남인미환을 ㉤인글 쏘션 사름의 죽고 사난 게 호 꿈 속이니 정을 이쓰려 엿지 반다시 눈물을 흘이라만은 세간의 가장 단장호난 곳시 잇스니 풀풀린 강남의 사름이 도라오지 못호난쏘다 부인이 지삼 만집호시다가 글 지오물 보시고 네난 과연 세상 사름 안이로다 글언 진실노 셤녀로다 분명 인근의 인연이 다호여 상제 부르시미 네 어이 피홀손야” <완판 71장본, 236~237쪽>

완판에 이르면 심청은 교양과 지식뿐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과 그의 따른 실천에 있어서도 높은 경지에 이른 인물로 형상화된다. 인용문에서 보듯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수양녀 제안을 거절할 뿐 아니라, 공양미 삼백 석을 내주겠으니 인당수행을 포기하라는 장승상 부인의 만류에도 거절 의사를 보인다. 그 근거로서 아버지가 눈을 뜨는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려면 교환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초인간적 정성이 필요하며, 큰 장사를 앞두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인들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음을 들고 있다.

이어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호의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시를 지어 올리는데, 완판에서는 심청의 지은 시를 인용하고 이어서 ‘이 글 뜻은’하고 서술자가 독자에게 시의 뜻을 해독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심청의 교양이 <심청전>의 독자보다 우위에 있음이 담화의 형식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다. 장승상 부인 역시 심청의 엄숙함에 더 이상 심청을 만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심청의 시를 듣고 심청이 범상한 세상 사람이 아니며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초월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심청의 비범성을 근거로 ‘이효상효’의 논쟁을 피해가려는 전략과 합치하지만, 심청의 윤리의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윤리의식의 깊이가 상층 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감을 활용하는 전략과는 다르다.

방성통곡하며 자신의 설움을 표현하던 심청, 마을 공동체로부터 박대를 받기도 하던 심청, 공동체의 만류와 효의 실천에 있어서 ‘색난’(色難)의 과제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심청은 완판에 이르면 장승상 부인과 같이, 공동체 내에서 최상층의 인물까지도 설득하고 계몽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 논리, 윤리적 판단력과 실천력을 모두 지닌 인물로 변모된다. [심맹인 군]의 심청을 완판의 심청과 비교하면 이 둘은 서사에서의 성격(character)이나 기능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격과 개성을 지닌 인물로 보인다.

<심청전>의 이본 변모를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완판에서의 심청의 변모가 효의 교조화로 단순화될 수 있으며, 장승상 부인 삽화가 단순히 양반층의 <심청전> 향유로 인해 나타났다고 하는 일면적 해석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장승상 부인의 출현은 향유층의 독자의 심청에 대한 보상과 인정, 그리고 그것을 서사 세계에서 보다 설득력 있고 개연성 있게 형상화하려는 대화적 이해의 창조성과 더 큰 관련이 있다. 즉 심청의 신분이 몰락한 양반의 자녀이지만, 동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장승상 부인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심청은 황후에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심청의 ‘신분 상승’과 ‘장승상 부인의 공양미 제안 거부’는 심청에 대한 공감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수사를 넘어서 논리적으로도 ‘이효상효’ 논란을 극복하려는 대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도

#### 4) 주변 인물 추가를 통한 세계의 변모

여기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장승상 부인을 위시한 <심청전> 이본 변모에서 제3자의 서사 세계의 등장 의미의 대화적 이해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심청을 만류하는 동중 인물의 형상 변모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장승상 부인이 출현하기까지의 대화적 이해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앞서 [심운 군]이 인물 내면의 심화를 통해 공감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는 이본군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심운 군]은 동냥 박대 삽화가 나타나는 이본군이기도 한다. 즉 [심운 군]은 심청이 논리적으로 ‘이효상효’의 문제를 동중에게 여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논쟁적 상황을 보여준다.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이효상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심학규 군] “손목을 부여잡고 낙누로 이별하니 친봉악과 흥연악니 츄미질을 부여잡고 이 이 심천아 부친 위히 죽난 거도 효칭니라 헝건만은 이변 일을 칭각하니 불효헝기 칭양업다 압 몹보난 부친 두고 너 가면 저 죽단 말가 스고무친 저 늘근니 외손봉스 바리드니 너 몸 헝나 젼러헝니 휴스가 가연헝다 마리아 올타마은 스시가 무가니라” <김광순 41장본, 169쪽>

“촌중 여러 부로덜좌 여러 앓씨 전의 심청이 비난 마리 심청 팔씩 무송헝야 병신 이비 니바리고 슈증고흔 되려 가니 괘썸이 아지 말고 저 전곡을 식이헝야 가궁헝 병신 이비 의지식지헝게 헝면 결효보은 헝오리다 부로더리 허락하니 동니 여러 천여더리 심청의 손을 잡고 다정이 말유훈다 가지 마라 가

지 마라 심청아 가지 마라 우리 서로 노던 정의 친형제나 달을싸나 설날이면  
 널을 쥐고 송스일 난초키기 오월 오일 추천하고 칠월 칠일 걸교하고 속속쇼  
 거명 서로 모와 실켜기와 찰찰농기져 품아시 비쓰기와 쉼야장 일편월의 쵸침  
 난져 다듬이질 불금화 민안죽의 불 썬 노코 바느질 쉼야승종 지너더니 큰악  
 이 네 가면 놀과 함께 노즈나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심청이 디답호되 눈 못  
 보난 우리 부친 니바리고 가라홀 제 구구헌 그 소정을 엇씨 싱각호것나냐 전  
 열 의를 안 잇거든 니 집에 쵸쵸 당겨 불쌍헌 우리 부친 가랴거든 이줍기와  
 병들거든 약디리기 각금각금 호야 쉼면 노오노 네 효성이 급인지노 될 거시  
 니 천신이 감동호야 복을 안니 밧것나냐 총총이 죽별호고” <신재효 본,  
 20~21쪽>

[심학규 군]에서는 심청의 동무들이 ‘이효상효’가 옳지 않다는 논리로 심청  
 을 만류한다. 이에 대해 심청은 동무들의 말이 맞지만 ‘사세가 무가내’라고  
 답한다. 신재효 본에서도 동무들이 심청과 함께 나눈 추억을 나열하며 심청  
 을 만류하자, 심청은 효를 위해서 ‘구구한 사정’은 돌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도 [심운 군]에서 발달한 심청의 내면이 드러나는 서  
 사는 이어받지만, 동시에 심청을 만류하는 동종의 인물들을 배치하여 ‘이효  
 상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물론 동종 인물의 만류는 이별 장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심청이 ‘이효상효’  
 논쟁에 논리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심운 군] 이후 [심  
 학규 군]과 신재효 본에 이르기까지 심청의 내면을 확대하여 독자의 연민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심청 행위의 딜레마를 비껴가고자 시도하지만 이때까지  
 의 <심청전>은 논리로는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완판에 이르면 장승상 부인이 직접 서사 세계 내에 출현하여  
 심청을 만류하고 심청의 윤리성을 시험하기에 이른다. 즉 완판의 장승상 부  
 인의 심청 만류는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의 이별 장면에 등장하는 동무들  
 과 심청의 논쟁에 대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승상 부인이 실제 서사 세계에 등장하여 수양녀 제안을 하는 장승상  
 부인 대목은 완판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완판의 장승

상 부인은 기존 이본에서 심청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동종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형상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이본군에 대한 완판 개작자의 응답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동종의 평가는 독자의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있다<sup>33)</sup>는 점에서 <심청전> 향유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완판은 심청의 갈등과 변민을 형상화하여 심청에 대한 공감을 유발함으로써 논쟁적 화두를 감정적 수사로 희석시키는 시도에 만족하지 않고, 동종에서 가장 신분과 교양이 높으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상층의 대표적 인물인 장승상 부인을 출현시켜 심청 행위의 윤리성을 정면으로 타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장승상 부인이 모성적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가 심청의 윤리성을 시험하는 목적으로만 서사 세계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운 군]에서 심청이 아버지의 의복을 지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었듯, 심청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내 없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어머니 없는 심청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특히 신재효본, 송동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완판에 이르면 장승상 부인이라는 모성적 인물<sup>34)</sup>이 실제 서사세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응축되게 된 것이다. 완판에 옥진부인 삽화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완판에 이르면 심청 내면의 발달과 함께 독자의 공감이 증대되면서 초기본, 즉 [심맹인 군]에서부터 [심학규 군]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심청 부녀와 동종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 완판의 장승상 부인

---

33) “긍정적 주변 인물들은 대체로 주인공의 편에 서 있거나 서게 되므로 제도, 운명, 사회적 모순 등과 대결하는 주인공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로 인해 주인공의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되기도 한다. 당대 판소리 수용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적 구성원들의 존재로 인해 세계와의 대결에 있어 주인공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정충권, 「판소리 작품에 나타난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25쪽.

34) “승상 부인이 문밖기 니다려 소제의 손을 잡고 울며 왈 네 이 무상한 사름아 나는 너를 주식으로 알아져니 너는 날을 어미갓치 안이 아난쑈다” <완판 71장, 236쪽>

은 심청과 심봉사의 도움에 수동적으로 응답하여 원조하는 동종의 면모를 완전히 극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공양미 삼백 석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심청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려는 동종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완판은 심청에 대한 공감에 기반하여 절대 가난과 장애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극대화된 의무의 실현을 드러내고자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장승상 부인의 서사 세계 출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심청전>은 [심운 군]을 계기로 심청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는 서술과 삽화가 증가하면서 ‘이효상효’의 논란을 정면으로 불식시키기보다는 심청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논란을 우회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식되지 않는 ‘이효상효’ 논란은 완판에 이르면 장승상 부인 삽화를 통해 다시 정면으로 다루어진다. 장승상 부인은 모성적 인물로서 어머니가 없는 심청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보여주며, 공양미 삼백 석을 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동종의 윤리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보건대 장승상 부인 삽화는 심청에게 공감하는 대화적 이해와 공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효상효’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화적 이해가 접점을 이루어 나타난 삽화라 하겠다.

한편 완판에는 장승상 부인과 옥진 부인 외에 귀덕어미라는 또 하나의 모성적 존재가 등장한다. 완판에 선행하여 귀덕어미가 언급되는 이본을 먼저 살펴보자.

“진어스씩 관디 훈 벌 흥비의 학을 노타 못 다 노코 보에 쓰셔 농 안의 너  
어씨니 남의 집 중훈 옷슬 죽기 전의 보니웁고 뒷 동니 귀덕어미 정친하게  
단여씨니 어린 아희 안꼬 가서 젓 쯤 메겨 달나 훈면 괘시 안니 훈오리다”  
<신재효 본, 7~8쪽>

“도화동 남녀노쇼 모여 눈물 지고 훈는 말이 현철하던 곱씨 부인 지질도  
그이히고 형실도 거록터니 늑도 점도 아니하여 불샹이도 죽어구는 귀덕어미  
닌다르며 수지밥이는 지어쥬즈 두쥬 안의 씹은 쌀을 니여 셔흠 써셔 들고 정

지로 드러가 급히 밥을 지어 스즈밥 세 그릇을 상우의 밧쳐노니 심봉수 신세 커려 돈 서 돈 상머리의 니여 늦코 인정왕니 부족하노 이노마 바다 들고 부디 평안이 가오 초흔이 불너 쥬즈 곱씨 입던 적습 혼 손의 깃슬잡고 머리 우의 빙빙 두루면서 유리국 도화동 거하노 현풍 곱씨 복복 세 번 불은 후의 찻쳐 언저늦코 못다 산 명복은 심청의게 이어주오” <경판 20장본, 157쪽>

신재효 본에서는 곱씨 부인의 유언을 통해 귀덕어미가 언급되며, 송동본에서는 귀덕어미가 실제로 서사세계에 등장하여 곱씨 부인의 해산과 장례를 돕는 것으로 그려진다. 신재효 본에는 유언 이후에 귀덕어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송동본에서는 귀덕어미가 내달아 사자밥을 짓고 심봉사의 초흔제를 돕고, 이어 심봉사는 귀덕어미에게 아기를 맡기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덕어미는 심청이 매신할 때에는 선인들과 심청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귀덕어미는 이후 이본에서도 계속 나타나 완판에도 곱씨의 유언에 귀덕어미가 나타나고 심봉사가 “어린 아히 강보의 씨인 치 귀덕어미 미겨두고” 장례에 간다. 심정순 창본에서는 귀덕어미는 아니지만 ‘웃집 부인’이 아기를 받아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송동본 이후 언급되는 귀덕어미는 동종의 심청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확대를 표상한다. 그리고 심청 부녀에 대한 보살핌과 염려를 지속하는 동종이 구체적 형상화를 입고, 거의 가족과 같은 ‘절친’한 존재로 동종이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덕어미는, 심청부녀를 관찰하고 평가하던 동종, 때로는 심청을 박대하며 어려움을 주었던 동종이 심청 부녀와 가족과 같은 친근한 관계를 맺고 어려움에 소매를 걷고 나서는 것으로 점차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옥진부인과 장승상 부인, 귀덕어미는 모두 여성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심청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성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심청에 대한 독자의 연민과 그녀를 돕고자 하는 관여 욕구가 동종의 구체적 인물로 실체를 띠고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신재효 본과 송동본에서 귀덕어미 형상이 먼저 등장한 뒤, 완판에서 장승상 부인의 공양미 삼백 석 제안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승상 부인



의 공양미 제안 삽화가 이별 장면에서의 심청을 만류하는 동무들의 모습만을 발달시킨 것이 아니라, 심청 출산과 심청 모친 장례 장면에서의 귀덕어미의 도움으로 대표되는 ‘동중’의 변모 흐름 속에서 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완판의 장승상부인 삽화는 동중이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자를 구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화적 이해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자의 대화적 이해의 대상은 비단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인물과, 인물이 속한 세계까지도 확장되고, <심청전>의 형상화는 물론 주변 인물과 세계 역시 심청을 따라 더욱 윤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청을 더 이상 관찰의 대상, 객체로 다루지 않고 독자가 작품을 매개로 등장인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다시 그 관계를 작품 형상화를 통해 실현시키는 대화적 이해의 창조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대화적 이해는 심청과 같이 타인을 보살피며 희생하는 유사한 여성 이미지의 재생산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서사 세계가 심청의 윤리성을 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사 외부의 독자이자 작자인 개작자가 <심청전>을 통해서 서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심화시킨 대화적 이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 본 절에서는 심청을 중심으로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펴 보았다. <심청전>의 주요 전승의 흐름은 ‘이효상효’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청의 효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는 심청의 희생을 출천지효로서 정당화하는 것뿐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때 초월계의 보상이나 개입은 심청의 자율성이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되었다.

가사체 및 판소리체 <심청전>은 다양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 <심청전>의 주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인물에 대한 공감과 선행 이본에 대한 응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먼저 인물의 내적 대화를 상상하고 주인공의 갈등과 결단에 공감하는 대화적 이해가 시도되었다. 또한 주인공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서사를 확장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이는 선행 이본을 꼼꼼히 읽어 서사의 빈틈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독자가 응답하고자 하는 인물은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청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통해 기존 이본에 응답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효상효’ 논쟁을 진지하게 다루어보려는 대화적 이해도 나타난다. 심청에 대한 공감은 심청에 대한 인정과 존경으로 이어져 심청의 신분은 점차 상승하여 나타나고 이와 함께 ‘이효상효’ 논쟁에 나름의 대답을 내놓을 정도로 심청의 교양이 증대되어 나타난다. 마침내 장승상 부인이 실제 세계에 등장하는 완판의 심청은 자신이 희생을 감행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논리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심청의 논리와 인격은 더 세련되게 형상화된다.

마지막으로는 장승상 부인을 포함하여 귀덕어미와 같은 주변 인물이 <심청전> 서사 세계 내에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도 의미 있는 대화적 이해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주변 인물의 변모는 주인공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즉 동중의 변모를 보여준다. 특히 완판본의 동중은 심청의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윤리적으로 고양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화적 이해는 작중 인물과 세계라는 텍스트 내 대상을 지향하지만, 그를 통해 바람직한 세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가라는 텍스트 밖의 세계의 질서, 특히 윤리적 응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심봉사 중심의 대화적 이해 양상

앞서 심청을 중심으로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를 살펴보면서 한남본은 심청의 희생을 숙명으로 의미화하고자 하였고, 가사체와 판소리체 <심청전>은 심청의 희생을 자율적인 선택으로 의미화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자율적 희생으로서 심청의 효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심청전> 전승의 주류임을 밝히고, 이러한 전승의 흐름을 독자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심청의

희생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반한 응답을 낳았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독자이자 작자인 개작자들이 공감뿐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도 심청이라는 인물 형상화를 세련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공감과 논리에 기반한 응답성은 <심청전>의 자율적 효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화적 이해의 내용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심청 효의 자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가치가 있는 것이었느냐 여부이다. 희생이 타율적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과 같이 희생이 무용한 것이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이 희생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바로 심봉사이다. 앞서 II장에서 심봉사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와 심봉사 자신의 목소리가 다성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살핀 바 있다. 이를 통해 심봉사에 대한 텍스트의 다성성도 <심청전>의 주제의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는 이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여 심봉사를 중심으로 한 <심청전>의 변모가 심청 희생의 가치와 그 보상의 타당성을 논하는 대화적 이해임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심청은 일종의 여성영웅으로서, <심청전>은 희생과 고난의 감내라는 시험을 통해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미덕과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많은 고전소설이 희생과 보상의 연쇄적 구조를 따르지만, <심청전>의 희생과 보상의 서사구조는 단순히 보상이 희생을 따르는 시간상의 순차 구조가 아니라, 희생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보상은 희생 자체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까지 해소하는 구조를 따른다.<sup>35)</sup>

<심청전>에서도 심청의 효는 이본에 따라 심봉사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 문제 중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반드시 유발한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에 대한 독자의 반감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심봉사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 심청의 효행에 대한 타당성과 공감을 증대시키려는 응답성이 나타난다. 두 번째 문제는 부모의 죄책감이다. <심청전>에도 심

35) 김종철, 「희생과 보상의 거리- <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2, 375~376쪽.

봉사의 심리적 고통이 나타나는데, 심봉사가 심청이 제수(祭需)로 가게 되었다는 심청의 고백을 듣고 통곡으로 만류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심봉사가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한다든가 실신한다든가 하는 장면도 흔히 나타난다.<sup>36)</sup> 또 효행담의 경우에는 ‘색난’(色難)의 문제가 희생에 대한 효과가 지연되지 않고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해소가 되나 <심청전>의 경우는 심봉사의 개안까지 걸리는 시간이 삼 년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갈등과 그의 해소와 관련한 독자들의 이해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에 (1)절에서는 [심맹인 군]의 심봉사에 대한 다성적 목소리 이후, 심봉사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응답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사체와 판소리체 <심청전>을 대상으로 살피고<sup>37)</sup> (2)절에서는 심봉사가 어느 쪽의 형상을 지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기되는 ‘색난’의 문제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화적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6) 심청의 효가 갈등을 필수적으로 유발하는 구체적 이유는 <심청전>의 서사구조와 주제에 있어서 상동성을 띠는 효행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효행담에서 행동의 주체는 자식으로, 자식은 희생의 행위를 통해 초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은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첫째, 많은 효행담에서 부모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미미하나 효의 실행에는 자식의 힘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수반된다. 효행담은 교훈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자연적 질서 이상으로 강요하는 면이 있다. 보은담과 달리 효행담에서는 부모가 베푸는 은혜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자식에 대해 냉담함을 넘어서 견디기 어려운 희생까지 강요하기도 한다(이강엽, 「효행담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과 공감의 문제」, 『국제어문』 63, 국제어문학회, 2014, 140쪽). 부모의 역할이 그려지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희생 요구가 강압적이든, 자율적이든 간에 자식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상황과는 달리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자식의 효행이 부모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효가 자발적이고 진정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철도 <빈녀양모>와 <효녀 지은>, 그리고 <심청전>에서 진정한 효는 구복의 봉양뿐 아니라 색양(色養)까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자식의 희생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김종철, 앞의 논문, 376~378쪽).

37) 한남본에는 황성 가는 길도 없고 초두도 간단하여 심봉사에 대한 서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심청의 희생과 심봉사의 고난이 모두 운명으로 의미화되기 때문에 색난(色難)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다.

(1) ‘아버지다움’ 화제에 대한 상이한 응답 양상

앞서 [심맹인 군]의 서술자는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그리지만, 심봉사는 자신을 사시(斜視)적으로 바라보고 질타하는 목소리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고 그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함을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초기의 이본부터 심봉사의 인물됨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텍스트의 다성성은 이후의 <심청전>에서 상이한 두 종류의 응답을 만들어내었다.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어가는 이본으로는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을 들 수 있고, 긍정적인 형상화를 강화하려는 이본군으로는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행 이본에 비교했을 때 새로 나타난 서술이나 삽화에 중점을 두어 일반화한 논리이다. 이본을 읽어보면 [심학규 군]에도 심봉사의 긍정적인 형상이 있고, [심팽규 군]에도 심봉사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심맹인 군] → [심학규 군] → 신재효 본’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살펴볼 것이고 심봉사를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심팽규 군] → [심운 군] → 송동본’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완판본 전까지의 두 가지 통시적 흐름을 나누어 논의할 것이나, 이본의 발생 순서는 [심맹인 군] → [심팽규 군] → [심운 군] → [심학규 군] → 신재효 본, 송동본의 순서로 흘러갔음을 미리 밝힌다.

발생 순서 문체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		장승상 부인 계열	
	가사체			판소리체	
부정적 태도 우세	심맹인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본
공감적 태도 우세		심팽규 군	심운 군		송동본

<표 3> 완판본 전까지 심봉사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의 두 흐름

1) 부정적 태도에 기반한 응답

[심맹인 군]에서는 심봉사의 인물로서의 개성이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심맹인 군]에는, [심팽규 군]이나 [심운 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술자의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어조가 뚜렷이 감지된다.

[심맹인 군] “적선하난 부인들리 불상이 성막하야 입던 이상 버셔 규며 날 치운디 이거시나 입고 방풍이나 하여라 심청의 어딘 마음 저 입을 듯 아니 두고 어더 온 현 이복을 칼갈리 셔답하여 쪽쪽 이셔내여 저의 부친 현 이복을 이리 덮고 저리 디워 치웁시 안토록 봉친한다 저 입은 의복 불작시면 안난 나문 접저구리 말만 나문 마포 초미을 이리저리 둘러 닐고 불피풍우 hing길 하니 불상코 갈련한 청상 차마 볼 수 업난지라 심봉사 남갓치 보거드면 아모 쫓록 오슬 어더 어엿쑤 심청니을 입피련마난 봉스라 할 슈 업드 헉더라”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 251~252쪽>

[심맹인 군] “심청이 선인 보고 마음이 분주하여 밥상을 차려 부친 앞에 들여 놓고 지성으로 권할 적에 아바임 아바임 진지나 잡수셔요 반찬을 가르치되 이것은 생선이요 저것은 구임이요 날날치 가라치니 심맹인 놀래 듯고 선새 생각하면 고기 만찬 어대서 날단 말가 심청이 여자오되 김방작 아바임 반찬하라고 주시기에 밥짓고 반탄하와 귀물로 드리오니 염려말고 잡시오 심맹인 거동 보소 심청 소위는 전혀 모르고 김장자만 치사한다” <박순호 낙장 50장본, 405~406쪽>

첫 번째 인용문은 II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맹인 군]에는 심청에게 의복을 적선하는 부인들의 목소리가 서술자에게 침투하여 심봉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인용문은 부친과 이별하는 날 아침에 심청이 갖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하는 심청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맛있게 식사를 하는 심봉사의 모습이 비극적 정경을 고조시킨다. 이때 서술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찰자로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심봉사를 야속하다는 듯한 어조를 드러낸다. 첫 번째 인용문을 고려하여 두 번째 인용문을 보

면 서술자의 어조는 심봉사에 대한 동정이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어조라기 보다는, 심봉사가 아버가 되어서 심청의 효행을 받을 줄만 알지 자식이 어떤 질곡을 감내해가며 자신을 봉양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질책의 어조로 느껴진다. 이렇게 [심맹인 군]에서 서술자는 심청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심봉사에게 추궁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심봉사를 눈치가 없고 자식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 자식의 죽음을 방조하는 무능한 아버지로서 느끼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심맹인 군]에서 심봉사는 혹독한 운명에 내맡겨졌지만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지각조차 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져, 독자는 심청 희생의 책임이 어느 정도 그에게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심맹인 군]에서의 심봉사의 안맹은 부모로서의 심각한 결핍을 상징하게 된다. 심봉사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부모로서의 판단력이나 교양, 책임감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식을 보살필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또한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이 모친을 잃을 때의 나이가 삼 세이기 때문에 심청을 양육하기 위해 심봉사가 겪는 고생보다는 앞 못 보는 부친을 위한 심청의 희생이 더 부각된다.<sup>38)</sup> 이에 심봉사는 더욱 심청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여러 삽화와 서술이 부녀관계가 전도된 현상을 보여주는 데에 할애된다.

[심맹인 군] “세월이 여류하여 심청이 나이 육칠니라 아뵈 손목 익글면서 낫낫치 가르치되 저기난 기천잇쇼 여기난 도랑이오 저기난 돌니잇쇼 엽헤난 스람 가오 뒤헤난 마쇼 오오 곳곳지 가르치니 이 안이 효성인가” <정문연 28장본, 12~13쪽>

인용문은 부친인도 삽화로, 심봉사의 의존성과 전도된 부녀관계를 잘 드러내는 삽화이다. 이렇게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은 오륙 세부터 부친을 인도

38) 김영수는 심청 모친이 죽는 시기가 삼 세에서 초칠일로 변모하면 심봉사의 고난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심청 모친이 심청이 삼 세일 때 죽는 경우에는 젓동냥은 필요 없는 장면이 되고, 심봉사가 심청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초칠일에 죽었을 때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김영수, 앞의 책, 156쪽.

하고, 칠팔세부터 바느질로 아버의 옷을 지어 입히고 자신은 추위에 살이 다 드러난 채로 동냥을 다닌다. 이렇게 육체적 장애로 인해 딸에게 의존하는 전도적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심학규 군] 이후에 본격화될 심봉사의 부정적 형상화를 잠재하고 있다. [심맹인 군]의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 시도는 다른 이본군의 같은 장면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심맹인 군] “심맹인 일른 말이 너난 그리 가량이면 고단한 내 몸을 뉘라서 구완할고 심청이 열자오대 김장자 일은 말삼 내 집일도 돌보면서 불상한 너의 부친도 일채로 봉양하마 말삼이 감격하와 과연 허락하였나이다” <박순호 낙장 50장본, 404쪽>

[심팽규 군] “심봉수 이 말 듯고 반기히여 흐는 말리 딸리라도 잘 길너니면 이런 영화 보는구나 잊지난 눈을 찌셔 곱고 고운 니 딸 을골 낫낫이 보고지 고” <박순호 43장본, 328~329쪽>

[심학규 군] “심봉사 그 말 듯고 여광엿취 질긴 마음 직시에 조발히여 이려 셔셔 춤얼 추며 노리 지여 흐는 마리 열시구나 절시구 조흘씨고 천지 비록 광디흐나 요른 일 또 잊씨랴 흐나리 문어져도 소슬 궁기 잇다더니 오날노 이를 진디 나얼 두고 이름이라 열씨구나 조흘시고 아무리 어려온들 빙미 삼빅 석이 어려올가 그 시의 눈얼 찌셔 우리 심청 먼저 보고 천지일월 보고지고 열시구나 조흘시고 동니친구 나얼 보면 조롱턴니 이겨 밥비 눈을 찌셔 보원 설치히여보시 열씨구나 조흘씨고 즈야즈 조흘씨고 모으로 쫓고 바로 쫓고 누 엿씨가 안즈씨가 좌불안석 가관일다” <박순호 39장본, 368쪽>

“이야 글어흐면 그 덕의 가 잇것나냐 오락가락 흐옵지요 이야 그리흐다 눈 못 쓰고 딸 일의면 양시리 되난구나” <신재효 본, 17쪽>

“심봉사 반겨 듯고 어 그러치 거록하고 거록하다 드러 하나 양반의 즈식으로 몸 팔인단 말이 층문의 고히 하나 중승덕 슈양여 된 거시야 관계할랴” <강전섭 41장본, 133쪽>



인용문은 심청의 수양녀 거짓말에 대한 다양한 심봉사의 반응이다. [심맹인 군]에서는 심봉사가 심청이 가고 나면 ‘내 몸을 누가 구완할까’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려져, 딸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걱정하는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심팽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곱고 고운 내 딸 얼굴을 낱낱이 볼 수 있다’고 믿고 꿈에 부푸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정상적인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준다. 한편 [심학규 군]에서는 심청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간 자신이 겪었던 설움을 앙갚음하겠다며 경거망동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신재효 본에서는 눈을 뜰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의심을 품으며 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송동 본에서 완판으로의 경사를 보여주는 강전섭 41장본에서는 심봉사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도 잘 된 일이라고 점잖게 말한다. 이때 심봉사의 태도로 미루어 자신이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 대목은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비교를 통해 보듯, [심맹인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본은 공통적으로 심봉사에 대한 사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기반한 형상화는 [심맹인 군]의 후반부에 가면 외설성을 잠재하면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심맹인 군] “잇 디에 신망인은 심청을 이별하고 쥬야 길탄 죽게 되니 동중 상화민인들이 츠마 보기 민망하여 동중의 공회 붓쳐 홀노 인논 썩덕어미 저도 썩흔 고단하니 심망인과 동거하여 마음이나 하여 안심하미 올타 하고 썩덕어미 불너다가 달니여 강권하디 썩덕어미 거동 보소 게우리고 욕심 만키로 판준게심이라 오십삭 쓸만 보고 죽일노 허락하니 심망인게 이말 하여 위로하니 심망인 설운 중의 이 말슴 반게 듯고 선우심 우수면 서 아스시오 아스시오 실업슨 말슴 붓진이 말으시오 동중 여러 어루신니 날만 스람 칭각하여 이러타시 강권하니 아심춘키 막심하오 그러하면 의논 발서 되여시면 썩덕어미 보니시오 나지면 심심하되 말버시나 되여시면 서로 하고 밤이면 심심헌디 다 웃것도 동동하고 셔음이나 풀게 하오 동중의 길겨 하고 썩덕어미 불너다가 이 날노 혼인하니 심망인 거동 보쇼 썩덕어미 거동 어미 어든 후로 쌀싱각

초초 멀고 그리저리 스투난드 <박순호 낙장 36장, 306쪽>

[심맹인 군] “삼인이 동행할 제 한 고디 다다르니 썩덕어미 하난 말이 여게 제 나무 잇스이 일기가 디단 훈중호오니 우리 삼인이 니 고디서 자고 7사이 다 잇 짜난 하절이라 심망인이 싱각호되 날마당 저역의면 미양 제집의 속을 알고 밤이며 송질하노라 잠을 못자드니 디쳐 잠이 오거날 여게서 훈숨지오미 당형하도라” <정명기 낙장 60장본, 341쪽>

[심맹인 군] “안씨밍인 호난 마리 봉스란 것 무레호여 말흘 줄도 치 모르고 노류장과 디접흔 듯 체면이 바히 업니 이니 몸 노류장활진디 봉스임 안니라 도 허다흔 스투람 잇쇼 여즈몸이 되어나셔 이런 흥실 호여썰가 명명한 쏜 잇셔 부득히 설화터니 봉스의 무레호미 이다시 박절할가 봉스임 어셔 가오 봉스임 가온 후의 썰디 업난 이니 몸은 자결코져 호난니다 심봉스 이 말 듯고 분디 음흉호 타스로 빌부터 하난 마리 그리 한 말 안니오니 과히 노허 마르시오 진정 그려호올진디 감격호미 잇것마난 만닐 그리 안니되면 붓그렵기 썩이 업셔 말을 그리 호엿쇼” <정문연 28장본, 29쪽>

심청이 인당수로 떠난 이후에 심봉사가 슬픔에 빠져 거의 죽게 되자 동중은 썩덕어미를 중매한다. 심봉사는 거절하는 듯하지만 내심 기뻐하며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심맹인 군]의 모든 이본에서 썩덕어미를 얻고 나자 심봉사는 딸을 잇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때 밑줄 친 서술자의 어조는 분명 심봉사를 책망하고 있다.

또한 [심맹인 군] 안에서 이본에 따라 심봉사의 외설적인 면모가 보이는데, 썩덕어미 결연 장면에서 이본에 따라 심봉사가 동중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낮이면 서로 말벗이나 하게, 밤이면 심심한데 다른 것도 동동하게’ 썩덕어미를 보내라고 한다.<sup>39)</sup> 심봉사의 외설적인 모습은 [심학규 군] 이후에 본격화되지만 이미 [심맹인 군]의 여러 이본에서 음심이 강한 인물로 심봉사가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러한 사례는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명기 낙장 60장본에는 비록 썩덕어미와 결연 장면에서 심봉사의 음심이 드러

39) 박순호 낙장 36장 이외에 단국대 32장본에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나지는 않지만, 뽕덕어미 배반 장면에서 심봉사의 음심을 꼬집고 있다. 또한 정문연 28장본에서는 안씨 맹인과 결연 시에 심봉사가 본래 음흉하다고 서술하고 있다.<sup>40)</sup> 이를 통해 보면 심봉사는 단순히 안맹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이러한 [심맹인 군]의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이어받은 이본군은 [심학규 군]이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의 골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심맹인 군]에서는 서술자의 논평 조의 서술에 잠재되어 있던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구체적 장면과 삽화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심학규 군]에는 심봉사가 뽕덕어미에 빠져 맹인 잔치에 가라는 관의 명령에도 불복하려 하는 모습이 추가된다.<sup>41)</sup> 또한 목욕 시 의복을 잃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신관에게 옷을 얻어 입는 장면도 나타난다. 이 장면에 이어지는 황성가는 길에서는 외설적 용정 삽화가 처음 나타난다.

[심학규 군] “심봉사 그 말 듯고 니염의 싱각호되 디장부 의명호고 아여자의 죠쇼 듯고 화답 업시 가난 거시 졸장부 바식기라 픽 흥번 웃고 화답호난 말이 용정호난 저 마느리 이니 말 드러보쇼 저 마느리 두 다리난 괴상감사 쌍교친가 이놈 미고 저놈 며닉 저 마느리 십쇼리논 식주가의 술잔인가 인놈 째고 저놈 싸닉 말쇼리가 바라진니 나무 서방 탐이 만코 젓통이가 큼직한니 자식 니이 잘호깃닉 자식 못나 원니그던 나와 함께 동침호짜 저 마느리 그 말 듯고 백장디쇼 호난 말이 건니 쇼경덜이 잔차 가난 식만 밋고 저디지 무례호나 술과 밥을 줄 거신니 방이 쇼곰 씨여주쇼 심봉사 죠화라고 방이을 씨 흐민서 노리 지여 호난 말이 이 방이가 뉘 방인고” <사재동 낙장 33장본, 481쪽>

40) [심맹인 군]의 모든 이본의 동일 장면에서 통일되게 심봉사의 음심이 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7개의 이본 가운데 5개 이본의 서로 다른 장면에서 심봉사의 음심이 지적되고 있다.

41)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뽕덕어미 못 잊어서 맹인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다는가, 신재효 본에서는 엄한 명령을 어기지는 못하나 뽕덕어미를 구슬리는 해학적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송동본에서는 심봉사가 비록 뽕덕어미에게 속고는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고 함께 갈 것을 점잖게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장면에서도 두 흐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학규 군]에 처음 나타나는 용정타기 삽화는 [심맹인 군]의 의존적인 심봉사와는 달리 스스로 노동을 해서 밥을 얻어먹는 심봉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봉사의 성격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되어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듯 [심학규 군]의 일부 이본에서는 용정타기에 외설적인 내용이 나타나면서 심봉사의 탈선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렇게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기존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에서 나아가 노골적으로 희화화하는 태도로 바뀌며<sup>42)</sup> 일부 이본에서는 심봉사를 외설적인 인물로 그리기도 한다.

이렇게 [심맹인 군]의 서술의 어조를 삽화와 장면으로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심학규 군]을 거쳐, 이를 더 발전시킨 신재효 본에 이르면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극대화된다. 신재효 본의 후반부,<sup>43)</sup> 즉 심청이 인당수로 떠난 후의 심봉사는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고 음심이 강한 것으로 그려지며, 외설적인 방아타령은 물론이거니와 심청이 떠난 후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동중 스람더리 막긴 전곡 식이하여 의식을 이워쥬니 심봉스 세간스리 요족키 되어구나 즈고로 식세송의 영웅 열스 업셔썸든 심봉스가 견디것나 동니 과부 잇난 집을 공연니 차져 단여 선우숨 풋증담을 무헌이 험난구나 허 퍼돈이라 험난 거슬 쌍의 못지 못홀노고 밍인 혼즈 사난 집의 돈 두기가 미안키에 후원의 쌍을 파고 돈 천이나 무더쩌니 이번의 군역 썸고 가마니 만져보니 썸미난 석여지고 습녹의 돈니 부터 혼 덩이를 만져보면 천연혼 말썸지

42) [심학규 군]은 이본에 따라 심봉사를 희화화하는 시도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 심봉사가 쥐 소리를 듣고 도망친 뺨덕어미인 줄 알고 쫓는 장면과 같이 그의 장애가 희화화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되며, 안씨 맹인 결연 시의 심봉사의 음흉지심을 꼬집기도 한다.

43) 신재효 본은 심봉사의 인물 형상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통일적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신재효 본은 초두에서 심봉사를 누대 잠영지족의 후예로 일동일정을 경솔히 하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한다든가, 심청이 홀로 동냥 나간다고 할 때 심봉사가 이를 적극 거부한다든가, 권선문을 쓰는 주체를 심청으로 한다든가 하여 전반부에서는 심봉사를 점잖은 인물로 그렸다.

제 쌀 묵은찌 우습드고 벌어지가 집을 지어 훈 되씩이 영기엿제 올어장이 엇지 된고 기쌈 슴람 빗 준 돈이 그렁 저렁 천여냥 고기를 잘 좁어야 슈쇄가 탈 업슬되 원언니 죠흔 약은 동습 옷슈 업쓸너구 공교이 절머쓸 제 두 뿌리 먹어찌니 지금도 초전역의 그것시 일어나면 물동우쓰 당기도록 그져 췌췌혀 써든 풍담을 벗석 하니” <신재효 본, 31쪽>

신재효 본에서는 세간이 요족해진 심봉사가 동네 과부 집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금전과 성적 능력을 과장하여 떠벌리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뽕덕어미와 결연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잊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심맹인 군]의 심봉사는, 동중이나 서술자, 독자가 보기에 어느 정도 미상일 수 있으나 어찌 보면 그것은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신재효 본의 심봉사는 뽕덕어미와 결연하기도 전에 스스로 과부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그려져 인격적 장애가 의심될 정도이다. 이렇게 심봉사가 극도로 타락하여 육체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를 표상할 정도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면 독자는 ‘이런 부친을 위해 심청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가?’를 넘어 심봉사는 딸을 팔아먹은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매한 심청이 높고 병든 부친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독자로 하여금 심봉사에 대한 혐오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그를 인격에 장애가 있는 저열한 인물로 형상화한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먼저이든 간에 신재효 본에 이르면 심봉사에 대해 ‘딸 팔아먹은 아버지’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심맹인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본은 개작자가 공히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봉사를 위해 심청이 희생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심청의 희생하는 상황이 다소 폭력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경우는 이와는 반비례하여 자식의 희생으로 인해 부모가 느낄 심리적 갈등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심봉사를 사시적 태도로 바라보고 [심맹인 군]의 부정적 태도에 동의하는 응답의 흐름은 심청의 ‘색난’의

문제를 줄여주면서도 여전히 심청을 효녀로 그릴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된다.

## 2) 공감적 태도에 기반한 응답

심봉사를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 이본군은 [심팽규 군]과 [심운 군], 그리고 송동본을 꼽을 수 있다. 심봉사에 대한 긍정적 형상의 추가는 [심맹인 군]의 요약적 초두가 [심팽규 군]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일어난다. 이때 심청 모친 죽음의 시기가 심봉사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심팽규 군]을 필두로 하는 장자 부인 계열에서는 심청 모친의 죽음이 장자 계열의 삼 년에서 출산 후 삼칠일 정도로 앞당겨진다. 그러면서 젓먹이를 양육하는 심봉사의 고충과 역할이 확대되고 심봉사의 긍정적인 형상이 <심청전>의 초반부에 많이 드러난다. 이는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본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심맹인 군] “심망인 거동보소 니니 딸 젓 달나 우난 소리 이니 심중 녹는 마리 뉘가 다려 훈잔 말가 할 일 업서 심청이 품에 품고 이답 저답 단이면서 젓을 어더 먹기고 밥도 간간 먹이니 그곡 정곡외 장할기 더듬더듬 답비 와서 심청의 얼굴 만저 설마 등등 니 딸이야 어서 밧비 숙성한더 이전 말하고 살라보자 쥬야로 한심으로 세월을 보내이 뉘 안니 비창하리 말 못하나 심청이를 무등 우의 연져노코 나설 한티 이며셔 잔병업시 잘 세장하고 곱겨곱겨 잘 커라 삼사오정 잠 가온디 또 심청이 젓티 누어 심청동정 살펴보이 잠을 자면 두고 잠을 깨면 이러 안고 저러 안져 누누이 달내난 말이 어서 자자 우지 마라 어려하게 길니니 그 공역 오작할리요”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 . 250쪽>

[심팽규 군] “심봉스 거동 보쇼 히복 양식 동양할 제 폐입파립 뒤척 읍는 신을 신고 더듬더듬 단일 제 예도 가고 제도 가고 홀도 초고 돌도 초고 발까락도 찌여지고 집집이 지니간니 기는 뒤에 쏘초 혼 오실 물고 달여던다 남북 촌얼 돌라 혼 푼 두 푼 으든 돈을 양을 치와 은져 늦고 총총이 단이면서 양식 동양하여 훌흠이 어더 되을 치와 은져 늦코 히복하기만 기달일 제” <박순

호 43장본, 321쪽>

[심운 군] “숨을 갈나 뉘여노코 정히 지여 밥 시 그릇 국 시 그릇 정화슈  
훈 그릇 상희 뇨코 심봉스 거동 보소 의관을 증제하고 지성으로 업들여서 삼  
신전의 비난 말리 천지제왕 일월제왕 삼신제왕 췌 칭기고 살 칭기여 스디삭  
신 옥천마디 훈 달 두 달 피을 모와 아홉열 짚 된 연후의 칭월 칭시 마련하  
와 순순으로 시겨씨니 삼신의 덕택은 빅골난망이로소이다 무남독녀 딸이오나  
동방속의 명을 밧고 석송의 복을 주어 슈명중수하기 흠옵소리 이렛타시 빈  
연후의” <박순호 19장본, 348쪽>

심청 양육 장면에서는 모든 이본이 공통적으로 심봉사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심청을 양육하는 것으로 그린다. 초두가 간단한 [심맹인 군]에서도 심봉사가 배고픈 아기의 울음소리에 애간장을 녹이면서 젓동냥을 다니며, 자신은 잠 못 이루면서 아기를 재우는 등 정성으로 심청을 보살피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아이와 얼굴을 부비고 아이를 무등을 태워주며 아기가 말을 배우기를 기대하는 등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도 보여준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심봉사의 모습에 공감적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심맹인 군]의 요약적 서두를 고려했을 때, 심봉사의 심청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서술이 할애된다.

[심맹인 군]에 비해 서두가 대대적으로 확장된 [심팽규 군]과 [심운 군]에는 심봉사의 심청 양육 장면에서뿐 아니라 심청의 출생 전부터 심봉사의 부성이 나타난다. 특히 [심팽규 군]에는 심봉사가 동냥으로 해산을 준비하는 독특한 삽화가 나타난다. 심봉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아버지와 다름없이, 가장으로서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내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봉사는 돌에 채이고 개에 물리면서도 부지런히 행복 양식을 동냥 다니는 것으로 형상화되면서 그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아주 강하게 그려진다.

[심운 군]에서는 행복 양식 동냥 삽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긍정적인 아버지로서의 심봉사 형상화는 이어져 [심팽규 군]에 처음 나타난 삼신상 축

월이 이어진다.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봉사도 아이의 땀줄을 자르고 아이를 위해 경건하게 축원을 한다. 이렇게 [심팽규 군]과 [심운 군]에 이르면 심봉사는 비(非) 장애 아버지 이상의 노력과 사랑을 통해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장승상 부인 계열에 속하는 송동본에도 이어져 양육 장면에서 심봉사의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된다.

“육칠 월 쏘약베타헤 김미다 쉬는 디도 초저가고 시느씨의 썰니할 제 그런 곳도 초저가며 었던 녀인은 그리호오 썩썩시 먹여쥬고 었더훈 녀인은 지금 우리 으기를 다 먹엿는걸 만일 젓슬 잘 어더먹여 이희 비 불녹호면 봉스 마음 조아라고 양지바른 언덕 밋헤 팔을 버리고 안져서 아히를 어를 적의 으가 즈논야 웃너야 그 스이 열마느 컷너야 장뽀를 잔썩 썩어 이리저리 썩어보더 니 손벽 치며 디소호고 호는 말이 그 스이 조금 무던이 컷다 그러느 어셔 쉬 커져 너의 모친 갖치 현철호고 효형잇셔 아비 귀함 보이지야 어려서 고싱호면 커셔는 부귀다남 호느니라 어린 으희 젓 어더 먹이고 스이스이 동냥할 제 솜베견디 두동지여 윈 었기의 돌너메고 이집져집 단니면서 훈 편은 썩를 밧고 쏘 한편은 강벼 어더 쥬는 디로 바닷물고 한 달 육장을 거두어 훈 폰 두 폰 돈을 모아 어린 으희 암죽초로 강엿 호도 조곰 스셔 먹이고 미월 상망 소디상을 예법으로 지니더라” <경판 20장본, 158~159쪽>

송동본에서의 심봉사는 더운 날씨도 꺼리지 않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염치 불고하고 젓동냥을 다닌다. 환대하는 이도 있고 꺼리는 이도 있으며, 심봉사는 아이가 웃는지 자는지조차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이지만 심봉사는 안 보이는 눈 대신 손뽀를 통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기쁨을 누린다. [심팽규 군]에 있었던 심봉사의 해산 준비 동냥 삽화와 유사하게, 송동본에서는 심봉사는 동냥한 것을 모아 아이에게 간식도 사먹이고 예법까지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게 된다.

한편 심봉사의 긍정적인 면모를 발달시키는 이본군들은 뽀덕어미 결연과 관련해서도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도록 꾸준한 변화를 시도한다.

“초시 심봉스 불상훈 썩을 일코 모진 목숨 근근 부지호더니 본촌의 셔방질



하는 뽕덕어미란 년이 심봉스 진곡 만탄 말 듯고 즈청 드러와 심봉스 첩이 되어 호강으로 지닐 제 (중략) 양주라 지닐 제 심봉스의 세간이 촛촛로 탕피 하니 이 몯쓸 뽕덕어미 불상헌 심봉스의 진곡을 모도 먹고 이습 일 양식 남거든 니째리라 호고 쥬야로 퍼먹더니” <경판 20장본, 172쪽>

[심맹인 군]에서 뽕덕어미를 얻고 심청을 잊어가는 것으로 그려지는 심봉사는 [심팽규 군]과 [심운 군], 송동본에서는 피해자로 그려진다. 서술자는 독자가 심봉사를 ‘몯쓸 뽕덕어미’에 대조하여 불쌍하고 결백하게 느끼도록 그에 대한 우호적 어조를 보인다. 이들 이본군에서는 결연 장면에서 재산을 노린 뽕덕어미가 ‘자청하여’ 온 것으로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뽕덕어미와 결연한 후에도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도록, 심봉사가 성적 욕구의 충족으로 인해 심청을 잊는 내용을 소거한다.

이상 살펴본 [심팽규 군], [심운 군], 송동본은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서술을 소거하고 심봉사가 장애는 있지만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심청의 희생의 객체가 되는 심봉사를 긍정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이본군은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이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심봉사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면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심청의 효행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봉사가 심청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형상화되면 될수록 심청이 일으키는 ‘색난’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한편 긍정적인 형상의 심봉사의 경우는 심청의 효행의 당위성은 높일지 몰라도, 효행의 숭고한 가치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기보다는 구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질 경우 그 은혜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상 심봉사를 사시적인 태도로 형상화하는 경우와 심봉사를 공감적 태도로 형상화하는 경우를 ‘아버지다움’에 대한 두 가지 응답 양상으로서 살펴보

았다. 그러나 심청의 희생적 효와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한다 할지라도 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대급부로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봉사의 ‘아버지다움’과 관련한 텍스트의 다성성은 <심청전>의 주제, 즉 심청의 희생이 불러일으킨 갈등과 논쟁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방향의 독자의 응답성은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결 시도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심청과 심봉사 모두가 보상을 얻을 때에만 심청 희생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심청전>은 심청이 용궁에서 지내는 시간이 삼 년으로 늘어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보상이 지연되면 심청 희생이 제기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된다. 이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각 이본군이 심청 희생이 제기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봉사의 형상을 어떻게 바꾸어나갔고, 동시에 심봉사의 형상화 변모는 심봉사의 개안이라는 보상을 어떻게 정당화해나갔는지 그 대화적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색난’ 화제에 대한 대화적 이해 양상

### 1) 다성성을 통한 인물의 개성 창출

앞서 [심맹인 군]에서 완판에 이르기까지 심봉사의 형상화는 크게 부정적 형상화와 긍정적 형상화 두 가지 방향으로 발달하였음을 살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다른 이본군 사이에서 경합하기도 하지만, 심봉사에 대한 사시적 서술 태도가 나타나는 이본 내에도 경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심학규 군]을 중심으로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에 대한 다성적 목소리가 심봉사의 개성적 인격을 창출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심봉사의 새로운 인격이 색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양육 장면을 들어 살핀 바와 같이, [심팽규 군]에서 초두가 확대된 이래로,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그리려는 이본군에서도 출산과 심청 양육 장면

에서만큼은 심봉사의 부성이 건전하게 형상화된다. 심봉사를 골계화하려는 [심학규 군]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심팽규 군]과 비교했을 때 인물의 인격 변모가 감지된다.

[심팽규 군] “곽씨부인 정신 차라 샷들 잠관 만저 보고 마음이 서웁히야 한숨하고 도라누으 탄식하고 이른 말리 니왕 싱기 주시거든 아달이나 싱기시면 후스을 믱기 만세유전 후올기실 실디업난 어가난이 째시째서 허스로다 선영 봉조와 후사을 뉘게다가 전장할고 한숨 주면 자탄하니 심밍인은 만니 과니 실혀 말로쇼서 짤리라도 고니 질너니여 외손봉스 못할쇼야 두리 서로 위로하던이” <최재남 낙장 22장본, 69~70쪽>

[심학규 군] “빅비 축원 맞춘 후의 국밥을 듣기하여 부닌 전의 권한 후의 아다린지 짤아긴지 자서이 분별코져 손을 들고 워린 아히 빗썸부터 실금이 드듬은이 불두든 지니 씨에 만첩빙설 어름 우의 어름장 지니가든 것침읍시 밋근득 지니간이 심봉사 으이업서 두 눈을 번득이며 낙심하고 물너 안좌 묵묵키 싱각다가 껍 한 번 우섬 웃고 다시곰 당기 안좌 부닌을 만지면서 위로하여 하난 말리 부닌의 서우지심 나의셔 달어잇가 아달 낮고 짤 낮키을 임으로 할 량이면 주자하 리 뉘 잇실가 한나라 제령이는 구둥의 처녀로서 물입관 비 자원하여 니슈부제하여 낮고 당나라 양귀비는 여림의 처녀로서 당명황어 총이 되어 만종녹을 울여씨니 우리도 낮 짤아기 곱기 곱기 길너니여 문장지사 탁서하여 외손봉사 하사이드” <김광순 30장본, 119쪽>

아기 성 분별 장면은 [심팽규 군]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써, 성 분별 후에는 딸을 낳고 원통해하는 곽씨 부인을 심봉사가 위로하는 삽화가 이어진다. 외손봉사 위로 삽화는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심봉사의 긍정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삽화이다. 이는 [심학규 군]에도 이어지는데, 심봉사가 딸자식의 소중함을 고사를 들어 말하여 산고에 지친 아내를 위로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해있다. 그런데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의 내면이 나타나는 묘사가 발달하여 심봉사의 낙천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학규 군]에는 [심팽규 군]에는 없는 심봉사의 실망이 나타난

다. 그러나 그는 잠깐 동안의 내적 대화를 거쳐 아내를 위로한다. 즉 처음에는 심봉사도 어렵게 얻은 자식이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제영이나 양귀비 등 타자의 담화를 끌어들이며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이를 통해 꺾어까지 설득하는 것이다. [심운 군]이 심청 내면을 확장시켜 심청의 감정을 독자가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듯, [심학규 군]의 심봉사 역시 내적 대화를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때문에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가 [심팽규 군]에는 없고, [심학규 군]에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는 [심학규 군]에서 더욱 실감나게 전달된다.

이 점에서 심봉사에 대한 사시적 태도가 공통으로 드러나는 [심맹인 군]과 [심학규 군] 사이에서도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맹인 군]의 심봉사는 객체화되어 의존적인 인물로 그려졌었다. 때에 따라서는 서술자의 동정심을 사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무능력이 질책을 당하고 음심이 강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어느 쪽으로 형상화하던 대상을 내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관찰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심학규 군]은 이미 [심운 군]에서 이룬 대화화된 장르 속성을 받아들여 이를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즉 심봉사도 일방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되는 인물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고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심봉사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심청을 걱정하는 장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맹인 군] “심봉수가 어린 딸을 보니고서 고디고디 기다리되 오리도록 안니오니 가슴이 답답하고 이심이 멩동혀 혼즈말노 헛난 말리 어이혀 아니오노 집뭇츠즈 아니오나 몹실 놈이 유인훈가 즈식 숨아 다려간가 지즈난 막여부라 니 딸 심사 니 알건니 그려히기 만무히되 엇지 그리 아니오나” <정문연 28장본, 13쪽>

[심학규 군] “반일리 지니도록 무삼 일노 아니 오나 치우을 못이겨서 뉘 집 정지에 불 쪼난가 반람의 썩니여 눈 궁계 빠졌난가 무삼 일노 아니 오나 옷 마을의 김도령니 호리비로 잇다더니 심청보고 욱심니여 역탈노 흠쳐간나”

<박순호 39장본, 362쪽>

심청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심봉사가 걱정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염려의 내용이 다르다. [심맹인 군]의 심봉사는 누군가가 ‘자식 삼아’ 심청을 데려갔나 걱정하다가 ‘지자는 막여부’라 하면서 심청이 자신을 버리고 갔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자식의 안전보다 자식을 봉양을 받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아적인 사고이다. 십오세 된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심학규 군]의 심봉사처럼 사고가 나지는 않았나, 성적인욕을 보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따라서 [심학규 군]은 이 장면을 심봉사가 아비된 입장에서 심청을 걱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즉 [심학규 군]은 기본적으로 이 장면에서 [심맹인 군]을 따르고 있지만,<sup>44)</sup> 심봉사를 [심맹인 군]의 심봉사와 같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는 그리지 않았다. [심맹인 군]에서 심봉사가 자신이 신체적 장애는 있을지라도 정신적 장애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항하는 다성적 목소리를 [심학규 군]이 계승하면서, 심봉사의 목소리를 내면으로부터 상상해보는 대화적 이해를 통해 인물 형상화를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심봉사의 변화는 황성 가는 길의 통시적 변모를 살피면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다. 초기 이본인 [심맹인 군]에서는 맹인이 홀로 어떻게 황성까지 갈 것인가 하는 서사의 합리성 문제가 이 대목에서의 심봉사 형상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듯하다. 이 때문에 [심맹인 군]에서는 뽕덕어미나, 목동, 안씨 맹인 등의 인물이 모두 심봉사의 길을 인도해주는 기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sup>45)</sup> 이렇게 [심맹인 군]에서 심봉사는 심청이 곁에 있을 때는 심청

44) [심학규 군]은 이 장면에서 분명 [심맹인 군]을 참조하였다. [심팽규 군]과 [심운 군]에서는 심봉사가 오지 않는 심청이 궁금하여 길을 나서기는 하지만, 누군가 심청을 유인하거나 납치한 것은 아닐까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45) [심맹인 군]과 장자 부인 계열에서의 뽕덕어미 삽화는 완판처럼 골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장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뽕덕어미와 관련하여 골계적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하는 것은 신재효 본에서부터이다. 이 점에서 [심맹인 군]의 뽕덕어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심봉사가 황성으로 길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기능’에 가깝다.

에게, 심청이 없을 때는 다른 인물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심팽규 군]에서는 심봉사의 의존적 모습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 목동삽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심팽규 군] “무상하다 썩어마 눈 발근 가장 쇠기기도 죄가 만타 일너거 든 하물며 압못보 날 쇠기고 간들 너가 잘된손야 천하의 몸실 연아 니 쌀 심천이 팔여갈 지 별로 어든 살 오십석을 니 얼마 먹어서라 거연이 흥연이라 너 목숨 살아신이 이그 공인들 적글손야 탄식하고 눈물 짓고 우난 말리 허다 한 사람중의 날갓튼 사람 쏘 잇난가 등곱셰가 설다 하되 천지만물 귀경하고 벼어리가 설다 하되 질을 차자 왕니하니 나난 엇든 팔자로서 두 눈을 모도 째고 디명천지 발근 날의 밤중갓치 모로난고 원통하고 셔른지고 이리 드툼 저리 드툼 황성으로 올라가니” <정문연 19장, 51~52쪽>

뽕덕어미를 잃고 나서 나타나는 소경 설움은 [심맹인 군]에서부터 있던 것인데 심봉사의 자기 연민을 잘 보여준다. 소경 설움은 부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남은 전곡과 뽕덕어미도 잃고, 낯선 길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듯한 심봉사의 절망을 표현한다. 그런데 [심맹인 군]에서 심봉사는 서러움과 슬픔만을 표현할 뿐 어떠한 주체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우연히 소경 설움을 들은 한 목동이 심봉사를 붙잡히 여겨 그를 황성까지 인도해준다. 이 점에서 [심맹인 군]에서 소경 설움은 인도자(引導者) 전환이라는 서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심팽규 군]에 이르면 [심맹인 군]의 모든 이본에 나타나던 목동 삽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sup>46)</sup> 대신 인용문과 같이 소경 설움 이후에 심봉사가 어떻게든 홀로 황성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심팽규 군]에 심봉사가 동냥으로 아내의 행복을 준비하는 삽화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심맹인 군]에서는 맹인이 혼자 길을 갈 수 없다는 논리가 황성가는 길을 지배한다. 그 때문에 심봉사는 삶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넘기게 된다. 따라서 안씨 맹인을 만나는 결연하

46) [심팽규 군]에서는 박순호 43장본과 조춘호 31장에서만 초동이 등장하여 심봉사를 인도한다.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봉사의 도정은 흥겹기보다는 힘든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런 심봉사의 의존적 모습은 [심팽규 군]의 양육 장면에서 많이 극복된다. 특히 아내의 출산을 준비하면서 돌에 채이고 개에 물리면서도 홀로 동냥을 다니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홀로 심봉사가 황성까지 간다는 설정이 완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황성 가는 길은 비극적 정조에 지배되며 의존적 심봉사와 독립적 심봉사 형상이 [심팽규 군]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본을 통해 경합한다.

[심운 군]에서도 심봉사의 황성 가는 길은 힘겨운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심운 군]에 이르면 목동 삽화의 완전한 소거가 이루어지고 목욕 삽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봉사의 의존성이 사라진다. 이후에 등장하는 [심학규 군]에 이르면, 해학적인 목욕 삽화가 나타나면서 황성 가는 길에 미학적 변모가 나타난다.

[심운 군] “이고 서러온지고 멀고먼 철니길의 나 혼즈 어니 갈? 니러타시 탄식다가 할 일 읍서 혼즈 올라갈 제 놓픈 디 나진 디나 집디나 좁바지며 업 더지며 중노의 가다가서 목욕허던니 그 중의 도적을 맞고 심봉스 그동 보쇼 진만 나문 누비도표 흰 베중의 뒤척 입난 혼 집석의 밑시 잇게 제법 신고 촛점촛점 올라올 제 조식을 비려 먹고 이날 제날 리달 저달 솜식만의 황성의 득달하야” <사재동 30장본 (A), 336쪽>

[심운 군]에는 목동 삽화가 사라지고 대신 의복 도적 삽화가 모든 이본에 걸쳐 나타난다. 그런데 대개 이본에서는 심봉사가 중노에서가 아니라 목욕 시에 도적을 맞는 것으로 나타나며, 목욕 중에 의복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일부 이본에서는 심봉사가 관행차에 나서서 의복을 얻어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sup>47)</sup> 그런데 이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새로운 심봉사의 인격이 나타난다.

47) [심운 군]에서 이 장면은 여러 이본에 걸쳐 의복 도적 + 목욕 + 관행차가 지속적으로 더해져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심운 군] 가운데 정문연 31장본만 [심학규 군]과 같이 의복 도적 + 목욕 + 관행차가 모두 나타나면서 동시에 심봉사가 골계적으로 나타난다. 인용문은 목욕 중에 의복을 도적맞지만 관행차는 나타나지 않는 이본에서 가져왔다. [심운 군]의 목욕 장면의 이본별

[심운 군]의 심봉사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심맹인 군]이나 [심팽규 군]의 심봉사와 비교하면 현 짚신을 ‘맷시 있게 제법 신고’ 한층 가벼운 모습으로 황성에 도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목욕’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성현경은 심봉사의 목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 심봉사의 결핍 상황과 충족 상황이 ‘목욕’이라는 행위를 축으로 하여 반전되면서, 비록 약하게 기능하기는 하지만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게, 목욕이 심봉사에게 입사식(入社式)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sup>48)</sup> 그런데 이러한 목욕이 [심운 군]의 일부 이본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심청전>의 미적 변모의 계기가 [심운 군]에서 마련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심학규 군]에 이르면 모든 이본에 목욕이 등장하며 심봉사는 의존적인 모습을 버리고 신관에게 떼를 써서 옷을 얻어 입는 등 독립적이고 기지가 뛰어난 인물로 나타난다.

[심학규 군] “현철호 우리 부인 죽난 양도 보고 살고 어엿분 니 쌀 심청 슈중에 죽이고도 잇찌까지 슝겨든 냇? 짓연 일코 혈마 니? 죽긴냐야 너 갖튼 몫실연을 싱각홀 잡눔 입다 집평막디 츠즈 집고 초수로슨 험훈 길에 더듬 더듬 츠즈 갈 제 수십이 흥보호미 다리도 압풀박게 이복에 째미 차셔 썸금호미 심훈지라 청계슈 다달나셔 목욕을 허라호고 이복을 버셔 늦코 쫓여드러 씨을 모다 씨은 후에 영금영금 나와보니 이복 관망 버션 신발 간 고지 업난 지라 니렴에 싱각호되 싱퍼일월 츠세사에 빅쥬도적 업슬거시오 작난군이 지

---

차이와 그 의미는 김효정, 앞의 논문, 2020b, 242~244쪽 참조.

48) 성현경, 「심청전론(2)」,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125~127쪽. 이와 관련하여 심청의 성씨인 ‘沈’은 ‘물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심봉사가 개천에 빠지거나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등 심 씨 부녀가 작품에서 실제로 물에 빠지게 되며, 그로 인해 두 인물 모두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심청 성(姓)의 상징성은 향유층에게 널리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청전>은 상당수의 이본을 거느린 작품인데, 모든 이본에서 심청의 성이 심 씨로 통일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본이 적은 <흥부전>의 경우도 박흥보나 장흥보와 같이 주인공의 성이 바뀌어 나오고, <춘향전>의 경우도 춘향의 성이 성 씨 외에도 김 씨, 안 씨 등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인 목욕 삽화가 <심청전> 향유층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이유를 알 수 있다.



니다? 죠롱코져 감적흔? 신니?에 흘니 안즈 스람乙 디훈다시 거게 뉘신고  
 뉘? 날을 기록코져 하니 저려흔 쇼연드리 눈 먼 노인 기오흐면 신세에 히로  
 올글 나을 아쥬 못 보는 줄 아라셔도 十분에 일은 보옵난다 뉘? 그리 여렵  
 난 짓 고만 흐고 어셔 밥비 이리 니오 낭증에 잇난 돈이 열양 닷돈 오피이르  
 해가 나? 악이 나면 관가에 정흐리라 아모리 그르한들 도적놈이 디답할?  
 귀을 기우려 드러보도 사름 깃춤 업난지라 궁둥이를 취겨 들고 영금영금 단  
 기면서 온 강변을 뒤역든들 이른 이복 잇실손냐 쫓꼬리고 혼즈 안즈 디성통  
 곡 (중략) 훈창 이리 통곡할 제 바람길의 드러보니 난디 업는 빅져쇼리 들니  
 거날 속마음의 싱각흐되 올타 올타 어느 고을 관장이 오나 부다 흐날이 문어  
 저도 소사날 곳 잇다더니 과연 헛말 안니로다 아모리키나 쫓차가서 억지나  
 썸보리르 어느 고을 관장인지 씬을 잘 못 췌다 두눈을 번드기며 도시르고 안  
 잣더니 압프로 지니거날 염치을 불고흐고 경청 쫓여 달여드러 길을 막고 옆  
 드리니 흐인으 혼금쇼리 성화 갖치 엄금하니 심봉사 흐령흐되 니가 비록 이  
 려 망정 나라의 명을 바다 잔차 가난 양반일다 니의 목을 몇식이나 가자나야  
 할디로 흐여보라 이렷타시 힐난할 제 원니 듯고 흐난 말이 저 밍인 그 뉘신  
 고 무삼 쇼회 잇거던 자심이 아뢰여라 심봉사 디답흐되 (중략) 절나도 남평선  
 선초까지 썸서 일코 쇼상반죽 빅통디의 양철간죽 썸서 일코 보짐 속의 노지  
 빅양 보짐까지 일엇스니 차자서 쥬시든지 물어서 쥬시든지 흐옵쇼서 원니 듯  
 고 귀가 뭉게 디쇼흐고 흐는 말이 니 말을 드러보니 그만흐 반석송을 부러흐  
 리 안니할다” <사재동 낙장 33장본, 478~480쪽>

[심운 군]에서의 심봉사는 이전 이본에 비해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이긴 하  
 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길을 가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심학규 군]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경의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심봉사는 ‘현철한  
 부인이 죽는 모습도, 보고픈 심청까지도 죽이고도 이때까지 살았는데 네 까  
 짓 년 잃고 설마 내가 죽겠느냐’ 큰소리를 친 뒤 혼자 길을 간다. 여기서  
 [심학규 군]의 심봉사는 성 분별 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정적 상  
 황에서도 내적 대화를 통해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뺨덕어미를 훌훌 털어버리는 심경의  
 전환이 목욕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더 확실히 마무리되면서 전반부의

비극적 정조가 유쾌한 분위기로 완전히 전화(轉化)된다. 의복을 도적 맞고 이에 대응하는 심봉사의 모습이 상당히 희극적이기 때문이다. 심봉사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나을 아쥬 못 보는 줄 아라셔도 十분에 일은 보옵난다”며 농을 쳤다가 또 공중에 대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는 장면은 이전의 <심청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골계적 장면이다.<sup>49)</sup> 또한 심봉사는 억지라도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행차 앞에 달려들어 자신이 잃은 것을 과장하여 아뢴다. 비상식적으로 많은 물품을 잃었다고 과장한다는 점에서 심봉사는 또다시 희화화되긴 하지만 이러한 심봉사에게서 이전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심학규 군]의 심봉사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기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을 재조정하여 인식하는 낙천적 인물로 화한다. 이를 통해 황성가는 길이 흥겹게 변모하고 이러한 미학적 변모는 [심학규 군] 이후의 이본에서도 계속 전승된다.

앞서 언급한 심봉사의 소경 설움의 위치도 [심학규 군]에 이르면 달라진다. [심맹인 군]에서와 같이 목동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목동이 이 소경 설움을 듣고 심봉사를 돕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경 설움이 이곳에 필연적으로 위치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목동삽화가 사라지고 심봉사가 목욕할 때 의복을 도적당하는 삽화로 교체되면서 소경 설움이 이곳에 위치할 필연적 이유가 없어진다. 게다가 목욕이라는 행위가 뽕덕어미를 잊고 새 출발을 하려는 심봉사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므로 소경 설움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심학규 군]에서는 소경 설움이 심봉사가 심청을 찾아 나왔다가 개천에 빠졌을 때로 자리를 옮겨진다. [심맹인 군]에는 소경 설움이 여러 번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의 낙천적인 성격이 생성되면서 심봉사의 자기 연민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심학규 군] 이후의 이본군에서 황성 가는 길은 심봉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차 자립해가는 과정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나간다. 심봉사의

49) 이것이 장애에 대한 희화화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으로 해결하려는 심봉사의 의지도 엿볼 수도 있다.

독립성은 [심학규 군]의 초반부에서 부친 인도 삽화의 소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어린 심청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길을 인도하는 부친 인도 삽화는 [심맹인 군], [심팽규 군], [심운 군]의 모든 이본에 공히 등장하며 심봉사의 의존성을 대표하는 삽화이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목욕 후에 낮선 길을 가면서 용정을 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황성까지 홀로 길을 가기 때문에, 부친 인도 삽화는 이러한 후반부의 내용과 당착을 일으켜 사라진다. 이후 신재효 본에서도 심봉사는 홀로 방아 찧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방아타령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등 홀로 황성에 갈 수 있는 독립적인 심봉사로 거듭나게 되며 이러한 심봉사의 모습은 완판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상 [심학규 군]을 중심으로 심봉사의 인격의 변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심학규 군]은 선행 이본을 참고하여 심봉사에게 내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하고, 심봉사를 둘러싼 다성적 목소리를 더욱 계발하여 심봉사를 개성 있는 인물로 변모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sup>50)</sup> 이러한 변모는 어떠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앞서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색난’의 문제가 심화되고 ‘아버지다움’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색난’의 문제는 약화되지만 희생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심학규 군]은 [심맹인 군]의 심봉사에 대한 다성적 평가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심학규 군]의 심봉사는 초두에 건전한 부성을 보임으로 해서 심청 효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심봉사를 독립적이고 낙천적인 인물로 통일되게 그려, 심청의 희생이 유발한 ‘색난’의 문제를 경감시키고자 한다. [심맹인 군]과 같이 심봉사가 의존적인 존재라면 ‘이효상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하지만 심청 없이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심청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그의 독립성이 계발된다면 ‘색난’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적 이해는 <심청전> 후반부의 비극적 정조를 웃음으로 대체하여 독자 역시도 갈등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심학규 군] 개작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도 보

50)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심학규 형상은 이어지는 이본들에 적극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심학규 군]의 심봉사에 대한 대화적 이해의 내용은, 심청에 대한 대화적 이해를 심화한 [심운 군]만큼 <심청전> 전승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여준다.<sup>51)</sup>

## 2) 인물의 욕망 발견과 반감의 표출

[심학규 군]부터는 <심청전>의 후반부에 비극적 정조가 해학적인 장면을 통해 잠시 전환되면서 비장미가 지배했던 <심청전>에 골계미가 더해지는 미학적 변모가 일어난다. 이는 심봉사가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변모하면서 가능해졌음을 살폈다. 그리고 이것은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화적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논했다. 그런데 심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화적 이해가 독자로 하여금 심청의 목소리와 소원을 발견하게 했던 것과 같이, 심봉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화적 이해는 심봉사의 목소리와 욕망도 발견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심봉사에 대한 독자의 응답성이 심봉사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극대화되면서 심봉사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적 이해 양상이 '색난'의 해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심맹인 군]에서는 눈을 뜨고 싶은 욕망 이외에는 심봉사의 욕망의 특별히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는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 자체가 사시적 시선을 받는 이유가 된다. 이에 그는 사회적 욕망은 꿈꾸지 못한 채 위축되어 있으며 이에 안سى 맹인과의 결연 시에도 텍스트 내에 드러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서술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그런데 초두를 확장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심봉사의 긍정적인 형상을 그리는 [심팽규 군], [심운 군]에는 심봉사의 자식에 대한 욕망이 새롭게 나타나고 이는 이후 이본에도 계속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51) 김대행은 판소리사설에 나타나는 웃음이 우리 문화의 특색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국문학」, 『어문론총』 3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심운 군] “이이은 심심봉사 불불탄식 알 우리 죄악 못상호와 세상만물 상길 적의 리니 몸 싱계나 서로 만난 팔자로다 천연리 지중호와 부인과 부부되어 양안리 업씨나 세간 업거던 조식리 잇거나 조식리 업거던 세간리 요부호거나 닌니 팔조 못상호와 세간과 조식리 업난 중의 천지만물 흑벽장단을 보지 못호리 리 안리 설러운가 이여타시 설어호리 양씨부인 위로호여 호난 말리 (중략) 서역 영보사의 비어 혹 조식을 엇뎠다 호온리 우리도 비러 혹 조식을 어더 불회를 면호사리다 심봉사 하난 말리 비러 조식을 나홀진디 천호어 무조식 할 슝리 어디 잇시리요” <사재동 30장 A본, 313~314쪽>

“우리 연중 스십이나 실호 일점 혈육 업서 조종향화 쓴게 된니 죽어 황천 도라간들 선영 보일 낮치 업고 우리 양쥬 스후 신세 초승 장스 쇼디기며 년년 기일 도라온들 밥 호 그릇 물 호 먹음 닐라셔 밧들잇? 날 구완 그만 호고 명스 디천 정성 드려 눈 먼 조식 하나라도 혈육을 보게 호오” <신재효 본, 4쪽>

[심팽규 군]과 [심운 군]에서는 대부분 심봉사의 무자식(無子息) 한탄을 들은 아내가 기자치성을 제안하여 심청을 낳는 것으로 그려진다.<sup>52)</sup> 그런데 [심운 군]의 일부 이본에는 심봉사가 기자치성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누군들 아이를 낳지 못하겠냐며 회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반면, 신재효 본, 송동본에 이르면 심봉사가 아내에게 먼저 기자치성을 제안한다. 이렇게 심봉사의 자녀에 대한 욕망은 점차 강화되어 나타난다.

인용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심팽규 군]과 마찬가지로 [심운 군]의 기자치성 삽화에는 기자치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심봉사의 자녀에 대한 욕망이 영향을 끼친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봉사는 개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욕망 가운데서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식을 꿈꾼다. 인간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은 엄밀히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욕구, 즉 본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봉사의 소망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재효 본에 이르면 그 욕망이 강화되어 심봉사가 부인에게 먼저

52) [심팽규 군]의 정문연 19장본만 부인이 탄식하고 부인이 기자치성을 결정한다.

기자치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보다는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기자치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심학규 군] 이후부터 심봉사의 신분이 상승되면서 신재효가 양반인 심봉사의, 자녀에 대한 욕망을 보다 이념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모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이후 이본들에는 신재효 본의 내용이 우세를 이루어 전승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의 자녀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보다 사회적 욕망으로 전환되는 것이 <심청전>의 통시적 흐름이다.

한편 심봉사의 성적인 욕망도 강화된다. 먼저 [심맹인 군]에서부터 심봉사를 음심(淫心)이 강한 인물로 단정하는 서술자의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서술되지 않는다. 심봉사는 본래 음흉하다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논평을 할 뿐이다. 그러나 [심학규 군]에 이르면 심봉사는 독립적이고 낙천적인 인물로 변하고 현실을 재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변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 이본에서는 외설적인 인물로 변한다. 용정타는 삽화가 이러한 형상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성적인 욕망은 자녀에 대한 욕망과도 관련이 있으면서도<sup>53)</sup> 자녀에 대한 욕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동시에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이기도 하다. [심맹인 군]에서는 심봉사가 의존적으로 그려지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그는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 있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의존성을 벗어나면서 억압되었던 사회적 욕구가 강화된다. 눈을 뜨면 자신을 조롱하던 동네 친구들에게 보원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에서도 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를 ‘가관’이라고 비판하는 서술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그에 대한 사시적 시선이 완전히 거둬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관계 맺기의 욕구는 비뚤어진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마찬가지로 그의 성적인 욕구도 탈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심학규 군]에서

---

53) 성적인 욕구는 자녀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 특히 심봉사의 성적 욕구가 <심청전>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후반부가 심봉사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난 뒤라는 점에서, 그리고 심청 역시도 부친이 눈을 떠서 자식을 보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다.

는 안씨 맹인과의 결연에서 심봉사의 음흉(陰凶之心)이 다시 언급된다. 이후 신재효 본은 심봉사가 심청이 몸을 팔아 얻은 재물로 과부를 유혹하고 다니는 내용이 덧붙여져 그의 성적 욕구와 윤리적 타락이 강하게 그려진다. 또한 뽕덕어미와의 수작도 구체화되어 심봉사의 세속성은 강화된다.

“헝직 헝고 나올 적의 치헝 절츠 싱각헝니 뽕덕어미 두고 가면 셔방질도  
 흘연이와 지척불변 니 신세를 지로헝 리 업셔씨니 흙씩 가면 쥬컨만은 마다  
 헝면 엇지홀고 도로난 슈가 올라 문 안의 드러셔며 뽕덕어미를 불너 여보쇼  
 뽕덕이네 이 년이 그 시이의 뒤썩 머슴 후려다가 낫일을 시죽헝여꾸나 그렁  
 저렁 수쇄홀 제 어느시의 심봉스가 방문 압페 와 셔꾸나 간스헝 뽕덕어미 괴  
 슈찰싸 셔 즈룬 말쇼리로 심봉스를 돌나 나시 저리 불근 슈가 읍니 식쥬가의  
 호강 만니 히꾸만 (중략) 셔로 안니 노컨만은 쥬니가 기달일가 읍니셔 안니  
 쥬고 더듬더듬 츠져오니 후문치쥬 업드리도 노쳐부쥬 홀 텃인디 불의고 쥬  
 불너도 디답도 아니 헝니 놀을 밧고 스쥬난가 일얼 쥬 알아쓰면 동원의가 식  
 쥬사의 잘 먹고 잘 잘 썩셜 무엇터라 아픈 다리 십전구도 츠져 왓노 괄씨부  
 인 살아씨면 이 문의 와 지달엿제 이고이고 니 일이야 뽕덕어미 경각간의 술  
 척을 썩 피난디 머슴놈 메기기로 씨암탁 좁아 쓰더 토정의 불 뵈우고 일 시  
 죽헝엇다? 심봉스 오난 설네 못 먹여 보니고셔 솟티 그져 잇셔꾸나 (중략)  
 봉스님 보넨 후의 마음을 못 노와셔 방의 들어간 일 업고 점심도 안니 먹고  
 스립문의 비겨셔셔 오기만 기달이다 오후가 지니도록 쇼식이 업습기로 안 마  
 음의 싱각헝니 늘쇼 병든 가증 처음으로 쥬립헝여 헝보의 슈고헝면 싱명이  
 가려헝니 좁술 것 헝여짜? 오시면 곳 디리쥬 닥 좁아 솟티 안쳐 중죽불 뵈  
 야씨로 불 보려 갓습셔니 그 시의 들어와셔 노쳐부쥬 안니 헝다 전쳐만 쥬랑  
 헝니 나난 그 쏘 보기 실어 전쳐 업난 총각 셔방 기여 어들 테쇠” <신재효  
 본, 34~36쪽>

[심학규 군]에서부터는 맹인 잔치에 참석하라는 명이 모든 맹인에게 의무적으로 내려지자 뽕덕어미를 두고 가기 싫어하는 심봉사의 모습이 나타난다. 인용한 신재효 본에서는 이 장면이 보다 확장되어 심봉사와 뽕덕어미의 수작이 장면화되는데, 이를 통해 신재효 본에서는 황성 가는 길을 떠나기 전부터 희극적 장면이 연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심봉사가 뽕덕어미를 집에

두고 혼자서 읍내 출입을 할 정도로 황성 가는 길 이전에 이미 독립적인 인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뽕덕어미가 황성 가는 길에 심봉사를 버리고 다른 서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황성길을 떠나기 전부터 ‘서방질’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미 심봉사가 이 점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sup>54)</sup> 그러나 심봉사는 이미 자기 집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은 끝내 알지 못하는 희극적 상황이 연출된다.

[심학규 군] 전의 이본군, 즉 가사체 <심청전>에서의 심봉사의 안맹은, 비극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심봉사와, 비극적 상황을 알고 있는 그를 제외한 텍스트 내외의 모든 존재, 즉 심청, 서술자, 독자의 외재성을 통해 비극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심맹인 군]에서 이별 날 심청에게 마지막 아침상을 받아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심학규 군] 이후에는 목욕 장면에서와 같이 안맹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을, 독자는 볼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오히려 웃음을 유발한다. 신재효 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심봉사를 희화화하고 있다.

게다가 가사체 <심청전>에서는 심봉사가 뽕덕어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인물로 그려지지만, 판소리체 <심청전>에 이르면 심봉사가 뽕덕어미와 다를 바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즉 이 장면에서 심봉사는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뽕덕 어미와 결연 이전에 심봉사가 과부에게 풍담을 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독자는 심봉사에게 동정을 느낄 수가 없고 심봉사의 상황에 웃음이 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심학규 군] 이후로 심봉사가 독립적인 인물로 그려지면서, 독자는 그의 욕망도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학규 군]에서 심봉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본능을 넘어서 사회적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개안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사

---

54) <심청전>의 이본 변모를 보면 이전 이본군을 통해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음 이본군이 생성될 때에 서사 세계 내의 인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된다. 앞서 옥진부인이나 귀덕어미의 텍스트 출현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이본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대화적 이해에 기반하여 인물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회 안에서의 자신의 위상 격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신재효 본에서는 그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망도 이념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심봉사의 목소리에 대한 대화적 이해가 진행되면서 독자는 그의 욕망도 상상해보는데,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기반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 [심학규 군], 신재효 본에서는 그의 욕망을 비뚤어질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심청전>이 제기하는 갈등, 즉 ‘색난’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봉사가 독립적이고 낙천적으로 그려질 경우 ‘색난’의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신재효 본과 같이 심봉사의 모습이 극도로 타락한 것으로 그려지면 심봉사에 대한 독자의 반감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인물을 위해 심청이 희생해야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색난’의 문제 대신 심청 희생의 타당성이 제기되어 심청의 효의 주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효 이념의 폭력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따라서 <심청전>의 전승에서는 이를 조정하는 대화적 이해가 나타난다.

### 3) 보상의 사전제시를 통한 갈등의 조정

심봉사의 세속성, 타락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신재효 본은 이후 독자의 대화적 이해를 통해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조정이 결국은 보상에 대한 대화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후 이본들은 신재효 본의 심봉사의 극단적 모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심학규 군]에서 발달한 심봉사의 세속적 면모와 독립적 면모, 그를 통한 <심청전>의 미학적 변모는 완판은 물론 근현대의 창본에 이르도록 유지된다. 이러한 심봉사의 모습이 <심청전>의 ‘색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것은 하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심봉사가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죄책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독자 역시도 심봉사의 골계적 행위로 갈등을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심청의 희생을 자신이 초래했다는 심봉사의 죄책감, 눈 먼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심청의

심리적 갈등은 심봉사가 눈을 뜨는 보상을 통해서만 해소가 된다.

그런데 보상에 이르는 과정, 즉 개안에 이르는 과정을 심봉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이 용궁에 이르자마자 개안주를 받고 바로 환세하기 때문에 보상이 그다지 지연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팽규 군]은 개안주를 소거해버리고, 심청 모친의 죽음의 시기를 심청 출산 후 삼 년에서 두칠일 혹은 삼칠일로 앞당기며, 심지어 일부 이본에서는 심청이 용궁에서 바로 환세하는 것이 아니라, 용궁에 삼 년 머무르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심팽규 군]이 여러 부분에서 서사의 불확실성을 높인 이유는 서사가 주는 흥미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개안주가 사라지면서 심봉사의 개안 장면은 전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연출된다. 서사의 불확정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상상과 대화가 동기화되어 서사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 이렇게 [심팽규 군]은 서사 세계 내의 시간을 변모시켜 이후의 이본군 변모에서 다양한 삽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서사의 불확정성이 높아질수록 심청 희생이 일으킬 ‘색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첫째, 심청 모친이 삼칠일이 지나지 않아 죽으면 심청 양육 과정에서 심봉사의 고난이 증대되어, 자신을 어렵게 키운 아버지를 두고 목숨을 버리는 심청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된다. 둘째, 심청이 용궁에서 삼 년을 머물면 심청 없이 심봉사가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에서 보상까지의 시간이 더욱 지연되어 ‘이효상효’의 딜레마가 심화된다. 셋째, 개안주가 사라지면 심청의 결정적인 희생 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안 시기와 방법, 심지어 심봉사가 과연 개안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심청 희생과 개안 사이의 인과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개안이라는 보상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심청전>에서의 심봉사의 개안은 심청의 희생으로만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심봉사의 행위에도 어느 정도 달려있게 된다. 심청은 용궁에서 삼 년을 지내는 반면 심봉사는 심청 없이 그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삼 년 동안의 물리적 고난은 심봉사의 몫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그의 정신적 개안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심팽규 군]에서 개안주가 사라지고, 용궁에서 보내는 시간이 삼 년으로 길어지면서 목동 삽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는 '황성 가는 길'을 통해 심봉사의 정신적 성장을 예비하면서 유기적으로 일어나 변모이다. 이후 [심운 군], [심학규 군]을 거치면서 심봉사는 황성 가는 길에서 그 독립성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낸다.

그 결과 [심학규 군]에서의 개안은 [심맹인 군]에서의 개안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체적인 개안뿐 아니라 자기 성장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된다. 심봉사의 개안이 심청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연됨으로써 심봉사가 자기 성장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되면, 심청의 희생이 불러일으키는 '이효상효'의 문제, '색난'의 문제도 수그러들 수 있으며, 소설적 세련이나 인물 형상화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재효 본과 같이 극도의 탈선적 모습을 보이는 심봉사는 오히려 이러한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반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송동본과 완판은 [심학규 군]의 미학적 변모를 계승하면서도 신재효 본의 극단적으로 타락한 심봉사 형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초월계의 섭리 안에 심봉사를 다시 포섭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심봉사에게 주어지는 예언과 예지몽이다. 심봉사는 이본군에 따라 심청에 대한 태몽을 꾸기도 하고,<sup>55)</sup> 심청이 떠나기 전날 꿈을 꾸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안씨 맹인과의 결연을 통해 심봉사는 심청과의 재회를 예지하는 꿈을 꾸다. 이 점은 심봉사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든, 긍정적으로 그려지든 심봉사가 천륜으로 심청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심맹인 군] “이 때의 심맹인니 하로밤 꿈 이러 안저 심청아 심청아 불으면 서 일은 말이 오날밤 꿈을 꾸이 고이하고 맹낭하다 우리 집안 사면으로 체운 이 돌널더니 난대없는 선관 두 분이 공중으로 내려와 날다려 일으기를 옥황상제 명으로 심맹인 딸 심청이을 지금 다려갈 거시니 과도이 설워이 말고 목숨을 보전하라 하고 평명 일으기에 꿈의도 하고 놀래와 선관게 애결하여 일

55) [심팽규 군]에서는 모든 이본에 걸쳐 부부가 함께 태몽을 꾸다.

은 말이 암 못보난 병신이 딸 한나만 업사오면 이 병신이 사러날 길 전혀 없사오니 선관의 덕을 입어지이다 천만번이나 애걸하되 종시 듯지 아이하고 선관의 이른 말이 천명이라 무가내라 하고 심청이 불으면서 대성통곡 우난 말이 울다가 정신이 아득하야 놀래여 꿈을 깨여” <박순호 낙장 50장본, 404~405쪽>

[심학규 군] “삼산을 다다날서 역군들? 효상군이 슈렴초로 더러 안좌 장사의논 분분할 제 산상을 중 하나 니려오되 세디씩 갓철 독장의 자듀 바랑 물너며고 허늘기려 니려오셔 좌등에 문안하고 동용이 하는 마리 소성은 도봉암등으로 두로 두로 단이드가 심봉사 망극함을 풍편에 잠간 듯고 문상초로 앓사오노 산디로 말할진던 저 산으로 완을 두고 이 봉으로 듀룡 삼아 극진이 장사하면 옥녀 아니 분명하고 제왕덕이 분명하니 불언간에 황후 나셔 심씨에 그룩한 득 일국의 쯔쨌하리이드” <김광순 30장본, 123쪽>

첫번째 인용문은 심봉사가 심청이 떠나기 전날, 자신의 꿈을 심청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심맹인 군]에서는 선관이 꿈에 나타나 옥황상제의 뜻으로 심청을 데려갈 것이니 심봉사에게 과도히 서러워말고 목숨을 보전하라고 직접 충고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심학규 군]의 절반의 이본에 나타나는 산소지시 삽화이다.<sup>56)</sup> 꼭씨 부인을 장사지내려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신승이 나타나 풍수지리를 보아 장사지낼 자리를 정해주고는 ‘황후가 날 자리’라고 예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꿈과 예언이 나타나는 이본군이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심맹인 군]과 [심학규 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꿈과 예언은 심청이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는 비극적 상황에 출현하여,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초월계가 심봉사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심봉사의 탈선이 심화되는 신재효 본의 경우에는 심봉사는 무능한 아버지일뿐 아니라 딸을 팔아먹은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 때문에 신재효 본의 경우는 심봉사가 초월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태몽을 제외하고 전부 소거된다.<sup>57)</sup> 신재효 본에는 심봉사가 심청과 이별 전에 꿈을 꾸는 내용을 포

56) 김광순 30장본, 정명기 65장본, 김광순 41장본.

57) 태몽은 심청의 비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소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함하여 [심맹인 군]부터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심봉사와 안씨 맹인과의 결연이 빠져 있다. 따라서 안씨 맹인 결연에 나타나는 심청을 만나는 예지몽도 나타나지 않는다. 심봉사는 철저히 세속에 속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한편 심봉사가 이별 전 꿈을 꾸는 것은 [심맹인 군] 이후에 나타나지 않다가, 완판 이후에는 심청이 큰 수레를 타고 가는 꿈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심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날은 반찬이 미우 조쿠나 뉘 집 제사 지낸년 야 그 날 꿈을 쉰니 이난 부자간 천륜이라 몽조가 잇년 거시였다 아가아가 이상훈 일도 잇다 근밤의 꿈을 쉰니 네가 큰 수리를 타고 훈업시 가 뵈이니 수리라 허난 거시 귀훈 사름이 타는이라 우리집의 무삼 조흔 일리 이쓸가부다 그러치 안이하면 장승상덕의셔 가미 티여 갈난가부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졸 짐작하고 거짓 그 꿈 좃사이다 호고 진지상을 물어니고” <완판 71장 본, 233~234쪽>

완판에서 심청이 큰 수레를 타고 가는 꿈 역시 심봉사가 아버지로서 심청과 천륜으로 이어진 존재임을 부각시킨다. 서술자는 심봉사는 “철도 모르고” 반찬이 좋다며 즐거워하는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어조로 서술하면서도 심봉사의 꿈을 “부자간 천륜”으로 직접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의 도리로서 이어진 된 것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대화적 이해가 수레 꿈 삽화를 생성해 낸 것이다. 따라서 완판의 “철도 모르”는 심봉사라는 표현은 사태를 모르고 즐거워하는 심봉사를 질책하는 어조라기보다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이며, 사태를 알지 못해도 천륜은 끊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심청에게 닥칠 일을 심봉사가 제대로 예측하고 있다는 어조를 드러낸다. 심봉사는 꿈을 꾸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몽하는 데에 반해 심청은 자신이 죽을 꿈이라고 해몽하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심청이 죽지 않고 황후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심봉사의 해몽이 맞았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완판에서는 심봉사가 딸의 봉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해도 딸의 미래를 제대로 예지하고 있는 점에서 ‘아버지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완판의 이별 전 꿈 삽

화는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을 둘러싼 논란의 다성성과 상이한 응답성과 종합한 대화적 이해를 보여주는 삽화라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심봉사를 철저히 세속적으로 그리는 신재효 본을 제외하면 모든 가사체 및 판소리체 <심청전>에서 심봉사는 예언을 듣는 객체, 혹은 예지몽의 주체로 나타난다. 이는 그가 속한 현실 세계 역시 종국에는 초월적 세계의 섭리 속에 포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언과 예지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사전 제시해주어, 심청의 희생이 불려일으키는 갈등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는 환언하면 자식을 잃은 심봉사의 슬픔에도 끝이 있고 고난의 끝에 보상이 있음을 미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심봉사는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형상을 이루어, 그의 개안을 자기성장으로 보는 대화적 이해가 나타난다. 마침내 완판은 이르면 이 두 흐름이 접점을 만들어, 천도 안에서 심봉사의 자기 성장을 포괄하게 된다. 완판은 심봉사의 ‘아버지다움’에 대한 다성성을 드러내면서도, 양극의 심봉사의 형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색난’의 딜레마를 초월적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심봉사의 개안은 근본적으로 심청의 효행으로 인해 심봉사에게 시혜되는 것이지만, 심봉사가 천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혜의 타당성을 높이는 대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반성적 인식과 인물과 세계의 관계 변모

심청 중심으로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를 살피면서, 심청에게 공감하고 이에 응답하여 심청의 소망을 실현하는 내용이 이본에 생겨났을 뿐 아니라, 심청이 속한 세계까지도 윤리적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중과 심청의 관계가 <심청전>에 대한 독자의 대화적 이해를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도 살폈다. 이를 통해 대화적 이해는 이본과 이본을 비교하여 인물에 대한 형상화를 평가하는 메타적 이해일 뿐 아니라, 텍스트와 삶을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하여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의 윤리의식도 동시에

강화되는, 삶과 소설 사이의 대화이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심청전>에 나타나는 동종과 심봉사와의 관계 변모를 통해 비슷한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심맹인 군]에서부터 <심청전>에는 심봉사를 책망하는 목소리와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은 심봉사에 대한 책망의 목소리를 소거하고자 하였고,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은 심봉사에 대한 책망을 강화하면서도 그를 독립된 인물로 그리는 다성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과 동종의 관계에 비해서 심봉사와 동종의 관계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심청의 매신 행위에 대해서 ‘이효상효’의 논란은 있지만, 초기 이본부터 심청은 비범한 출천지효로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에 반해 심봉사는 초기본부터 부정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 동종이 심봉사와 한 배에 타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이 담화에 포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심봉사에 대한 동종의 태도 변화를 뺨덕어미 결연 장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맹인 군] “잇씨에 심망인은 심청이을 이별하고 쥬야로 길탄하고 죽게 되니 동종스 허기인드리 츄마 보기 민망하여 동종의 공회벗치 홀노 인난 썩덕어미 저도 쏘흔 고단하니 심망인과 동거하여 마음긋 위로하여 안심하기를 츄츄하고 썩덕어미 불너니다가 달니강하되 썩덕어미 거동 보쇼 계오리고 욕심만키로 판줄 계집이라 오십석 썩 보고 허락하니 심망인게 이말 하여 위로하니 심망닌 서룬 중의 이 말슴 반게 듯고 형 우섭 우시면 아시오오 실업은 말슴 붓자의 마시오 동종이 여러 어루신니 날만 슝툼을 칭각하여 강권하시니 언심천거 막심호오 그러하여 이은 밭서 하여스면 썩덕어미 보니시오 나지면 심심헌디 말버시나 서로 하고 밤이면 심심헌디 다른 것도 총총하고 서름이나 풀게 허온 동종의 길겨하고 썩덕 불너다가 이날 호닌하니 심망인 거동 보쇼 썩덕어미 어든 후로 썩 칭각 차차 머러지고 그리저리 슝난드” <단국대 나손문고 낙장 32장본, 388~389쪽>

[심팽규 군] “이러타시 설워 올 지 건니마을 썩덕어미 상부하고 혼자 잇서 심천이 팔여갈 지 오십석 살을 알고 썩미업시 손조 왓서 심봉사 가속 되야

오십석 살 모도 먹고 근근이 지니든이” <정문연 19장본, 51쪽>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이 떠나자 심봉사는 슬픔으로 생에 대한 의지를 거의 잃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 뽕덕어미를 중매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마을 공동체가 뽕덕어미를 중매한 것은 좋은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을 공동체의 조력이 오히려 심봉사가 심청을 잇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심팽규 군]에는 뽕덕어미가 ‘중매 없이’ 스스로 왔다는 서술을 집어넣는다. 이는 [심맹인 군]의 독자가 동종의 중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식하는 표현이다. 뽕덕어미가 ‘중매 없이 스스로 왔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서술자의 목소리인 것 같지만, [심맹인 군]에서의 뽕덕어미 결연 부분을 알고 있는 독자는 이것이 능동적 접목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한 대화화, 즉 선행본에 대한 강한 의식이 드러나는 숨겨진 논쟁인 것이다.

이어 [심운 군]은 [심팽규 군]의 심봉사에 대한 긍정적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 심청 관련 삽화를 확장하면서 심청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는 삽화, 내면을 그리는 서술이 발달한다. 그런데 동시에 동종에 의한 박대 삽화가 나타난다.

[심운 군] “스정읍고 몹실 집에 효녀 심청 물나보고 팔세가 조심하다 귀찮타 오지 만나 보기 실타 누가그라 훈 술 밥을 아니 주고 모진 말노 쏘차니니 염치 닌심 심청 마음 북그럽기 칭양 읍고 슬프기 그지 업다 목이 며여 도라스며 낙누하고 도라올 제 임지갓치 모진 기난 심청을 몰야 하고 우등그려 달여드니 심청이 도라서며 업다 이 기야 너의 주인이 팔시훈덜 너조차 물냐 하나 문박게 썩 나서며 한심 짓고 낙누하니 일월이 무광홀 제 창천년들 무심홀야 병신 부친 싱각하야 이 스럼을 시알리짜 여기 저기 밥을 빌 제 이 집이난 엿혀홀고 엿션 집은 팔시하고 어션 집은 드러가니 심청이 그동 보고 비감하야 허난 말리 불승하고 추목하다 저 치주 팔시 말라 불슈록 일식이오 부모의게 효녀 심청 존잉하고 가련하다 낮분 밥을 덜어먹고 후니 쥬여 디접하니 웃지 아니 그록홀리” <박순호 19장본, 351쪽>



[심학규 군] “자고 시면 서리 앓침 춘 바람의 우물가의 안다가 물 이로 오 난 부인 음성만 간우고셔 이결하여 혼난 마리 여보시오 부인임네 이거시 어미 업난 즈식이요 젓 조금 먹겨주소 그 역시 화린이 안니릿가 화린지가의 필류여경이요 스람얼 살여주소 이려타시 이결하니 스람으로 위명하고 뉘 안니 슬혀히리 젓 잇난 여인드런 닷토와 먹여쥬니” <박순호 39장본, 360쪽>

[심학규 군] “동지서쌀 설훈풍의 남누의상 박착하고 편바가지 손의 들고 스럽 박계 니달느셔 아모리 지점히되 갈 고지 업난지라 염치 불고 무릅씨고 남 죽춘 두로 단여 호호마다 밥얼 빈니 심낭자 극진효성 뉘라셔 팔세하라” <박순호 39장, 361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동냥 박대 삽화는 심청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생겨났을 수 있으나, 동중이 심청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심학규 군]에서는 두 번째 인용문과 세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이러한 박대 삽화가 사라질 뿐 아니라 심청과 심봉사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가 모두 우호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삽화와 서술이 발달한다. 이를 통해 [심학규 군]은 동중이 심청 부녀를 돌보는 데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독자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학규 군]에는 이외에도 동중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결눈질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심학규 군] “훈창 이리 통곡홀 제 동니사람 노소업시 모와안자 공논으로 혼난 마리 불상흔 저 봉사가 강근친척 바이 업고 신체가 칠빈이요 어짓 썰이 상쳐하고 불상하고 가련하다 그 중의 뉘 잇셔 보와 쥬리 압 못보난 저 밍인니 설름 제위 이통타가 기진하여 죽기 되면 겹초상날 거신요 동니셔 안니 보면 가련흔 저 신체가 방안의서 썩그리라 그 지경얼 당코보면 죽난 니는 고사 하고 동니 인심 불칙니라 사체가 그려하니 아모리 어려와도 호호니 슈렴하여 초상장스 칠와쥬면 동니 인심 날 거신니 십시일반니라 여러 마음 엇더호오” <박순호 39장본, 358쪽>

[심학규 군]의 장례 장면에서는 동네에서 심봉사를 도와주지 않아 시체가

방에서 썩기라도 하면 ‘동네 인심이 불측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동종의 우려가 나타난다. 이는 능동적 겹목소리로 심청 부녀에 대한 동종의 충분한 돌봄이 없었다는 ‘이미 말해진 말’, 혹은 ‘앞으로 말해질 말’을 의식하는 듯한 말로 주변을 의식하고 결눈질하는 말이다. 즉 이 대목은 [심운 군]의 동냥 박대 삽화를 의식하고 있다. 나아가 [심학규 군]은 후반부에서 동종이 심봉사와의 선긋기를 확실히 하면서 심청 죽음의 책임을 심봉사에게 확실히 미루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심학규 군] “잇씨에 심봉스는 심청을 이별하고 이통을 못 금하야 여러 분 기절하니 인건동 슝드리 구완하야 살어니고 심청의 지극 효성 입석 칭효비 세우구 글 뒤 귀을 스겨시되 괄위父친양안암却爲父親兩眼暗하야 불스영결항 용국不思永訣向龍國이라 가련님별신신여可憐臨別信信語은 모우쇼쇼읍충경蓊 雨蕭蕭泣蒼經이라 하여더라 심봉스 죽근 심청 싱각하야 비들을 트러안고 시 시로 통곡하드니 일연을 지니미 심청 싱각 하난 마음 차차 머리지고 동니에 딛긴 지물 일취월중 하여간니 세간이 요부하고 일신이 편흔지라” <사재동 낙 장 33장본, 475~476쪽>

인용문과 같이 [심학규 군]에는 충효비 삽화가 처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삽화가 뽕덕어미 결연 전에 놓여 있어 심봉사의 부정적 형상을 더욱 강화한다. [심맹인 군]에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하게 심봉사가 “뽕덕어미 어든 후로 쌀 싱각 차차 머리지고 그리저리 슝난드”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심맹인 군]에는 심봉사가 “심청이을 이별하고 쥬야로 길탄하고 죽게 되니” 동종이 이를 “차마 보기 민망하여” 뽕덕어미를 중매하여 심봉사를 위로했다고 나타난다. 동종의 뽕덕어미 중매는 심봉사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심봉사가 심청을 잇는 것으로 나타나자,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은 동종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중매’를 지워낸다.

그런데 [심학규 군]에서는 뽕덕어미와의 결연 장면 이전에, 심청을 기리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충효비를 세우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때 당사자인 심봉사가 심청을 잇는 아이러니가 나타나면서 심봉사와 동종의 심청에 대한 태

도가 대조된다. 이에 더해 [심학규 군]은 ‘심봉사의 재물이 늘어가고 일신이 편해진다’는 표현을 덧붙인다. 그런데 이 시점은 심봉사가 뽕덕어미와 결연하기 전이기 때문에, 심봉사는 [심맹인 군]에서처럼 심청과의 이별의 고통을 뽕덕어미와의 만남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재물로 인해서 심청의 부재를 잊게 되기 때문에 [심학규 군]은 심봉사가 심청을 팔아먹은 듯한 어조를 [심맹인 군]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심학규 군]의 충효비는 심봉사와 공동체 사이에 심청 죽음에 대한 책임 공방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삽화이다. 환언하자면 [심학규 군]은 충효비 삽화를 통해서, 동중에게 가해지는 심청 죽음의 방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잇찌의 심봉스는 심청을 일은 후의 모진 목숨 죽지 안코 근근부지 지닐 적의 도화동 스람더리 심청 효성 감동하여 쥬아의 옛 일갓치 강두의 비를 세고 출천호 그 효형을 낫낫치 시겨시니 비문을 귀경하면 스람마다 낙누헌다 채중낭이 엽서씨니 절묘호스 늬가 썰고 진조 양공 가 년후의 타루비가 또 심겼다 동중 스람더리 막긴 전곡 식이하여 의식을 이워주니 심봉스 세간소리 요족키 되어스나 즙고로 식세승의 영웅 열스 엽서씨든 심봉스가 견디것나 동니 과부 잇난 집을 공연니 츠져 단여 선우숨 풋증담을 무흔이 흐난구나” <신재효 본, 31쪽>

[심학규 군]의 심봉사를 타락한 인물로 그리는 신재효 본에도 타루비가 등장하는데, 심봉사는 [심학규 군]에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처음에는 충효비를 안고 우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신재효 본에서는 타루비 삽화 전후에 심봉사의 슬픔이 그다지 서술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루비 삽화에 바로 이어 과부 집을 다니며 풍담을 하는 심봉사를 묘사하여 마을 공동체의 심청 유지(遺志)의 의지에 반하는 심봉사를 질타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충효비, 타루비는 심청을 잊어가는 심봉사와 심청을 기리는 동중의 확연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동중의 심청에 대한 사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봉사를 질책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 그런데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에는 이렇게 심봉사에 대한 공박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심봉사에 의해서 심청 죽음에 대한 동종의 책임이 제기되기도 한다.

[심학규 군] “심봉사 귀가 뭉커 문을 차고 쫓차 나와 두 주먹을 불거쥐고 짱을 광광 쭈다리며 이 몹실연 심청아 날 바리고 어디 가나 돈도 실코 쌀도 실타 자식 파라 눈을 뜨면 어디 가서 용납하며 여보쇼 동니 사람 잡아 가는 놈을 그저그저 두고 가난잇가 관가의 보장하여 법을 알기 하여주오 이고 답답 나 죽짓니 아무리 그러흔들 효승으로 하는 일을 뉘라서 말유히리” <사제동 낙장 33장본, 467쪽>

“네 이놈 상놈덜아 장시도 조커니와 사름 사다 죽이여 제하난디 어디셔 보왔난야 하날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발근 마음 양화가 업건년야 눈 먼 놈의 무남독녀 철 모르난 어린아히 날 모르게 유인하여 곱술 주고 산단말가 (중략) 니 몸으로 디신 가미 엇더하야 여보시오 동니 사람 절언 놈덜을 그저 두고 보오” <완판 71장본, 235쪽>

[심학규 군]의 모든 이본에서 심봉사는 선인들을 막아달라며 동종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심운 군]의 동냥 박대 삽화의 흔적을 지우기 노력하고 심청 죽음의 책임을 심봉사에게 묻는 [심학규 군]에서, 심봉사의 목소리를 통해 동종이 심청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점이 은연중에 다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다성적 목소리는 완판의 이별 장면까지 이어져 심봉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인들을 막고자 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심학규 군]에서는 심봉사가 선인들의 인신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고, 완판에서도 이 점이 암시되어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 없이 법의 힘을 빌려 선인들의 인신매매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은 적극적으로 심봉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궁극적 이유는 물론,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서사구조에 내재한 <심청전>의 서사내적 논리 때문이다. 심청의 인당수 행을 막는다면 기존의 <심청전>의 서사구조는 해체된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의 적극적인인

조치의 부재는 동종의 윤리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마침내 완판에서는 장승상 부인이 실제 서사세계의 인물로 출현하여 심청에게 공양미 제공 제안을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심청의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sup>59)</sup> 그리고 완판에서는 뽕덕어미 결연에 앞선 충효비, 타루비 삽화가 사라지고, 동종이 심봉사를 공박하는 모습도 사라진다. 완판에서는 심청이 떠난 후에 장승상 부인이 망사대를 건설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의 타루비 삽화의 심청 유지(遺志)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동종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은 회피한다.

이는 완판이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본군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재효 본과 함께 ‘시비 따라’가 나타나기 전의 장승상 부인 계열에 속하는 송동본은 심봉사에 대한 동종의 태도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송동본은 [심팽규 군]과 [심운 군]에 이어 심봉사를 긍정적인 아버지로 형상화하려는 편향을 보이는 이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송동본에서는 심봉사와 마을 공동체 사이의 공방보다는 연대가 두드러진다. [심맹인 군]에서는 심청에게 의복을 적선하는 부인들의 시선을 빌어 무능력한 심봉사의 질책하는 어조가 나타나지만, 송동본에서는 심봉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동종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송동본에서는 충효비 및 타루비가 완전히 소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봉사가 심청을 잊었다든가, 편안히 지낸다든가 하는 표현이 없으며 심청이 떠난 후 심봉사가 ‘모진 목숨 근근 부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송동본에서는 심봉사가 긍정적인 아버지로 형상화되면서 마을 공동체와의 대립각이 사라진다. 오히려 귀덕어미와 같은 동종의 인물로 등장하여

---

58) 이를 대신할 서사구조를 창조하는 것은 이본 생성 활동으로는 부족하다. <심청전>의 서사구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부모를 위해 자신을 파는 미혼 여성의 모티프는 새로운 세계 경험을 담아낼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기에 <채봉감별곡>의 채봉, <무정>의 박영채, <탁류>의 초봉 등을 통해서 이어진다.

59) 정충권도 <심청전> 이본들에서 점차 장승상부인의 역할이 첨가되어 간 것은, 공동체가 무심할 수 없다는 향유층의 수용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정충권, 「판소리 작품에 나타난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회, 2021, 37쪽.

심봉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그려진다.<sup>60)</sup> 또한 심봉사는 심청에게 좋은 아버지이자 봉양 받는 것을 미안히 여기는 인물로 그려진다.

“아버지 칩지 안소 오작히 시장하며 기다리기 오작할가 즈연이 더덕엿소  
심봉스 거동 보소 문 펼적 마조 열고 두 손을 덤벙 쥐고 손 실이지 불 쏘여  
라 발도 차지 어로만져 셔를 차며 눈물 지고 흐논 말이 이달도다 너의 모친  
무송하다 나의 팔즈 너 시겨 밥을 비려 먹고 스즌 말가 이려흔 모친 목숨 구  
차이 살아느셔 주식 고심 시기논고느” <경판 20장본, 160쪽>

이렇게 송동본은 전반부에 심봉사가 심청의 노고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후반부에서도 심봉사를 외설적인 모습으로 희화화하지는 않는다. 송동본의 심봉사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송동본은 [심학규 군]의 웃음을 유발하는 목욕 삽화는 수용하고 있어 심봉사의 독립적인 인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송동본의 특성은 이후의 이본에도 이어진다. 완판은 송동본에 나타나는 귀덕어미의 초혼 장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심봉사가 심청을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꼭씨 부인의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은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완판은 송동본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봉사와 대조하여 동중이 자신들의 윤리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의 충효비나 타루비 삽화를 소거한다. 대신 장승상 부인의 망사대 삽화를 넣어 동중의 심청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완판은 황성 가는 길에서 목욕 삽화를 유지하여 심봉사의 독립적 성격만 드러낼 뿐 아니라, 방아타령도 나타나면서 심봉사에 ‘아버지다움’에 대한 다성적 문제제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송동본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동중과 심봉사의 관계는 하나의 이본 내에서도 다성성을 보일 뿐 아니라, 심봉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이본군의 흐름 사이에서도 다성성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응답이 연쇄적으로 오고가면서 상

60) 송동본에서는 귀덕어미가 내달아 사갓밥을 짓고 초혼을 하며, 심봉사는 귀덕어미에게 아기를 맡기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한 대화적 관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장승상 부인 계열의 초기에는 심봉사에 대한 공방(신재효 본)과 연대(송동본)가 교대하다가 완판에 이르러서는 심봉사에 대한 노골적 질책이 누그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와 심봉사의 관계가 서사 세계 내에 동종과 심봉사의 관계, 서술자의 심봉사에 대한 태도에 투사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일으키는 웃음의 성격도 심봉사에 대한 수용층의 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심봉사와 관련된 웃음은 고통의 상황을 타개하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웃음, 약자인 심봉사를 포용하는 웃음이 있는 한편, 심봉사의 장애를 대상화하는 조소, 약자에 비하여 우월함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웃음도 있다. 이들은 이본군에 따라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웃음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비극과 고통에 대한 감각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심청전>의 미학이 변모하면서 완판 이후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고 웃음은 많이 순화된다.

이는 아마도 독자를 표상하거나 독자의 욕망이 투사되는 동종이 심봉사에 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윤리적 우월성을 과시했을 때 독자에게 일어난 심리적 반작용, 즉 반성적 인식에 기인했을 것이다.<sup>61)</sup> 그리하여 심봉사를 비난하는 기능으로 타루비 삽화를 사용하는 대신, 신분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으면서 약자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장승상 부인의 서사 세계로의 등장 이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덧붙여 장승상 부인의 서사 세계 출현을 여성 주변 인물의 출현과 더불어 논한 바 있다. 여성 인물들은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식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자비, 연민, 온유, 모성과 같은 부드러운 힘으로 폭력적 현실을 감싸 안는 식으로 대항한다. 옥진부인, 귀덕어미, 장승상 부인이라는 모성적 인물 인물이 새로 창조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 역시 이러한 힘의 확대가 텍스

61) 정충권은 늘부 박 사설의 확장 현상이 가학적 보상심리, 그리고 그 이면의 적개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학의 심리만이 자리잡고 있을 때 이는 청중에게 오히려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학이 가져다주는 쾌감 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반작용 내지는 가학에 대한 반성적 인식도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충권, 「늘부박사설의 전승양상」, 『흥부전 연구』, 월인, 2003, 253쪽.

트 내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은 심청의 분신처럼 반복적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봉사에 대한 동종의 공박에 대한 향유층의 반성적 인식도 이러한 심청 이미지를 독자가 텍스트 외부에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청전> 이본 변모에 있어서 완판 중심으로의 경사는 약자와 악인, 부족한 인물까지도 포용하는 심청을 닮은, 향유층의 높아진 윤리적 의식에 기반한 대화적 이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심청과 심봉사 두 인물을 둘러싼 대화적 이해는 결국은 모두 심청의 희생이 불러일으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핵심적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크게 인물과 주제 이해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 양상을 통해서도 살폈듯, 작품의 이해는 단지 소설이라는 대상의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대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와 의의를 먼저 살핀 뒤,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IV.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설계

### 1.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

II장에서 살펴보았듯 대화는 화자와 청자, 대화의 화제, 맥락이 개입된 상호작용이다. 현재의 학습자에게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설계하는 본 장에서는 대화에 개입하는 이 요소들 가운데 청자(독자)인 현대 학습자가 놓인 맥락의 변모를 고민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대화의 요소 가운데 화자(작자)와 청자(독자), 대화의 화제(소설의 인물과 주제)를 이본 간의 관계라는 대화 맥락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 외의 텍스트 외부적인 맥락을 재구성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하여 본고는 이본과 이본이라는 텍스트 간 맥락을 중심으로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구성하였다. 대화적 이해 교육을 고려할 때도 학습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아직은 배워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동원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본과 이본의 맥락에서 고전소설을 이해해보는 것이 대상의 이해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볼 문제는 연구자이든, 교사이든, 학습자이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현대인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당대의 향유층은 이미 서로 다른 이본군에 대해서 많은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심청전>을 포함하여 여러 판소리에 담화 층위가 다른 겹목소리가 나타난다는 점만 보

1) 고전소설은 그 대부분이 작가를 포함한 서지 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다. <홍길동전>이나 <창선감의록>과 같이 작가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작가 스스로가 자신이 작가라고 밝힌 자료가 없어 작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작가가 밝혀진 <구운몽>이라 하더라도 이본이 다양하고 그 결말은 큰 편폭을 보일 정도로, 이본 파생이 거듭될수록 저자성이 희미해진다. 특히 필사본에서의 작가의 존재성은 필사를 통해 많은 이본이 파생될수록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글 소설의 경우에는 특히 두드러진다. 한글 필사본 필사자의 원(原)저자 의식 약화에 대해서는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筆寫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89~294쪽 참조.

아도 창작자는 청자가 이미 여러 다른 레퍼토리를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심청전>의 변모를 살펴보면 이미 각 이본군의 개작자들이 자신 이전의 거의 모든 이본군을 참조하면서 개작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당대의 개작자는 <심청전>이라는 소통의 장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 참여의 장 안에서 <심청전>의 다양한 레퍼토리, 개별 창작들과 그들의 성향과 배경, 특수한 청중과 연행 상황들의 요구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전문 연구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전문으로 하는 이본과 이본을 둘러싼 맥락의 완전한 재구는 불가능하다. 즉 현대인의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고전소설이라는 소통의 장에 당대의 개작자와는 아주 다른 맥락에 놓여 있으며, 환언하면 현대의 해석학적 지평에서 이들의 소통을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과거의 문학문화와 소통하는 것이지만, 당대의 향유층과는 다른 지평에서 작품과 소통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해석학적 지평의 차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자 개인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전소설을 대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본과 이본이라는 텍스트 사이의 맥락에 중점적으로 주목을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내용과 깊이의 대화적 이해가 구성될 수 있다. 이미 해당 작품과 이본, 그리고 그 작품군이 속한 장르나 연계된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구성된 대화적 이해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기대지평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본의 비교를 통해 고전소설을 대화적

2) II장과 III장의 여기저기서 논한 <심청전> 이본 및 이본군 사이의 연관 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여 언급하자면, [심팽규 군]은 [심맹인 군]을 이어받으면서, 초두의 삽화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심봉사의 형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심청 모친의 죽음 시기, 심청의 환세 시기 등을 변모시켰다. [심운 군]은 직접적으로는 [심팽규 군]을 이어받으면서도 [심팽규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심맹인 군]을 받아들인다(구체적 내용은 김효정,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b). [심학규 군]은 직접적으로는 [심운 군]을 이어가면서도 [심운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심맹인 군]의 심봉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받아들인다. 신재효는 직접적으로는 [심학규 군]을 이어가면서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의 심청 투신 장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송동본은 [심학규 군]을 이어가면서도 심봉사에 대해서는 [심운 군]의 태도를 이어간다. 완판은 신재효 본과 송동본을 모두 참조한다.

으로 이해하는 것이 풍요로운 이해일 수는 있으나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아  
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중등학습자라는 주체 요소를 고려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  
해의 구도는 학습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짜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당대의  
지평에서 고전소설을 알고 있는 독자는 존재할 수 없다. 한편 학습자에게 전  
문 연구자만큼의 이본에 대한 지식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학습 독자의 경우는  
고전소설 작품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아예 없을 가능성  
도 많다. 다만 해당 고전소설이 정전에 가까울수록 많은 학습자가 그 작품의  
이본을 실제로 읽어보지는 못했더라도 널리 유포되어 있는 ‘문화적 기억’으  
로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3)</sup> 동화나 각색된 매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고전소설의 스토리를 알고 있을 수 있으며<sup>4)</sup> 어디로부터인지는 그 앞의 기원  
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의 형태로 이를 체득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비록 작품에 대한 많은 지식  
및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문화적 기억이 전혀 없는 외국인과  
는 분명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등 학습자 대상의 고전문학교  
육의 과제라고 한다면, 문화적 기억이 미미한 학습자의 경우도 여러 이본을  
비교하여 고전소설을 읽는 행위는 반복과 차이를 느끼는 즐거움을 주면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sup>5)</sup> 게오르크 짐멜은 「문화의 개념과 문

3) 얀 아스만은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소통적 기억과 의미의 전수과정에 의한 문  
화적 기억을 구분한다. 소통적 기억은 3~4세대, 80~100년 정도의 시대지평에서  
가능한 소통적 기억으로, 개인의 역사 경험과 같이 기억 공동체 내에서 비전문적  
인 시대적 증인이 이 기억을 운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화적 기억은 완전한  
과거 속의 사건으로서 확정적 객관화와 상징적 코드화를 거친 매개물을 통해서  
전달되며, 그 운반자는 전문적인 전통 전달자들이다(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1st Englis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그렇게  
보면 고전소설의 이본이 현재진행형으로 파생되던 시기의 수용 주체에게 있어 여  
러 이본들에 대한 얇은 소통적 기억에 해당한다. 현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고전  
소설의 여러 이본들은 소통적 기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기억의 대상이다.

4) 1990년대 이후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작업에 대해서는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  
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참고.

화의 비극』이라는 글에서 문화 개념을, 흐르는 것과 완결된 것의 변증법적 통일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계곡에 흐르는 물과 그 물 속에 놓여 있는 수많은 암석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암석은 건축물, 미술품, 문학 작품 같은 문화적 생산물이며, 이 암석들은 때로는 흐르는 물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거나 때로는 물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흐르는 물은 문화의 통시적 특성을 뜻한다면 정지된 암석은 문화의 공시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학습자가 이본을 읽는 것은 이제는 흘러가고 없는 물을 암석의 깎인 모양과 여러 암석이 쌓인 형태를 통해서 거꾸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보면 과거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을 주체가 과거로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가 된다.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흘러간 물은 망각될 뿐이다.

이처럼 문화적 기억을 생성하고 심화하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암석 자체에 대한 이해와 암석을 통해 물의 흐름을 따져본다는 두 가지 구도를 가진다. 먼저 대화적 이해는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암석의 종류와 속성에 따라서 깎이는 방향이나 양상, 속도가 다르듯이 암석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물의 흐름은 파악할 수가 없다. 즉 작품을 통한 문화의 이해는 작품 자체의 이해에 선행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학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과거의 문화를 부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첫 번째 구도는 고전소설의 주제나 인물 이해를 심화하는 것에 있다. 둘째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암석의 변모를 물의 흐름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흐름 속에서 변하는 작품의 변모가 가지는 의미를 작품 외부의 어떤 맥락의 변모와

5) 이런 종류의 반복은 의례와 마찬가지로 안정감, 충분한 이해,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알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오는 자신감 등을 가져다준다(린다 허치언, 손종흠 외역, 『각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7, 244쪽). 한편 차이는 자신이 이미 해당 작품에 대한 기대 지평에 의해 형성된 기대와 요구를 배반하면서 놀람과 참신함의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6) 이상 집멜의 문화 개념 비유에 대한 해석은 최문규, 「문화, 회상 그리고 문학」, 『인문언어』 2, 국제언어인문학회, 2001, 69쪽 참조.

관련지어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작품 외부의 맥락보다는 이본과 이본이라는 작품군 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당대의 수용층을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당대에 대한 상당량의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대화적 이해의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고전소설을 통해 당대 수용층이 어떠한 소통을 하고자 했는지, 그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발산적으로 연결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의의

### (1) 인물과 주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획득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이본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발생시킨 작품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에 주목하여 이본 간의 대화와 변모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메타적 이해 활동이다. 이때 메타적 의식은 이본 파생을 일으키는 '개작 의식'을 추측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개작자가 메시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는 항상 이본이라는 소설 형식을 통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대화적 이해는 언제나 소설의 형상화 방식의 이해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문화적 기억을 '생성'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는 다른 장르적 특질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현실을 작품에서 드러낸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작품의 이해를 해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심청전>을 읽고 학습자는 용궁과 같은 초월계로 나타나는 고전소설의 환상성이 '말도 안 된다'라든가, 심청의 외모 묘사에 대해 조선 후기의 사회는 외모로 여성을 판단하는 차별적인 사회였다는 인상적 반응에서 감상을 끝낼 수도 있다. 물론 독서를 하면서 여러 곳으로 가지를 뺀 사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비판적 사고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에서는 천재적 발상보다는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식적이고 생산적인 탐색을 위계상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천재성에 기반한 창의적 이해나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능력에 기반하여 의식적인 탐색을 게을리하지 않는 과정은 천재에게도, 일반인에게도 모두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본을 함께 읽는 대화적 이해의 방법은 학습자가 처음 접하는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서사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작품에 대한 깊은 수렴적 이해가 발산적 이해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다. 특히 대화적 이해는 인물과 주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작 의식을 살필 수 있으므로 고전소설의 인물과 주제 이해에 방법적 의의가 있다.

## (2) 고전소설의 속성에 기반한 문학문화에의 참여

통상 고전소설은 근대 이전의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전이 될 만한 고전(古典, classic)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의미도 있다. 고전소설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대화를 열어주는 classic으로서 고전인가 하는 답은 그 내용뿐 아니라 소통의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당대의 독자에게 대중문화였던 고전소설은, 하나의 작가의식이 표출된 고정된 출판물이 아니라 대중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유동적 장이었다. 이 소통의 장을 통해 고전소설 이본의 개작자들은 자신이 읽은 이본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강화하는 수용 활동을 하거나 이본의 내용을 소거하고 대체하는, 일련의 비평적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을 알아가고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산물을 비교하여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고전소설이 획일적 이념을 교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고전소설을 여러 이본을 통해 보면 독자이면서 작자인 개작자들이 대화적 이해를 어떻게 실제로 창조적으로 수행하였는지,<sup>7)</sup>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개작을

7) 앞서 살폈듯 바흐친은 동의도 대화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적인 대화가 언제나 이전의 것과 다른 것, 대척되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것 역시 어떤 담론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틀로 편입시켰다는 점에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 없이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의 특성에 맞는, 장대한 시간 감각<sup>8)</sup>을 가지고 고전소설을 이해해보는 교육내용이 소설교육에 마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문학의 역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교육 내용은 문학사 교육인데, 지금까지의 문학사 교육은 거시적 관점에서 특정한 양식과 장르의 교체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가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해오고 있다.<sup>9)</sup> 이와는 달리 이본의 생산과 수용의 역사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한 사회의 실재를 한 작품군에 대한 대화를 통해 구성해나간 역사이며, 독자들이 자신의 창조성을 객관화해나간 미시적 차원의 문학사이자 문화사라고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을 대화적으로 이해할 때 의미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되고 합의되며 전승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대화적 이해는 고전소설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가치의 이월과

---

서 참된 대화이며 그 개인이 그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에서 체험했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다.

- 8) 장대한 시간, 대(大)시간은 바흐친의 용어으로써 작품이 당대뿐 아니라 창조된 시대 이후에 그 의미에 더 풍부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서 작품은 여러 시대, 즉 대시간 속에 산다고 하였다(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470~473쪽). 본고에서는 문학 외부의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문학의 인물이나 주제, 형상화 방식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군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감각, 즉 한 작품이 진화한다면 그 이유와 영향, 선후 관계 등을 작품 내부의 단서에 근거하여 찾을 수 있는 감각으로 재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9) 문학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문학사란 문학의 내재적 역사, 다시 말하자면 장구한 역사나 연대기적으로 구분된 과거 문화의 한 특정 시기를 지배했던 특정한 양식(시, 희곡, 소설), 장르(서사시, 희곡, 전원시), 형식(푸념시, 소네트, 송시)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문학의 총체적 윤곽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학사란 문학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자족적인 문화 활동을 기술하는 문학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축적된 글로서의 문학이 축적된 일련의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의 문제를 추적하는 비평적 작업도 문학사라는 용어는 역시 포함하고 있다.”(프랭크 렌트리키아·토마스 맥로프린 공편, 정정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326쪽) 이러한 문학사 정의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모하는 현상과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치의 이월은 작품의 주제나 서술방식뿐 아니라,<sup>10)</sup> 고전소설이 소통된 방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고전소설의 이본 변모는 선행 이본을 대화적으로 이해한 현상으로서, 소설을 둘러싼 대화적 이해를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이본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고전소설 이본의 변모를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설과 그 소통방식에 대한 일종의 메타적 이해, 시간 감각을 개입시킨 이해이며 선조들의 문학문화를 경험하고 그에 참여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소설의 대화성과 소설 수용의 윤리성 경험

원칙적으로 대화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소설을 읽을 때에는 독자는 대면하고 있지 않은 발화자의 목소리를 상상하여 대화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고전소설의 독서 상황에서는 독자는 흔히 저자를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사람으로 상정하곤 한다.<sup>11)</sup> 그러나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약 300년에 걸친 상당히 두꺼운 문화의 층을 가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사람에 대한 상상은 한계가 있다.<sup>12)</sup> 저자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유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이본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예컨대 두 이본의 개작자는 선행 이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더 말하고 싶어 했는가, 그 둘은 어떠한 수신자를 상정하였는가, 소설의 어떤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했는가, 같은 문제나 인물에 서로 다른 어조를 보인다면 각 개작자의 목소리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등의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목소리의 이해, 어조의 탐지는 다

10) 고전문학교육은 주제와 표현 모두에서의 학습자의 가치 이월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고전표현론’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과거의 언어 관습의 원리를 오늘날의 교육내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엄밀히는 내포 작가라고 할 수 있다.

12) 조선 후기라고 지칭되는 역사적 시기가 미국 역사보다 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선 후기를 동질한 시기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문화적 동질성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 전에 문화사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피터 버크, 조한욱 역,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8, 45~59쪽 참고.



른 시각과 세계관을 차이를 발견하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sup>13)</sup>

이본을 통한 대화적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조선 후기 사람도 하나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서로 다른 목소리와 어조에서 대화 참가자들의 화제(話題)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태도의 문제까지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의 다양한 잠재적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3의 눈을 가져본다는 것은 이본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발생시킨 이유에 주목하여 서술과 인물 형상화의 변모를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메타적 이해 활동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 이때 메타적 의식은 이본 파생을 일으키는 ‘개작 의식’을 추측하는 활동인데 언급했듯, 특정 이본의 개작 의식은 다른 이본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이본을 함께 읽을 경우, 독자는 단순히 인물에 공감하거나 서사구조를 따라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개작자의 다양한 텍스트 내적인 전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동시에 그 전략의 지향과 관련해서는 텍스트 외부의 가치 평가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심봉사의 형상화는 그를 긍정적으로 그려가려는 흐름과 부정적으로 그려가려는 흐름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전승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미학적으로 변모되고 이본의 다성성도 더욱 높아졌다. 다양한 견해 사이의 대화는 등장인물에 대한 평면적 이해, 즉 선악의 흑백논리를 넘어서서 인격을 다면화해보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자는 소설의 대화성을 파악하면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향

---

13) “최초의 원작이 있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개작했다고 할 때 그 이본은 원작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원작과 이본의 상호 관계는 독자로 하여금 제3의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즉 원작의 시각과 이본의 시각,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중략) 원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그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갖는다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가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설의 이본은 이 점에서 그 나름의 교육적 의의가 있다. 사고의 다층성 내지는 다면성은 따지고 보면 세계를 보는 눈에 관련되는 것이고, 동시에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상상력의 계발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김종철,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 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356~357쪽.

유층의 심리나 의도도 구성해볼 수 있다. 해당 이본의 개작가가 개작을 통해 표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대화의 화제에 응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파악해본다는 점에서 이는 작품의 완전성, 정합성을 따져보고 이본을 이본 간의 우위를 따져보는 행위를 넘어 한 작품군을 통해 향유층이 추구한 가치를 파악하는 행위이다.

고전소설은 다양한 이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천재적 작가에 의한 ‘오직 하나’의 완벽한 텍스트에 대한 환상을 깨어준다.<sup>14)</sup> 우리가 공동 창조된 고전소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소설의 대화성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소설 수용의 윤리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이다.

### 3.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방법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과 관련하여 고전소설 한 편을 읽는 것도 어렵는데 여러 개의 이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어렵다는 것이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겠지만, 학습자의 수준과 교실의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이본을 통해서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물 형상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본의 동일 장면을 활용하여 <흥부전>이나 <춘향전>의 인물을 이해해보는 활동이라든가, <구운몽>이나 <토끼전>과 같이 결말이 다른 이본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게 하는 활동들은 이미 교과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읽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대소설을 여러 편 읽고 상호텍스트성을 구성하는 것보다 고전소설의 이본

---

14) “<춘향전>은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직까지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이본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문작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 독자들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 <춘향전>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이본들을 상당수 파생시켰는데, 교재로 오랫동안 쓰인 <열녀춘향수절가>(84장본)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산물인 것이다. 김종철, 「가치 이월과 창조 잠재력을 위한 평가-고전문학교육과 평가」, 『문학과 교육』 8, 문학과교육연구회, 1999, 280쪽.

을 읽고 대화적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수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본은 어디까지나 같은 작품군의 이본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같은 서사구조를 따라가기에 독자가 새로운 이본을 읽을 때 느낄 인지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서로 다른 작품을 비교할 경우는 상이한 작품 속에서 공통점을 찾은 후 또 다시 주제적으로 상승된 변별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sup>15)</sup> 고전소설의 이본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요소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습목표에 따라 변별점만 찾으면 된다. 특히 인물과 서사 구조는 상당히 공통적이므로 서술의 차원, 인물 형상화, 초점화 장치, 시간 구성, 주제 구성 등에서만 변별점을 찾아 각 이본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 변주했는지에 중심을 두면 된다.

#### (1)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모형과 절차

교수·학습의 모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 학습자, 과제, 상황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sup>16)</sup>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을 대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과제의 속성을 가장 주되게 고려하여,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모형으로는 학습자가 이본 간의 차이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도록 하는 ‘탐구 학습’<sup>17)</sup>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탐구학습에 앞서서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의 속성, 고전소설의 소통방식과 대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대화적 이해의 원리

15) 현대소설에서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동일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이해할 때 공통점을 찾을 때보다 변별점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가 여러 동위소 즉, 초점화 장치, 인물 구도, 서사 구조, 주제 등을 설명해주어야 했고, 비평문을 사례로 제시하는 등의 처치를 해야 했다(고은정,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07~108쪽).

16)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87~88쪽.

17) 브루너에 의해 창안된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탐구를 통해 스스로 답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모형이다(이홍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36~38쪽).

인 텍스트의 다성성과 응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 교수법’을 통해 교사가 여러 이본의 한 장면을 모아 대화적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주거나 전문 연구자의 해석 사례를 제시하여 탐구학습에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즉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안내된 탐구학습’이 요구된다.

직접 교수법의 절차는 ‘설명하기’-‘시범 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로 이루어지는데<sup>18)</sup> 대화적 이해 교육의 경우는 이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활동하기’가 ‘탐구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한편 탐구학습은 크게 ‘질문 확인하기’-‘가설 만들기’-‘자료 수집하기’-‘가설 평가하기’-‘일반화’-‘탐구 과정의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sup>19)</sup> 그러나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를 위한 탐구학습 단계로는, 직접 교수법과 탐구 학습 모형을 결합한 ‘안내된 탐구 학습’ 단계로서 ‘문제 확인하기’-‘가설 설정하기’-‘대화적 이해 구성하기’-‘대화적 이해 평가하기’를 제시한다.

과정	문제 확인하기	가설 설정하기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대화적 이해 평가하기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 분위기 조성하기</li> <li>• 학습 절차 확인하기</li> <li>• 고전소설의 속성 및 이본 개념 이해하기</li> <li>• 교사의 시범을 통해 대화적 이해의 원리 이해하기</li> <li>• 탐구 목표의 제시</li> <li>• 탐구할 이본의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의 다성성을 활용하여 이본 비교하기</li> <li>• 가설 설정하기</li> <li>• 가설 진술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의 응답성 탐색하기</li> <li>• 자료 분석, 평가하기</li> <li>• 가설 검증하기/규칙성 발견하기</li> <li>•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기</li> <li>•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하기/토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화 가능성 탐색하기</li> <li>• 일반화하기</li> <li>• 대화적 이해 평가 및 정리하기</li> </ul>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위한 탐구학습 단계><sup>20)</sup>

표에서 보듯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료를 분석

18) 최미숙 외, 앞의 책, 88~89쪽.

19)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k, 임청환·권성기 역,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 시그마프레스, 2006, 326쪽.

20) 최미숙 외, 앞의 책, 102쪽의 탐구학습 모형 참조하여 변형하였다.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일반적 탐구학습 모형에서는 자료를 모으는 작업도 학습자의 과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에서는 과제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교사가 이본을 어느 정도 한정해줘야 한다. 또한 탐구학습의 비계(飛階)가 될 만한 삽화 출입 표나 담화 유형 분석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21)</sup> 또한 학습자가 가설의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설의 검증을 위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찾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특히 학습자들에게 이본을 비교하는 활동의 위계화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탐구하는 내용의 구조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외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내용과 목표에 따라,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이라는 대화적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제 이본 비교를 통해 검증하며, 이를 통해 구성된 대화적 이해를 평가하는 과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 (2) 이본 비교 및 분석 활동의 위계화 원리

여기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이본 간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21) 아래와 같이 채워진 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자신의 가설의 검증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찾아 스스로 표의 행과 열을 구성하여 표를 채워보게 할 수도 있다.

이본 및 이본군	심맹인 군	심팽규 군	심운 군	심학규 군	신재효 본	송동본	완판
심청 모 죽음 시기 단축	X	O	O	O	O	O	O
동냥 박대	X	X	O	X	X	X	X
이별 전 꿈	O	X	X	X	X	X	O
개안주	O	X	X	X	X	X	X
용궁에서 삼 년	X	△	O	O	O	O	O
목동	O	△	X	X	X	X	X
목욕	X	X	△	O	O	O	O
안씨맹인 해몽	X	O	O	O	X	O	O
장승상 부인 삼백석 제안	X	X	X	X	X	X	O
방아 타령	X	X	X	O	O	X	O

(△는 일부 이본에만 나타나는 경우)

활동의 위계화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본 비교시의 첫 번째 위계화 원리는 부분에서 전체의 비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계화 원리는 특히 ‘문제 확인하기’와 ‘가설 설정하기’ 단계에서 중요하다. 교수자가 교육 목표에 따라 기본이 되는 이본을 선정하여 학습자가 한 편을 다 읽게 한 후에는, 여러 다른 이본들의 주요 장면을 먼저 읽도록 안내하여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사의 단위를 나누어 보다 긴 장면을 읽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장면의 서술이나 형상화 전략의 파악을 위해서 짧은 장면을 읽을 수도 있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부분의 이해에 주목해서 전체의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활동을 위계화한다.

두 번째 위계화 원리는 유사성에서 차이점의 주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복수의 이본을 대화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먼저 유사성이 있는 이본에서 시작하여 차이점이 큰 이본의 이해로 나아가도록 한다. 차이점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떤 부분부터 주목하여 그 변별성을 논해야할지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심청전>을 예를 들어 인물 형상화의 차이를 확인한다면,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을 비교하여 심청의 형상화를 비교할 수 있다. 두 이본군은 발생 시기도 가깝고 전체적인 삽화나 미학에서 유사하지만 [심팽규 군] 이후에 발달한 [심운 군]에서는 심청 내면의 심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유사성이 높은 이본 사이에서 차이점을 변별할 수 있다면

22) [심팽규 군] “그러구로 흥선날리 다다련이 심천이 할 수 읍셔 부친전의 옛조오 되 삼철이복 갖추 지여 혼 농 안의 너흔신이 철철리 니여입고 현 보션볼 바다서 못당 식기 여허신이 날리 츽거든 니여신고 먹든 양식 나마신이 이웃집의 쌀을 부치 찌찌로 잡수시고 불칙흔 여식 혼나 읍다고 세지 말고 평안이 겨시옵쇼셔” <박순호 43장본, 329쪽>

[심운 군] “잇찌의 심청니는 으탁읍는 망인부친 속절 읍시 이별히고 죽을 일을 식각하니 쥬야로 낙누하며 제의 부친 입던 의복 셔답 썰니 정니하여 스절의복 쓰지 흘 제 혼 솜을 골나노아 동복 세 별 지여노와 혼 말리 나 혼나 죽은 후의 앞 못보논 늘근 부친 그 뉘라셔 위홀고 접웃 혼 별 적습 두 별씩 지여녹코 혼 파립 쓰지하여 죠식갓근 다라노코 혼 망근 압을 갈라 관조당줄 맞치 다라 손 단논 디 걸어두고 혼 보션 곱게 지여 지임 잡어 미여노코 저의 부친 잠든 후의 빅발머리 이 죽이며 이통흔 말리 불승흔은 우리 부친 외쌀 심청 나 죽은 후의 뉘을 의지하옵시며 기흔니 즈심흔들 죠식봉양 뉘가 하며 스절의복 썰니 뉘 손 빌어 혼 잔 말가 <사재동 30장본 (B), 351~352쪽>

완판과 같이 심청 형상화가 대단히 달라져 있는 이본을 통해서 변별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위계화 원리는 두 개의 이본에서 그 이상의 이본 비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의 예와 같이 심청 형상화의 통시적 흐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두 개의 이본에서 출발하여 추가적으로 이본을 더해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위계화의 원리는 발생 순서 상 서로 가까운 이본에서 먼 이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성이 높은 이본에서 차이점이 높은 이본의 비교로 나아간다는 위계화 원리와 때때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분에서 전체로, 유사성이 높은 이본에서 차이점이 높은 이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위계화 원리는 모두 수월성에 기반한다. 따라서 네 번째 위계화 원리는 무조건 발생 순서가 가까운 이본에서 발생 순서가 먼 이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는 이본들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발생 순서가 가까울 경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가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한 위계화 원리이다.

이러한 위계화 원리를 종합하여, <심청전>을 예로 들자면 먼저 인물 형상화의 이해를 목표로 이본 간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심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흐름인 N 그룹 이본군 가운데 먼저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을 비교하거나, 심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형상화하는 흐름인 P 그룹 이본군 가운데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 비교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다. [심팽규 군]과 [심운 군]은 모두 가사체 <심청전>으로 장르적 속성이 유사하며 발생 시기가 가깝다.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도 모두 판소리체 <심청전>으로 장르적 속성이 유사하고, 발생 시기가 가깝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비교가 더 수월할 것이다.

이후에는 [심맹인 군](N)과 [심팽규 군](P)의 A쌍, [심운 군](P)과 [심학규 군](N)의 B쌍, 신재효 본(N)과 송동본(P)의 C쌍과 같이 시기 상 가까운 짝패를 선택해 심봉사 형상화를 둘러싼 차이점 및 다성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발생 순서	장자 계열	장자 부인 계열		장승상 부인 계열			
				'시비 따라' 없음		'시비 따라' 있음	
문체	가사체			판소리체			
이본 및 이본군	심맹인 군	←	←	심학규 군	신재효 본	N 그룹	완판
	P 그룹	심팽규 군	심운 군	→	→	송동본	
		A		B		C	

<표 4> <심청전> 이본 비교의 순서

이 다음에는 N과 P에 각각 하나의 이본군을 더하여, 즉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 쌍에는 [심맹인 군]을 추가하고, [심팽규 군]과 [심운 군] 쌍에는 송동본을 추가하여 각 흐름을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서로 다른 각 의견이 어떤 식으로 독자의 지지를 받아 반복, 확장되었는지 확인해본다.

이렇게 추가되는 이본이나 이본 군 사이에는 표에서 보듯 발생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차이에 다른 흐름이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살펴본다. 즉 N 흐름의 변모에 P 흐름인 [심팽규 군], [심운 군]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P 흐름의 변모에 N 흐름인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서 두 흐름 사이에 대화적이고 교호적인 작용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독자의 응답성이 한쪽의 목소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성성을 고려하여 대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학습자가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사가 이본군 변모의 흐름을 알려주고 통시적 순서대로 이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에는 통시적 순서를 알려주지 않은 채 탐구를 통해 이를 파악하는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심청전>을 가지고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를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목표를 전제하자. 이 경우는 [심팽규 군]과 [심학규 군]을 비교하거나, [심학규 군]과 신재효 본을 비교하는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본 비교의 첫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로, 학습자가 미리 무엇이 선행하는 이본이고 무엇이



나중에 발달한 이본인지 알고 이본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N 흐름과 P 흐름 속에 이본군을 각각 추가할 때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새로운 이본 혹은 이본군이 원래의 짝패에 선행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통시적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4.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

앞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크게 ‘작품 이해의 심화’, 이본 변모와 관련한 ‘향유층의 이해’로 구도화하고, 그에 따라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의의를 ‘인물과 주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획득’, ‘고전소설의 속성에 기반한 문학문화에의 참여’, ‘소설의 대화성과 소설 수용의 윤리성 경험’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모형으로는 과제의 특성상 ‘안내된 탐구학습’을 들고, 학습자가 자료를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이본 자료를 비교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본 비교의 활동의 위계화 원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의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구도, 의의, 방법을 고려하여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교육내용으로는 크게 ‘주제’와 ‘인물’의 대화적 이해를 제시한다. 각각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작품 이해를 심화하고, 이본에 대한 메타적 이해를 통해 당대 향유층의 대화적 이해를 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작품을 자기화하면서도 전승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화적 이해가 문학문화에 참여하고, 좋은 삶과 세계 구상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대화적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고전소설의 주제를 대화적으로 이해하기

###### 1) 화제 파악을 위한 텍스트의 담화 분석하기

독자가 주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설에 대한 대화적 이해가 필요한데, 텍스트에 다성성에 주목하여 대화의 화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의 다성성은 크게 ‘대화화된 담화’와 ‘작가와 인물의 다성적 목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주제의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대화화된 담화’를 파악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소설은 제재뿐 아니라 소설의 담화 형식, 즉 대화적인 담화를 통해서 독자가 주제를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바흐친이 보기에 타인의 담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타자의 담화를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내적 대화를 통해 시험을 거쳐 받아들인다.<sup>2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전소설에는 권위적 담화, 의문이 허용되지 않은 담화가 있고 대화화되고 있는 담화가 있다.<sup>24)</sup>

[심운 군] “불상타 심창니여 범인과 갓트면 저의 부친 경상 보고 엇지 츄마 갈리요만 본디 심창은 출천지효라 부모 위로할 분 안니라 일enni 증천금니라 엇지 그런 효여가 죽기를 악기리요” <사재동 30장본 (C), 381쪽>

[심학규 군] “손목을 부여잡고 낙누로 이별하니 치봉악과 흥연악니 츄미질을 부여잡고 이 이 심천아 부친 위히 죽난 거도 효힝니라 헝건만은 이변 일을 심각힝니 불효힝기 칭양업다 압 몯보난 부친 두고 너 가면 저 죽단 말가 스고무친 저 늘근니 외손봉스 바리드니 너 몯 헝나 저러힝니 휴스가 가연헝다 마리아 올타마은 스시가 무가니라” <김광순 41장본, 169쪽>

위에서 보듯 <심청전>의 이본들의 경우는, 대화화되고 있는 담론이 효 자체가 아니라, 효의 실행 방법이다. 시험을 거치고 있는 담화, 대화화된 담화는 주제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 즉 무엇이 화제가 되어 대화화되고 있

23)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56~180쪽.

24) 역사적, 사회적 변모에 따라 권위적 담화는 그 권위를 잃기도 한다. <심청전>의 근대적 패러디 작품은 ‘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권위 있는 담화이나 아니냐의 여부는 작품 안에서 시험을 거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느냐를 보여준다. 이렇게 화제를 드러내는 담화는 밑줄 친 부분처럼, 홀목소리가 아니라 겹목소리로 나타나며 다성적인 작품일수록 겹목소리는 숨겨진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는 타자의 담화가 소설 속에서 인용되는 방식과 의도를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담화의 유형을 지도하고, 이본의 담화 분석을 시범으로 보여야 한다. 이때 소설의 담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교수해야 한다.

- ① 등장인물의 말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서술자를 통해 매개된 말이라는 점
- ② 서술의 의도에 따라 남의 말의 인용 여부를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는 점
- ③ 인용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숨겨진 논쟁의 경우에 선후 이본을 비교하여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보일 수 있다.

[심운 군] “이 집 저 집 바라보며 지웃지웃 엿보면서 이 집 저 집 드러갈 제 주저하여 한 엽폐 빗겨서서 아미을 슈기고서 이연이 간청하며 혼 술 밥을 이걸하니 스정읍고 몹실 집에 효녀 심청 몰나보고 괄세가 조심하다 귀찮타 오지 만나 보기 실타 누가그라 혼 술 밥을 아니 슈고 모진 말노 쫓차니니 염치 닛는 심청 마음 복그럽기 칭양 읍고 슬프기 그지 업다 목이 며여 도라스며 낙누하고 도라올 제 임지갓치 모진 지난 심청을 물야 하고 우둥그려 달여 드니 심청이 도라서며 업다 이 기야 너의 주인이 괄시헌덜 너조차 물냐 혼나 문박게 썩 나서며 한심 짓고 낙누하니 ○일월이 무광홀 제 창천년들 무심홀야 병신 부친 싱각하야 이 스럼을 시알리짜 여기 저기 밥을 빌 제” <박순호 19장본, 350~351쪽>

[심학규 군] “동지 셋달 추운 날이 남누의상 박착하고 현 바가지 손이 들고 삽작 박기 썩 나선이 횡할 고지 전혀 업다 염치을 불고하고 상하춘 두로 단이면서 지성으로 밥을 빈이 ○심낭자 극진효성 뉘라셔 박디할가” <정명기 65장본, 64쪽>

인물의 말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서술자를 통해 매개된 말이라는 점(①)은 ㉠을 통해 알 수 있다. ㉠은 심청의 말인지, 서술자의 말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물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목소리의 상호 침투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긍정적으로 그리려는 인물일수록 인물의 목소리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술의 의도에 따라 서술자가 자신이 다른 말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는 점(②)은 ㉡을 통해 보일 수 있다. ㉡은 첫 번째 인용문에 나타나는, 이전 이본군의 동냥 박대 삽화를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하면서 동냥 박대 삽화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숨겨진 논쟁, 능동적 접목소리는 이전 이본과의 비교 없이는 상당히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통해 ③과 관련하여 이본 간 비교 활동의 필요성이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왜 ㉡과 같이 동냥 박대 삽화를 소거하면서도 동냥 박대 삽화를 부정하는 언급을 남겨놓았는지, 서술자의 의도를 주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담화가 가지는 의도와 효과는 독자의 공감이나 반감을 일으키는 등, 독자의 응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교수해야 한다.

## 2) 응답성에 주목하여 주제 구성하기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텍스트의 다성성 파악을 위한 대화 분석 방법을 익힌 후에는 ‘가설 설정하기’ 단계에서 텍스트의 다성성을 기반으로 대화화 되고 있는 화제를 확인하여 주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이후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같은 화제에 대해서 상이한 이본의 서술과 삽화를 통해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응답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텍스트를 하나만 살펴 보았을 때에는 텍스트의 다성성이 무언가에 대한 응답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이본을 대화적으로 이해할 때에야 이본이 무엇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읽고 있는 대상 이본이 전체 작품의 대표하기도 하지만 모든 이본이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공통의 화제와 특정 이본의 특수한 문제 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이본과 비교하여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학습자들이 같은 스토리를 왜 반복해서 읽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도록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의 속성, 그 소통 방식과 대화성에 대한 교사의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또 하나 교사가 안내해야 하는 부분은 제시된 여러 이본 가운데 어떤 이본과 비교하여 읽을 것인가이다. 교사는 학습 목표에 따라 이본 비교 활동의 위계화 원리를 적용하여 적절한 이본을 제시한다.

제시된 이본을 통해 학습자가 가설을 설정한 후에는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 독자의 응답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비교 방식이 요구된다. 하나는 계열체적 방식으로 동일 장면에서의 서술 변모를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체적 방식으로 삽화의 출입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앞서 심청 동냥 장면의 대화 유형 분석 시에 사용한 방식이다. 둘째는 여러 장면을 연결하여 통합체적으로 그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통합체적 비교 읽기의 방식은 특히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삽화가 생겨났을 때 왜 이러한 장면이 생겨나게 된 것인지, 이를 텍스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독자의 응답성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대안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장면을 통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끼이리 도라오면 축시리 제스히고 분상의 돛난 풀을 니 손으로 별쵸하야 호천망극 그 은혜를 만일이나 갑지씨니 이제난 하릴업서 슈증고혼 될 터이니 불쌍헌 우리 모친 스명일은 고스히고 제스날리 도라온들 보리밥 혼 그릇슬 뉘가 츠려 노와 쥬며 쇼증 우양도의 이 무덤을 뉘 말이리 빅양 부득노의 막 막야전 될 거시오 죽어서 혼이라도 모친 얼굴 보즈헌덜 모친 얼굴 니 모르고 니 얼굴 모친 몰나 서로 의심힐 터인디 슈륙리 달나씨니 혼인들 만나것쇼 니 손의 치린 제물 망종 흠향호읍쇼셔” <신재효 본, 17~18쪽>

“진어스씩 관디 훈 별 흥비의 학을 노타 못 다 노코 보에 쓰셔 농 안의 너  
어씨니 남의 집 중훈 옷슬 죽기 전의 보니웁고 뒷 동니 귀덕엄이 정친하게  
단여씨니 어린 아히 안꼬 가서 젓 좀 메겨 달나 흥면 괘시 안니 흥오리다 천  
횡으로 이 즈식이 죽지 안코 즈라나서 제 발노 덩기거든 압세우고 길을 무려  
니 무덤의 츠자와셔 아가 아가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무덤이다 즈상이 가리쳐  
셔 모녀 숭봉하게 흥오(중략)

여보시오 봉스님 이 아히 일흠일냥 심청이라 지어 쥬오 청썩난 눈망을 청  
썩 우리 부부 평싱헌니 눈 업난 게 훈이오니 이 즈식이 즈라나서 아비 압플  
인도흥면 고즈숭이 될 거시니 눈망우리 그 아니요 쥬 쥬랴고 지은 굴네 오식  
비단 금즈박이 진옥판의 흥사 슈실 진쥬 느낌 부전 다라 신흥함의 두어씨니  
날 본 다시 씨여 쥬고 슈복강영 식인 큰 돈 고은 흥전 괴불쥬치 쓴을 다라  
두어씨니 그것도 치여 쥬오” <신재효 본, 8~9쪽>

“부인이 울며 왈 나는 죽어 귀이 되야 인간 심각이 망연하다 네의 부친 너  
를 키여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정상이 오직하랴  
늑기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일은 셔름의다가 비길손야  
못노라 너의 부친 궁곤의 쓰이여서 그 형용이 엇더하며 응당이 만이 늘거쁘  
리라 그간 수십 연의 면환이나 흥여쓰며 뒷마을 귀덕어미 네게 안이 극진턴  
야 얼골도 디여보며 수족도 만져보며 귀와 목이 희여쓰니 너의 부친 갖도 갖  
다 손과 발리 고은 것은 엇지 안이 니 짚이라 니 씨던 옥지환도 네 지금 가  
져쓰며 수복강영 티평안락 양편의 시긴 돈 흥전 괴불 쥬치 청흥당사 별미답  
도 익고 네가 찾구나 아부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쌍전키 어려울손 인근고  
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네의 부친을 다시 만날 주를 네가  
엇지 알것난야 광흥전 맞든 일리 직분이 허다 흥야 오리 비기 어렵기로 도로  
여 이별하니 이둘코 이연하나 임의로 못하니 흥툰흥들 어이홀손야 일후의  
다시 만나 질길 날리 잇스리라 흥고 썰치고 이려서니 쇼제 만류치 못하고 팔  
을 기리 업난지라” <완판 71장본, 248~249쪽>

<심청전>을 사례로 들자면, 옥진부인 삽화를 들 수 있다. 신재효 본은 심  
청이 자신이 죽으면 모친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알아볼 수는 있을까 하  
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심청의 내면을 그린다. 또한 꼭씨 부인 유언 장면을  
더 애절하게 확대한다. 완판은 이 두 장면을 연결하여 용궁에서 심청이 옥진

부인이 된 어머니를 만나는 새로운 삽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 장면을 비교하는 활동보다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이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교사가 특정 장면을 주목할 수 있도록 발문과 삽화 출입표 등의 자료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스스로가 삽화 출입표를 채우도록 할 때에는 단순히 학습자가 표를 채우는데 몰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왜’ 이 삽화가 생겨났고 사라졌는가를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화제’와 관련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즉 독자가 서로 다른 이본을 비교하여 이를 메타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독자의 응답성이 이본 파생의 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독자의 대화적 이해를 구성할 수 있게 격려한다.

계열체적인 방식과 통합체적인 방식을 통한 독자의 응답성을 구성하면서 학습자는 작은 변모가 큰 변모로 이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이 만든 작은 변화가 공동 창조를 통해 작품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점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지식의 차원에서 전달하기보다는 실제로 학습자들이 모둠을 통해 공동 창조하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이러한 공동 창조의 방식이 바로 이본이 파생된 과정임을 교사가 학습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언급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탐구학습을 동료들과 함께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의의는 교수 방법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전승사의 관점에서 구성한 주제 평가하기

상이한 이본을 통해서 특정 이본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였다면 이것에 대한 메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소설의 이본의 역사가 다른 아닌 작품에 대한 대화의 역사라면 대화적 이해의 마지막 활동은 ‘비평하기’이며 이것이 대화적 이해의 최종 심급이다. 여기서는 근대에 들어 지식층과 현대 작가의 <심청전>에 대한 인식을 계보학적으로 살핌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한 이본의 주제를 메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청전>은 <춘향전> 다음으로 필사본이 많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지만 한문본이 없는 국문소설로서, 여성 및 하층민의 통속 문학에 해당되었다. <심청전>을 개작하여 <강상련>을 쓴 이해조가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sup>25)</sup>라고 비판한 것만 보아도 1910년대까지만 해도 <심청전>은 민족의 고전이라기보다는 통속물에 불과했다. 이후 1920~30년대에 알렌(Allen)과 게일(Gale)과 같은 외국인들이 <심청전>을 번역하고 출판하였다. 이들은 <심청전>과 아울러 일련의 고전 국문소설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후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sup>26)</sup>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미천한 소녀로도 덕행의 응보로써 능히 왕후의 존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도 데모크라시 정신의 일 발로이다”<sup>27)</sup>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주제가 근대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춘향전>과는 달리, 기실 <심청전>에는 근대 이념에 딱 맞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세기 초부터 후반까지 한반도의 격변의 시기 동안, <심청전>의 핵심 주제인 효 이념은 때때로 가족을 위해 딸을 희생시키는 부조리한 현상에 프로파간다로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심청전>의 근대적 패러디는 <심청전>이 추구한 가치가 통하지 않는 근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채만식, 오태석, 최인훈, 황석영으로 이어지는 현대 작가들은 공히 <심청전>에서 용궁을 삭제하면서 초현실계의 보상을 지워버렸다. 심지어 팔려간 심청, 창녀가 된 심청으로까지 심청의 비극은 극대화되어 그려졌다. 패러디뿐 아니라 근대소설에도 희생자로서의 심청의 그림자는 깊게 드리웠는데, 이광수의 <무정>에 등장하는 박영채에게서도, 채만식의 <탁류>에 등장하

25) 이해조, 『자유종』, 광학서포, 1910, 11쪽.

26) 강상순은 1920~30년대 들어 고전소설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과정에서 이방의 선교사에 주목하여 이들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었다고 보았다.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66~67쪽.

27) 김태준, 박희병 교수,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7, 147~148쪽.



는 초봉에게서도 심청을 읽어낼 수 있다.<sup>28)</sup> 근대 지식인들이 춘향이 유교적 열(烈)을 실천하면서도 봉건 사회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춘향전>을 주목했다면, 심청은 유교적 효를 빌미로 근대 사회에서 세계에 희생되고 마는 인물의 모티프가 되면서 <심청전>이 주목되었던 것이다. 작가들뿐 아니라 <심청전>을 비판적으로 읽는 연구자들도 심청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심봉사나 공동체의 숨겨진 욕망, 유교 사회가 심청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청전> 독자의 해석의 지평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급격히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학습자의 고전소설을 바라보는 지평도 <심청전>을 바라보는 근대 지식층과 현대 작가들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이러한 지평의 간극에 다리를 놓는 것 이어야 한다. 황혜진은 전통문화의 요체가, 유산으로 전해내려 오는 가시화된 실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라고 하면서 전승사적 관점에서 고전소설 개작의 가치 평가 기준을 논했다.

“<심청전>은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봉사가 후대로 올수록 희화화되는 이본 형성의 과정은 효라는 인륜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비속한 심 봉사의 표상을 매개로 제시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맹목적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심청전>의 이본들은 심청 이야기가 문제 시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고민하면서 나름의 답변을 내어놓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때, <심청전>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화된 가치로서 효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이 제기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현대의 문제로서, 자기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자체의 이월이 될 것이다.”<sup>29)</sup>

<심청전>이 제기한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는

- 
- 28) <추풍감별곡>, <무정>으로 이어지는 딸의 희생 모티프는 서인석, 「채봉-너는 내 운명! 채봉과 장필성」,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참고.
- 29)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주제 비교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2007, 238~239쪽.

해석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논자처럼 ‘효라는 인륜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효라는 가치가 불효라는 수단을 정당화 해줄 수 있는가’, ‘극빈과 장애에 놓인 개인에 대해 공동체는 얼마나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효행을 받으려면 부모도 일정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이 다양한 문제를 <심청전>의 화제로 파악하여 이들과 관련하여 각각의 주제를 내놓을 수 있다. 본고가 이 논자의 주장에서 보다 주목하는 바는 이본이든 개작이든 고전소설의 주제에 대한 대화적 이해는 ‘말 걸기와 응답하기’의 대화적 구조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 걸기와 응답의 화제는 학습자의 처한 현실에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월된 문제’ 즉 작품의 전승사 속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진 문제와 접점을 가질 때에라야만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이본을 비교하여 작품의 주제를 구성할 때에는, 고전소설이 제기하는 화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포착하든 간에, 다양한 이본의 전승을 통해 이월되는 문제와 자신이 구성한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대화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고전소설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관점을 전승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중심적 사고(presentism)<sup>30)</sup>를 넘어서서 전통을 계승하는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면 대화적 이해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다.

## (2) 고전소설의 인물을 대화적으로 이해하기

### 1)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인물 형상 파악하기

30) 바흐친 연구자로서 문학의 대화적 이해를 주장한 게리 모슨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능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대신 왜 저자들이 현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했을 법한 타당한 비평을 상상해보지 않는지 반문한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다른 관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학은 쉽게 의미를 잃고 만다고 하면서 현대인들의 사고에 부합되는 것을 과거의 문학에서 찾아내어 읽어낼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독서물로부터 과거인들의 신념을 발견해낼 것을 요구한다. Gary Saul Morson, “The World of Others,” *Journal of Russian and East European Psychology*, vol 49, no 2, 2011, 7~8쪽.

일반적으로 소설의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 다른 등장인물의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 세계와 인물과의 관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심청전>이라면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적 서술, 주변 인물의 심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초월계의 심청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물을 여러 이본을 통해 조명하면서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인물 사이에 길항하는 목소리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가가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시(斜視)적 시선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성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주목을 요한다.

[심맹인 군] “적선하난 부인들리 불상이 성막하야 입던 이상 버셔 규며 날 치운디 이거시나 입고 방풍이나 하여라 심청의 어딘 마음 저 입을 듯 아니 두고 어더 온 현 이복을 칼칼리 서답하여 쪽쪽 이셔내여 저의 부친 현 이복을 이리 딛고 저리 디워 치읍시 안토록 봉친한다 저 입은 의복 불작시면 안난 나문 접저구리 말만 나문 마포 초미을 이리저리 둘러 닐고 불피풍우 핑길 하니 불상코 갈련한 청상 차마 볼 수 업난지라 심봉사 남갓치 보거드면 아모 쫓록 오슬 어더 어엿쑤 심청니을 입피련마난 봉스라 할 슈 업드 허더라” <고려대 신암문고 낙장 27장본, 251~252쪽>

[심맹인 군] “아부님 비곱푼디 이 밥 먹소 심망인 일은 말리 아셔라 밥도 닐스 슬타 심청이 설어 울며 이거시 원 말인가 자식이 어디 가서 올이 잇고 아이 와서 노정인가 근촌 밧벌기 염치 업서 오날은 멀이 가서 밧벌자 하니 자연니 더디 완니 노정 풀고 니 밥 먹소 심망닌 닐은 말니 니 아모리 병신인 들 너가튼 자식으게 추효나 노정 둘라” <박순호 낙장 36장본, 287쪽>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하나의 이본 안에서 서로 길항하는 목소리의 사례를 통해 텍스트의 다성성이 독자의 응답성을 유발함을 교수하도록 한다. 고전소설의 경우는 서술자가 거의 작가에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서사 세계를 전달하기 때문에<sup>31)</sup> 작가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인물과 작가의 길항하는 목소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인물 자신의 목소리나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숨겨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화적 담화 유형에 유의하여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 평가나 논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지도한다.

아울러 교사는 독자의 응답성에 기반하여 여러 이본의 인물 형상화를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독자의 응답 욕구가 크게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독자가 인물에 공감하여 인물을 이해하고 인물이 놓인 상황에 관여하고자 하는 욕망에 주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자가 선행하는 이본의 인물 형상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사의 합리성을 더해 인물 형상화를 더 세련화하려는 욕망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독자의 응답성이 이본 파생을 추동하는 큰 동기이므로 학습자가 이를 알고 인물 형상화 변모의 동기, 계기, 의도, 지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가설 설정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인물 평가에 대해 작가와 인물 자신의 길항하는 목소리가 왜 일어났는지, 인물에 대한 응답성이 인물에게 공감하려는 욕구와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 2) 응답성에 기반하여 인물의 변모 파악하기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가설과 관련하여 인물에 대한 텍스트의 다성적 평가가 여러 이본들에서는 어떠한 응답을 낳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미 학습자들은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같은 인물(character)에 대해서 다른 서술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인물의 인격(personality)이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음을 배웠다. 따라서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사한 상황에 가설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독자의 응답성을 텍스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소개한 독자의 응답성에 기반하여

31) 물론 <운영전>과 같은 액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전기소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문소설은 서술자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한다.

주제를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동일 장면의 서술과 삽화를 비교하는 방법과 여러 장면을 통합체적으로 연관지어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그리고 독자의 응답성을 구성할 때에는 ‘인물에 대한 공감’과 ‘선행 이본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한다. 먼저 인물에 대한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응답성은 특히 인물의 내적 대화와 목소리를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을 주목하도록 한다. 같은 장면이지만 인물의 행위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경우를 통해 학습자가 해당 이본이 그러한 서술 전략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추구하였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또한 같은 장면에서의 서술의 초점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부분과 부분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인물의 형상화 변모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한편 작가와 인물 자신의 목소리가 길항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인물의 경우는 서로 다른 장면의 형상화가 통일된 인물 형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텍스트의 다성성은 이본 파생을 거치면서 소거되거나 극대화되는 두 양상을 띤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응답성이 다성성을 내포하는 양상이 더욱 복잡해져 통일된 인물 형상화를 포착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선행 이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욕구가 인물 형상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심운 군] “이고 답답 썩덕엄미 어디 간고 이고 이 연 안니온다 윗팔 심청 죽근 후의 썩덕엄미 널얼 밧고 막디 삼마 단니던니 날 바리고 어디 간고 눈 썩 가증 비반키도 츠마 못할 거시여던 압 못보난 날 발이고 어디을 갓단 말 가 망극히 통곡한덜 썩덕엄미 간디 읍다 심봉스 할길 읍셔 놓퓌 디 집퓌 디 가라치리 전혜 읍셔 업더지며 잡바지며 계오 차즈 가다가 증노의셔 도적을 만나 의복도 일코 진만 나문 혼 베도포 혼 증의 뒤치 음난 혼 집척이 살밭의 썩여신고 집팡막디 것덜 집고 우름으로 질을 차즈 히지면 비어 썩고 날리 시면 걸식히고 계요계요 질얼 츠즈 황성을 다달나 갈 제” <사재동 34장본, 419 쪽>

[심학규 군] “현철현 우리 부인 죽난 양도 보고 살고 어엿분 니 쌀 심청 슈 증에 죽이고도 잊찌까지 스크거든 너?짓연 일코 혈마 니? 죽긴난야 너 갖 튼 몫실연을 싱각홀 잡눔 입다 집평막디 츠즈 집고 초수로손 험헌 길에 더듬 더듬 츠즈 갈 제 수십이 흥보호미 다리도 앗풀박게 이복에 짬이 차서 썸금호미 심흔지라 청계슈 다달나서 목욕을 호라호고 이복을 버서 늦코 쫓여드러 씨을 모다 씨은 후에 영금영금 나와보니 이복 관망 버선 신발 간 고지 업난 지라 (중략) 흥창 이리 통곡할 제 바람길의 드리보니 난디 업는 빅져쇼리 들 니거날 속마음의 싱각호되 올타 올타 어느 고을 관장이 오나 부다 호날이 문 어저도 소사날 곳 잇다더니 과연 헛말 안니로다 아모리키나 쫓차가서 억지나 씨보리크 어느 고을 관장인지 썸을 잘 못 쫓다 두눈을 번드기며 도시르고 안 잣더니 앗프로 지니거날 염치을 불고호고 경청 쫓여 달여드러 길을 막고 옹 드리니 호인으 혼금쇼리 성화 갖치 엄금호니 심봉사 호령호되 니가 비록 이 려 망정 나라의 명을 바다 잔차 가난 양반일다 니의 목을 몇식이나 가짓난야 할디로 호여보라 이렷타시 힐난할 제 원니 듯고 호난 말이 저 밍인 그 뉘신 고 무삼 쇼희 잇거던 자침이 아뢰여라” <사재동 낙장 33장본, 478~480쪽>

인물에 대한 공감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 형상화 변모 사례로는 ‘황성 가는 길’을 들 수 있다. [심운 군]에 비해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심학규 군]이 왜 심봉사를 독립적인 인물로 그렸는지 ‘서사의 세련’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서사적 합리성 때문이다. 심청이 용궁에 머무는 시간이 삼 년으로 나타나는 이본의 경우에는 심청 없이 삼 년을 보내야 하므로 심봉사가 의존성을 버리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그려야 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사의 흥미 때문이다. 목욕 삽화가 나타나는 <심청전>과 그렇지 않은 <심청전>을 대비해보면 전자는 ‘황성 가는 길’의 서사적 긴장이 떨어져 지루하게 느껴지나 후자는 목욕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심청과 관련된 의미 때문이다. 심청 희생이 불러일으키는 ‘색난’의 문제를 심봉사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립하여 어떻게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개작자가 인물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보

이지 않는 경우에도 ‘선행 이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더 세련된 서사를 만들기 위해 인물 형상화를 변모시킨다.

이처럼 ‘대화적 이해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인물을 이해하는 관점을 다각도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3) 인물 형상화 변모의 윤리성 파악하기

Ⅲ장에서 <심청전>의 대화적 이해가 각각의 인격적 주체를 둘러싸고 그들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관련한 텍스트 내부의 공동체의 윤리성과 독자들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한편 <심청전>의 패러디물이나, 여성 주인공이 심청과 같은 효녀의 모티프를 따르고 있는 근대소설의 경우, 윤리적 인물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인물의 삶이 파괴되는 비윤리적 사회를 고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고전소설 <심청전>은 인물과 세계의 ‘윤리성’을 따지고 있는 데에 반해, <심청전>과 관련된 근대소설들은 세계의 ‘비윤리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윤리성은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한다.

학습자도 자신이 구성한 인물에 대한 대화적 이해를 윤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각 이본들이 해석 공동체 윤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고전소설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 타자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윤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독자의 소설에 대한 응답은 크게 인물과 선행 이본의 지향에 대한 평가를 구심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인물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고전소설의 인물의 이해는 두 가지 문제점을 보이기 쉽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로 인물 이해가 ‘착하다, 나쁘다’의 단순한 인상에 그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극복하려는 듯, 고전소설의 인물에 대한 선악의 평가를 뒤집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시도가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해보고자 한다. <심청전>에도 악인이 등장하는데 뽕덕어미가 대표적이다. 이를 뒤집어보려는 시도는 ‘뽕덕어미는 당대 사회의 하층여성을 표상하며 그녀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이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 이해는 <심청전>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심청전>의 초기본에서는 심청 역시 하층민이었으나 독자들의 공감과 보상의 욕구에 의해 그녀는 점차 신분이 상승되어 그려진다. 그러나 뽕덕어미에게서는 이러한 신분 변모를 찾을 수 없다. 즉 <심청전>의 수용의 역사에서 뽕덕어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적이 없다. 또한 뽕덕어미는 기능적으로도 <심청전>의 주요 화제와 관련되어 분석될 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인물에 대한 평가적 이해를 내릴 때에는 대화적 이해, 즉 전승사를 고려한 말 걸기와 응답의 구조에서 이를 평가하고, 특히 그 인물의 윤리성에 대해서 수용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와 연관해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지평에서 당대 지평을 재단하는 가치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물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변모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우리의 기대지평에서는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의 인물 이해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점, 즉 인물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경향도 교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여러 이본을 함께 읽음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하고 각 이본 사이의 관계를 메타적으로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이본군으로 존재하는 작품의 의미를 대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I 장에서는 대화적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이 이본으로 존재하며 원작의 개념이 희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현상을, 수용과 창작을 연계된 활동으로 보는 문학교육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을 선택하고 ‘대화성’을 소설의 속성으로 본 바흐친의 논의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이에 근거하여 이본 파생이 작품이 제기한 화제에 대한 ‘말 걸기와 응답’의 구조, 즉 ‘대화’의 구조를 띠고 있음을 밝혔다.

II 장에서는 대화적 이해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로 대화적 이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였다. 대화적 이해의 원리로는 텍스트의 다성성과 독자의 응답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는 대상인 텍스트 자체의 다성성을 파악하는 것, 서로 다른 이본을 비교하여 독자의 응답성이 일어난 계기와 의도를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여러 이본이라는 다양한 응답을 일으킨 하나의 작품군의 의미를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밝혔다. 한편 독자의 응답성과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과의 연관 관계를 고찰하였다. 작자이기 전에 독자인 개작자는 소설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에 대한 응답을 드러내었는데 특히 공감을 통해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계발함으로써 이본을 파생시켰다. 또한 선행본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도 새로운 이본을 파생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III 장에서는 <심청전>을 사례로 하여 대화적 이해의 양상을 인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심청 중심의 대화적 이해는 ‘이효상효’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심봉사 중심의 대화적 이해는 ‘아버지다움’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심청전>은 심청이 효를 실행하면서 제기된 갈등, 즉 ‘이효상효’ 화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응답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본이 파생되었는데, 심청에 대한 응답성은 크게 인물에 대한 공감과 서사의 합리성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대화의 상상적 구성’, ‘인물의 소망 이해와 그의 충족’, ‘인물의 논리 강화와 인격의 세련’, ‘주변 인물 추가를 통한 세계의 변모’를 그 대화적 이해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심청전>은 효를 받는 대상인 부모의 자격을 둘러싼 ‘아버지다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독자들은 심봉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공감적 태도’라는 상반되면서도 공존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 두 태도는 모두 심청을 중심으로 한 대화적 이해의 화제, 즉 ‘이효상효’ 화제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청의 희생은 ‘이효상효’의 면모를 가지면서 ‘색난’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독자들은 심봉사를 중심으로 이 ‘색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적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때 ‘부정적 태도’와 ‘공감적 태도’라는 독자의 심봉사에 대한 양가감정(兩價感情)은 심봉사의 개성을 창출하는 복합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심봉사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든 긍정적으로 형상화하든 ‘색난’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심청전>은 보상의 사전제시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심봉사를 타매(唾罵)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일어나면서 심봉사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게 된다.

IV장에서는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을 구도와 의의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은 학습자가 인물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고전소설의 속성에 비롯한 문학문화를 경험하며 소설의 대화성과 소설 수용의 윤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한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의 내용은 크게 주제와 인물을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내용은 공히 탐구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다성성과 응답성의 원리에 주목하여 대화적 이해의 내용을 구성해보고 이를 가치 평가하는 과정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고전소설이 제기하는 문제를 현재의 지평에서 이어받고, 그를 통해 자아 이해와 삶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및 작품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 1~12, 박이정, 1997~2000.

이해조, 『자유종』, 광학서포, 1910.

황석영, 『심청, 연꽃의 길』, 문학동네, 2007.

### 2. 국내 논저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강선옥, 「텍스트 상호성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태평천하>와 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고은정,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권혁래, 「고전소설의 다시쓰기 출판물 연구 시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국문학」, 『어문론총』 3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_\_\_\_\_, 「판소리 사설의 구조적 특성」,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김병국, 「판소리 서사체와 문어체 소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_\_\_\_\_, 「판소리의 문학적 진술방식」,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

- 대학교출판부, 1996.
- 김상욱, 「50년대 소설의 교육적 해석 방법론-손창섭의 <비오는 날>을 중심으로」,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석배,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적 변모」, 김병국 외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 \_\_\_\_\_, 「허흥식 소장본 <심청가>의 특징」,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김성진,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내용 연구 -메타소설화를 통한 수용과 창작의 통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2007.
-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 김정우, 「상호텍스트적 시교육에 관한 연구: 정지용의 시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시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종철, 「가치 이월과 창조 잠재력을 위한 평가-고전문학교육과 평가」, 『문학과 교육』 8, 문학과교육연구회, 1999.
- \_\_\_\_\_,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 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 \_\_\_\_\_,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 \_\_\_\_\_, 「희생과 보상의 거리- <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2.
- 김태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7.
- 김현주, 「판소리 담화의 다성성」, 『고전서사체 담화 분석』, 보고서, 2006.
- 김효정, 「놀부의 샅군, 꾀보형 인물의 기능과 그 변이」,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 \_\_\_\_\_,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운 군의 내용과 특징」,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b.
- \_\_\_\_\_, 「<심청전> 장자 부인 계열 심팽규 군의 내용과 특징」, 『판소리 연

- 구』 50, 판소리학회, 2020a.
- 김흥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조동일·김흥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  
과비평사, 1978.
- 남가영,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건용,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 수용 및 적용에 대한 연구」, 『독어교  
육』 32,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5.
- 박일용, 「가사체 <심청전> 이본과 초기 판소리 창본계 <심청전>의 관련 양  
상」, 『판소리 연구』 7, 판소리학회, 1996.
- \_\_\_\_\_, 「김연수 본 <심청가>의 인물 형상과 미학」, 『판소리연구』 36, 판소  
리학회, 2013.
- \_\_\_\_\_,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 \_\_\_\_\_, 「<심청전>의 가사적 향유 양상과 그 판소리사적 의미」, 최동현·유  
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  
고전문학회, 2003.
- \_\_\_\_\_,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 인식」,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  
문당, 1992.
- 서보영,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 교육 연구 - <춘향전> 이본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심청전> 중 '곽씨부인 죽음 대목'의 변이 양상과 의미」, 『고전소  
설교육 탐구』, 박이정, 2002.
- 서인석, 「<흥부전> 인물 형상의 변모와 그 해석」, 문학과사회연구회 편, 『문  
학과 사회』,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 \_\_\_\_\_, 「채봉-너는 내 운명! 채봉과 장필성」,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

- 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 서종문, 「신재효 연구」,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 \_\_\_\_\_, 「판소리의 개방성」,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 선주원,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 의한 소설교육」, 『청람어문교육』 2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2.
- 성현경, 「심청전론(2)」,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_\_\_\_\_,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 신호림,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유영대, 『심청전 연구』, 문학아카데미, 1989.
- 이강엽, 「효행담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과 공감의 문제」, 『국제어문』 63, 국제어문학회, 2014.
-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2007.
-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외’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筆寫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이흥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 정병욱, 「국문학에 나타난 효」, 『한국 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 정병현, 「이날치판 <심청가>의 성격과 판소리사적 위치」,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 국어교육학회, 2007.
- 정충권, 「경판 <흥부전>과 신재효 <박타령>의 비교」, 『흥부전 연구』, 월인, 2003.
- \_\_\_\_\_, 「놀보박사설의 전승양상」, 『흥부전 연구』, 월인, 2003.

- \_\_\_\_\_,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일상성」,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 \_\_\_\_\_, 「판소리 작품에 나타난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회, 2021.
- 조고은, 「동일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_\_\_\_\_, 「판소리의 장르 규정」, 조동일·김흥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최광석,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서술자 개입 양상과 지평전환」,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 \_\_\_\_\_, 「<심청전>의 공감화 맥락: ‘공/사’의 경계 구분과 공생적 공공성」,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 \_\_\_\_\_,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_\_\_\_\_,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관하여」,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최문규, 「문화, 회상 그리고 문학」, 『인문언어』 2, 국제언어인문학회, 2001.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 최운식,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 \_\_\_\_\_,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 홍태한,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과정 추론」, 『한국무속학』 2, 한국무속학회, 2000.
-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주제 비교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2007.
- \_\_\_\_\_,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채만식의 <沈봉사>」,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2007.
- \_\_\_\_\_,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서사 변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3. 해외 논저

- 게리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92.
- 로버트 스콜즈, 위미숙 역, 『문학과 구조주의』, 새문사, 1987.
- 린다 허치언, 손종흠 외 역, 『각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7.
-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 \_\_\_\_\_,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 \_\_\_\_\_,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 빅터 프랭클, 이시형 역,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2012.
- 소렌 키에르케고어, 임춘갑 역, 『공포와 전율』, 다산글방, 2015.
- 프랭크 렌트리키아·토마스 매크로프린 공편, 정정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 피터 버거,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3.
- 피터 버크, 조한욱 역,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8.

- S. 리몬-케넨,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k, 임청환·권성기 역,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시그마프레스, 2006.
- Assmann, J.,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1st Englis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Bennett T, *Formalism and marxism*, Taylor and Francis, 1979.
- Morson, G., “The World of Others,” *Journal of Russian and East European Psychology*, vol 49, no 2, 2011.
- Watts, M., “The three spheres of human existence (aesthetic/ethical/religious)”, *Kierkegaard*, One World, 2003.

## Abstract

### An Educational Study on Dia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 Novels - Focused on Different Editions of *The Tale of Shim Chong*

Kim, Hyo Jeong

This study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lassical novels by providing educational content that increases readers' meta-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edition of these novels, ultimately allowing the readers to dialogical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a work that exists as different editions. The different editions of the classic novel have dialogic properties, and the phenomenon of derivation of different editions, are noteworthy in literature education, which regards acceptance and creation as connected activities.

Different editions of classic novels are already used as learning materials that help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and subject. However, the genre of classic novel editions itself has a dialogic nature, and is a good example of the fact that the acceptance of a novel is a dialogue structured as a response to a conversation. As a result, editions are oriented toward certain tendencies and transform over time. This phenomenon shows the readers' desire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posed by the

work, or to evaluate which solution is better. Such readers' desire is also a desire to ethically respond to life and the work itself. Therefore, rather than simply teaching how to understand the work using different editions, the dialogical nature of classic novels, which reveals the dialogue between the novel and life through the different editions, must be utilized as a principle in novel education.

In order to make dialogical understanding, which allows a dialogue between the novel and the reader's life, an educational content, this study examines Bakhtin's concept of "dialogue." Bakhtin did not limit language to a system, nor dialogue to communication. To Bakhtin, the meeting of art and life is as personal as a dialogue, never an interpretation of a code. Also, understanding an object is to understand oneself through it. His focus on intersubjectivity shows that dialogue is also related to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dialogue participants.

Based on such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dialogue, this study presents the polyphony of the text and the readers' responsiveness as key principles in dialogical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ers' responsiveness and the derivation of a different edition of a classic novel is examined by looking at what the reader focused on when creating a response.

Then, this study applies these dialogic principles to *The Tale of Shim Chong*, which has multiple manuscripts of different editions, and examines dialogical understanding in detail. *The Tale of Shim Chong* illustrates a problematic situation where a conflict is caused by filial duty, and it reveals this in a polyphonic manner. Various editions of this novel present a response to the topic raised by the

polyphony of the original novel.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readers primarily respond to the work through the characters,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dialogical understanding through the two main characters, Blind Shim and Shim Chong. Firs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esponses to the topic raised by the polyphony of the text differ for each character. Then, it examines the kind of dialogical understanding the responsiveness develops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the novel.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dialogical understanding and confirmation of its specific aspec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and design the content of education on dialogical understanding of classic novels. This content will allow learner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and subjects, experience the literary culture based on the properties of classic novels, and experience the dialogical nature of novels and the ethics of novel acceptance. This educational content will be comprised of content that allows learners to dialogically understand the characters and the subject,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dialogical understanding, and to evaluate the different dialogical understandings of different editions. Through this, the learner will ultimately inherit the problems posed by classic novels in modern times,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ble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both themselves and life.

Key Words : dialogue, dialogical understanding, ethics, valuation, responsiveness, polyphony, education of Korean classic novels, *The Tale of Shim Chong* , different editions